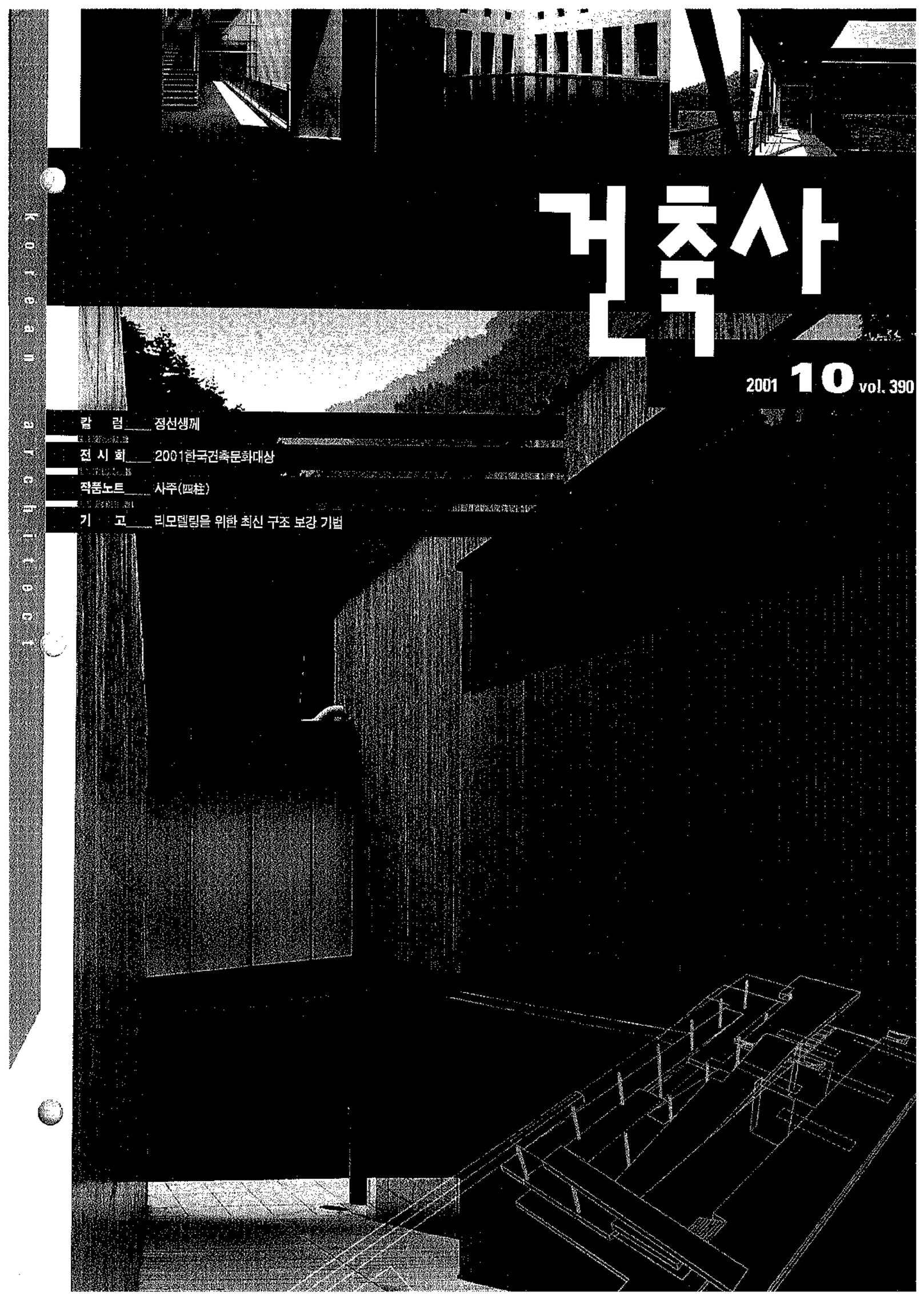


건축사

2001 10 vol. 390

칼 럼 ___ 정선생께
전 시 회 ___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노트 ___ 사주(四柱)
기 고 ___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korea architect

'에너지 절약형' LG 인버터 냉난방기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 LG인버터 냉난방기는 조달청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제품으로 2001년 8월부터 전국 학교 및 관공서에 보급 중입니다
- 전국 초, 중, 고교에 2000년 12월부터 시범 설치 운영 중입니다
- 국책연구 ('00.12)인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시설 모형개발' 에서 인버터 사이클 및 스크롤 압축기 기술이 표준냉난방기로 채용되었습니다

정부기관 인증 및 규격획득

KT (Excellent Korea Technology) 마크 획득 LG전자의 인버터 신기술이 과학기술부와 한국 산업기술 진흥협회로부터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밀레니엄 상품선정
LG전자의 한정지 인버터 신기술이 산업자원부의 인정을 받아 1999년 한국 밀레니엄 제품에 선정되었습니다

K S규격 획득
LG전자는 국가공인 'KS 사후 인증업체'로 등록되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래서 더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으로 전기료 걱정이 싹!

최첨단 질전 인버터 회로 및 국산 고효율 스크롤 압축기로 냉방은 28%, 난방은 32%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자사 3.5 마력 정속형 히트펌프 대비, 자사 시험 기준)

영하 15℃의 추운겨울에도 43℃의 따뜻한 난방을!

인버터 기능이 있어 추운겨울에도 고온풍난방이 가능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중앙공조 대비 초기 투자비용 34% 절감!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 시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앙냉난방 (냉온수기 방식 + FCU)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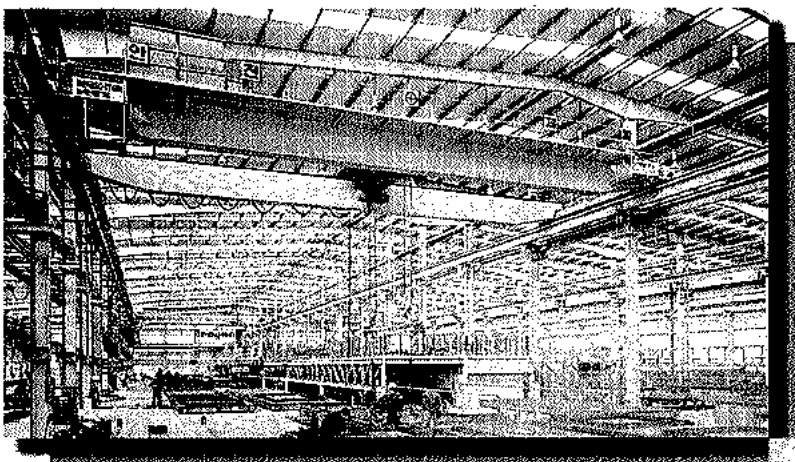
LG전자
www.systemairc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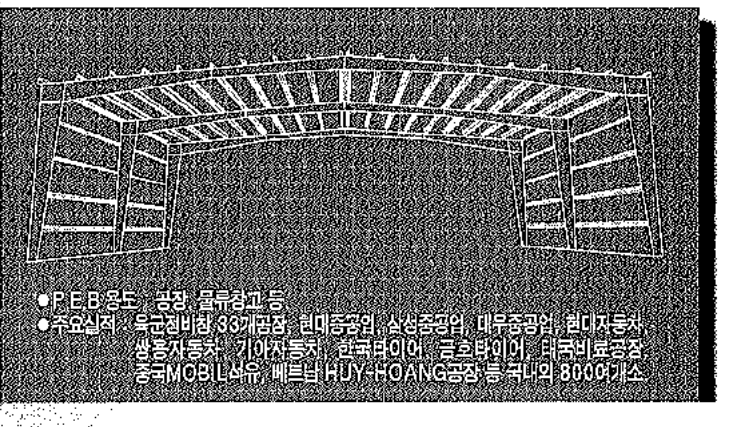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강남 (02)2005-3578 강북 (02)727-4180 경기/강원 (031)217-5091 인천 (032)438-4024 부산 (051)807-3241 경남 (055)238-6402 경북 (053)257-0808 충청 (042)254-4210 호남 (062)510-5840 시스템에어컨MC (02)2005-3054

시스템에어컨 기술 상담 안내 서울 (02)3284-1406~7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를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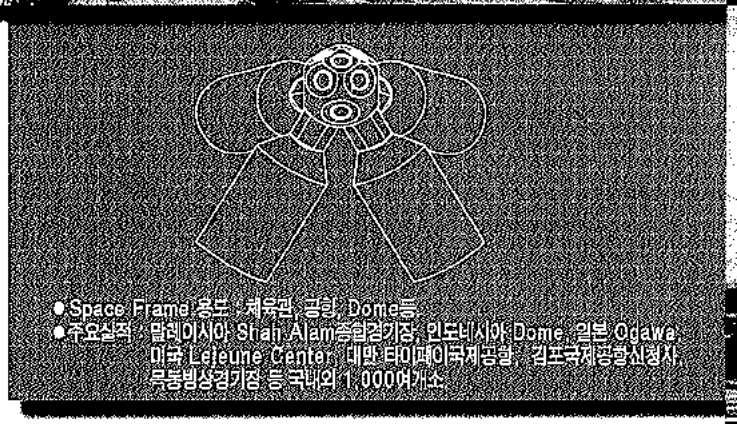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P.E.B & Space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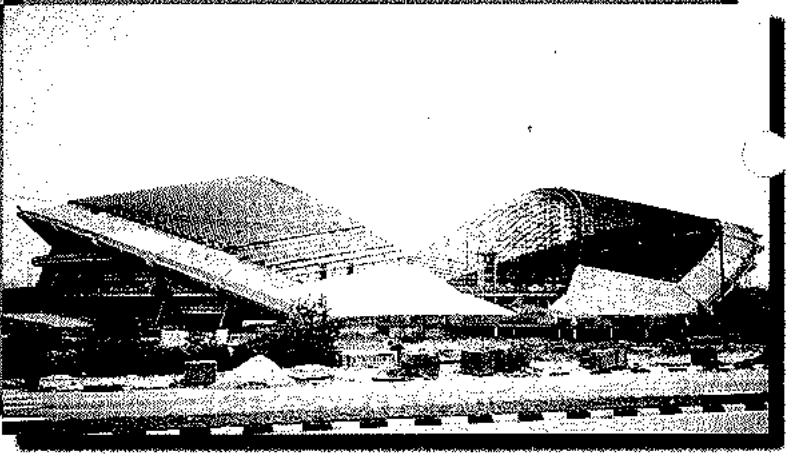




●P.E.B 공장, 공항, 물류창고 등.
●주요실적 : 육군정비창 33개소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대국비료공장, 중국MOBIL석유, 베트남 HUY-HOANG공장 등 국내외 800여개소.



●Space Frame 공장 · 체육관, 공항, Dome등.
●주요실적 : 말레이시아 Shah Alam종합경기장, 인도네시아 Dome, 일본 Ogawa, 미국 Lejeune Center, 대만 타이페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신청사, 목동방송경기장 등 국내외 1,000여개소.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 · 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PASCOE BUILDING SYSTEMS, INC.

FOR MORE THAN 50 YEARS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LTD.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B-1 나-707
TEL:(031)499-0114(代), FAX:(031)498-0511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교원공제빌딩 6층)
TEL:(02)783-9999(代), FAX:(02)785-0030
http : //www.hanmeak.co.kr

안타민
Antamine

ISO 9002 UL마크 본사기업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어 신소재
신물신안 등록 제 0218626호
특허출원 제 2000-30887호
특허출원 제 2000-20453호
실용신안 출원 제 2000-361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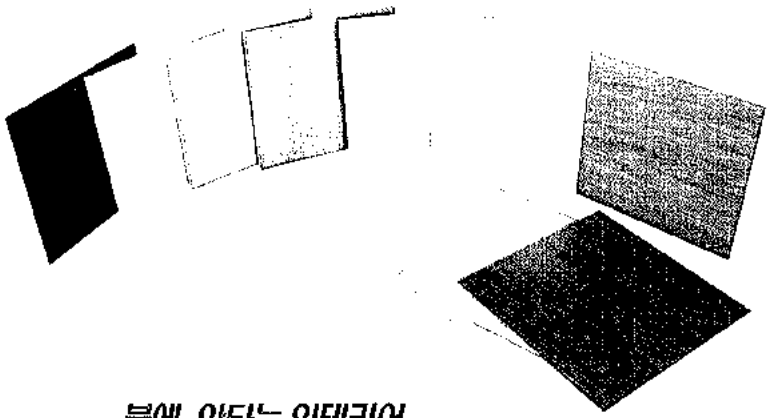
안타민

난연 1·2등급 / 방염성능 검증
소방시설 완비증명

"난연·방염재 사용 의무화!"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공포 : 2001. 3. 20 / 시행 : 2001. 5. 20
소방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

500여종의 다양한 무늬와 칼라로 무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십시오



불에 안타는 인테리어

건축내장 마감재 - 안타민

★규격 : 4×8ft×0.6T(13.1T)

| Antamine의 적용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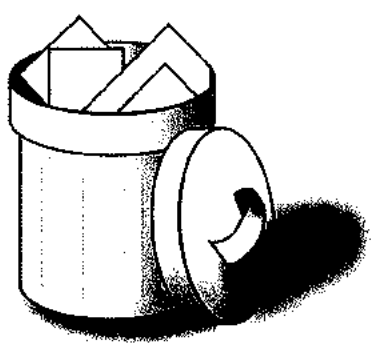
- 관광호텔, 콘도, 여관의 일반 숙박시설
- 아파트, 기숙사, 단독 및 공동주택
- PC방, 호프집, 노래방의 위락시설
- 집회, 공연, 예식장의 문화·집회시설
- 종합병원, 학교의 의료·교육연구시설
-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의 판매·영업시설
- 아동·노인의 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발전소, 방송국, 촬영소의 공공용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 생활권, 자연권의 수련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건축용도 : 벽체, 천장, 바닥면의 실내마감재

SEOHAN®

주식회사 서한메라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 (남동공단 165B-6L) TEL : 82-32-815-1674~7 FAX : 82-32-814-4155
http://www.antamine.com

아직도 AutoCAD R14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R14 [illegible] AutoCAD 2012 [illegible]

10월 31일까지 AutoCAD R14를 업그레이드 하면

행복한 고민에 선물까지!

AutoCAD 2002 또는 AutoCAD 2002 기반의 산업별 전문솔루션 중에서
원하는 솔루션으로 특별한 가격에 업그레이드 하시고 푸짐한 선물까지 잡으십시오.

AutoCAD R14 고객만을 위한 업그레이드 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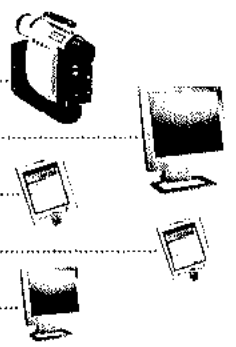
업그레이드 품목		업그레이드 가격
AutoCAD R14 ○	AutoCAD® 2002(한글버전) AutoCAD® Mechanical 6(한글버전) Autodesk® Mechanical Desktop® 6(한글버전)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 (영문버전, 추후 한글CD 제공 - 10월말 출시) Autodesk® Map 5(한글버전) Autodesk® Land Desktop 3(영문버전)	₩1,235,000
	Autodesk Inventor™ 5(한글버전)	₩2,580,000 (1년 무상업그레이드 비용 포함)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 제품의 경우, 영문버전을 먼저 제공하고 한글제품 출시시 한글버전 CD를 드립니다.
*AutoCAD R14 고객이 상기 업그레이드 제품 구입시 Autodesk® CAD Overlay® 2002 영문제품을 120만원(시중가 165만원)에 드립니다
*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상기 업그레이드 대축제는 정품 업그레이드 고객 대상입니다. (교육용 제외)
상기 AutoCAD 2002 기반의 산업분야별 전문제품에는 기본적으로 AutoCAD 200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Autodesk Inventor™ 5 제외)

10월 31일까지 업그레이드 하시면 푸짐한 선물을 함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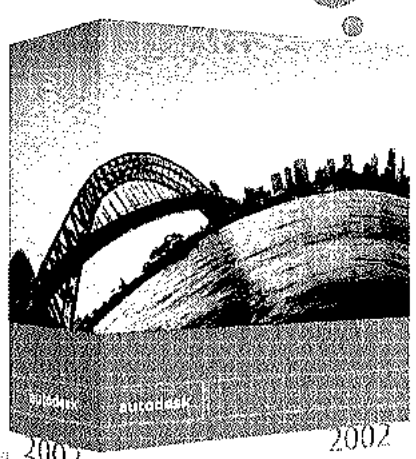
대상	내역
100 카피 이상 구매고객	휴대용 Beam Projector 1대
50 카피 이상 구매고객	17" TFT LCD 모니터 1대
40 카피 이상 구매고객	컴팩 PDA iPAQ(TV/FM수신확장팩 포함) 1대
30 카피 이상 구매고객	컴팩 PDA iPAQ 1대
15 카피 이상 구매고객	15.1" TFT LCD 모니터 1대
2 카피 이상 구매고객	무선마우스 1대

*상기 프로모션은 정품 업그레이드 고객 대상입니다. (교육용 제외)



AutoCAD R14 및 AutoCAD R14 기반의 산업별 전문제품 업그레이드 종단 안내

AutoCAD R14 및 AutoCAD R14기반의 버티컬 제품군(AutoCAD LT 98, Mechanical Desktop R3, Inventor R2, AutoCAD Map R2, AutoCAD Map R3, Architectural Desktop R1, MapGuide R4, Civil Design R1, CAD Overlay R14, Land Development Desktop R1, Genius R4, IGES R14, STEP R14)은 새로운 신제품 출시에 따라 더이상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버전으로의 호환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2년 1월 1일부터는 AutoCAD R14 및 AutoCAD R14 기반의 버티컬 제품군에서 상위버전 또는 오토데스크 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및 크로스 업그레이드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utoCAD R14 고객정보를 변경, 등록하시면 선물이 하나 더!

AutoCAD R14 고객중 고객정보 미등록 고객이나 회사명을 제외한 주소/사용자명이 변경된 고객들께서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 www.autodesk.co.kr를 통해 업데이트 해주시면 다양한 고객서비스는 물론 추첨을 통해 15" LCD 모니터(5명)를 드립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utodesk.co.kr

오토데스크의 디자인솔루션은 Autodesk Systems Center에서 만나십시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지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AutoCAD 정품 ASC : (주)다우데이타시스템 02-567-5378 ● AutoCAD 교육용 ASC : (주)디자이어 02-715-1246 ● 업그레이드 전문 ASC : (주)피플웨어 02-508-4821
- AEC ASC : (주)리빈테크시스템 02-569-1814, (주)캐드콤시스템 053-652-1898, (주)코스맥정보 02-584-6480, 한국씨.아이.엠(주) 02-515-3167
- Manufacturing ASC : 성우시스템(주) 02-785-2407, (주)씨엘앤 02-3452-9870, (주)캐드테크 02-558-5114, 터보테크(주) 041-861-3813, (주)피플웨어 02-508-4821
- GIS ASC : (주)다우데이타시스템 02-567-5378, (주)한국인프라 02-600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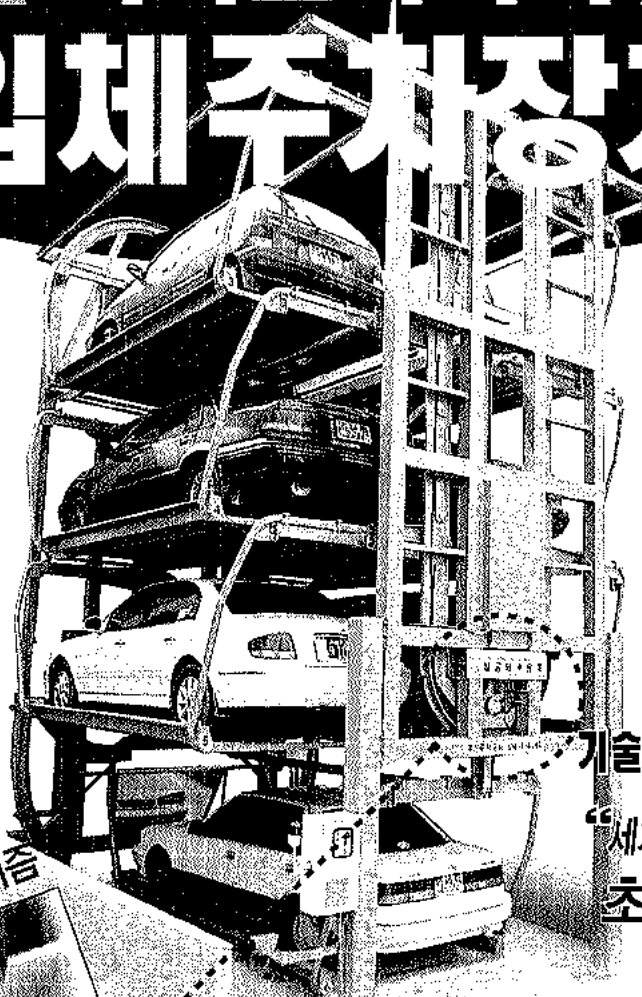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성무빌딩 17층
TEL:527-0790 FAX:527-0799 www.autodesk.co.kr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SKY PARK

입체주차장치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6호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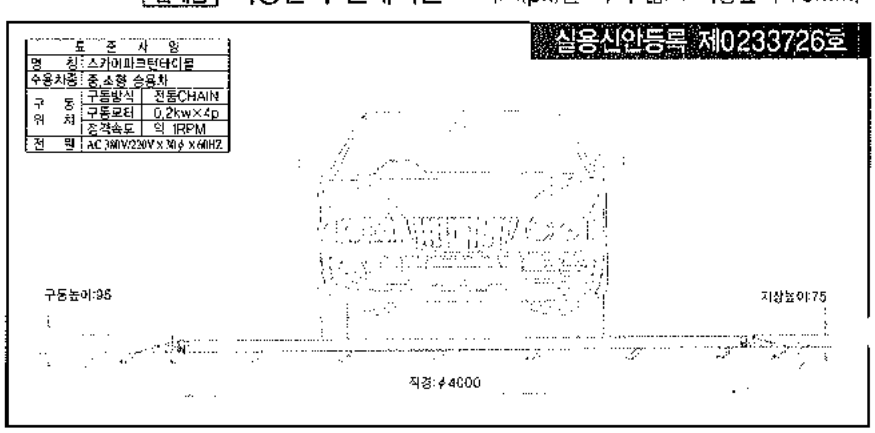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 (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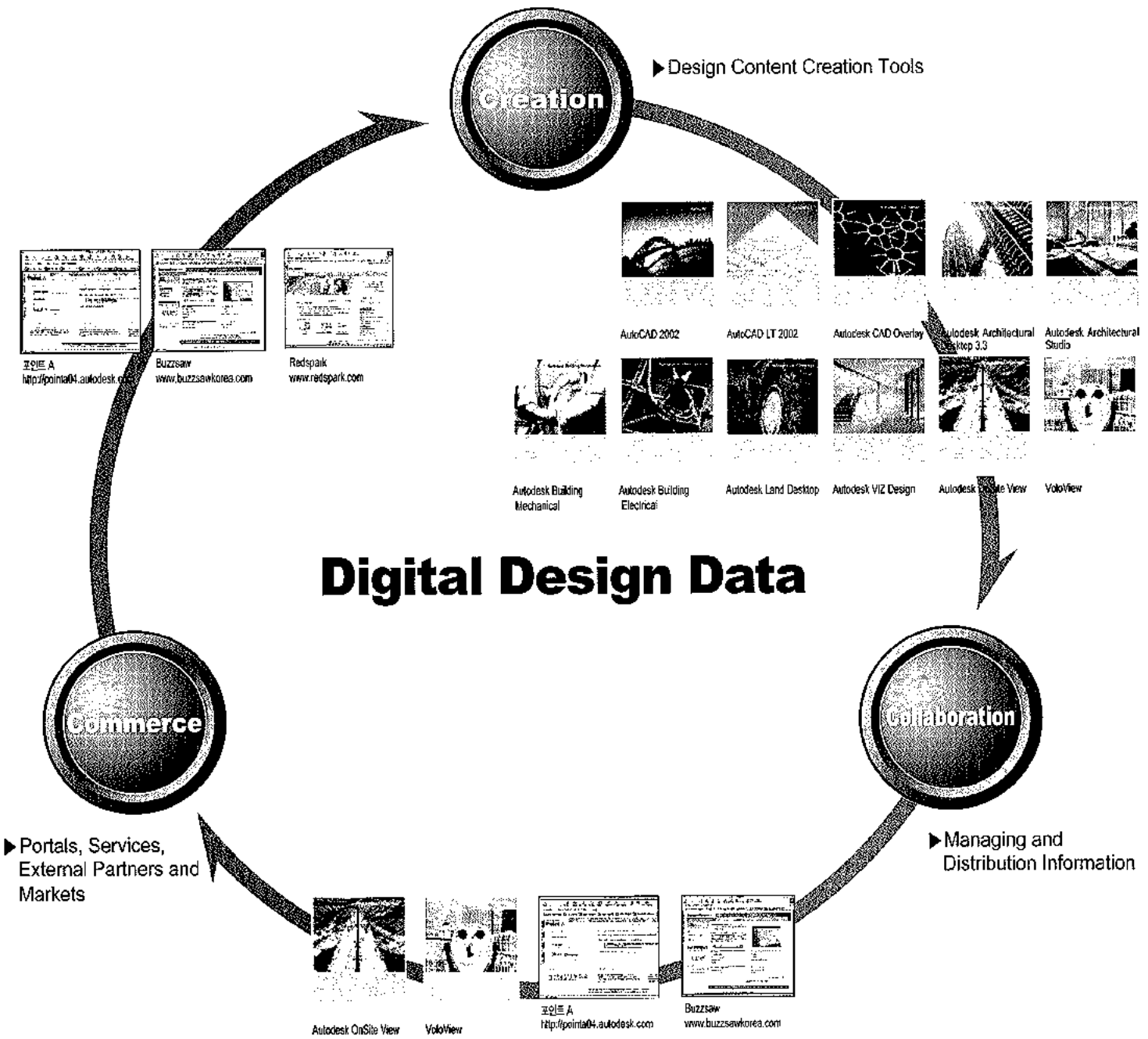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www.Juchagi.com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3)956-8838(代) ■P.P : 011-507-8838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E-mail : cgp210@kornet.net
■서울A/S센터 : (02)790-2723 ■부산A/S센터 : (051)784-6721

건축디자인의 모든 것,
오토데스크에서 만나십시오!



건축/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초기 스케치로부터 유지/보수관리까지 한번에!

사그라다 파밀라아 성당같은 세상에 같이 남을 건축물을 상상하십니까? 오토데스크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전세계 160여개국 400만명이 사용하는 오토데스크의 디자인 솔루션과 만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오토데스크 산업별 포탈사이트 및 마켓플레이스	● 포인트 A : 각 산업별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http://pointa04.autodesk.com) ● Buzzsaw :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전문가를 위한 B2B사이트 (www.buzzsawkorea.com) ● Redspark : 기계, 전자, 메뉴팩처링 산업 전문가를 위한 B2B사이트 (www.redspa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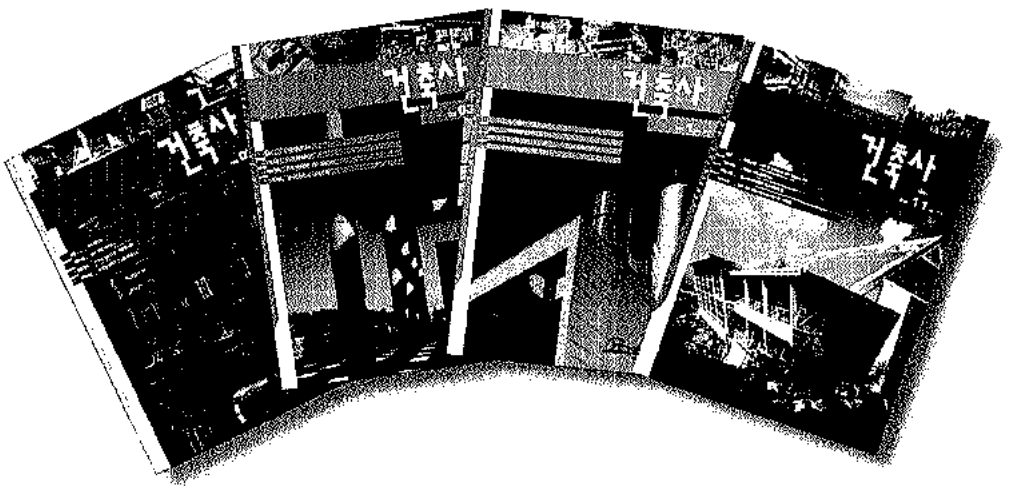
오토데스크의 디자인솔루션은 Autodesk Systems Center에서 만나십시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지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AEC ASC : (주)라인테크시스템 02-569-1814, (주)캐드콤시스템 053-652-1898, (주)코스펙정보 02-584-6480, 한국씨.아이.엠(주) 02-515-3167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527-0790 FAX:527-0799 www.autodesk.co.kr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건축사」의 광고는 국내 최초의 건축 · 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이 대행합니다.



〈단위:만원〉

광고 단가표

표지 4면	표지 2면	표지2 대면	표지3면	내지
250	120	120	100	70

월간「건축사」誌는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가 직접 발행
- 전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약 50,000명)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건축사 약 8,000명)
- 건축관련 단체(협회등) 및 대학교
- 건축관련 정부기관 · 연구소
- 건축관련회사(건설회사, 자재회사, 정보통신회사 등)

귀사 및 제품을 최대한 홍보·마케팅하는 최고의 광고효과

광고문의

전화 : 02-702-1871~2

팩스 : 02-702-1873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빌딩 1503호 (주)한마당 21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　　간 / 1년~5년 (수시상환,연장,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가능
- 담보대출, 창업자금대출 특별상담
- APT소유자, 구입예정자 : 6.5%~8.0%(10년,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7.1%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삼성생명

Seed Bank

Seed Bank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 양승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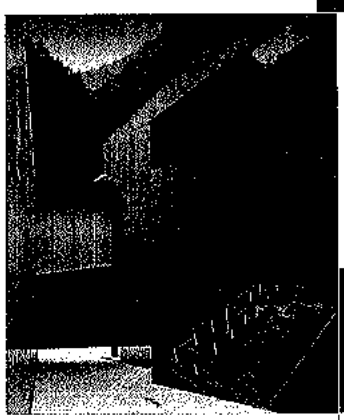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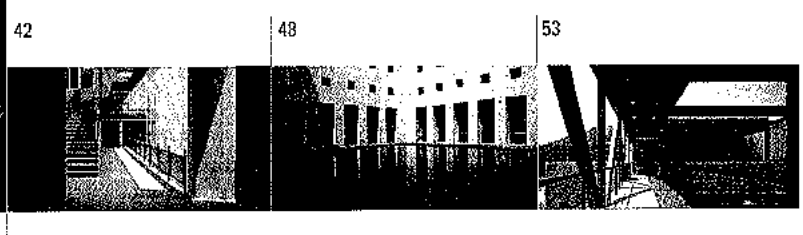
건 축 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1년 10월호. 통권390호

차례 2001 10 390호



의재(毅齋) 미술관(조성룡 作)



칼럼	정선생께	김석철	16
전시회 /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19
	대상 - 의재(毅齋) 미술관		29
	본상 - 가나안교회		38
	은평구립도서관		44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50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56
	천주교 인보성체 수도회 전주성당		62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66
	계획건축물부문 / 금상, 은상, 동상		71
작품노트	사주(四柱)	김인철	78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7)	김석환	82
기고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3	이창남	92
건축만평		유원재	98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9
	현상설계경기		104
	해외잡지동향		110
	리포트(제11차 아카시아 포럼)		117

발행인: 우남용
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 //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Rinnai

CTED
Custom-made Total Energ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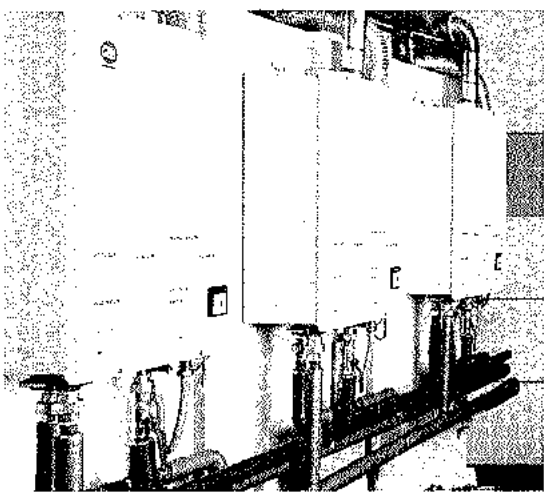
넓은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공간절약형 병렬식 보일러 시스템(PBS)을 아십니까?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온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PBS)



25,000kcal×3대 병렬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달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든 방만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수명이 2배는 더 갑니다

고장잦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운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리모콘으로 실내에서나 카운터에서 편리하게 콘트롤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orean Architect

Contents Vol. 390 October 2001

Column

Dear Mr. Jeong — Kim Seok-Cheol — 16

Exhibition /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1

Prize Works - Professional Part — 19

Grand Proze — Euijai Art Center — 29

Superior Prize — Canaan Church — 38

Eunpyeong-gu Library — 44

Ansan Campus, Seoul Art College — 50

Noble County — 56

Jeonju Catholic Church — 62

Myeonggok Apartment — 66

Prize Works - The Submitted Part — 71

Design Note

Four Pillars — Kim In-Cheurl — 78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 Kim Suk-Hwan — 82

Feature

State-of-the-art Structural Reinforcing Devices of Remodeling Buildings — Lee Chang-Nam — 92

Cartoon — Yoo Won-Jai — 98

Architects' Plaza

Archi-Net — 99

Competition — 104

Overseas Journal — 110

Report(ARCASIA FORUM 11) — 117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Rinnai

CTED
Custom-made Total Energy Design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의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백문이불여일견!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비가30%이상 절감되는
병렬시스템의 놀라운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서울 역삼동 소재 R사 사옥
●연면적:657평 ●대지면적:148.76평
●설치보일러:30,000kcal 모델 14대 병렬
●난방면적:536.5평
●월난방비:₩1,682,090
●사용기간:2000년1월

시공 사례

15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6대 병렬

경기 유치원(대치똥) 교체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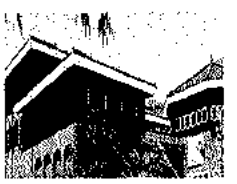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용량 등의
잦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렬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층별 난방 및 온수 수도직결 TYPE으로 설치.

30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9대 병렬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나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층별 LINE PUMP 설치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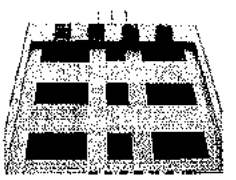


150,000kcal 보일러 1대
70,000kcal 온수보일러 1대

30,000kcal×6대 병렬

상계동 기독병원

지하 및 5층 규모의 병원으로
난방을 라디에이터 구조로 병렬 시공.
온수탱크는 1톤 규모이며, 층별 Line Pump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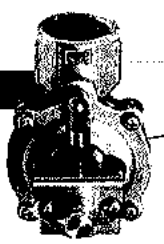
표준 시공 설계도 (난방, 온수 혼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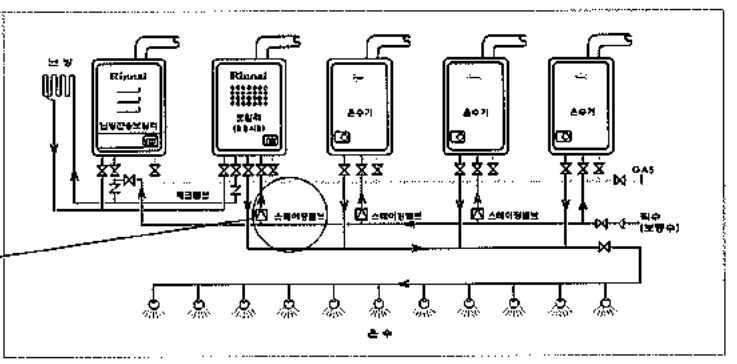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타, 한식점 등 적용
- 온수 부분은 수도직결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층용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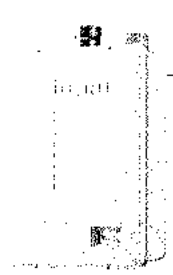
린나이 코리아 만의 특허기술 「스테이징 밸브」

-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온수탱크 대체가능하여,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 수압력 개폐 역할을 하는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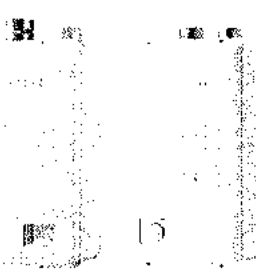


난방전용보일러(병렬전용)
RPB-366SME/F

난방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디지털 가스보일러
RB-366SME/F

난방 : 36,000kcal/h
온수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순간온수기(RW-16AE/F)

사이즈 : 600(H)×335(W)×160(D)mm
온수 : 16ℓ /분(△T:25℃)

Rinnai 가스기구의 名家 린나이코리아

전국지사 및 영업소 ·서울 320-5558 ·인천 578-7095 ·수원 247-3651 ·부산 583-6225 ·대전 625-6314 ·대구 382-3652 ·광주 521-2651 ·창원 239-3601 ·강원(원주)744-6111

시공 및 설계상담:02) 320-5558 E-mail:cted@gas.rinnai.co.kr

정선생께
Dear Mr. Jeong

김석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Kim Seok-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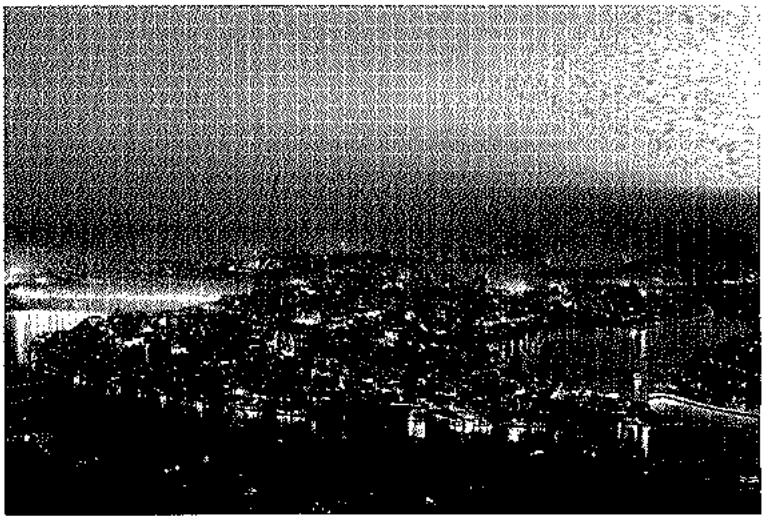
중경을 떠난 지 어느 사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경에서 지낸 지난 일주일이 마치 꿈같이 느껴집니다. 중경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대부분 지식인이 일본에 동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던 중경이라는 도시는 한국인의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본이 패망할때까지 중경에 임시정부가 있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국체를 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경대학에서 선생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잊었던 국가와 민족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기전 천자문, 동몽선습을 배웠고 중학교때 처음으로 읽은 소설이 삼국지였으며 고등학교, 대학교때 가장 깊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서삼경이었습니다. 중경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주하고 중국에 인민의 정부인 공산당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과 중국의 길은 닫힌 채 반 세기가 지났습니다.

선생께서는 세살때 경기도 광주의 본향을 떠나 중국에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며 독립을 기다렸으나 광복후 남북이 분단되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명의 세상을 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순간 오래 만나던 이웃집 형님같은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문화혁명때 형제가 남북에 갈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옥에 가야했고, 오해가 풀려 중국 정부장학생으로 동경대학에 유학하게 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경대학에 교수로 부임하고 이학대학 학장이 되신 사연은 나라를 위해 나라를 떠났던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겪은 간난의 세월을 알게 하는 서사시 같은 사실들이었습니다.

따님의 안내로 중경도심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오늘 우리 모두에 대한 분노를 아직 잊지 못합니다. 범상한 자들이 떼를 지어 비범한 인간을 핍박하고 이를 찾는 인간들이 의를 추구하는 인간을 밀어내고 역사를 기약하는 사람을 시리를 도모하는 인간들이 능멸해온 한국근대사의 질곡에 비추어 그분들의 외로운 조국광복운동을 생각하며 숙연하였습니다. 김구선생의 아드님 김신장군과 두분 사이의 깊은 교린지정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며 한국인들의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경대학에서 북경 칭화대학의 강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과 열이 있었습니다. 강당을 메운 젊은 그들의 눈빛 속에 세계로 도약하는 중국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경 중심부의 야경

중경은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1억3천만 사천성의 중심도시면서, 3천백만 인구의 세계최대 도시인 중경과 2천만 수도권의 중심도시 서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동부해안에서 이루어진 개방과 개혁을 내륙으로 이어가는 중심도시로서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대 토목사업의 하나인 양자강 삼협댐으로 중경은 북경과 상해를 넘어서는 세계도시로 부상할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일본이 서울을 대일본제국의 수도로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경과 서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주변도시를 어우르는 네트워크시티로서 유사한 많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산과 강 사이에 자리한 강변도시이며, 산상도시인 인구 천만 이상의 도시는 중경과 서울뿐이며, 기하학적 도시구조 대신 유기적 도시구조인 자연의 흐름을 우선하고 있는 곳도 서울과 중경뿐입니다.

서울의 미래가 한강에 있고 중경의 미래도 양자강에 있듯 두 도시는 산상의 도시면서 강안 네트워크의 도시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전도시를 구조개혁해야 하는 서울과 삼협댐으로 해서 도시를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중경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중경과 서울의 공동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과 따님과 함께 했던 식탁에서 오간 대화속에 한국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 중국문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함께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잃어버린 선린의 길을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며 중경이야말로 서울과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뜻있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경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주석굴의 거대한 야외 조각군,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토목공사인 두지앙렌의 수리사업과 중국의 지리를 바꾸게 될 삼협댐, 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간직한 츠치코우와 홍야동의 천년마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따님 위위를 보면서 선생의 오랜 유랑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서울과 중경 두도시의 비교연구가 두 도시 서로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경에서 돌아오자마자 나흘만에 중국은행 개관식으로 다시 북경에 와 이 글을 씁니다.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중경에서의 나날 모두가 어느 사이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경에 갈때는 서울의 술을 가져가 마음껏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경에 있는 일주일동안 처음 만났으면서도 진심어린 우정을 함께 하였던 건축대 학장님과 여러 교수들께 고마운 인사말을 전해주십시오. 다시 뵐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역사의 그릇'인 오늘의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인공을 찾아 격려함은 물론 일반인과 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참가 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정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조성룡 건축사(건축사사무소조성룡도시건축 대표)가 설계하고 삼능건설(주)가 시공한 의재미술관이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한 2001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영예의 大賞을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의재미술관 외에 본상 6점, 입선작 17점 등 준공건축물부문 응모작 24점과 신인 · 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 응모작 33점 등 총57개 작품이 입상했다.

대상 수상작품인 의재미술관은 광주 동구 운림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1,562.27㎡, 건축면적 816.92㎡ 규모의 전시문화공간으로서 조선말기 화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을 비롯한 국내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연속의 미술관 건축물이다. 특히 이 작품은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 주변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고 자연지형의 지리적 형상을 수용하면서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여 순환하는 건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일 금호아트홀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작의 설계자인 조성룡건축사가 대통령상을, 시공자인 삼능건설(주)과 건축주 (재)의재문화재단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이날 은평구립도서관 등 본상 6개 작품의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이, 본상 건축주와 입선작, 계획건축물부문 입상자들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건축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준공건축물부문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개최목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 서울경제신문사

주 관

대한건축사협회

후 원

- 대한건설협회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보증(주)
- 한국주택협회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 8. 15
- 접수 : 8. 16~8. 17
- 심사 : 8. 28~9. 5 (사진첩심사 및 현장심사)
- 발표 : 10. 19 (서울경제신문 발표)
- 시상식 : 10. 19 15:00 / 장소: 금호아트홀
- 수상작 전시 : 10. 19 ~ 10. 26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실
- 작품집 발간 : 12월중

시상내용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비 고
대 상 (1점)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건축물부착용 동판	
본 상 (6점)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건축물부착용 동판	
입선 (17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공 로 상	트 로 피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0년 5월부터 2001년 8월 사이에 준공된 국내건축물
- 출품자 자격 : 응모건축물의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나. 주요 출품규정

- 출품자의 응모편의를 위해 건축물사진(8"×10"규격, 10매 내외), 건축개요, 작품설명, 건축사 · 시공자 · 건축주 소개서, 건축물대장 등이 수록된 사진첩 2부 제출
- 1차 사진첩심사 통과작품에 한해 추후 패널 제출

심사위원

- 송기덕 |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장
- 강석원 | 그룹가 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정태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이강업 |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교수
- 이용익 | (주)종합건축사(사) 동우건축 대표
- 한남수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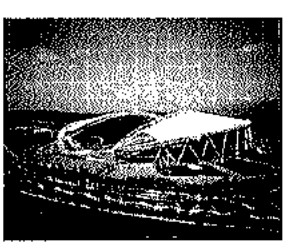
■**大 賞** (설계자: 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 국무총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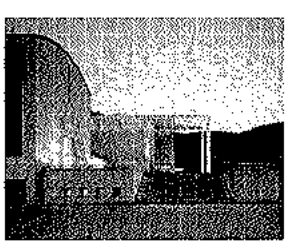
- 의재미술관 / (주)건축사사무소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 / 삼능건설(주) / (재)의재문화재단

■**本 賞** (설계자 · 시공자: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가나안교회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이충기 / 예일종합건설(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가나안교회
- 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민승렬 / 효산건설(주) / (재)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창수 / 삼성물산(주) 주택부문 / 삼성생명보험(주)

준공부문 | 입선


대구종합경기장


얼은미술관

인산랜드 휴게소

함강기념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대구 달성 명곡주공아파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감 박용성 / (주)서한 / 대한주택공사
· 은평구립도서관 / (주)맥건축사사무소 곽재환 / 동영종합건설(주) / 은평구
·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주)테제건축사사무소 조재원 / 삼환기업(주) /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 入 選 (설계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 · 건축주: 서울경제신문사장상)

· 대구종합경기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 강철희 / 삼성물산(주) / 대구광역시
· 영은미술관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 요진산업(주) / (재)대유문화재단
· 인삼랜드 휴게소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이충기 / 두산건설(주) / 한국도로공사
· 월강기념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서 · 상 유 건 / (주)신라종합건설 / 학교법인 충청학원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용흠 / 현대건설(주) / (주)BEXCO
· 캐피탈타워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철 / 한신공영(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구 MBC / (주)일건씨엠씨건축사사무소 최관영 / 쌍용건설(주) / 대구문화방송(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 (주)원도시건축사사무소 변 용 / 쌍용건설(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 수원 월드컵 경기장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 승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재)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임장렬 / (주)태영 / 의정부시
· 울산 월드컵 문수축구경기장 /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심성보 / 현대건설(주) / 울산광역시
· 서울대학교 SPORTS COMPLEX /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심성보 / 포스코개발(주) / 서울대학교
· 강변복지아파트 재건축 / (주)종합건축사사무소환경건축 박호종 / 동부건설(주) / 강변복지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 도봉문화정보센터 / 건축사사무소 시방 유방근 / 성부종합건설(주) / 도봉구
· 도시개발공사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 (주)건축사사무소한울건축 이성관 / 자유종합건설(주)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양구전투기념관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 (주)영종종합건설 / 양구군
· 여주교정시설 /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환성 / 월드건설(주) / 월드건설(주)

■ 功 勞 賞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한국주택협회

심사평

송기덕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장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문화의 창달과 인간중시적인 생활환경의 조화, 시대적인 건축문화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오늘의 우리시대의 건축물을 훌륭하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양식의 훌륭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시대의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는데 있다. 이 행사는 금년 2001년이 10번째의 행사로 발돋음 하면서 꾸준히 발전되어지고 있다. 뜻하지 않았던 IMF이후 경제적 악영향으로 건축경기의 침체, 투자저하심의 심리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질적저하 없이 금년에도 준공건축물의 작품성이 지속적으로 훌륭했던 점 기쁘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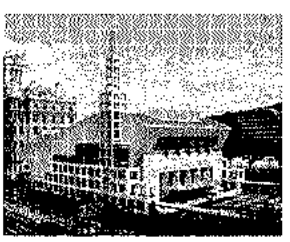
먼저, 심사위원단은 심사에 앞서 위원각자의 의견을 들어 작품의 심사기준을 정리했다.

· 건축문화의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고취된 작품.
· 이 시대의 건축물로 충분한 발전의 척도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
· 인간중시 환경과의 근화구현등 철학적인 이미지에 역점을 둔 작품.

위와같은 취지에 따라 심사의원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제출된 77작품(주거 19, 비주거 58 작품)에 대하여 과거 계열별 구분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키로 하면서 추후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하기

캐피탈타워

대구 MBC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수원 월드컵 경기 장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로 했다.

먼저 1차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전체 제출된 77작품을 스크리한 후 심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 주거 비주거 구분 제한없이 심사를 하고 과거 주거부분에 인센티브를 준 것에 대하여는 작품성 여하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외국작가와의 공동제작일 때 저작권에 대한 고려로 합작사의 명의를 반드시 밝힐 것.
- 간혹 훌륭한 작품이 뜻하지 않게 탈락할 때가 발생하는데, 탈락부활 심사를 고려한다.

대상 및 본상 심사

3차 심사에서 선정된 10개 작품의 건축물은 우연하게도 수도권 5개와 지방 5개 작품이었다.

3일간의 강행군으로 심사의원 전원이 피로함에도 상관하지 않고 현장답사 심사를 열심히 두루 살핀 점에 대하여 경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4차심사 : 현장답사 완료 후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끝에 대상과 본상 등 7개 작품을 선정하고,
- 5차심사 : 7개 작품 중 최종심사 작품으로 2작품을 대상후보로 선정키로 하고 두 작품 중에서 대상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음.
- 6차심사 : 대상후보 2개 작품을 놓고 1시간여 비평 및 토론을 거듭한 결과 의제미술관이 대상의 작품으로 최종 결론 지어졌다.

작품의 총평과 소평

심사 후 금년도에 제출된 작품중 월드컵경기장 등 많은 대형 건축의 작품 등이 출품되어 심사위원들은 과정을 통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졌었다.

대형 작품마다 개성있는 면모와 각 도시가 주는 특별한 인상 도시와 건축의 연관성, 컨텍스트 등이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등이 관심을 끌었는데, 작품들이 주는 인상은 스텐드와 경기장을 덮는 지붕과 그 지지구조 등은 독창성과, 공간처리 등이 잘 정리되었으나 아쉬운 것은 St. DENIS의 월드컵 경기장의 몇몇 해외 축구 전용경기장들에서 보여주는 구조의 세련미가 돋보이지 못하였고, 역학적 해석과 시공성이 명료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의 문제점은 다분히 우리의 현실과 항상 문제를 제기시키는 공기, 공사비 등의 현실적인 제한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들의 문제점은 충분한 시간과 좀더 정교한 시공성에 더욱 연구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의제미술관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의제미술관은 무등산 입구의 열악한 입지여건 속에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소박한 동양화 풍경과 잘 연계된 작품으로 작가로서 대단한 어려움을 건축이란 철학적 의지를 잘 조화시켜 기능과 동선과의 연계적 처리가 잘 표현된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근대 학교건축의 비약적인 투자와 시설의 현대화로 시설내용의 많은 연구와 교육 각 분야에 특이하게 발전된 총본산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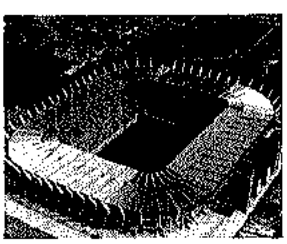
건축주와 설계자가 다년간을 두고 일체가 되어 예술대학이란 특수 분야에 대하여 소화하고 이해한 결과 훌륭한 예술대학의 캠퍼스를 성취했다는데 대해 모두가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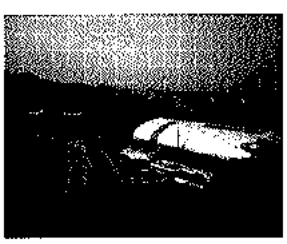
대학 캠퍼스 중앙의 광장은 모든 행사의 중심축을 이루게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구축에 노력했다는데 작품성이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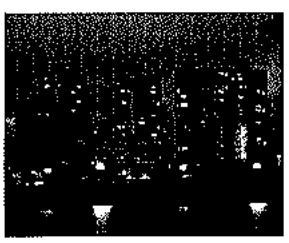
-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공동주택개발이래 개발사업체의 분양성과 수익성에 따른 일념된 —자형 배치 등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공간의 다양성 건축의 미적감각 등이 결여된 계획으로 작품성이나 도시계획상 적절치 못한 건축으로 후세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명곡주공아파트는 그동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보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두드러져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하게 계획되었다. 대지의 입지여건도 인접수림대와 연계되어 있고 남쪽계곡의 공원화 및 어린이공원 휴식공간으로 개발한 점과 단지중앙에 중심 광장을 적절히 구성함으로서 공동아파트단지의 쾌적한 분위기를 이룬 점이 좋았다.

서민 아파트로서의 내부구성이나 외부입면 및 공간처리 또한 잘 처리되었다고 생


울산 월드컵 문수축구경기장


서울대학교 SPORTS COMPLEX


강북복지아파트 재건축

도봉문화정보센터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각된다.

- 은평구립도서관

도서관 대지의 경사도가 심한 입지여건에 후면 근린공원동산과 도서관의 옥상정원과 연계되게 하고 석교를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환경과 자연이 건축과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처리한 점 등 계획성이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지형지세에 순응하게 하여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옥상정원으로의 유도가 좋았다.

특이한 점은 교육적인 도서관을 초월하면서 구민의 정보와 만남의 장소로 구심점을 이루게 한 점과 다양한 이벤트의 장소로도 최적 환경을 이루었다.

- 가나안 교회

도심속의 교회건축의 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리하는데 고심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교회건축의 과정적 공간처리 진입축과 일치된 강한 흡입력을 부여하면서 반외부공간으로의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데 역점을 둔 것 같다.

주변환경을 잘 고려하면서 도시적이면서 인근과의 부정적 이질적인 아닌 형체를 구성했다. 내부공간 또한 부채꼴을 형성하면서 친밀감과 채광의 처리 등 종교적 분위기를 공감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 같다.

- 천주교인보성채전주성당

부지내 아름드리 고목들이 어우러진 부지의 환경을 적절히 지켜내며 수녀원의 고유한 특성을 잘 표현하면서 정적하고 순결한 수녀들의 이미지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특성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피로티를 통한 외부로의 전공간의 처리는 기존 환경의 유지를 위해 배려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종교 건축물의 성격상 다소 경직되기 쉬운 형태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내부공간과의 연결을 꾀하여 소박한 수녀원의 표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용인 삼성생명 Noble County

경제발전과 생활환경 향상 등으로 미래의 주거생활 방향의 지표를 제시한 실버타운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보잘 것 없는 양로원으로만 고집한 현사회의 비약적 발전의 생활터전으로 제시된 미래지향적 작품이다. 모든 부분이 고급화된 점은 좋았지만 고층 주거부문의 입지가 도심지의 고층 아파트와 같이 정서감이 결여된 느낌이 들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서생활과 안정감의 전원교향곡이 조용히 울려 나오는 듯한 감상의 공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동정근 / 인하대학교 교수

2001년도 새로운 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한국 건축문화 대상은 종합 문화로서 건축의 위상은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있다. 인간과 그 사회를 위한 정주환경의 창조라는 건축의 역할은 물질문화에 찌들어 가는 장소성 부재의 현대도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한국건축문화의 미래의 위상에 대한 문제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심사는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사안별로 논의하여 정하였다. 이 상의 개최목적과 심사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심사기준은 건축문화대상의 개최목적에서 거론하고있는 다음 세 가지의 목적을 심사기준의 기본으로 하였다.

첫째는 우리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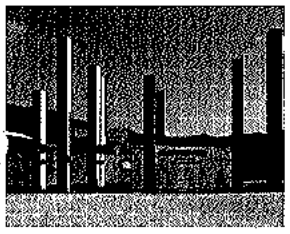
둘째는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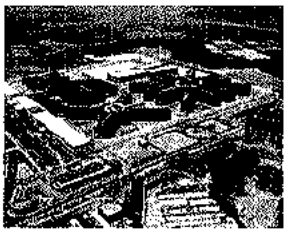
셋째는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건축문화대상의 목적은 우리문화 창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 건축 문화의 독자성 혹은 주체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 건축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설계자가 외국의 건축가든 국내건축가든 그 건축이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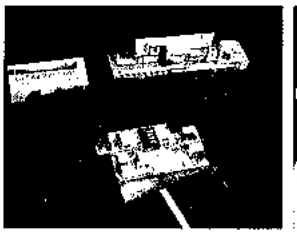
그리고 주변의 맥락에 대한 고려와 공공성에 대한 배려, 인간중시보다는 건축을 위한 건축 즉 거품경제의 산물인 비 합목적적인 건축에 대한 제고, 그리고 21세기라는 시대적 문제를 고려한 시사성과 미래지향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건축작품은 건축을 향한 모든 선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력과 의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기술 및 지도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수행될


양구전투기념관


여주교정시설

청주 흥무사지 철당간 광장 활성화 계획


Cultural Void of Urban

Remained & Forgetted

때 좋은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포괄적인 건축행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의 완성도,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과 완성까지의 일관성이 심사기준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는 저작권의 문제보다도 출품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심사과정중 깊게 논의되었다. 외국 건축가와 공동설계한 경우 그 사실을 밝혀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본상 대상작품을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하면서 건축의 모든 분야가 이제는 높은 수준에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에서 공사비 내에서의 적절한 재료나 공법 선택의 미숙함 그리고 감리를 별도 발주하여 건축가의 의지를 마지막 단계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몇 작품들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상공모로 수행된 많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계획된 거품디자인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품경제의 산물이기도한 건축에서의 거품은 합목적성을 벗어나 건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공공건축과 종교건축에서 지역 맥락과 소박하게 조화를 이루고있는 작품들에서 건축가의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의재미술관은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 주변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고 자연지형의 지리적 형상을 수용하면서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여 순환하는 건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동양화를 위한 내부공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지역 문화를 위하여 건축이 새로운 장을 열어 지역 건축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21세기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는 건축계에서도 미래와 세계를 향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깊은 의식의 환경문제, 도시건축문제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법을 뛰어넘는 건축계의 의지를 새로운 세기에 기대해본다.

계획작품부문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 8. 15
- 접수 : 9. 10
- 심사 : 9. 13 (모형 및 패널 심사)
- 발표 : 10. 19 (서울경제신문 발표)
- 시상식 : 10. 19 15:00 / 장소: 금호아트홀
- 수상작 전시 : 10. 19 ~ 10. 26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실
- 작품집 발간 : 12월중

주요 공모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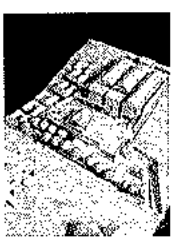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작품주제 : 미세지역성의 건축적 해석과 표현

※주제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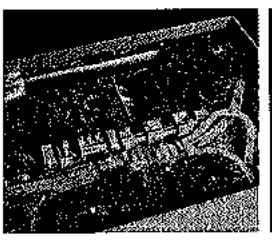
건축이념은 설계를 통한 실행에 선행하지만 역으로 실제 건축상황에 대한 이해는 건축이념개발의 근원이 된다.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건축이념들은 때로는 건축사고와 실행능력에 혼란과 함께 많은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추구해 온 한국적 정서와 사회구조, 자연조건 또한 우리의 삶을 담아온 기존의 도시모습들에 대한 형태적 이해와 표현은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지상과제이다. 지난 동안의 다변화된 이야기들과 이념개발의 노력이 이제는 실행력을 갖춘 한국현대건축의 실천적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건축의 현실적 과제로 도시구조 내부에서의 "미세 지역성의 해석과 표현"을 건축설계의 과제로 제시한다. 도시와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역사와 문화의 인문학적 연속성의 다양한 이론과 주장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성행했던 시대를 지나온 오늘의 건축 전문가들이 도시건축의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설계안의 형태제안을 통해서 도시성과 한국성의 실행적인 해답을 만들어가야 할 단계인 것이다. 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도시건축물이 위치한 주변 상황에 대한 "미세 지역성"의 이해와 그에 적합한 설계안의 구상과 표현은 건축가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을

Interval Space

Work and Dwelling


도시불럭 저소식

Community Block

도시의 상상(商線)

능력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 지역의 비율과 도시 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건축이 인접한 도시 구조물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건축설계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형태적 반응은 필수적이지만, 주변의 "미세 지역성"에 대한 기존의 건축 이론가들의 관심과 해법개발은 거시적인 한국적 지역성에 대한 이념확장에 비해서 미흡한 것 같다. 작은 것부터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그 노력의 결과를 모아 큰 것을 이루어 가는 겸허하고 실행적이며 또한 new-modernism적인 합리성이 이 시대의 도시건축에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미세 지역성"에 대한 이해는 도시에 위치할 건축물의 인근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대지의 역사성, 지형적인 여건, 인접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구성, 도로와 도시공지, 광역적 지역성 등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곳에 적절한 건축형태를 발견 표현함으로써 주변과 어울림을 갖고 또한 인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인근 지역 주민과 사용자 및 공공을 위한 친근감을 주고 그들을 배려하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의 추구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건축행위자의 능력이고 도덕률이다.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은 도시건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다.

개별적 표현성이 강한 뒤는 건축 디자인의 시대는 표현주의적 이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 온유하게 주변과 어울리고 공공에 친근감을 제공하면서 성숙하고 고상한 모습의 자기발언을 시도하는 "미세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이 기대되는 시대이다. 인간이 재창조하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도시건축물은 인접지역과의 "예술적"인 어울림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인 가치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작은 부분과 모퉁이들이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형태와 냄새, 분위기를 깊이 흡입하고 재표현하는 건축은 건축설계 행위의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가치를 높여 줄 것이고, 이웃과 "어울림"의 아름다운 뜻과 모습을 통하여 공공예술로서의 도시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한국적인 도시건축을 완성하며, 그로 인하여 더욱 세계적인 가치를 갖춘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추천하는 설계의 진행방법은 독특한 "미세 지역성"을 갖춘 도시 안의 대지를 선정하여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춘 설계 주제를 개발하고, 그 주제를 타당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설계개념의 창안과 표현을 하도록 한다. 세부 주제의 적절성과 그를 위한 형태적 설계개념의 창의성과 타당성이 건축작품 평가의 중요한 대상이며 기준이다. 물론 다음 단계에는 건축적인 형태로 발전 전개해 가는 디자인 노력으로 연계되어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설계주제(theme)를 개발하고 설계개념(concept)을 창안하며, 주제와 설계개념을 건축설계의 형태적 표현으로 전개 발전시키는(design) 능력의 배양이 건축행위의 근간을 이룬다고 정리한다. 그 과정에 이 시대의 건축이 요구하는 기능, 기술, 이념, 공간구성과 현대적 고려사항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모습의 작품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S :

미세 지역성(micro-locality)의 해석과 표현, 친근하고 어울리는 도시건축, 주제:개념:설계 (theme:concept: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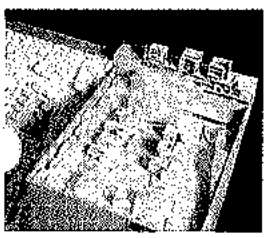
- 출품자 자격 :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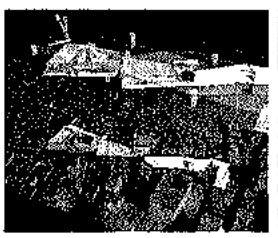
- 패널(가로90㎝×세로180㎝ 이내)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90㎝×세로 75 또는 75㎝×90㎝, 높이 75㎝ 이내) 1점 제출
- 공동작품의 경우 출품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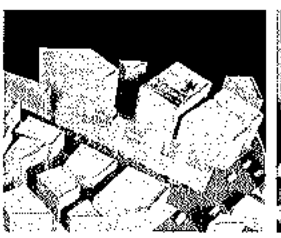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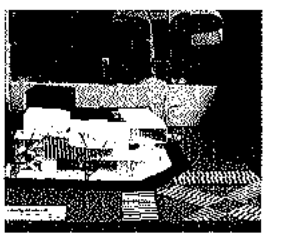
· 최광수 (주)범한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장
·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기철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대표
· 김춘웅 (주)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민형식 (주)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연, 속(連, 續)

일미진중함시방(一味塵中含十方)


Move


Art in Carly


대각선 횡단보도로 인한 미세지역성

· 안길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정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시상내용

- 금상(1점)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2점) : 각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동상(3점) :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입선(27점) : 각 상금 20만원 및 상장

※동상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 중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順)

■金賞

· 정 · 반 · 합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최기현, 이준수, 김동호

■銀賞

· Interlocking Edge /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강혁진,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성신, 이상신

· 고도의 꿈 / 경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김용진

■銅賞

· 대중예술센터 계획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조영삼

· 공원과 어울리는 커뮤니센터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강경남, 석재영, 송지은

· 현대형 수변사찰 계획안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김성익, 김민보

■入選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 활성화 계획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진기, 남택용, 유정선

· Cultural Void of Urban /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신봉철 나하영, 동신대학교 건축과 정철호

· Remained & Forgetted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서명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서규덕, 권철웅

·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이효상,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상규, 최재평

· Interval Space /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신인성, 이승진, 이호선

· Work and Dwelling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강경희, 임 은

· 도심블럭 재조직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강현석, 김대욱, 최대현

· Community Block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상국, 김용상

· 도시의 상상(商像)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권기홍, 김혜윤, 장경수

· 연, 속 (連, 續)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백기석, 손영하, 이민영

· 일미진중함시방(一味塵中含十方) /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김민수

· Move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무균, 박양섭, 윤준혁

· Art in Clarity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김현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병남,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허지혜

· 대각선 횡단보도로 인한 미세지역성 / 상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재우, 김건주, 김정아

· Connecting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이은수, 이수동, 임유진

· 화교문화센터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소용수, 최광일

· Inter Path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김천기

· 지역역사성 보존을 통한 블록 재구성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안병익, 이효대, 김응래

· 호모랜드포머의 흔적 / S.Y.A건축사사무소 윤하영, 건축사사무소 OPUS 권오성, 동국대학교 건축과 안수환

· 봉천동 7-290 주거 · 상가 /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자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단건축 황정순

· 회기역 발전계획안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한성훈, 윤설윤

· 단절감 /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과 김영수, (주)시엔텍 백창흠, (주)건양종합건설 이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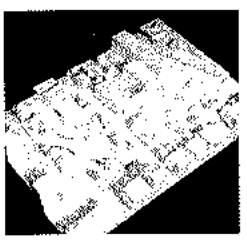
· Showcase in Myoung-dong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변영환, 이은정, 김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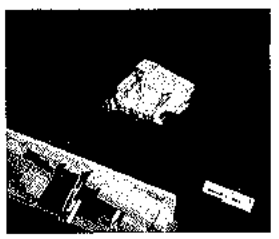
· The Third Street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지세욱,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창묵

· D&C House / 순천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작형

· 가회동 건축박물관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서현정,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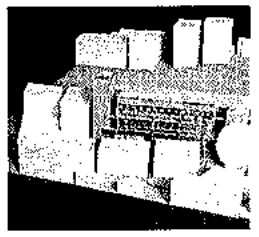
Connecting


화교문화센터


Inter Path

지역역사성 보존을 통한 블록 재구성

호모랜드포머의 흔적


봉천동 7-290 주거 · 상가

· 영도다리와 연계한 부산사기념관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계원, 김희일

심사평

이정만 / 한양대학교 교수

계획하는 도시 건축물이 위치할 대지와 인근지역의 독특한 분위기와 역사성, 지형적 여건, 인접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구성, 도로와 도시공지, 광역적 지역성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곳에 적절한 건축형태를 발견 표현하여 "주변과 어울림을 갖고 인근 지역에 또움이 되는 건축의 구현"이 금년도 학생공모전의 주제인 "미세 지역성의 건축적 해석과 표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은 건축학습과정에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건축계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건축가들에게 우리나라 도시 건축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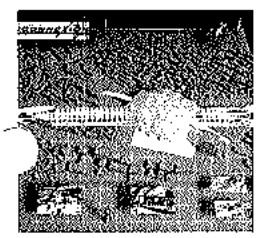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출품된 123개의 작품들은 나름대로 주제를 이해하고 주변 여건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건축적 반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작품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주변 지역의 매스 모형을 정성껏 만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변의 매스 모형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용기 있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건축적인 형태의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과 건물들을 적절한 건축스케일로 해석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주변 건물의 입면과 배치, 매스와 공간구성을 건축 스케일로 그려보고 분석하는 훈련이 부족해 보이고, 앞으로 건축교육에서 계속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주변 지역을 배려하는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은 도시건축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설계목표이고, 형태적 환경맥락에 대한 해석능력의 배양은 설계 교육의 기본이라고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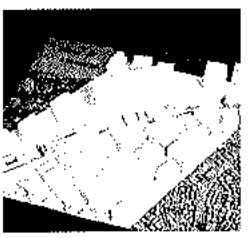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 속에서 긍정적인 노력들이 보여져서 미세지역성에 대한 공감대는 느껴지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건축물들과 또한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신도시들에서 주변을 배려하는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의 가치를 재인식해서 우리나라의 21세기 도시와 건축의 중요한 덕목으로 대두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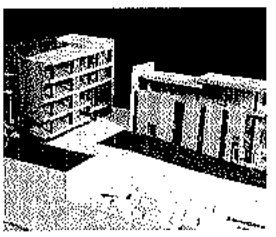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후에 선정된 33개의 입선 작품들에 격려와 치하를 보낸다. 33개 각각의 입선 작품들이 2단계에 걸친 진지한 평가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선정되었음을 전달하고, 건축적 형태구성과 표현능력의 수월성과 함께 금년도 공모전 주제에 대한 이해와 재현능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미세지역성"에 대한 남다른 해석능력과 재현의지를 갖춘 건축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금상으로 선정된 "정반합"은 보존과 개발의 상대적인 가치 아래 건축의 해답을 기대하고 있는 가회동의 해묵은 건축과제를 보존지구의 경계에 위치한 대지를 선정하여 두방향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포용하며 공간과 형태 디자인을 통한 친근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은상의 두작품 중 "Interlocking Edge"에서는 개항도시 인천의 중국촌의 재구성을 위하여 건축과 광장, 인근 건물과의 건축입면의 연속성 등의 과제를 건축스케일에서 형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좋게 보았으며, "고도의 꿈"은 현대도시계획의 도로망에 의해서 분단된 우리의 고궁을 연결키는 반복되는 과제를 많은 시간 동안의 노력과 창의적인 건축형태의 구성능력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in Urban Park," "Aqua Temple," "Via Musicom"의 세 개의 동상 작품들은 미세 지역성의 서로 다른 스케일들을 보여주는 예들로서 도시 공공용지의 단절현상의 개선과, 수변 지형의 활용, 또한 근린공간의 재구성의 스케일에서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디자인 구성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은 "Work and Dwelling," "Connecting," "회기역 발전계획안" 등이 있다.

가회동 건축박물관


회기역 발전계획안


단절감


Showcase in Mycung-dong

The Third Street

D&C House

영도다리와 연계한 부산사기념관

의재미술관 | 가나안교회 | 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 대구 달성 명곡주공아파트 | 은평구립도서관 |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대구종합경기장 | 영은미술관 | 인삼 랜드 휴게소 | 월강기념관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2001 한국건축 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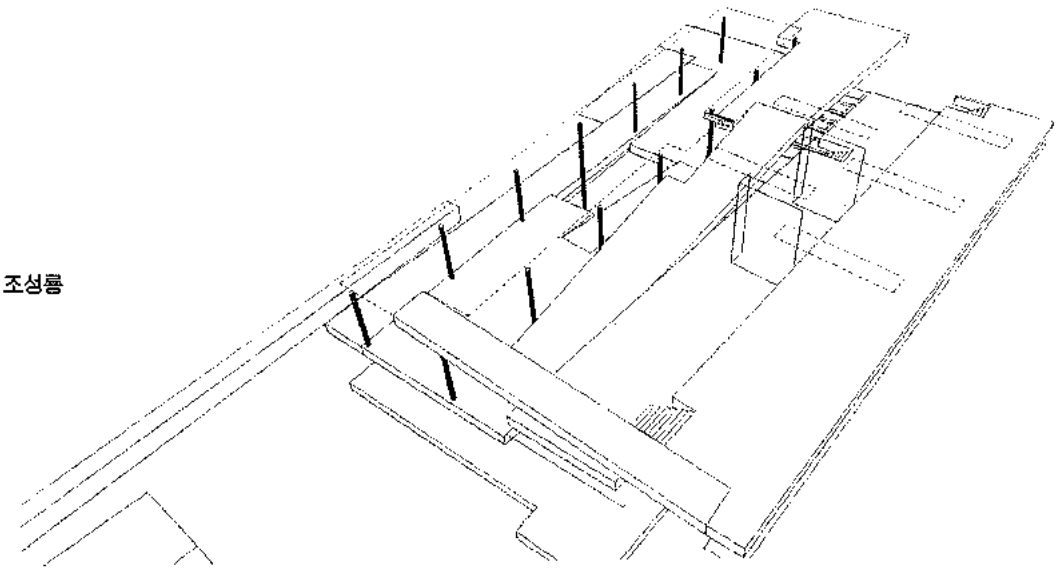
준 공 부 문

캐피탈타워 | 대구 MBC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 제일교회 | 수원 월드컵 경기장 |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 울산 월드컵 문수축구경기장 | 서울대학교 SPORTS COMPLEX | 강변복지아파트 재건축 | 도봉문화정보센터 | 도시개발공사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 양구전투기념관 | 여주교정시설

의재(毅齋)미술관

Euijai Art Center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
시공자 | 삼능건설(주)
건축주 | (재)의재문화재단



의재허백련(毅齋許百鍊, 1891~1977)은 조선조말기의 화가 허련과 허영의 방계 자손으로서 진도에서 태어나 생애의 많은 시간을 광주에서 지내면서 활동하였던 화가이며, 목포를 중심으로 작업하였던 남농 허건과 함께 호남 한국화의 양대 작가였다. 의재는 정통적인 남종화(南宗畵)에 뿌리를 두면서 한국적인 수묵화의 맥락을 정립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화가로서 뿐 아니라 민족사상가, 농민운동가의 면모도 보이는데 생애의 상당기간동안 농업교육과 차 재배(춘설차)에 심혈을 기울였던 점에서 나타난다.

광주시 운림동 일대의 무등산 계곡에는 마지막 30여년 동안 서화작업을 하였던 춘설헌(春雪軒), 그가 새로운 시대의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웠던 농업학교 건물, 찻집 춘설다헌(春雪茶軒)과 묘소, 무공해 춘설차 재배밭과 공장 등의 유적이 남아있고, 주변에는 증심사와 약사사 등 사찰과 암자가 있다. 의재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허백련의 작품을 상설전시하고, 호남 한국화가들의 작품을 기획하여 전시하는 공간과 그의 생전의 활동을 보여주는 특별전시기능을 수용하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문화기획은 광주시의 재정지원으로 수립되었다.

미술관부지는 둥산로에 길게 면하여 있고 건물의 뒤쪽은 울창한 소나무, 참나무, 오동나무수림으로 덮인 급경사지이다. 시내쪽에서 미술관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미술관의 약 300미터 지점에서 좁아져서 산 위 쪽으로 경사져 올라간다. 미술관영역의 입구부분에 의재교(毅齋橋)와 관풍대(觀風臺)가 나타나고, 이 지점에서부터 미술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경사진 길을 따라 미술관은 전시동, 차문화동(구 농업학교 건물=삼애원三愛園), 관리동 등 직렬로 배치된 세개의 건물은 경사로와 담으로 구성된 긴기단 위에 놓여 있으며, 각각의 건물은 주변의 풍경과 공존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되어 있다. 미술관은 몇개의 단을 구성하면서 급경사의 지형에 순응하며 배열된다.

좁은 도로와 계곡에서 바라보면 유리공간 위에 얹혀있는 단순한 형태의 목재상자(전시동)가 나타난다. 1층의 개방된 부분은 전시실 입구 홀(안내/정보기능)과 계단, 휴식공간으로 구성된 공공영역이며, 계곡건너의 춘설다헌의 경치와 마주하며 이 영역에서 지형의 경사를 따라 기획전시장이 이어지고 2개 층이 뚫린 지하의 부대기능과 연결된다.

전시동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경사로는 기존건물의 축과 일치하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기존건물과 시각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기획전시장은 작품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2개의 레벨로 나눈 좁고 긴 갤러리이다. 전시공간은 서양화 위주의 전시공간과 달리 한국화 전용전시공간의 성격과 정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크기와 채광으로 조절되어 있으며, 관람통로의 중간중간 외부로 트인 넓은 유리면으로 주변의 풍경이 내부로 들어오고 반투명한 경사통로를 통하여 2층의 상설전시실로 연결되어 산책로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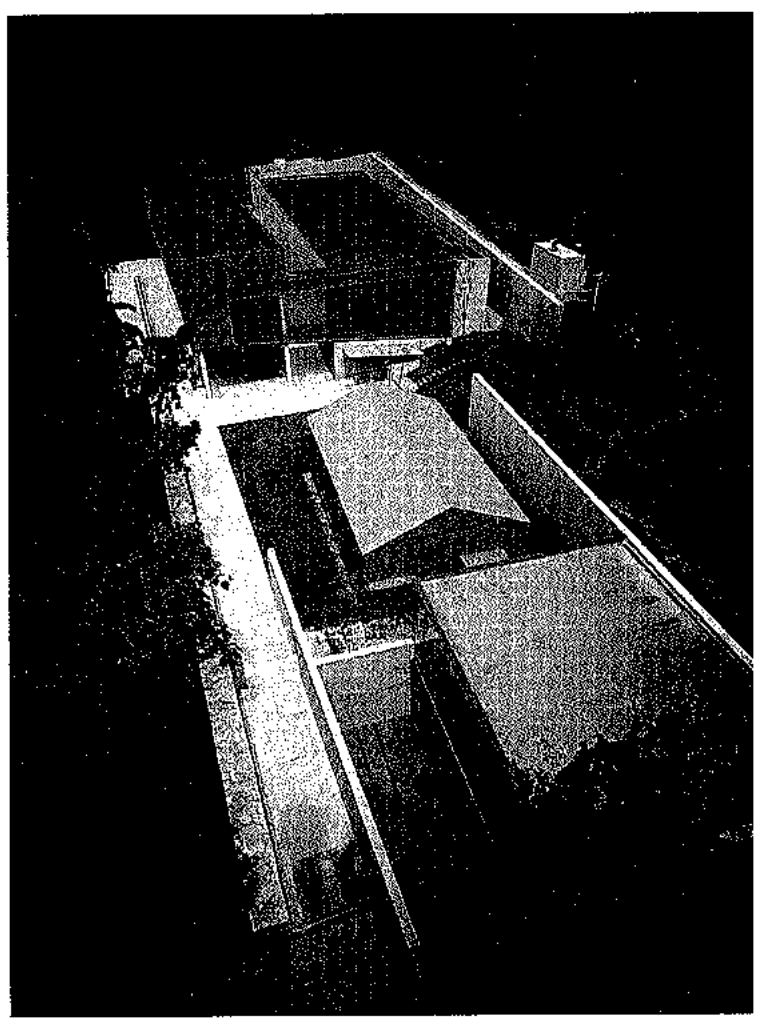
기존건물과 전시동 입구 사이의 마당은 미술관 전체의 중심 영역으로서, 오동나무숲, 대나무숲과 만나며 장소의 기억과 의미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둥산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미술관의 형태가 언뜻 엿보이며, 중심 공간인 풀밭마당에서 바라보면 북쪽으로는 숲으로 이루어지는 산의 능선이, 남쪽으로는 무등산의 인상적인 경관을 보여주는 암석봉 우리인 서인봉(曙印峰)의 암석이 눈에 들어온다. 동쪽의 차문화(茶文化)교실과 관리동은 기존의 학교건물과 관리동의 반지하공간을 연결하여 확장된 공간이며 동쪽 끝의 대지경계까지 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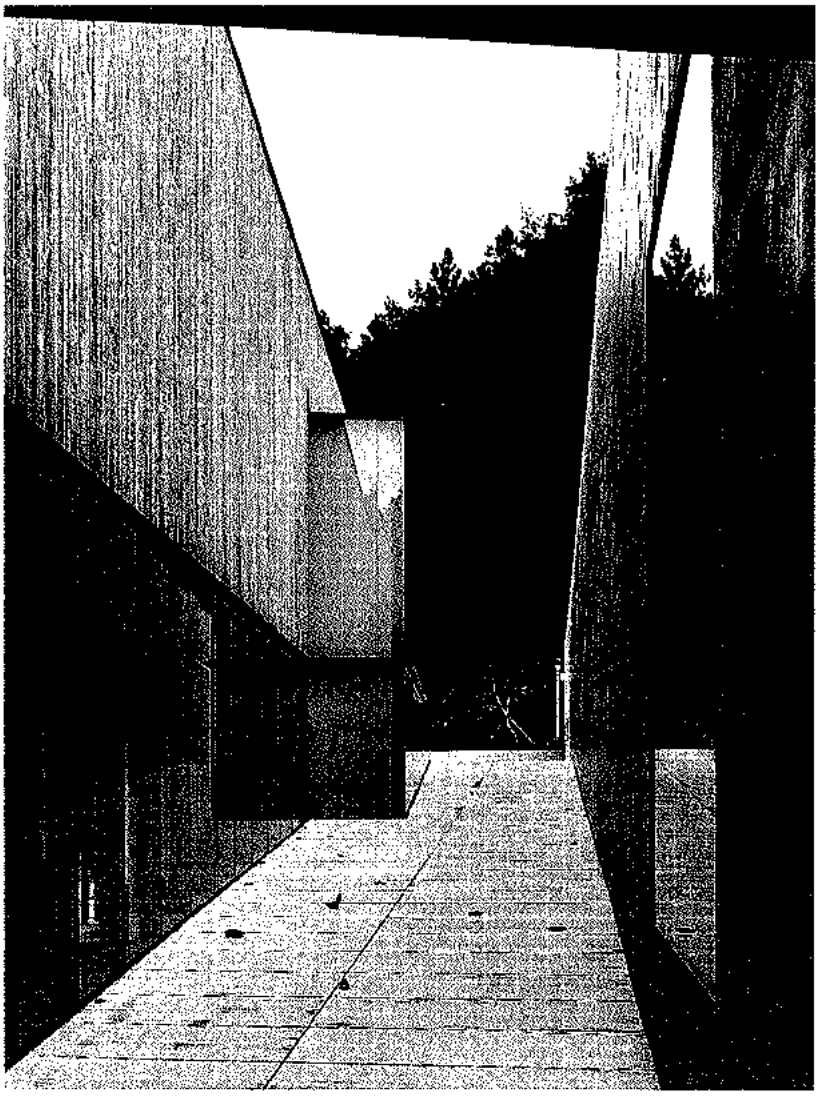
주변의 수려한 자연에 순응하기 위하여 건물의 재료와 장치 역시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정되었다. 유리, 적삼목, 산석을 쌓은 담과 기단, 습기가 많은 이 지역의 기후특성을 고려하면서 서화의 보존을 위하여 콘크리트로 처리된 상설전시실부분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경량구조와 공법을 선택한다. 내부재료는 밝고 조용한 내부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사용함으로서 은은한 내부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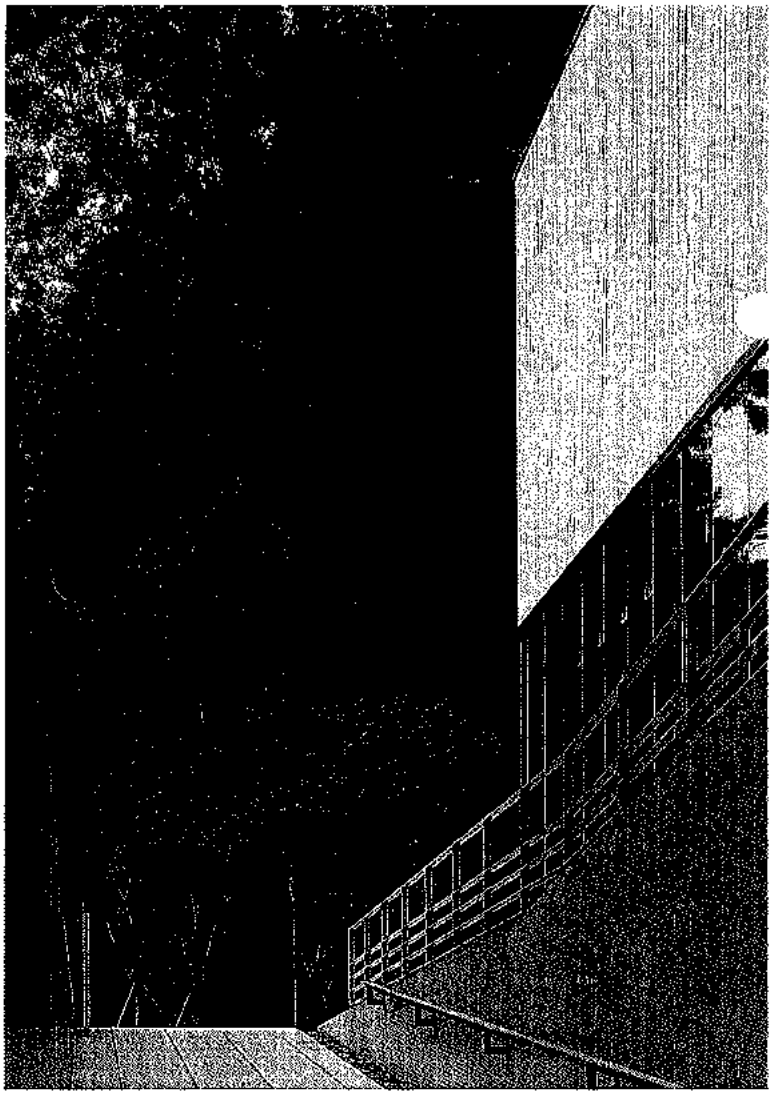
비움과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정일(靜溢)한 공간, 보이는 것 보다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를 느끼는 새로운 풍경을 이 미술관에 담는다. 〈의재미술관〉이 화가 허백련의 정신세계와 예술관을 담는 풍경의 공간으로 무등산 자락의 경관과 공존하면서 '자연속의 미술관', 땅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산책로'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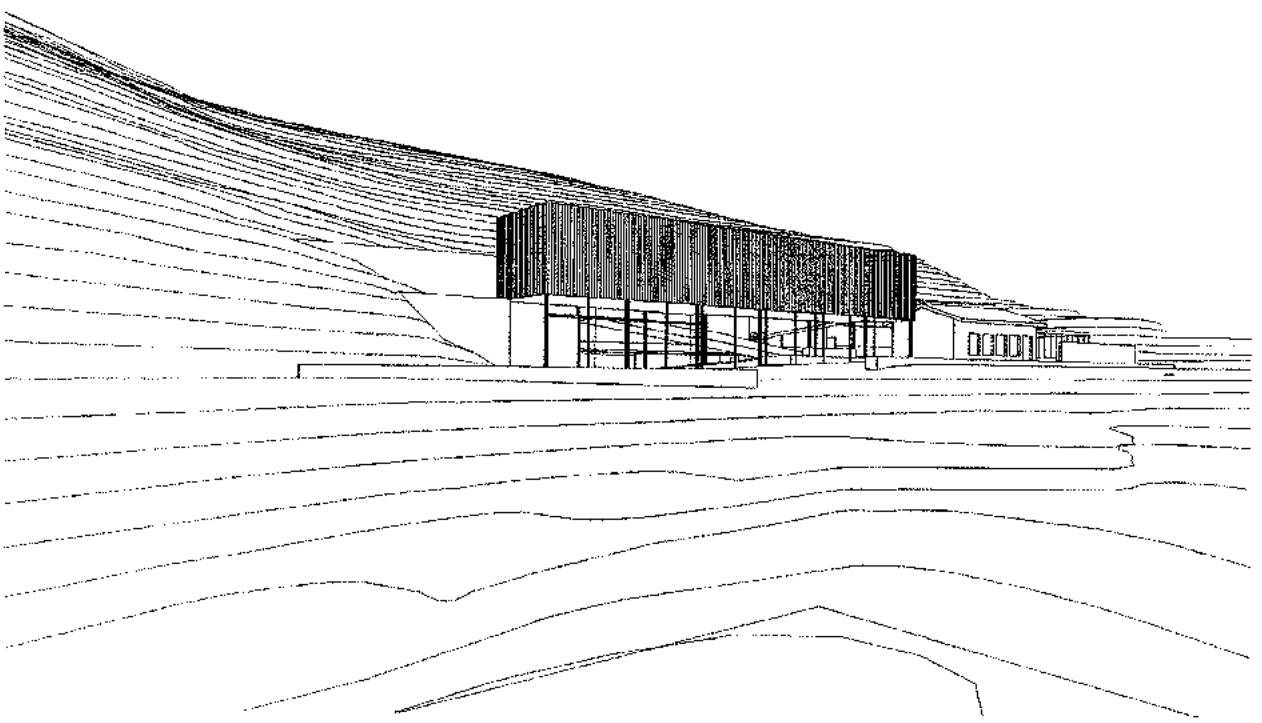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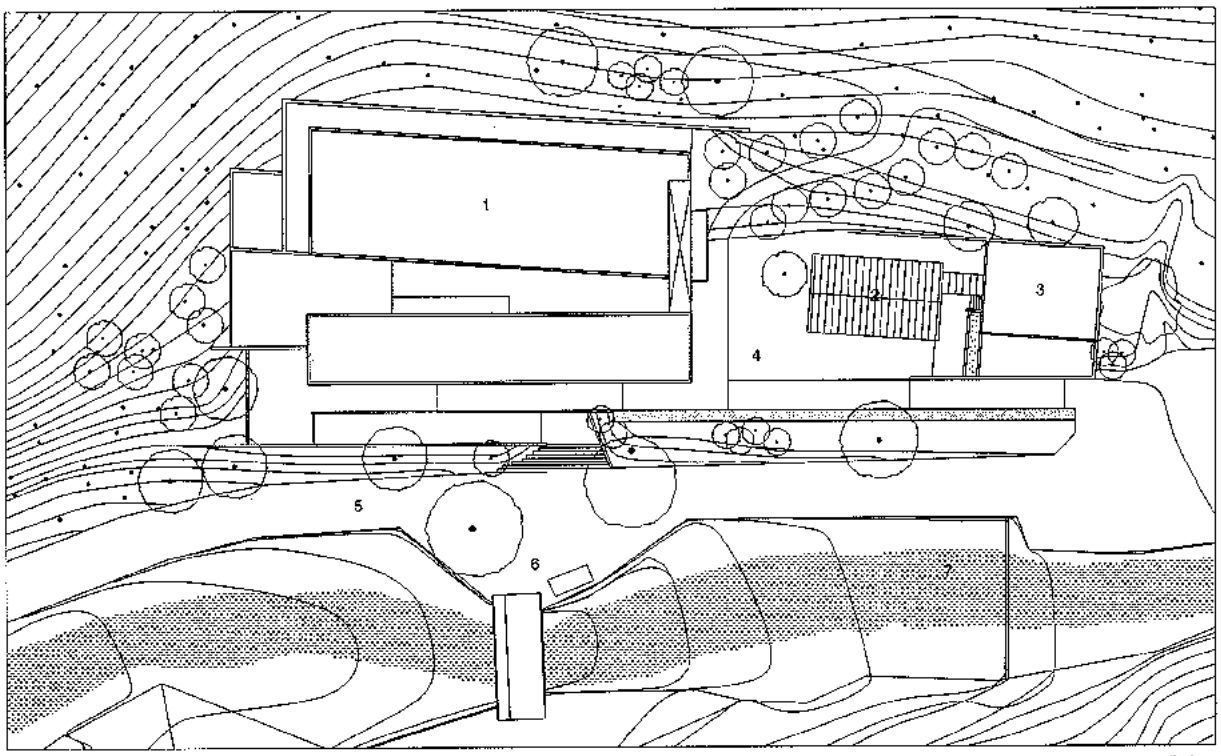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5-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048㎡
건축면적	816.92㎡
연 면 적	1,562.27㎡
건 폐 율	13.51%
용 적 률	15.41%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치장콘크리트, 적삼목판재, 투명/반투명유리, 티타늄아연판
건 축 주	재단법인 의재문화재단(이사장/허달재)
설계담당	건축사사무소 조성룡도시건축+김종규(협동설계) 정상철, 김경회, 박효영, 백은정
설계기간	1999. 3~19999. 10
공사기간	2001. 1~2001. 6
사 진	김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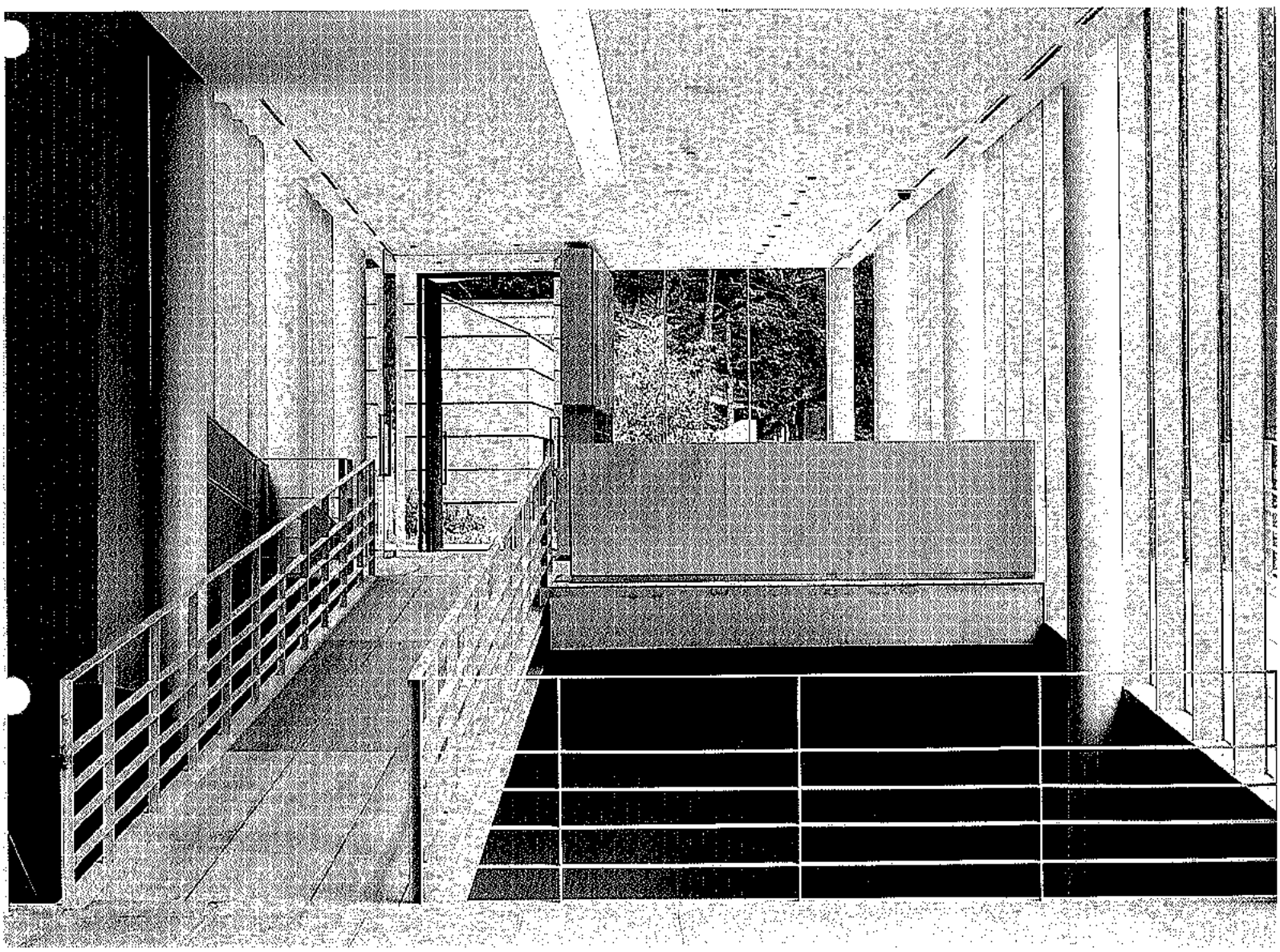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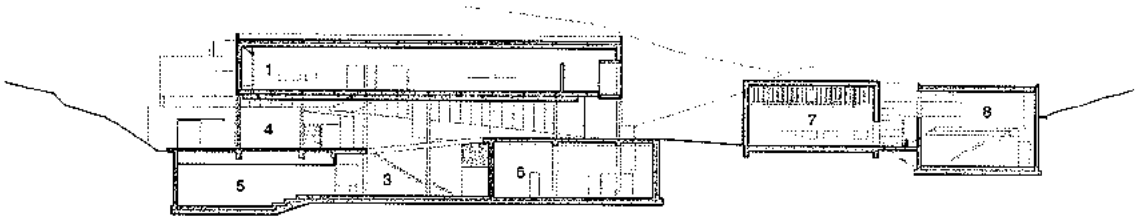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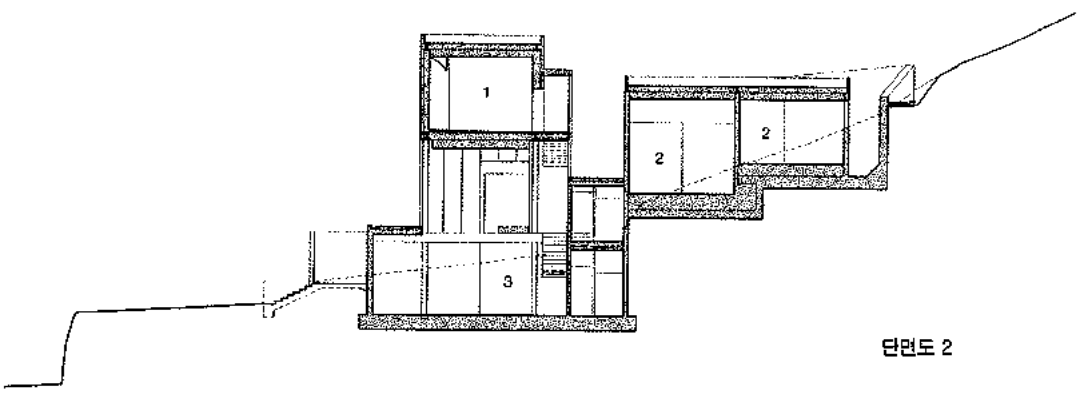
1. 전시동 2. 치운학교실 3. 관리동 4. 마당 5. 폭 5m도로 6. 다리 7. 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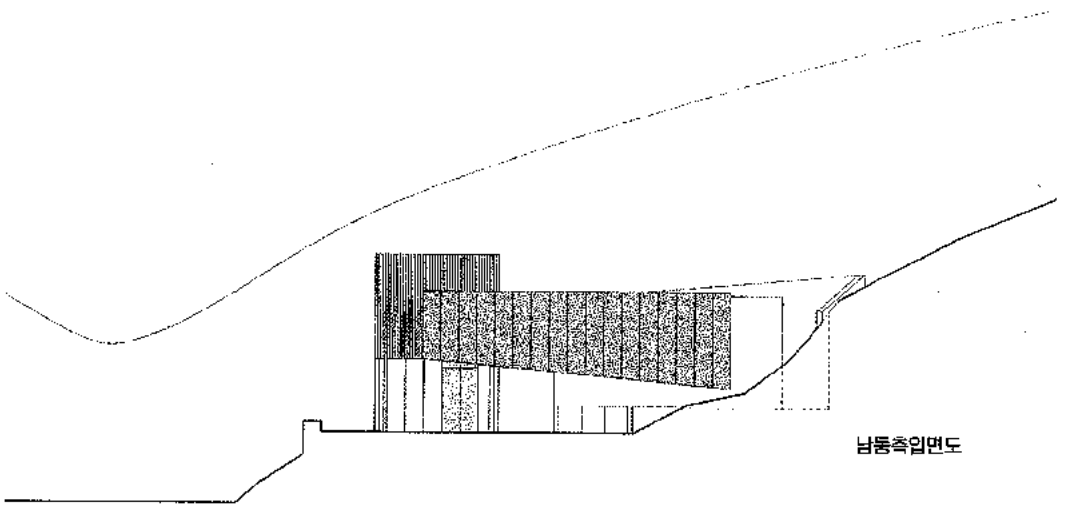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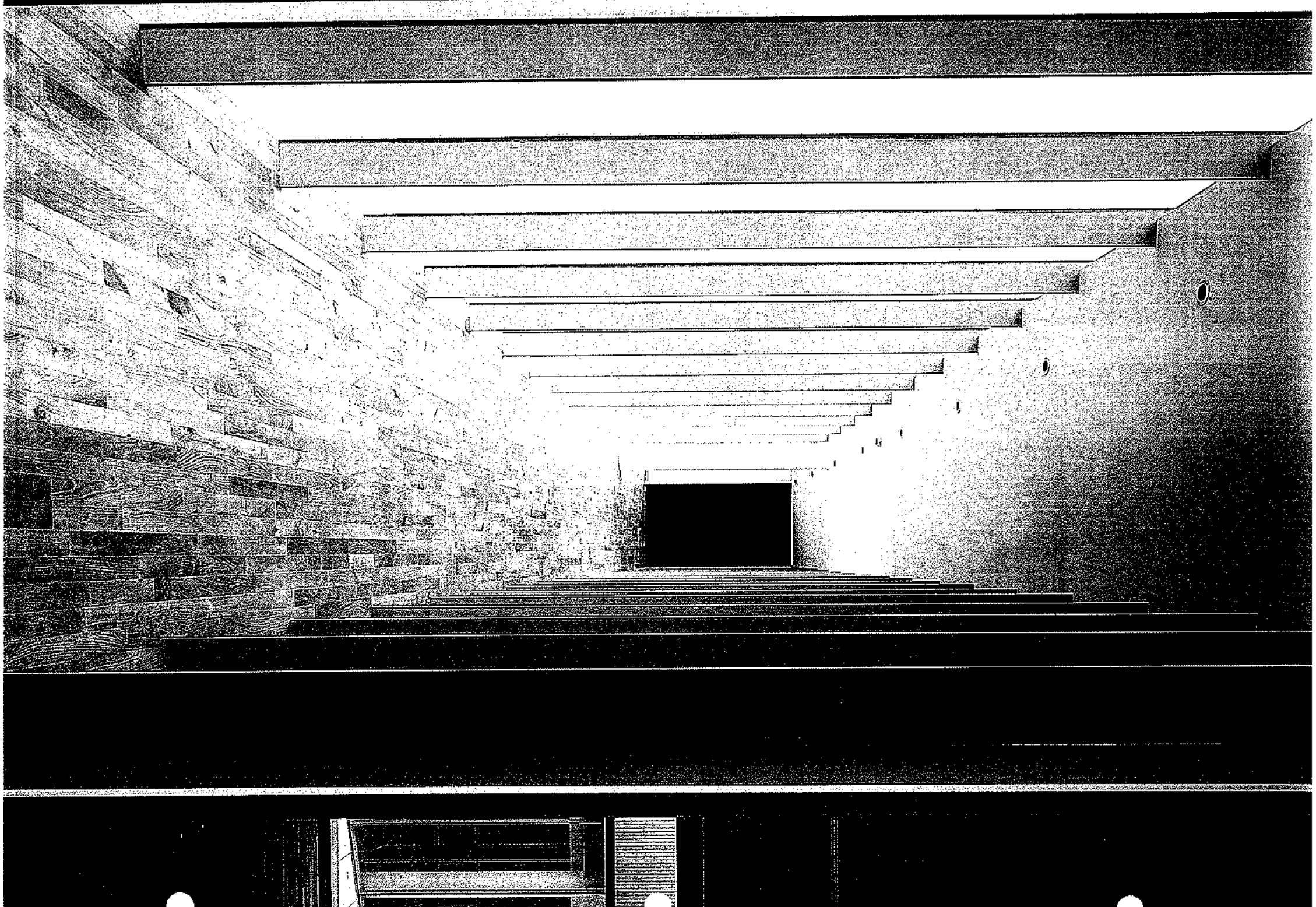
1. 상설전시실
2. 기획전시실
3. 홀
4. 휴게실
5. 세미나실
6. 기계실
7. 외재유품전시실
8.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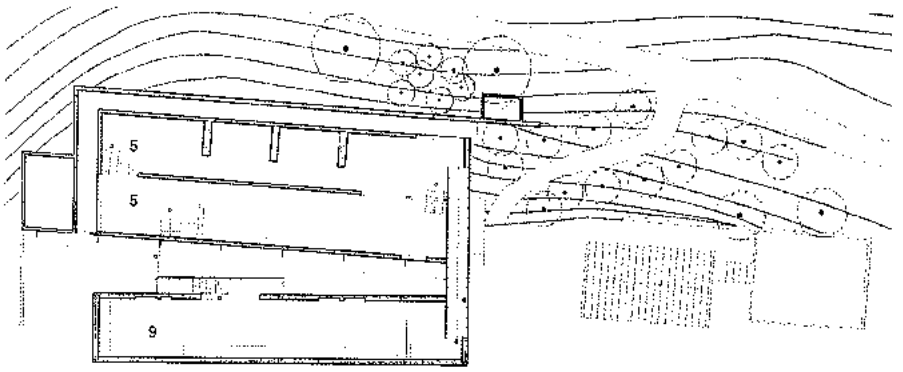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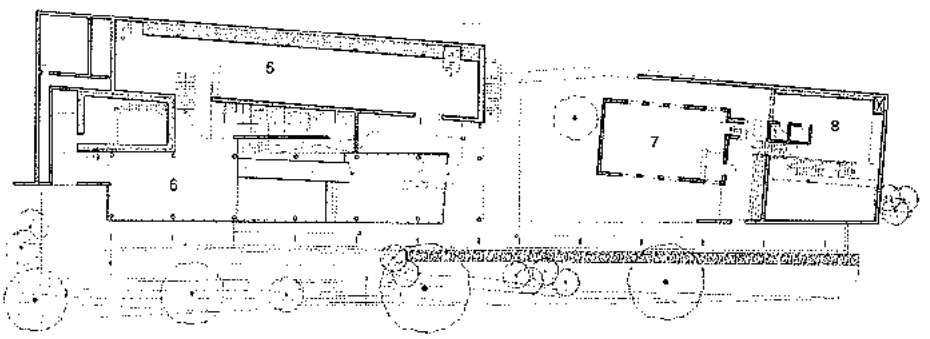


남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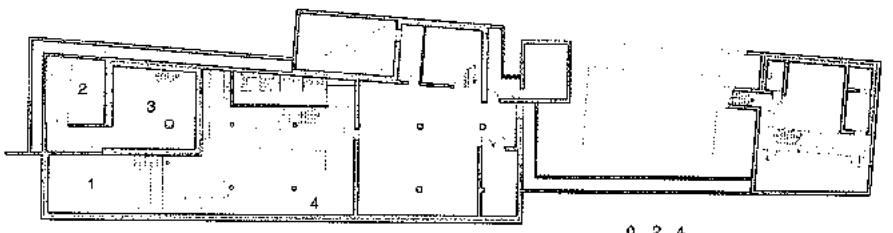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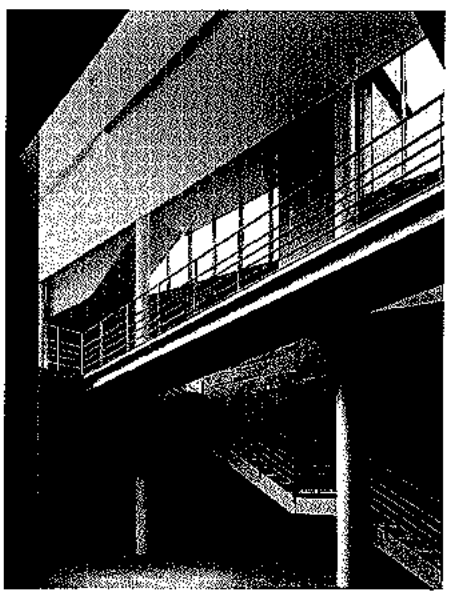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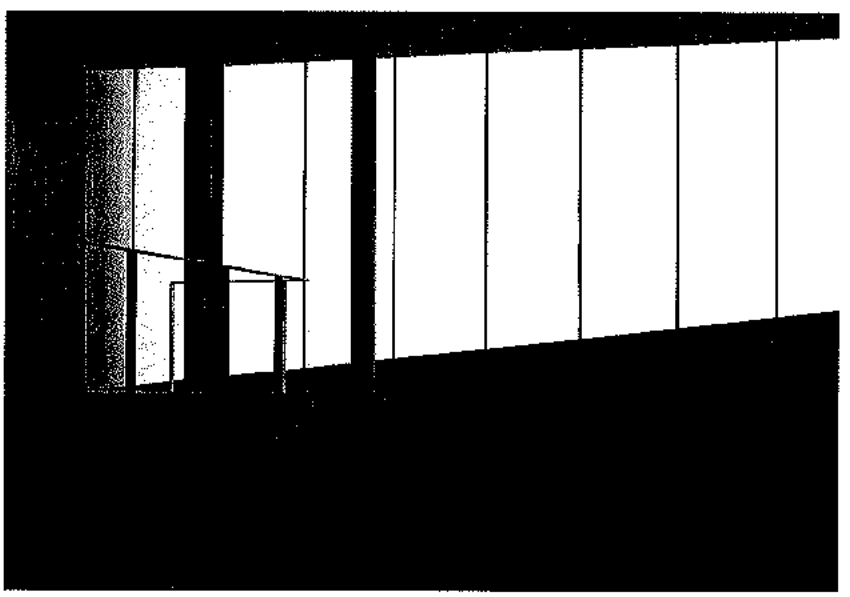
1. 세미나실
2. 전실
3. 수장고
4. 갤러리
5. 기획전시실
6. 휴게실
7. 외재유품전시실
8. 사무실
9. 상설전시실



0 2 4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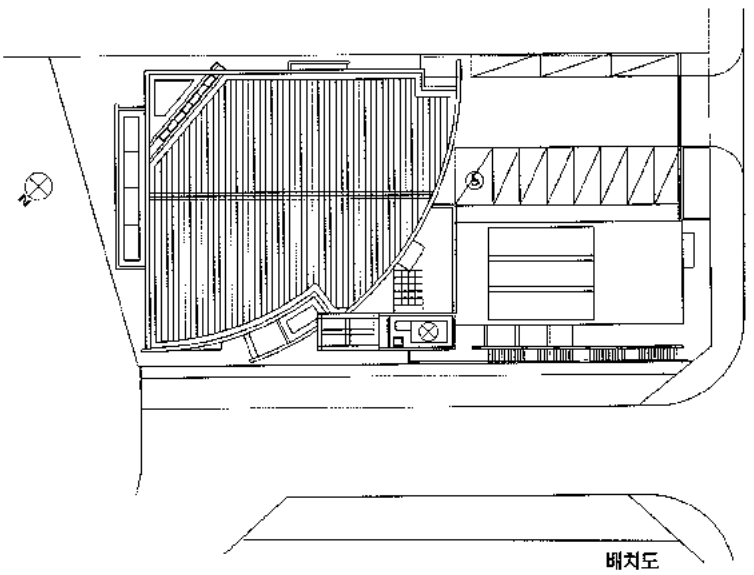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가나안교회
Cana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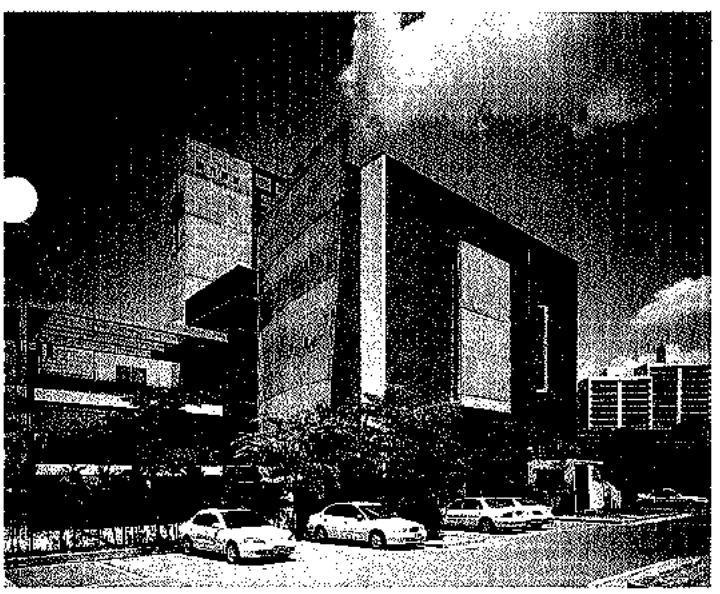
설계자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이충기
시공자 | 예일종합건설(주)
건축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가나안교회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7번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용 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1,402.20㎡
건축면적	839.38㎡
연 면 적	3,687.41㎡
건 폐 율	59.86%
용 적 률	194.44%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31대(지상 11대, 지하 20대)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골강판 위 불소수지코팅, THK16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	석고보드 위 페인트
기계설비	(주)범창종합기술
전기설비	(주)극동문화전기



개념잡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에서 보내는 40여년의 기간을 고난과 영광에 빗대어 신앙생활의 그림자라고들 말한다. 수백만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동하다가 수천개의 천막으로 진을 치고 하루밤을 묵게 되면 거대한 사각형의 모양을 이루게 된다. 12지파중 3지파씩 동서남북을 담당하고 진 중앙에 역시 천막으로 된 이른바 성막을 위치시킨다. 이 성막은 그들 믿음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집이요, 이동하는 성전이었다. 성막은 천으로 된 울타리가 폭 25m 깊이 50m로, 깊이의 반은 과정과 공간이고 반은 성소와 지성소가 놓이는 목적공간이다.

가나안 교회는 이 성막의 개념으로 분할하고 의도하였다.

땅-지리적 장소

교회가 위치하는 주변도로는 두 개의 큰 원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다소 폭이 좁은 장방형의 형태로 땅은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가 인접한 전형적인 도시교회로서의 조건이다. 서쪽의 30m 전면도로와 시설녹지를 낀 북쪽의 8m 측면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좋고 동쪽으로 소공원과 산책로가 있어 도시교회로서의 입지는 양호한 편이다.

도시교회에 있어 장소로서의, 기능으로서의 도시라는 접두어는 이 프로젝트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믿음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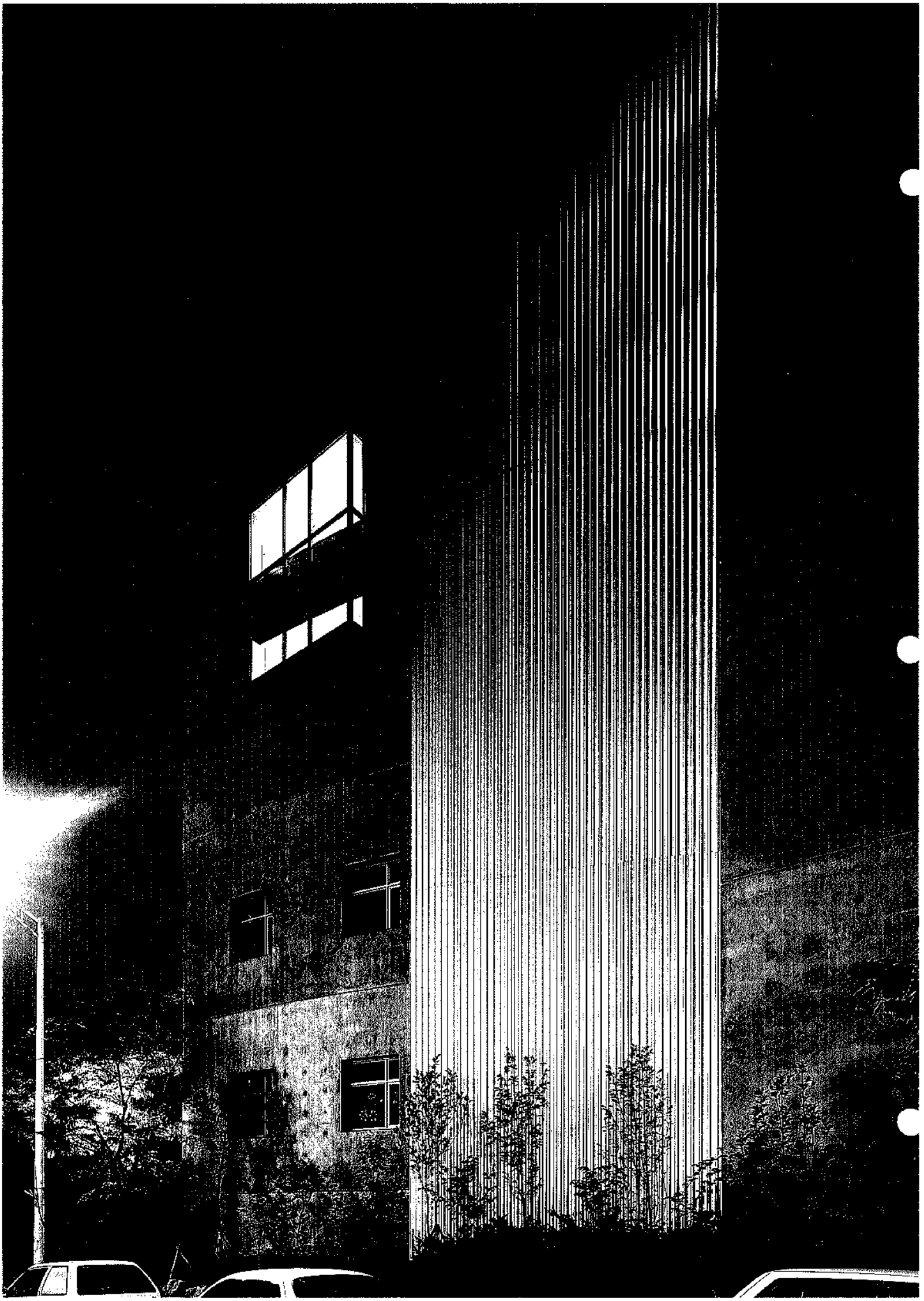
대지는 크게 과정의 공간인 진입공간과 목적공간인 교회공간으로 크게 2분되고 진입공간은 다시 보행과 차량공간으로 2분된다.

도시교회는 분당 이외의 많은 소그룹 모임실과 관리적 기능을 요구한다. 결국 구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배움의 공간인 본당은 상층부에, 그 이외의 부속 기능들은 저층부에 둘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 2층에 당회실, 친교실, 소예배실, 소그룹모임실 등의 기능들을 배치하고 3, 4층에 본당을 계획하여 향과 진입을 고려한 믿음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움의 공간인 본당은 주변도로가 그리고 있는 원에서 1/4을 취한 형태로 하여 설교시 사선의 집중성을 고려하였다. 본당은 빛의 유입을 절제하여 강단 부분과 회중석 부분의 천 측창을 통한 빛의 침투가 소중하고 성스럽게 하여 믿음의 장소임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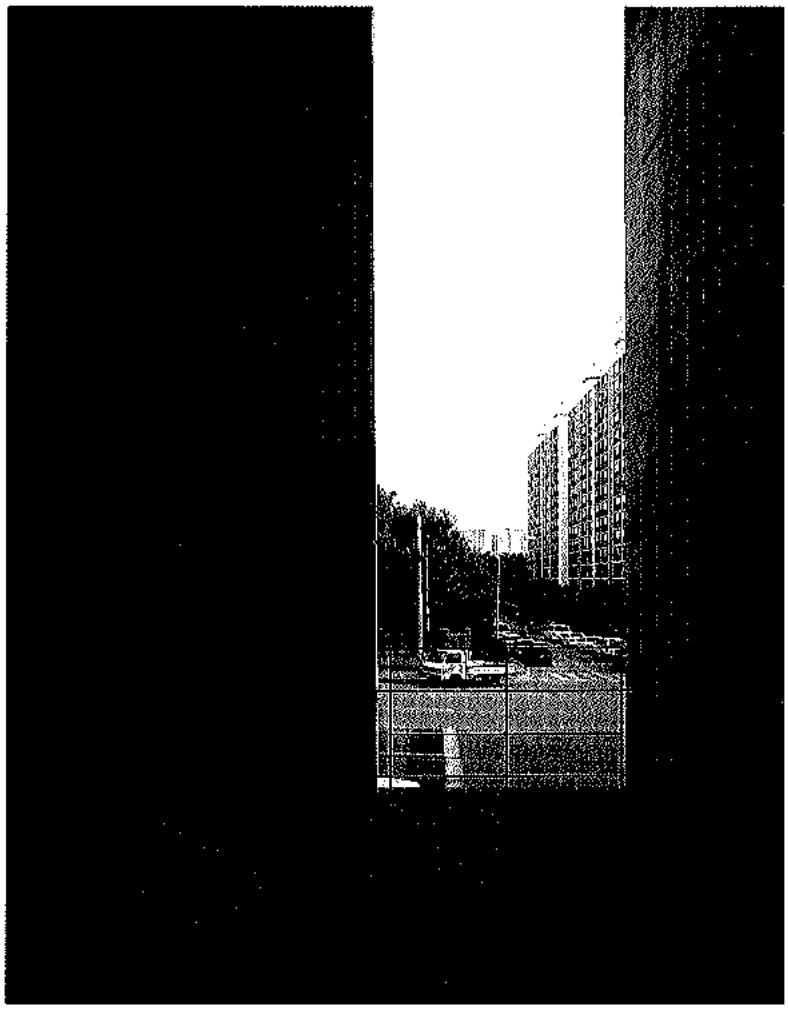
보이는 길, 보이지 않는 시퀄라크르

가나안교회는 많은 비종이 모임을 위한 동선, 즉 길에 할애되어 있고 이것은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 이 교회의 상징적 이미지로 부각된다. 교회의 모임은 요일과 시간별로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집중적인 모임과 흩어짐에 대한 고려, 이동에 대한 고려는 분당이 상층부에 위치한 도시교회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가나안교회의 길에는 여러 사건들이 잠재해 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여러 사건들을 위해 단순한 동선의 기능을 초월하는 여유와 장치들을 한 것이다. 그 공간에서 절대자를 향한 기도, 집회, 혹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들 사이의 대화, 사색, 개구부로의 조망, 빛,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 공간에서 존재하는 이런 일상적인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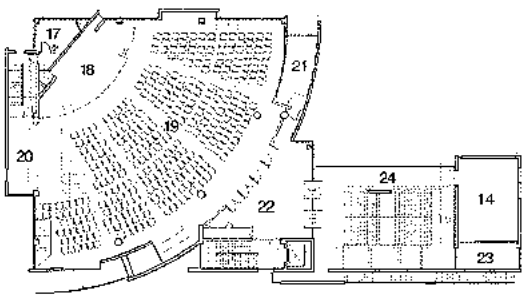


이미지, 시뮬라크르는 판과 벽에 의해 형성되는 보이는 공간과 형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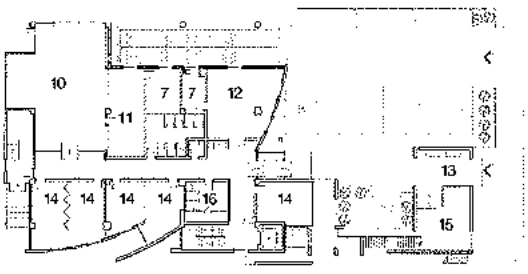
건축가의 손을 떠나 이제 현실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 의해 그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사건, 시뮬라크르는 가나안교회의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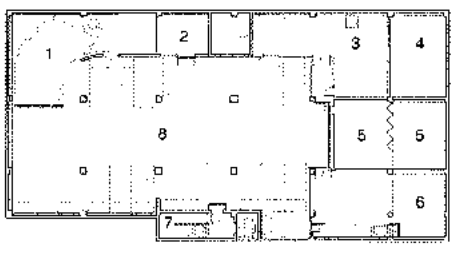
1. ramp
2. 발전기실
3. 기계실
4. 저수조
5. 소그룹 모임실
6. 썬큰
7. 창고
8. 지하주차장
9. 계단실
10. 식당
11. 주방
12. 관리실
13. 주일출입구
14. 소회합실
15. 옥외계단
16. 화장실
17. 준비실
18. 강단
19. 회중석
20. 성가대석
21. 자모실
22. 홀
23. 발코니
24. 연결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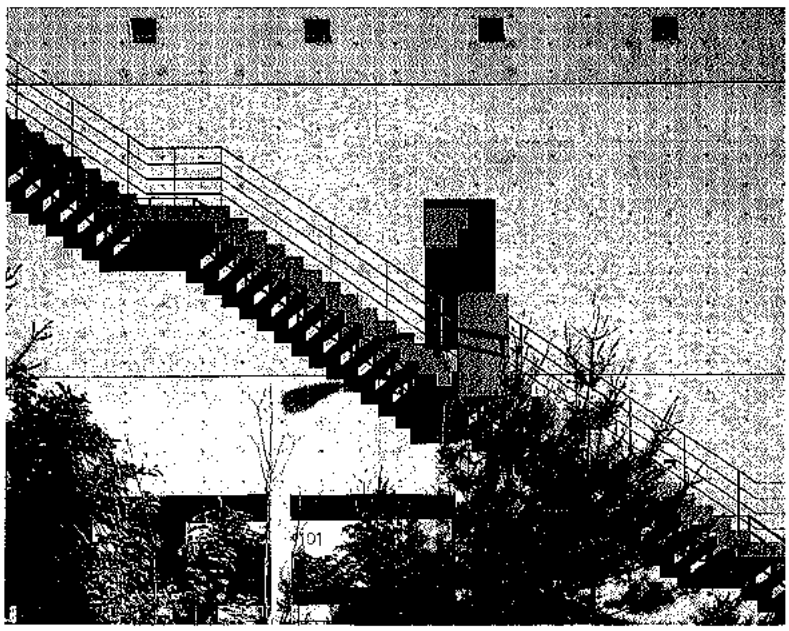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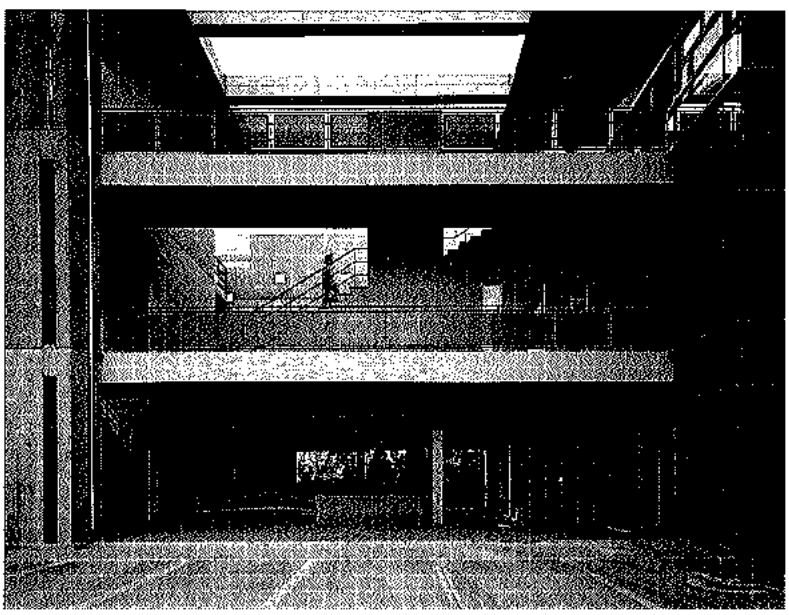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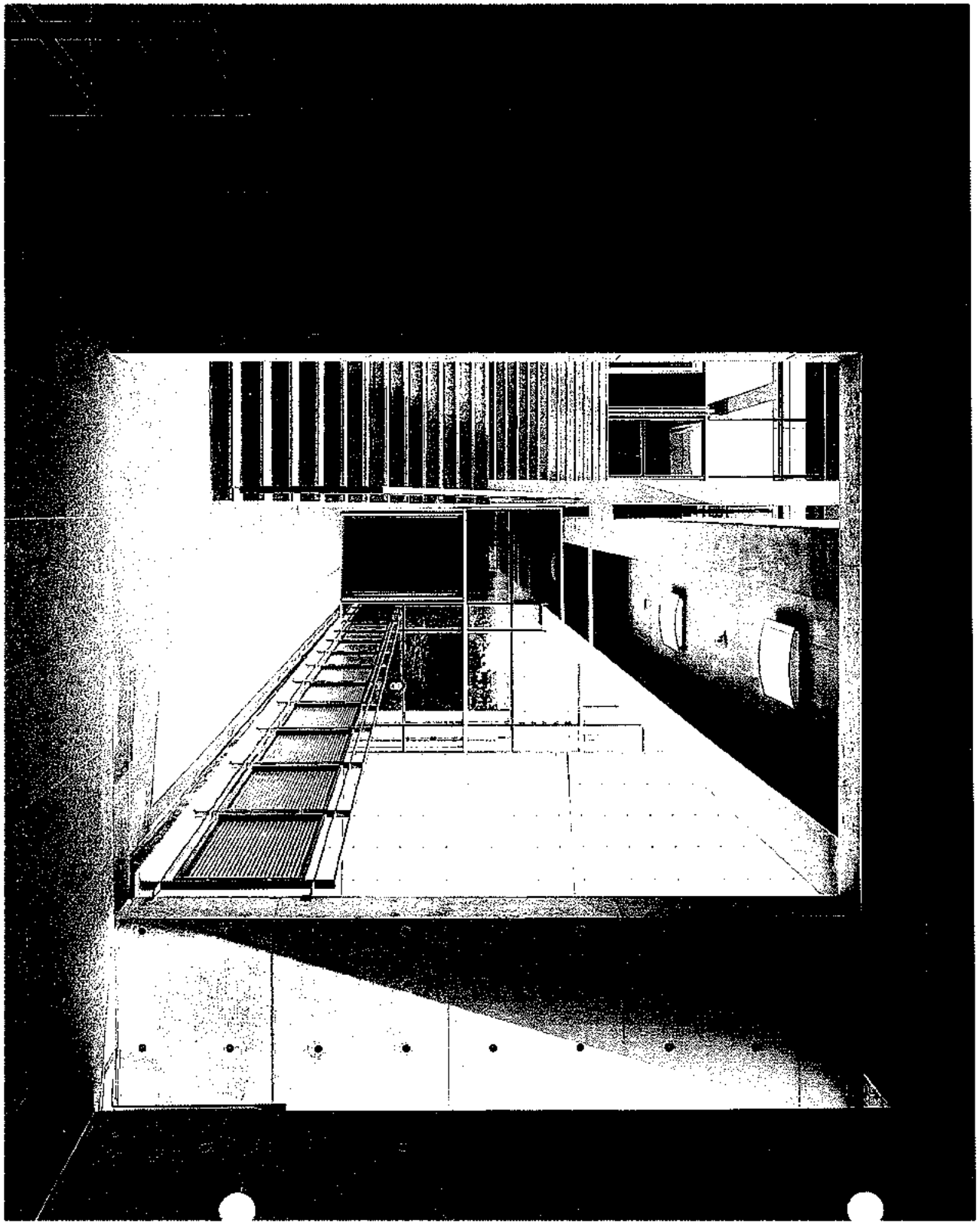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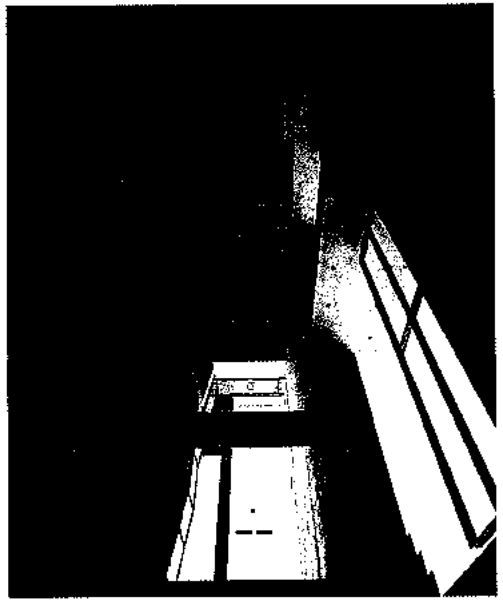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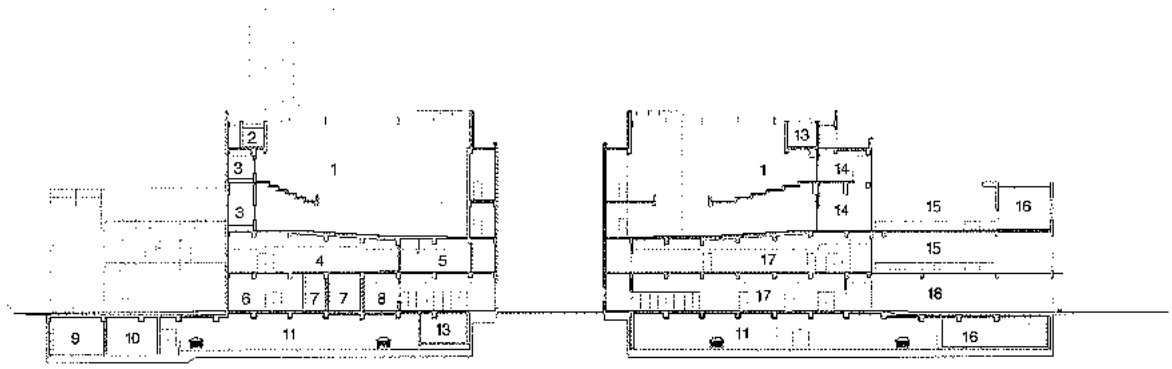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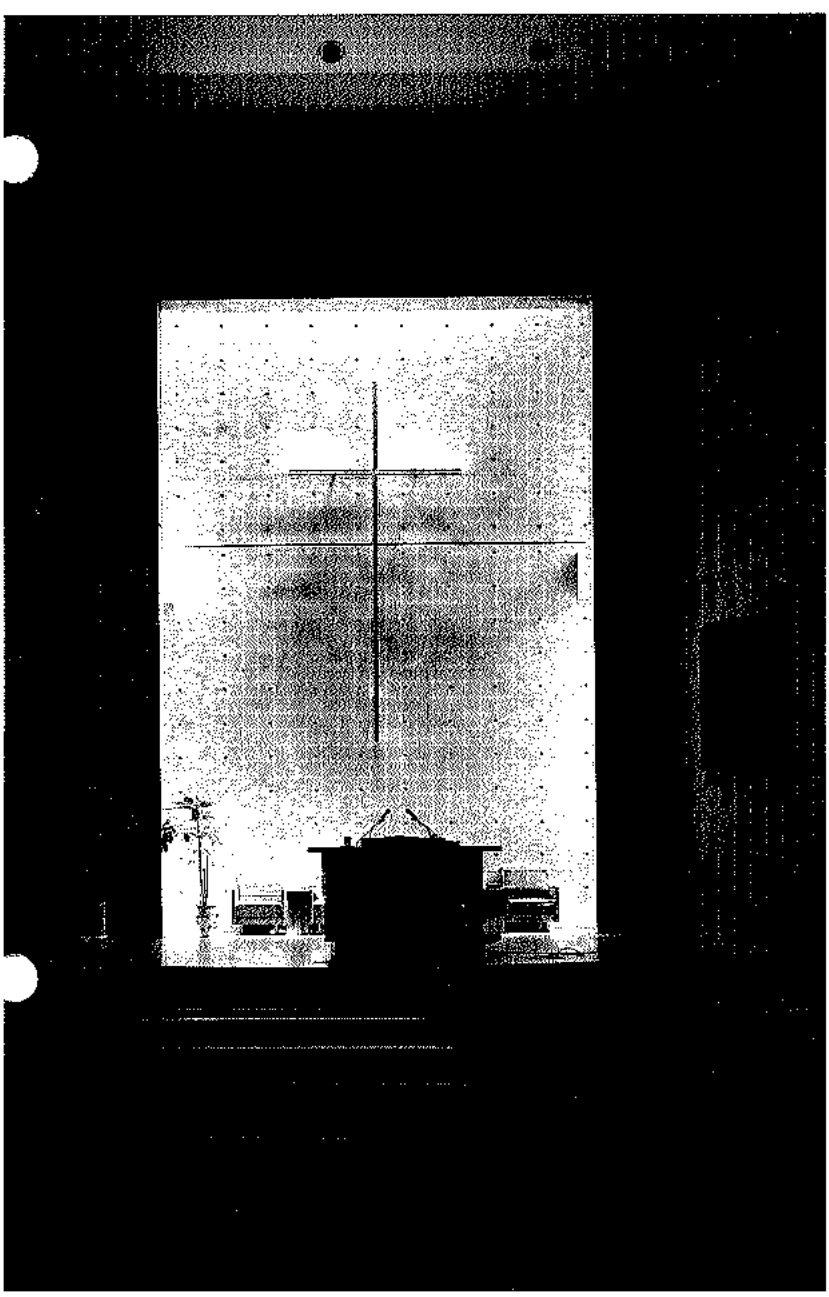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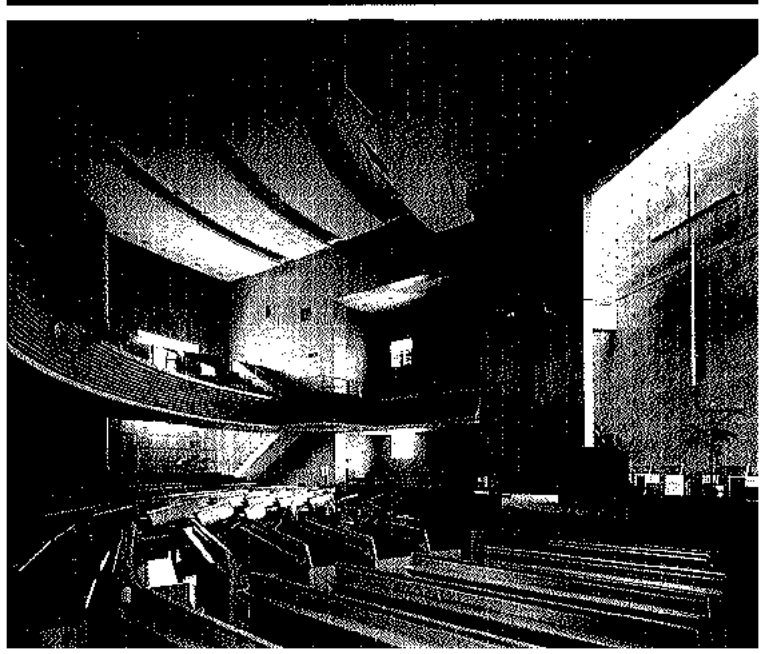




1. 대예배실
2. 기도실
3. 자모실
4. 소예배실
5. 당회장실
6. 관리실
7. 창고
8. 주방
9. 저수조
10. 기계실
11. 지하주차장
12. Ramp
13. 방송실
14. 홀
15. 언걸복도
16. 소집회실
17. 복도
18.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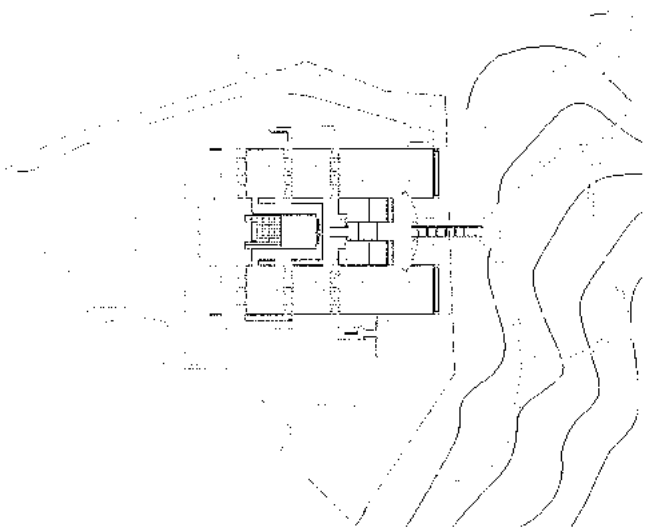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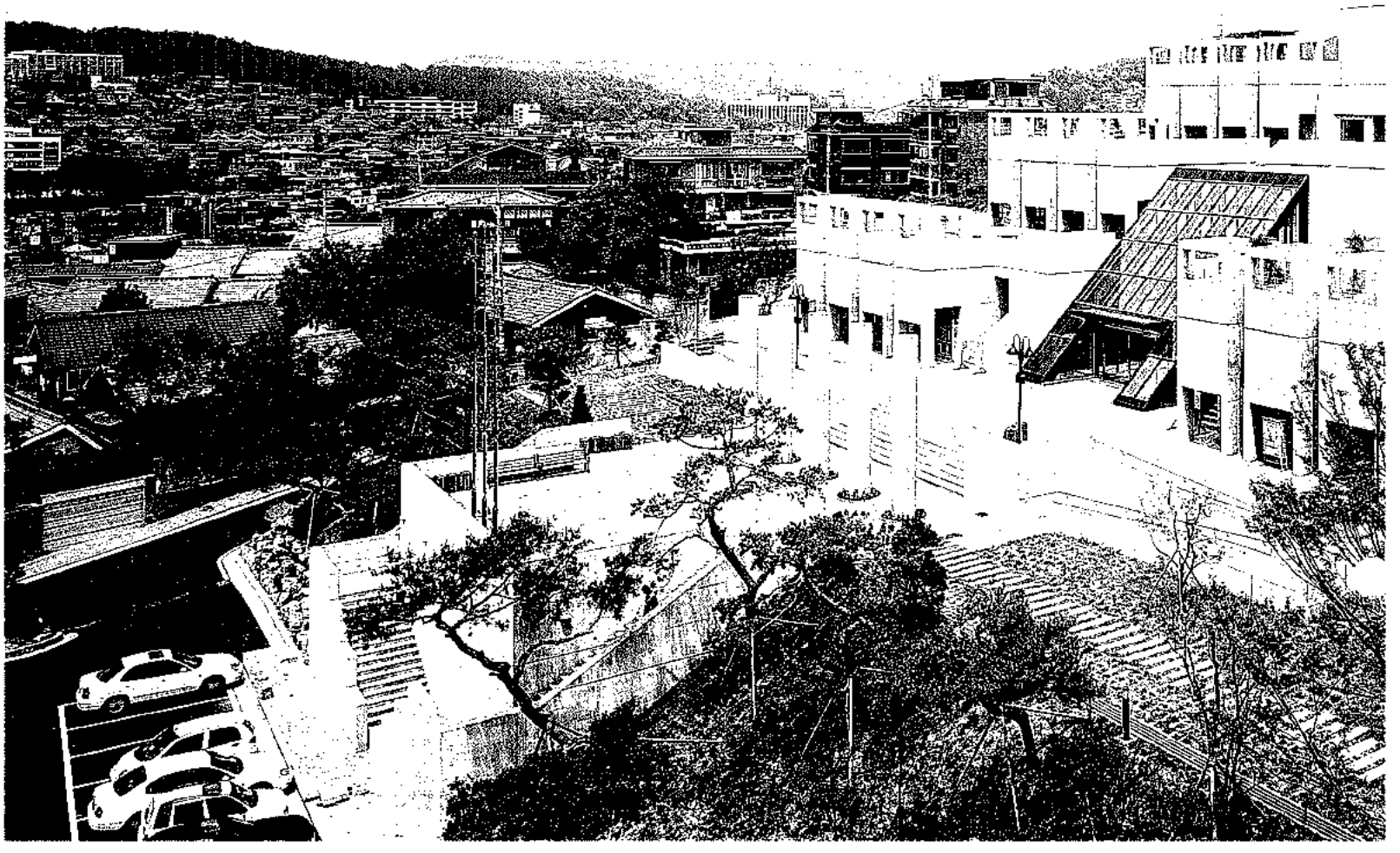
은평구립도서관

Eunpyeong-gu Library

설계자 | (주)맥건축사사무소 곽재환
시공자 | 동영종합건설(주)
건축주 | 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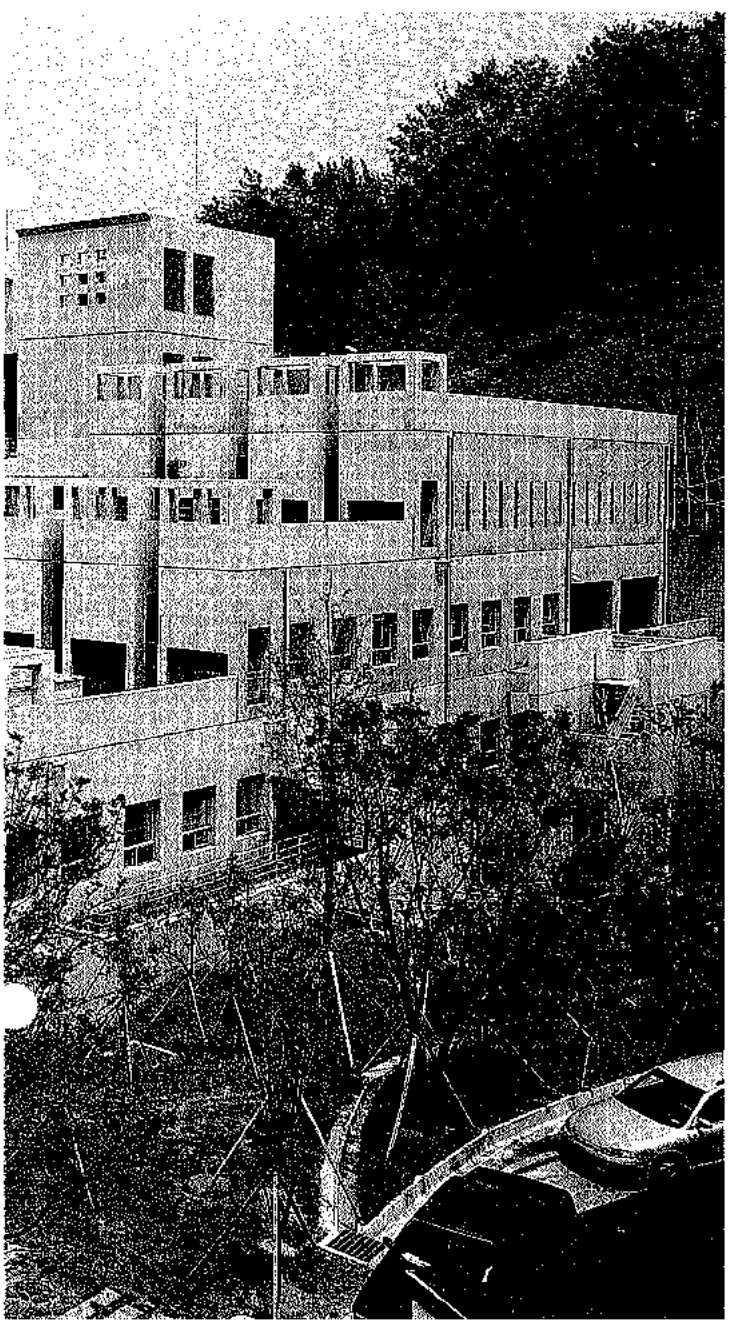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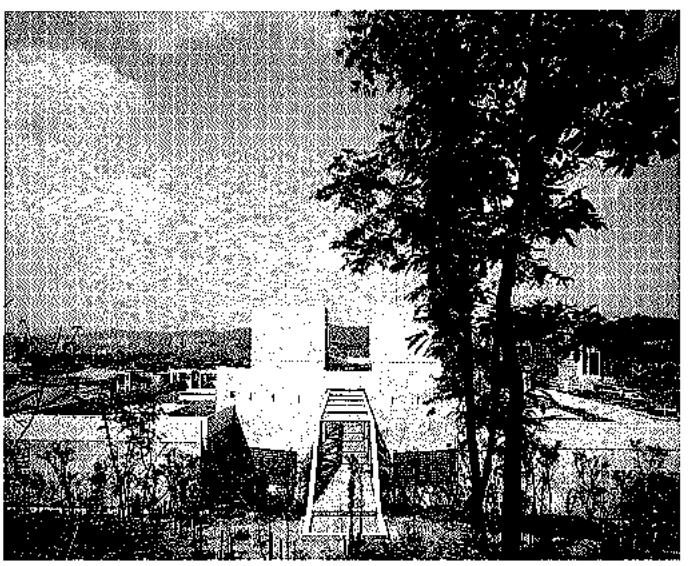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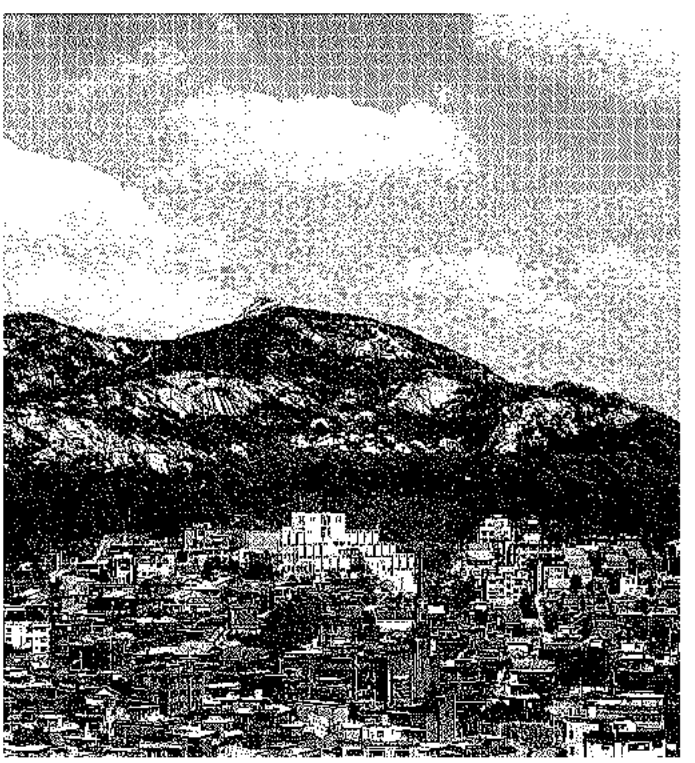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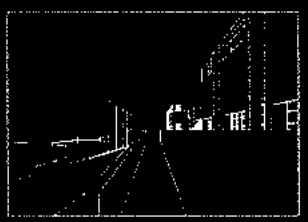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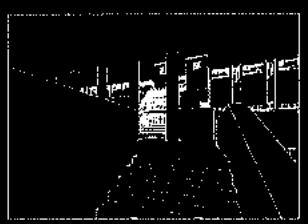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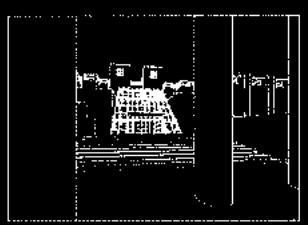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59-32 외 14필지 (불광근린공원 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근린공원
용 도	교육연구사설(도서관)
대지면적	8,013.62㎡
건축면적	1,925.87㎡
연 면 적	5,059.99㎡
건 폐 율	24.03%
용 적 률	43.00%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3.33m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시멘트뿜칠
내부마감	바닥-비닐쉬트, 벽-수성페인트, 천정-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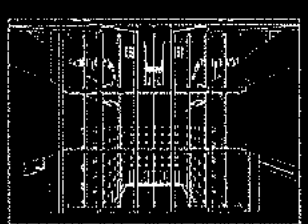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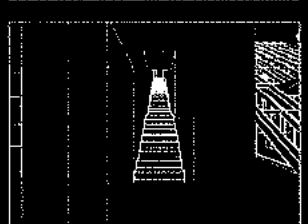
은평 구립 도서관은 얕으막한 동산으로 이루어진 불광 근린 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향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란 도서관의 입지 조건상 양호한 곳이 아니다. 그곳의 강한 일광과 자외선으로 인해 환경적 측면에서 독서와 도서의 보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치 계획도 서향과 마주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불광 공원의 산등성이에서 서쪽을 향하여 완만히 경사져 내려가는 부지에 서보면 이러한 사실은 이 장소에서 극복하고 넘어 서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곳의 서향은 그야말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척 들어와 눈맛이 참으로 시원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해질 무렵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색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큰 즐거움인 까닭이다. 도서관의 이러한 입지 여건은 처음부터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노을에 대한 이미지는 작가의 몽상을 키워 나가는 지속적인 촉매로 작용하였다. 생각해 보라, 석양의 황홀하면서도 신비한 빛과 그 우수가 주는 메세지를, 이는 그 어떤 도서관의 그 어떠한 텍스트 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눈뜨게 하고 삶과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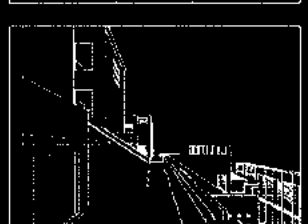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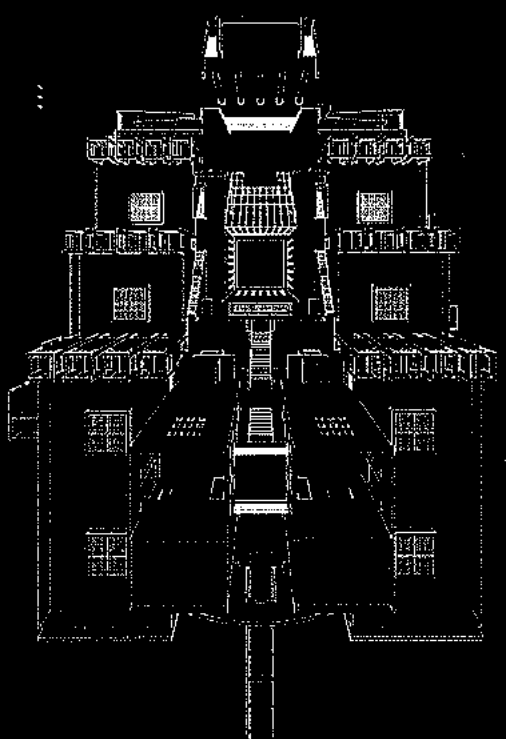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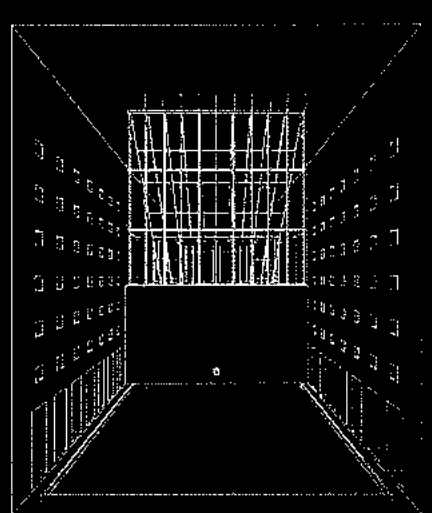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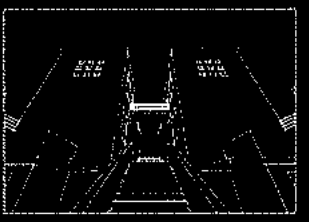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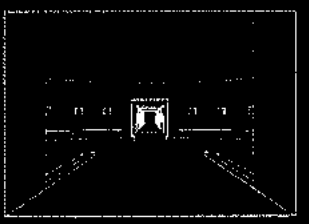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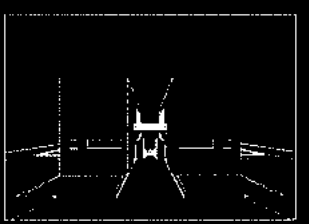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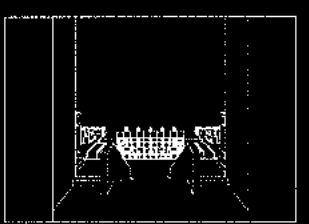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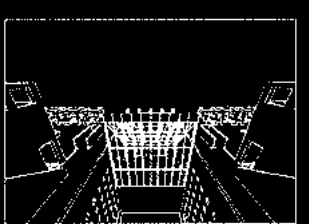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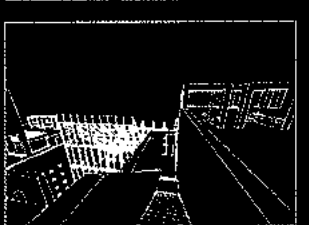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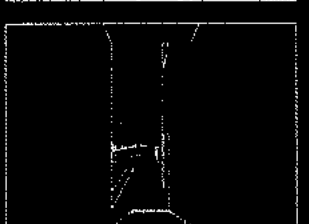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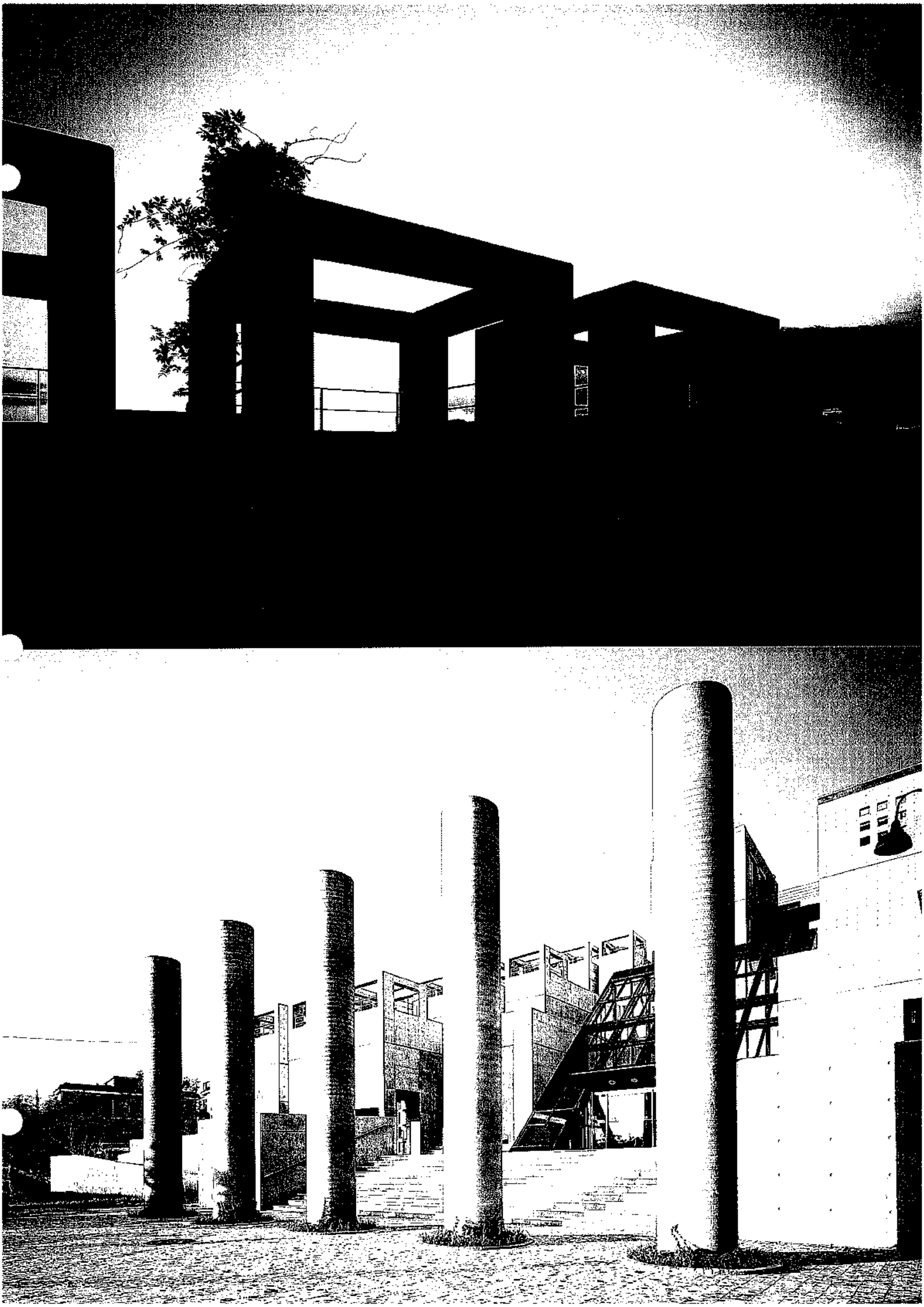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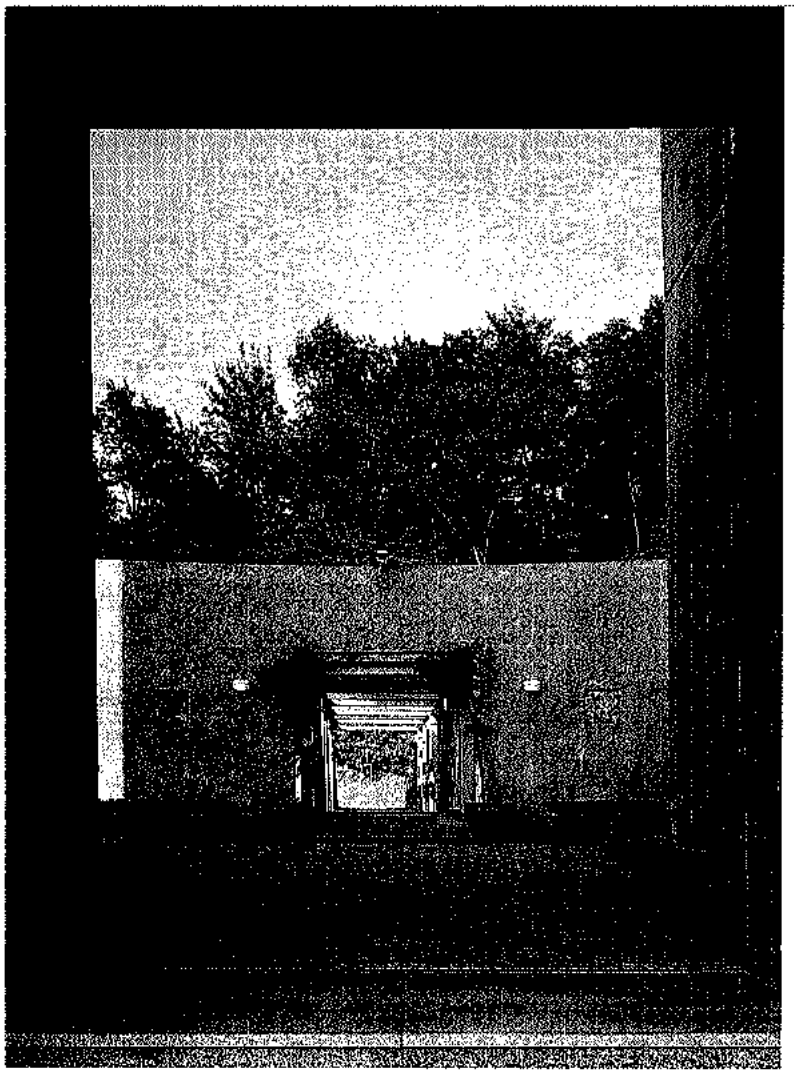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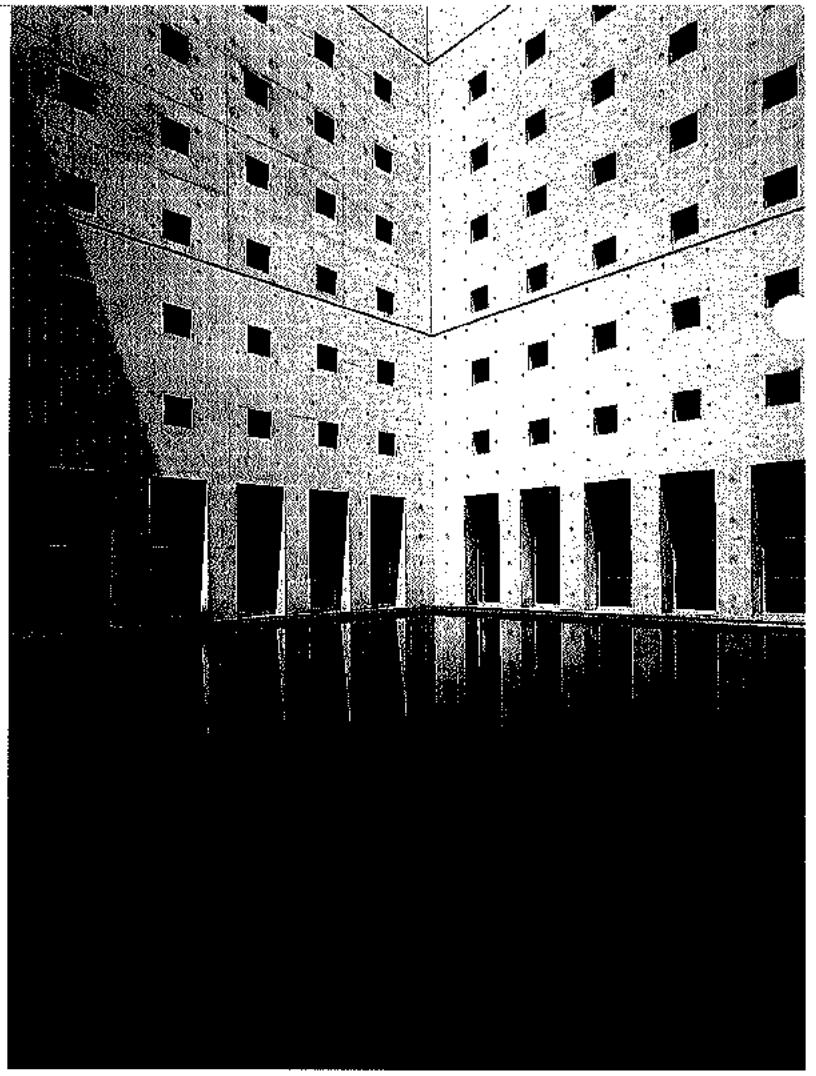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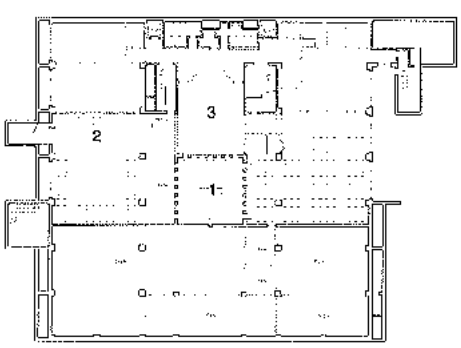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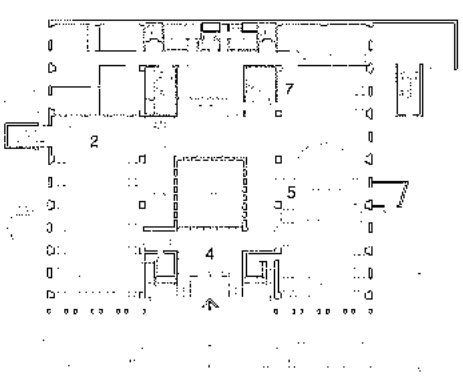
의 의미를 깊게 일깨워 주고 있지 않은가! 무엇이 이보다 더 이곳을 예지의 장소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모티프로 삼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입지 조건의 부정적 요인은 내부 환경의 물리적 처리를 통해 약화시키고, 석양이 주는 정서적 요인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도서관이 이루어야 할 본질적인 장소성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장소성을 존중하고 환경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선 먼저 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낮은 단형의 메스 처리가 요구되었다. 이 외적 요구는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내부 공간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여기에 단형의 옥상 및 목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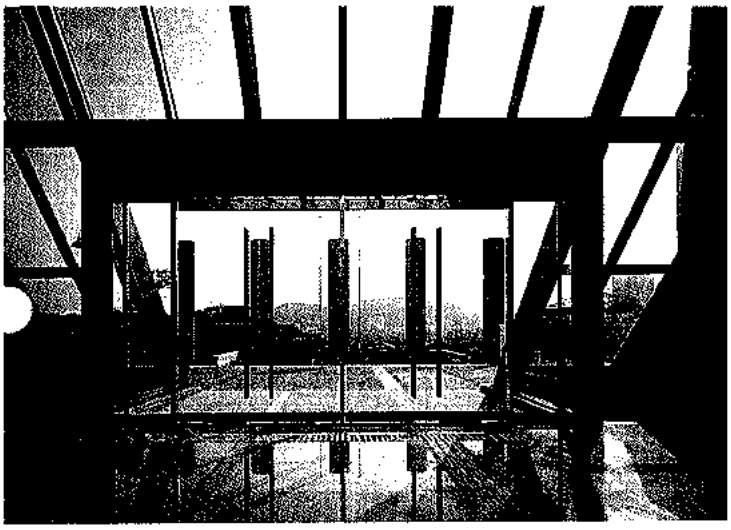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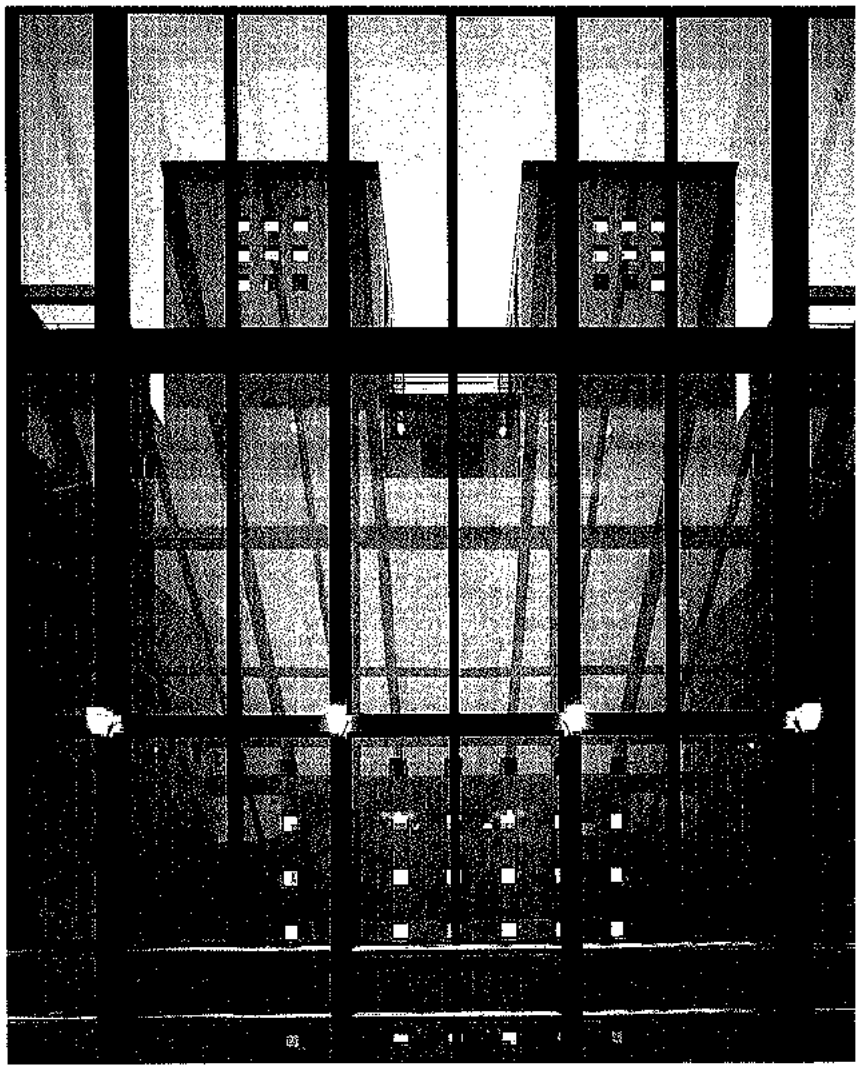
0 2 5 10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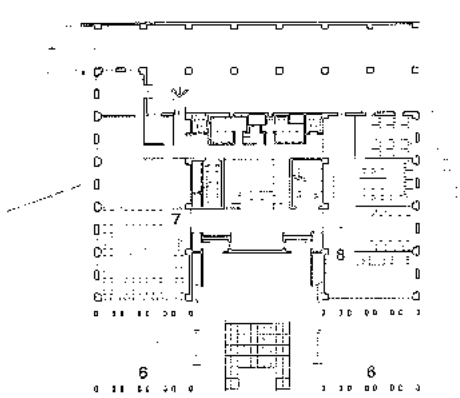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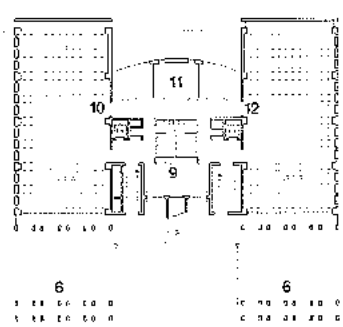


간에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뒷산과 다리로 연결하여 산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상의 공원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 하부에 도서관의 기능이 들어선 형국으로 자연과 합일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의 결과이자 공간 구성의 큰 특징이다. 대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되어 건물로 점유되어 가곤 하는 공원을 가급적 본래의 성격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땅의 효율을 높이고, 땅과 사람의 관계가 친밀함 속에서 이상적인 결합을 이루길 바랐다.

1. 반영정
2. 개가열람실
3. 다목적실
4. 로비
5. 어린이열람실
6. 응석대
7. 향토자료실
8. 정보자료실
9. 휴게라운지
10. 일반열람실
11. 그룹스터디실
12. 학생열람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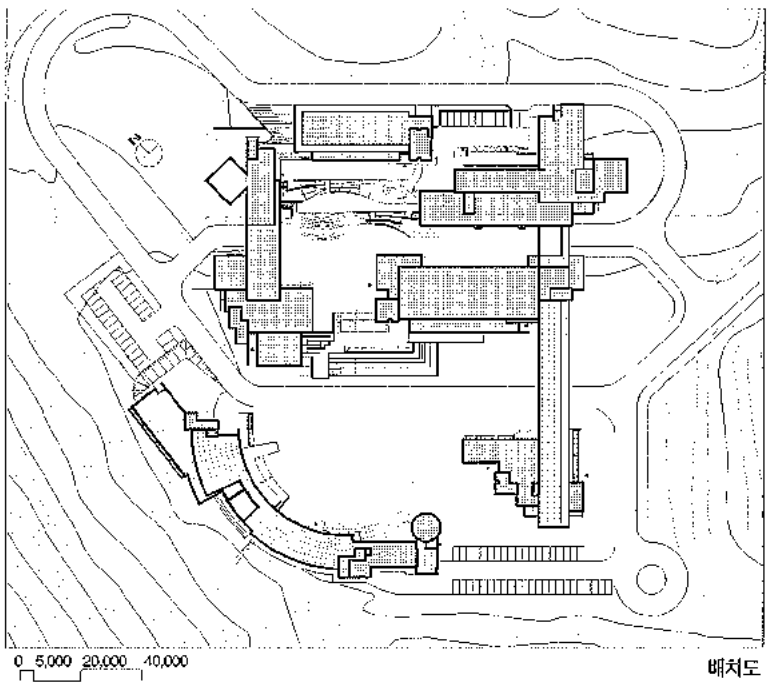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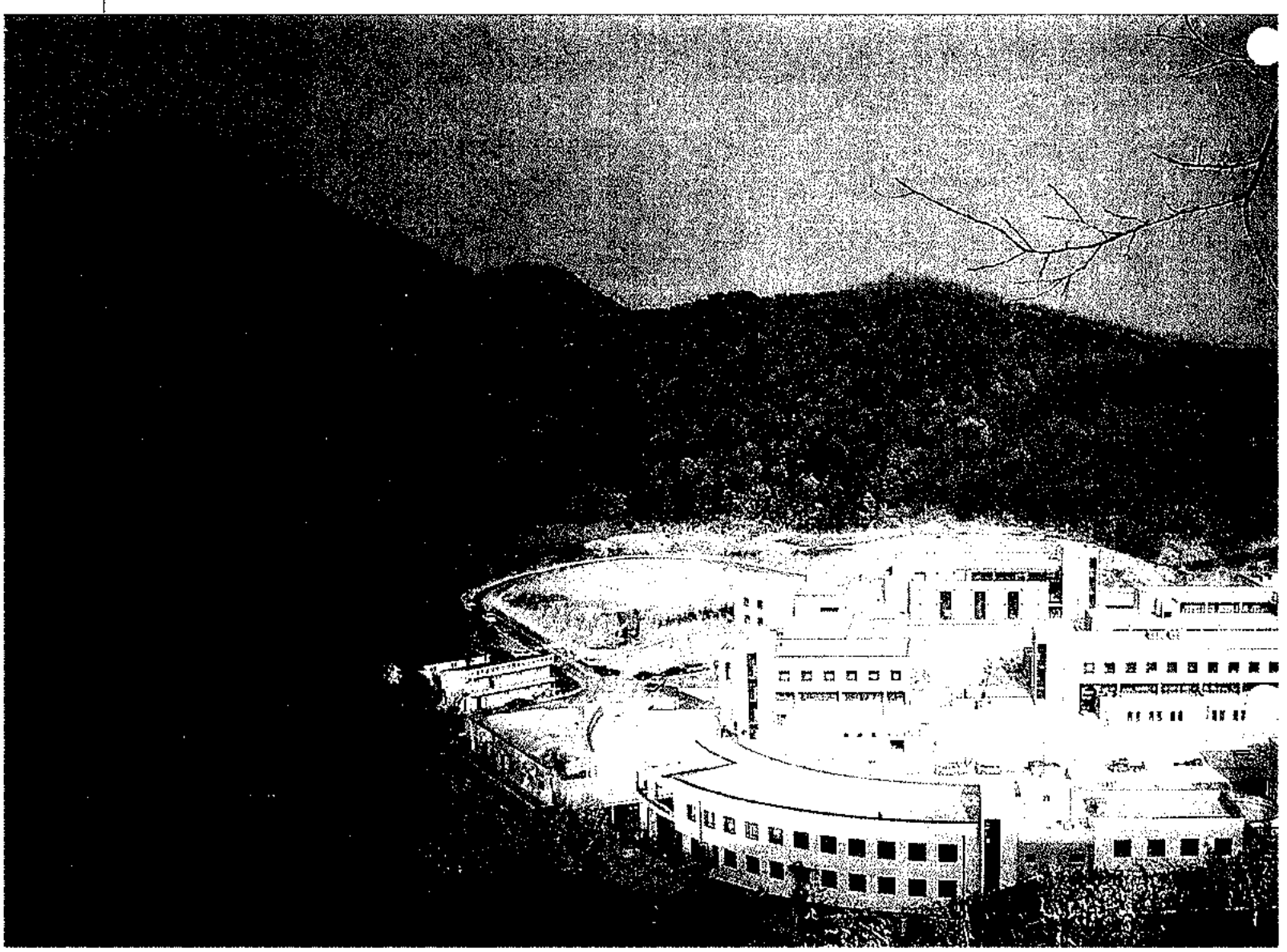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Ansan Campus, Seoul Art College

설계자 | (주)테제건축사사무소 조재원
시공자 | 삼환기업(주)
건축주 |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40외
대지면적	188,44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학교시설보호지구
건축면적	3,859.28㎡
연 면 적	18,777㎡
건 폐 율	4.17%
용 적 률	8.55%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스프릿페이스 블럭, 드라이비트

깨달음으로의 긴 여행 1991~2001

한국성은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된 정서들의 모임이다.

깨달음이란 언어로 표현되지도 않고, 우리의 인식체계로 정리되지도 않으며, 오직 어떠한 정서의 교류로써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축은 존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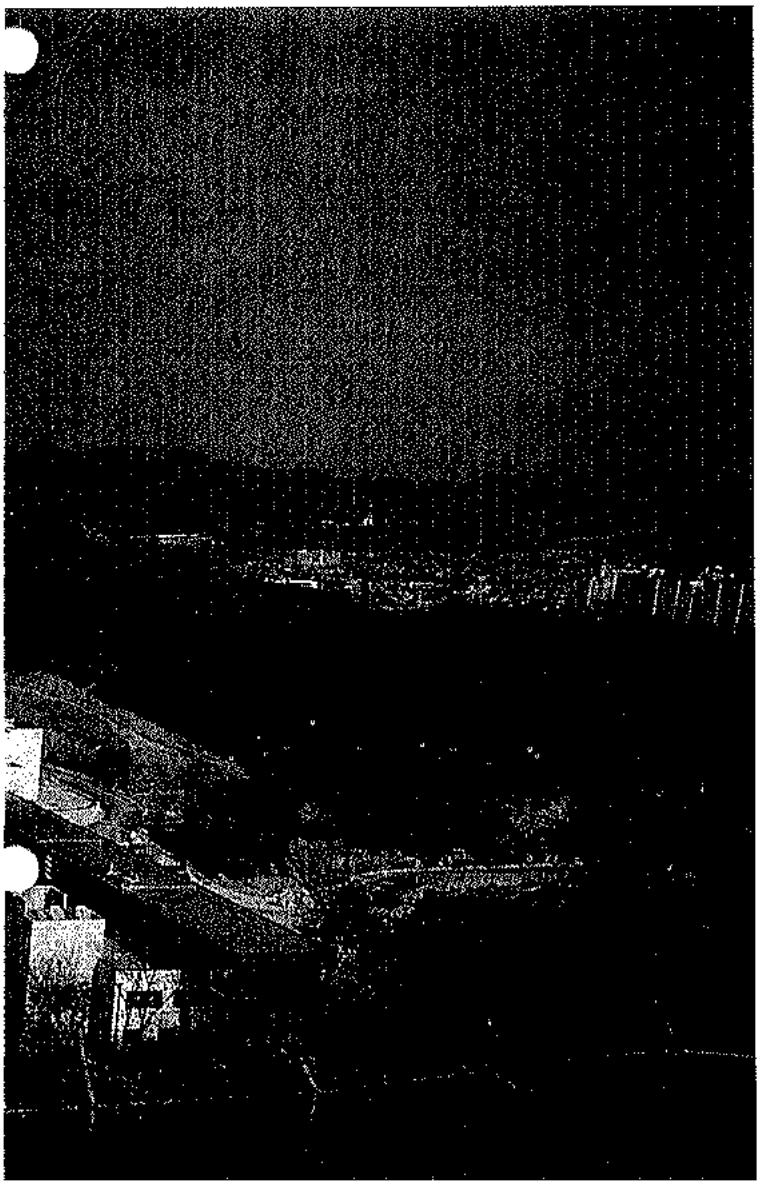
… 흐르는 지형에 순응하고 연속된 비움이 중첩되어 흐름의 자취를 만들며 자연과 함께 스며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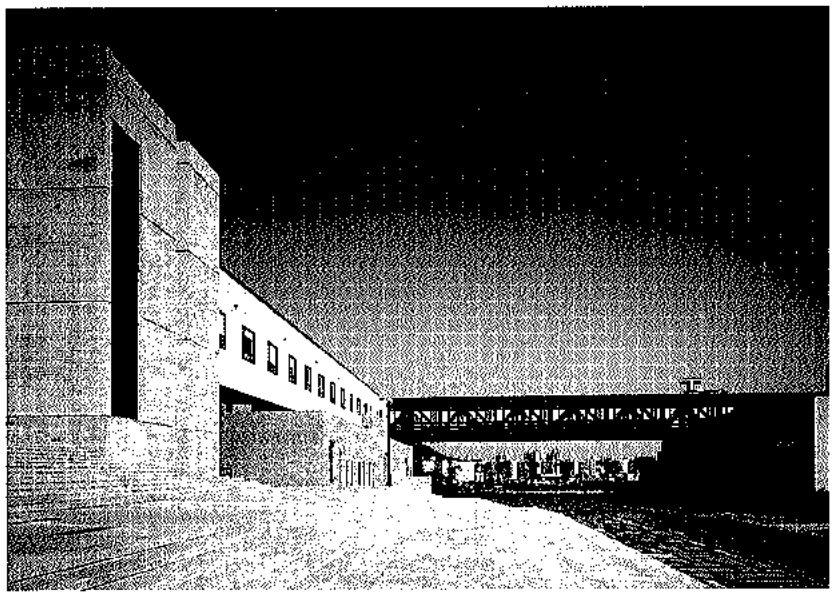
비움의 공간은 우리의 인식 / 지각으로 채워 그 형태를 완결하고 그 시점에 따라 형태에 다양함을 추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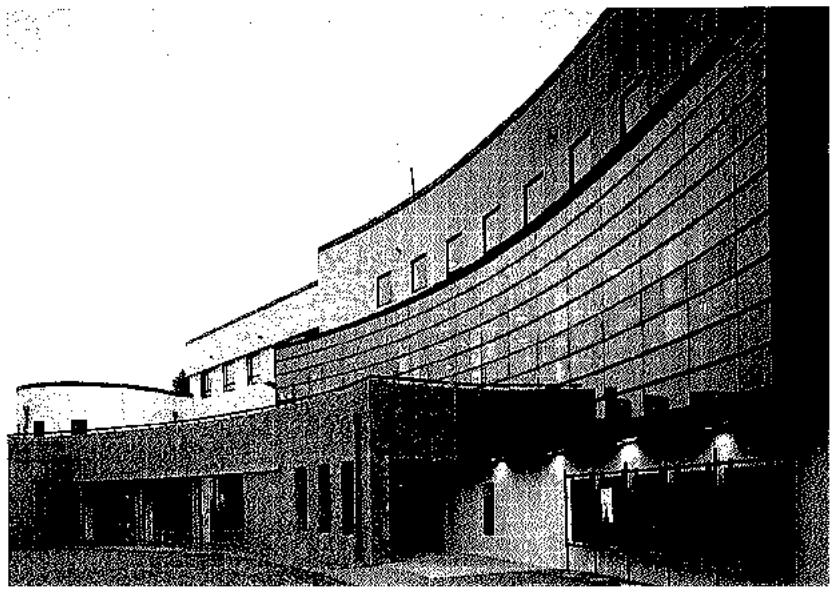
天象地形人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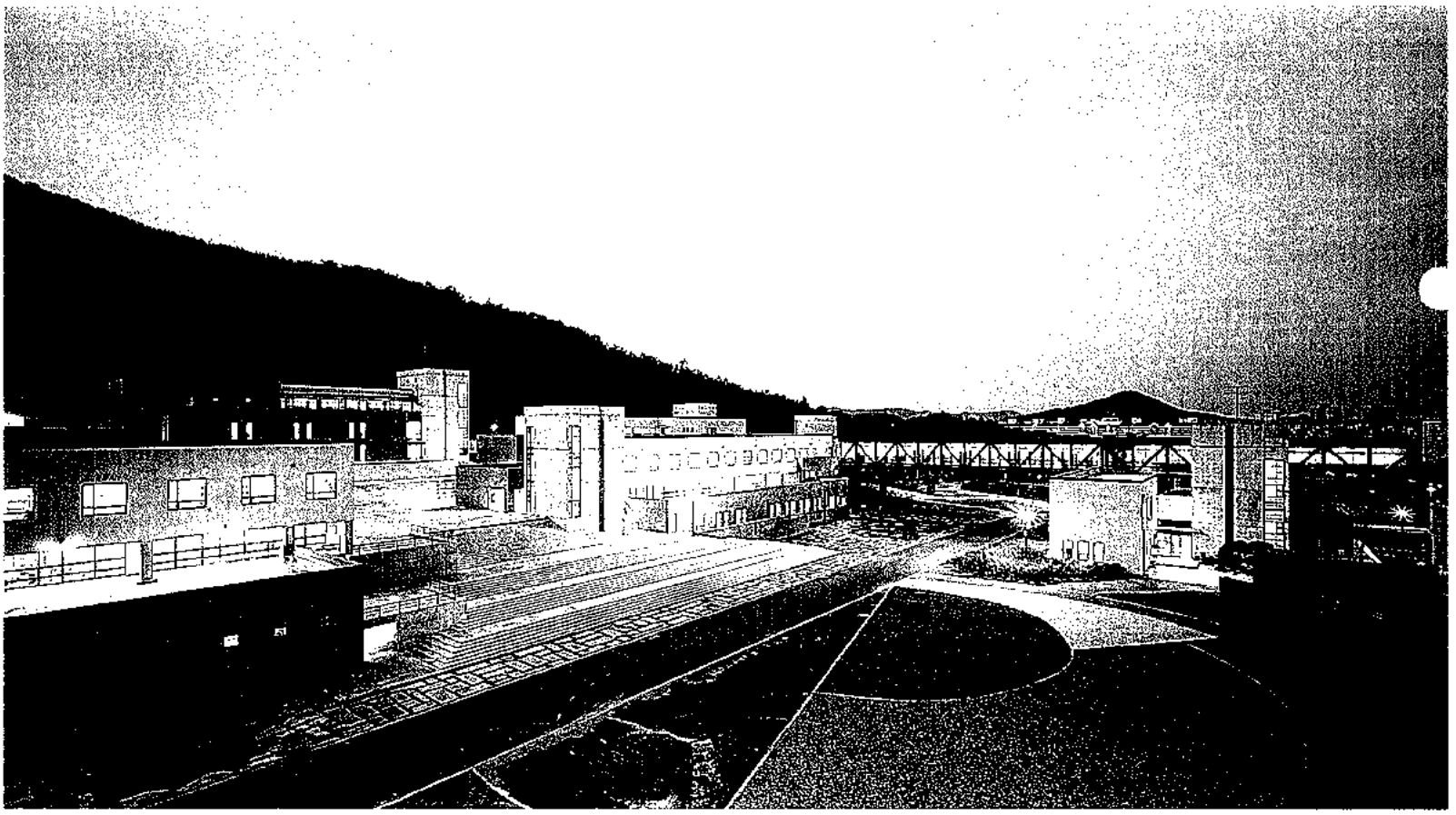
하늘의 형상과 땅의 모양을 닮은 공간은 사람의 효용을 담는 그릇과 같다. 하늘과 만나는 자연의 선과 땅의 형태에서 유래하여 이를 따르는 구조의 본성들은 안에 채워질 사용자의 효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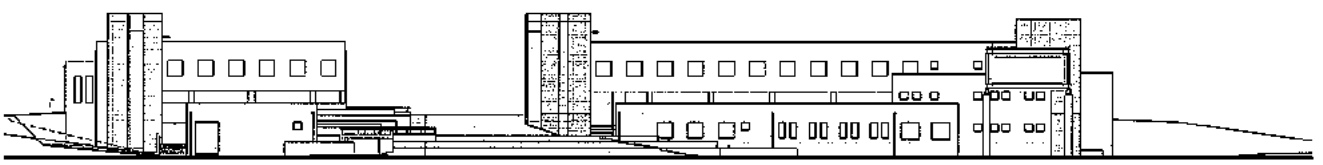
우리네 집이 그러하듯이, 하늘과 만남은 하나로, □과 □의 자유로움을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우선으로 한다. 효용에 따라 채움과 비움이 결정되며 최후의 단계로 형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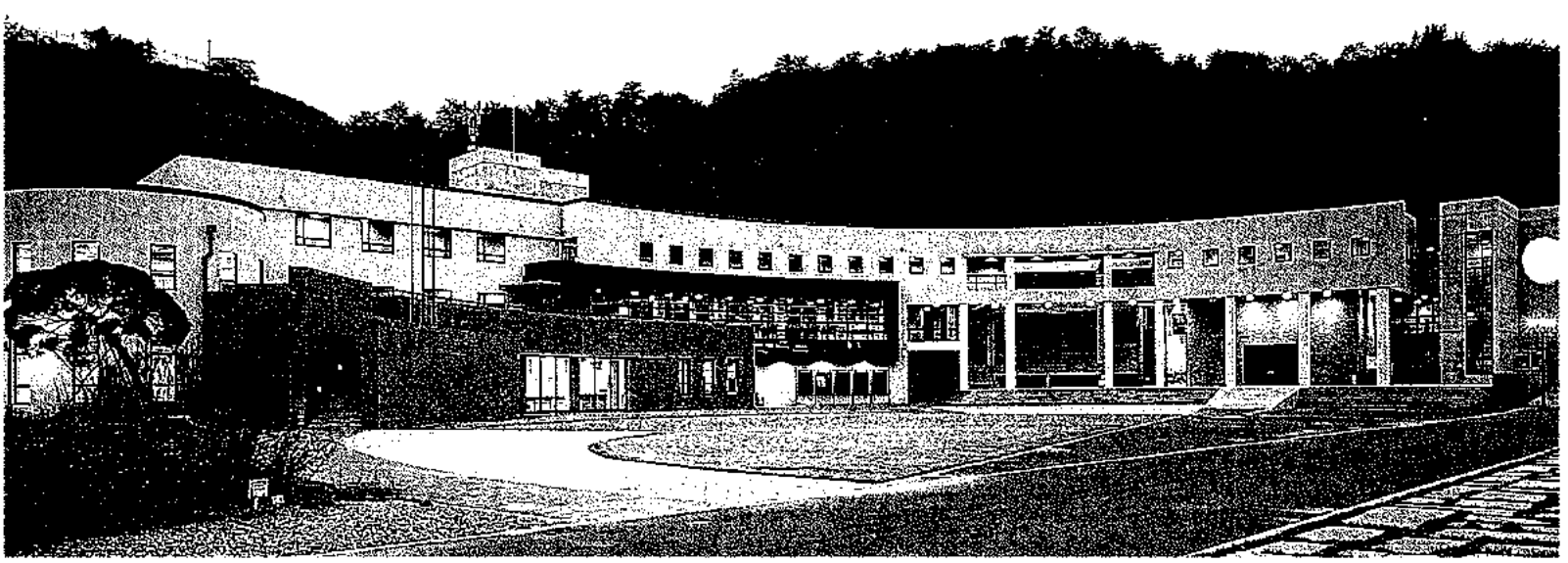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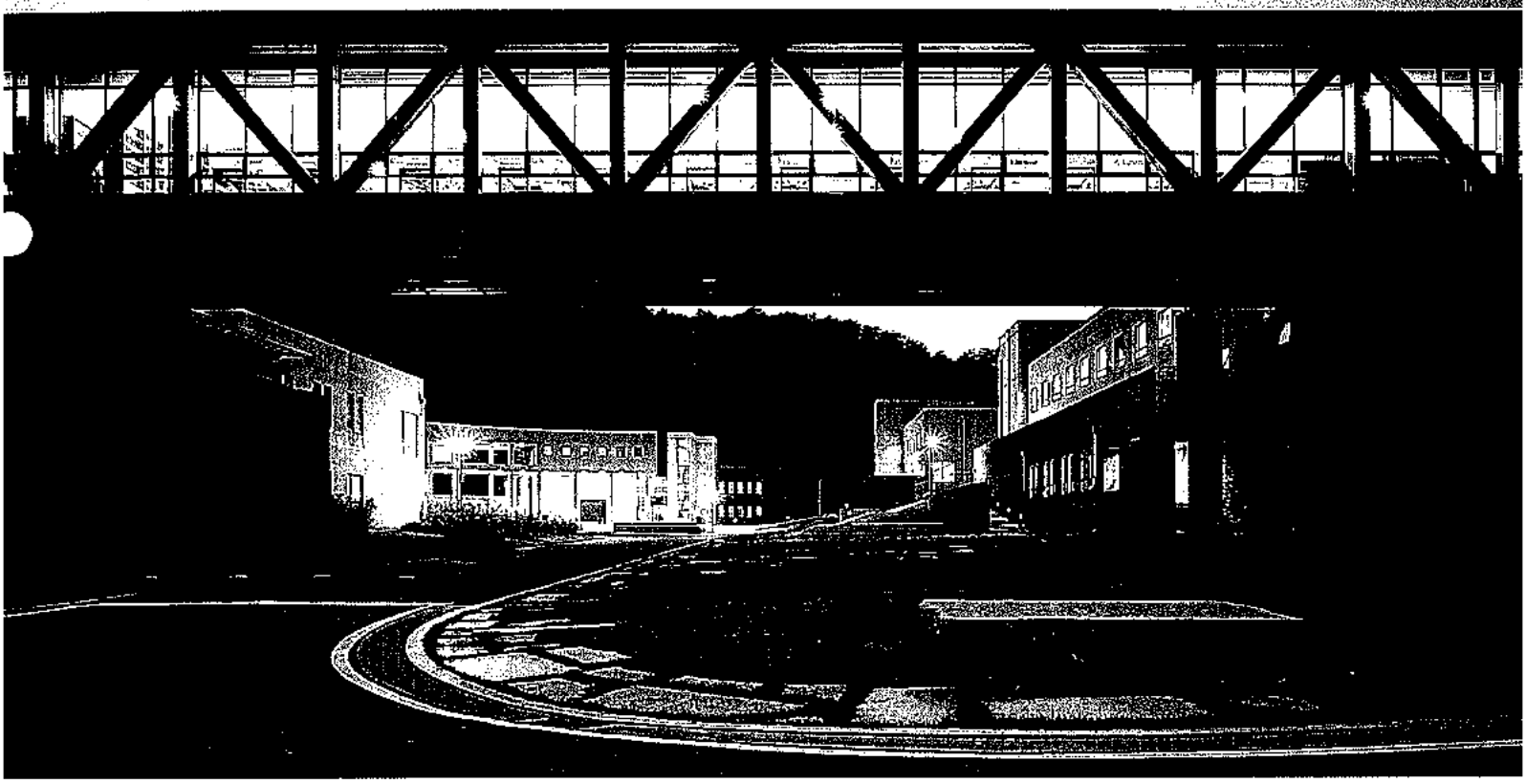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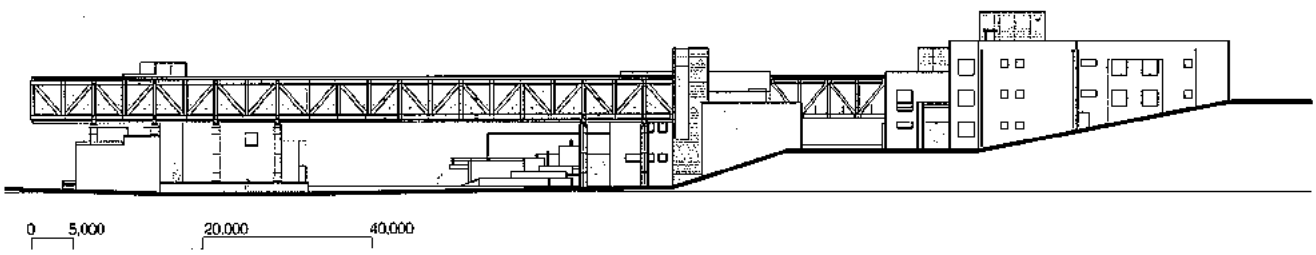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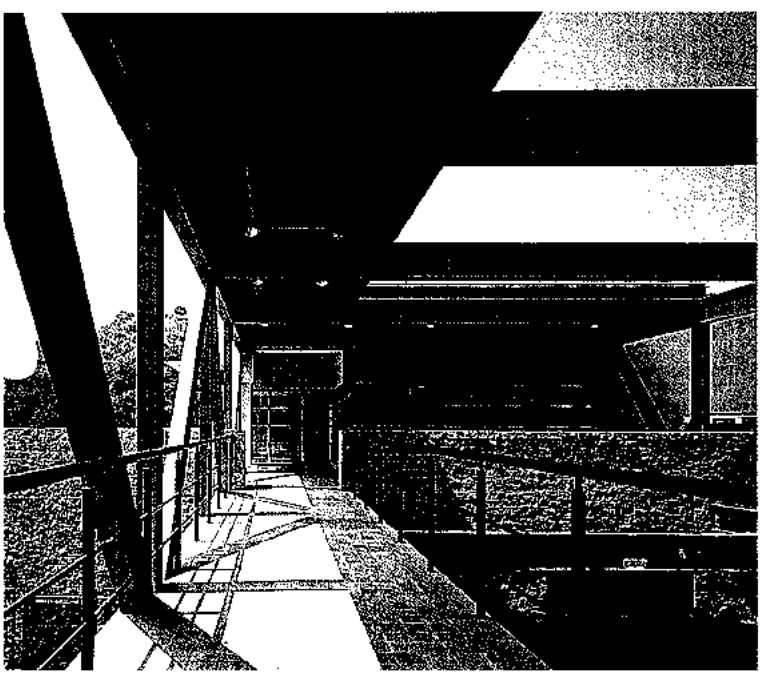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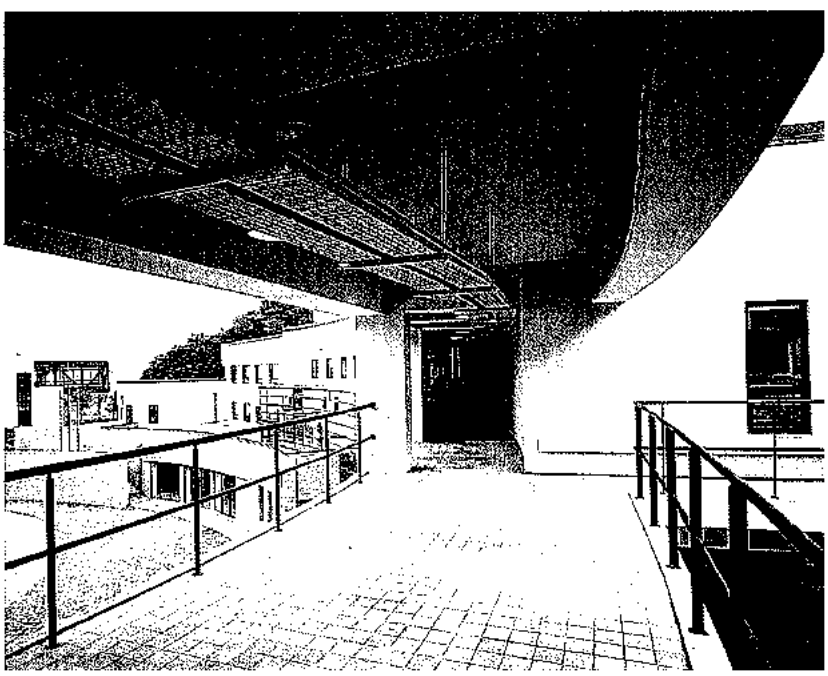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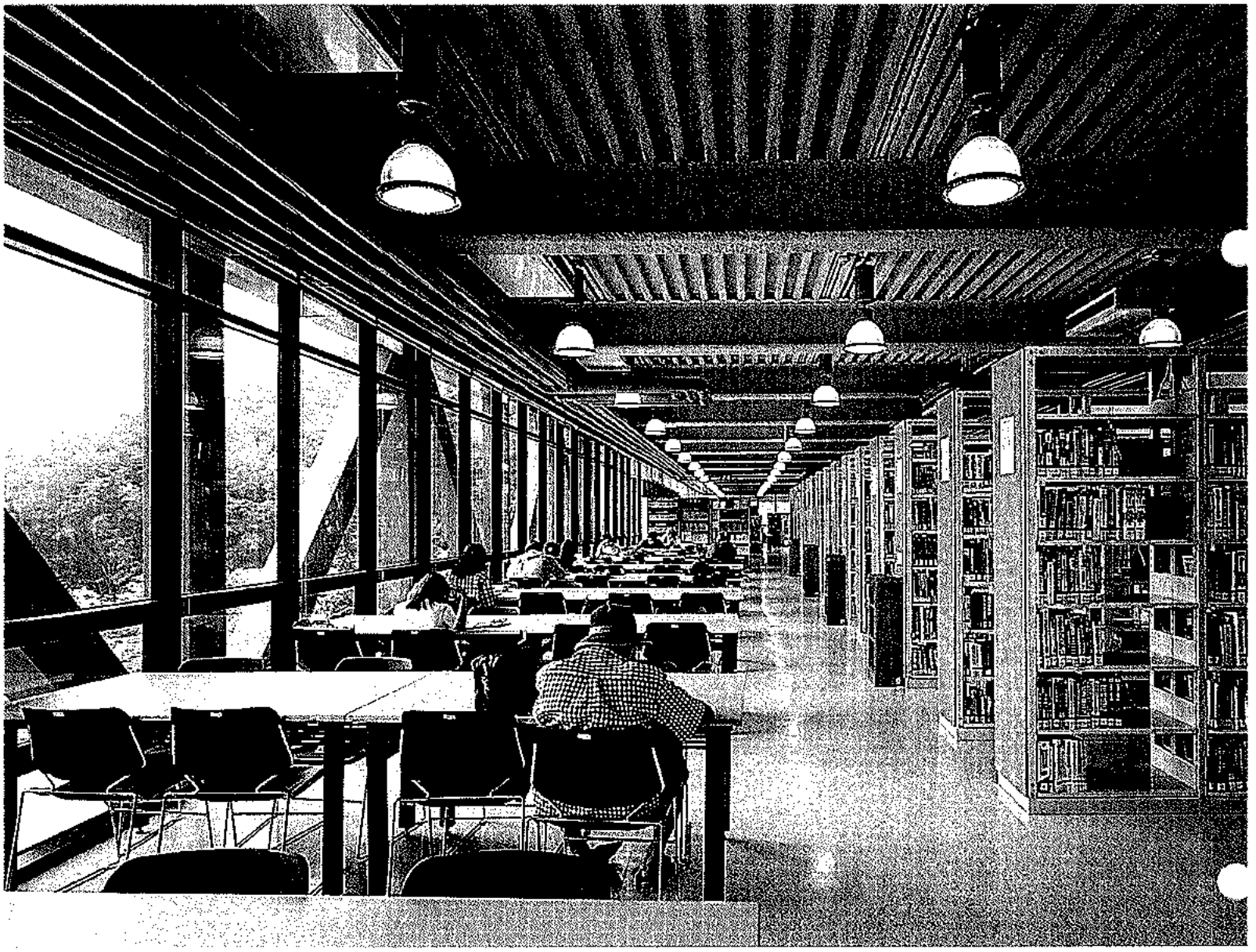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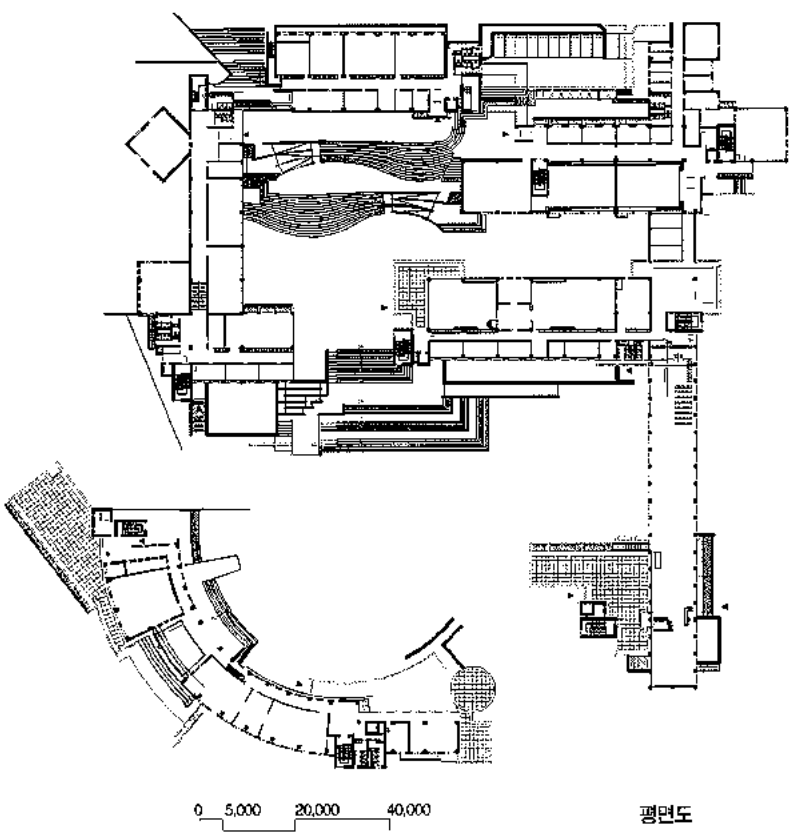



0
5,000
20,000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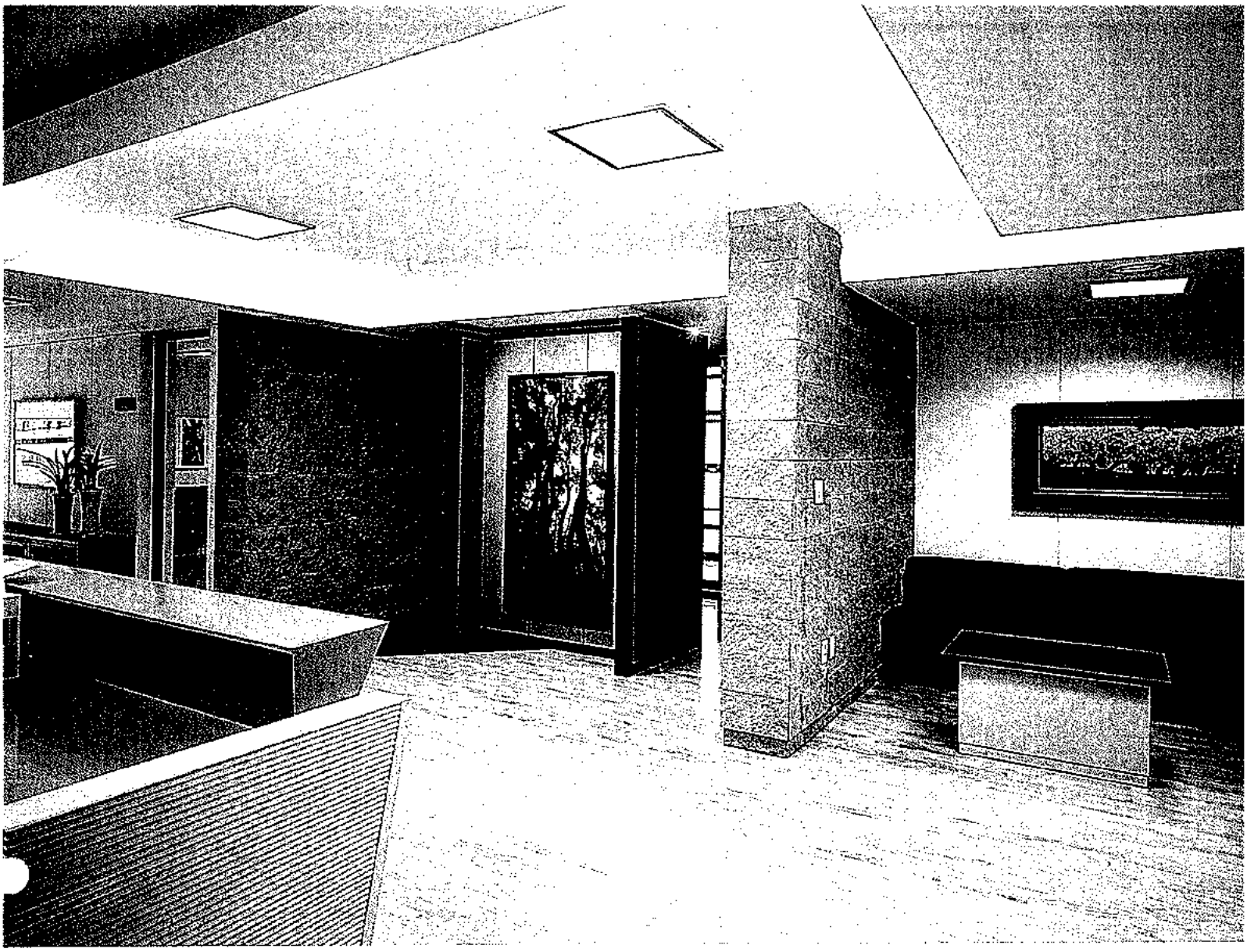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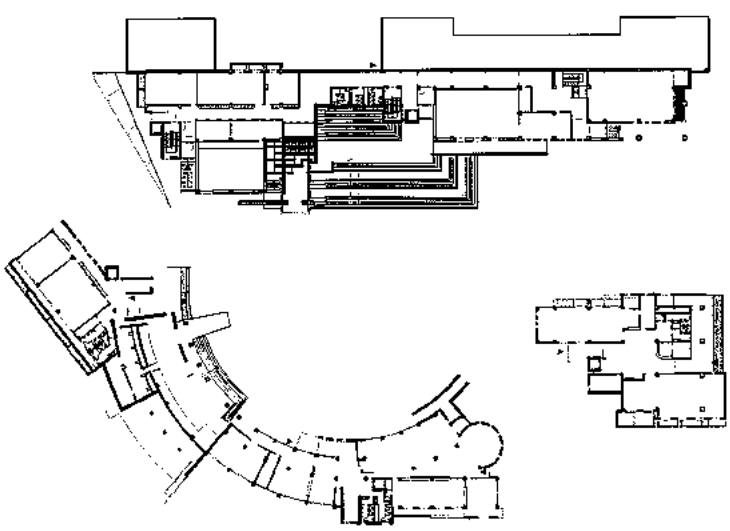






평면도





평면도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Noble County

설계자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창수
시공자 | 삼성물산(주) 주택부문
건축주 | 삼성생명보험(주)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산54 외 54필지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대지면적	150,868.00㎡
건축면적	14,548.91㎡
건 폐 율	9.64%
연 면 적	161,035.89㎡
용 적 률	72.50%
조경면적	85,149.89%
조경비율	30.3%
규 모	주거시설 : 지하3층, 지상20층(277unit) 요양시설 : 지상6층(197bed) 생활문화센터 : 지하4층, 지상4층 스포츠센터 : 지하3층
구 조	주거시설 : PC적층공법+철근콘크리트조 요양시설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생활문화센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스포츠센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67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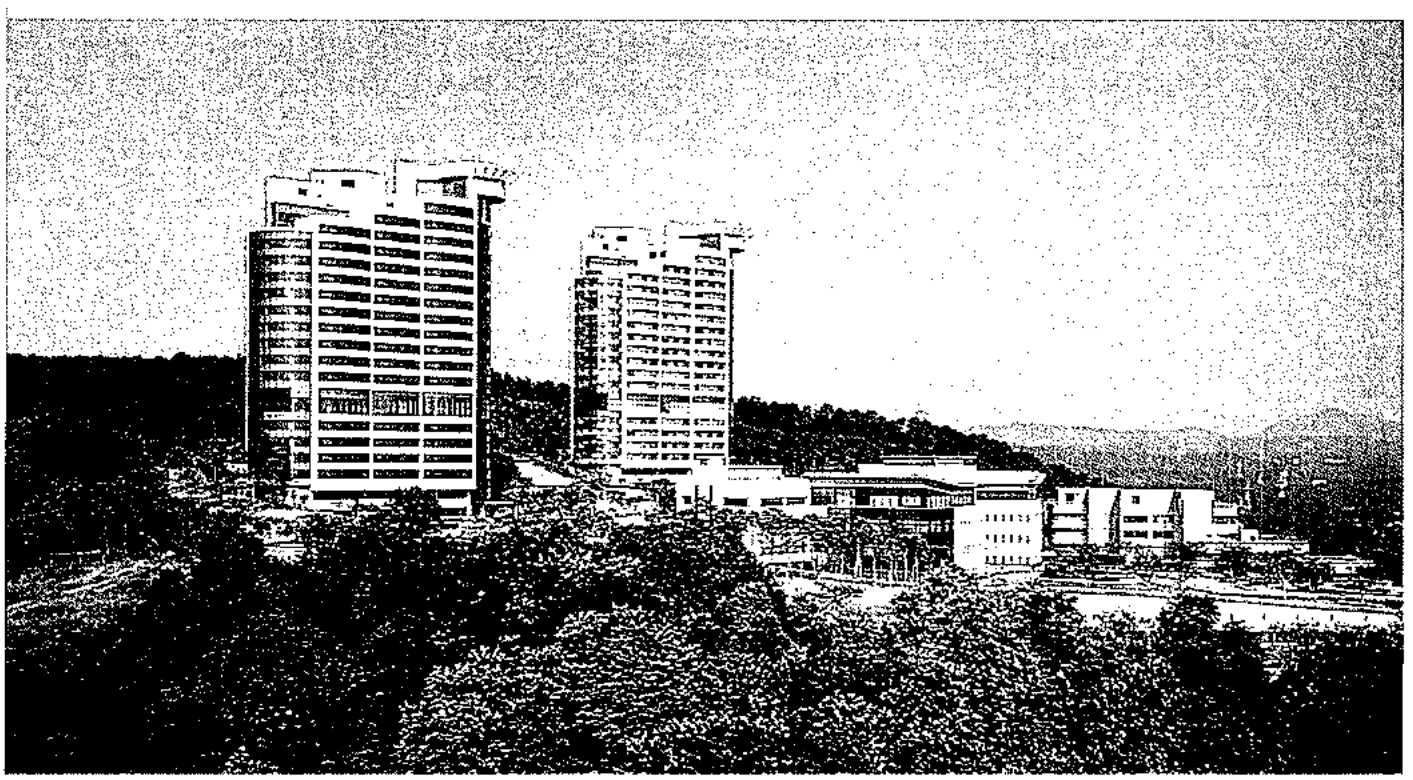
설계개념

-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건축과 심리적 측면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 환경구축
-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제공으로 적극적인 사회생활 유도
- 전문적인 건강관리 등 세분화된 목표로 각각의 방향에 적합한 계획과 각 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
- 지역사회에 대한 능동적 기여와 더불어 삼 세대 참여시설과 연계한 참다운 노인주거 복합단지 제안 설계

설계목표

1. 쾌적한 거주환경제공
- 신체적 기능저하에 순응하는 성장형 시설
- 양질의 식사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2. 문화 · 취미 · 오락 활동의 활성화
- 취미 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클럽 활동의 활성화



- Rehabilitation을 겸한 취미 오락 활동의 활성화

3. 건강유지 및 관리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보살핌 및 의료 서비스
- 24시간 간호체제 구축
- 정기 건강진단 및 개인별 건강 유지관리 프로그램 제공
- 종합병원과의 연계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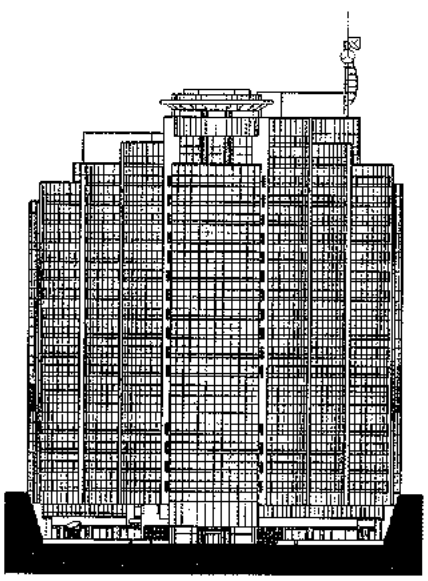
4. 간호 · 보살핌 서비스 제공

- 가족과 같은 정성이 담긴 서비스 제공
- 「상시 보살핌 노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Care대책
- 치매성 노인 보살핌 시스템 확립
- 개별 관리 시스템 구축
- 호스피스 케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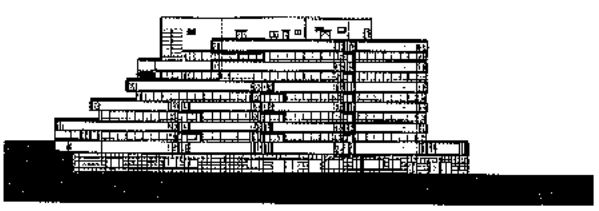
5.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 지역거점시설로서의 위치 확립
- 시설의 지역 개방
-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
- 재가 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 주민 참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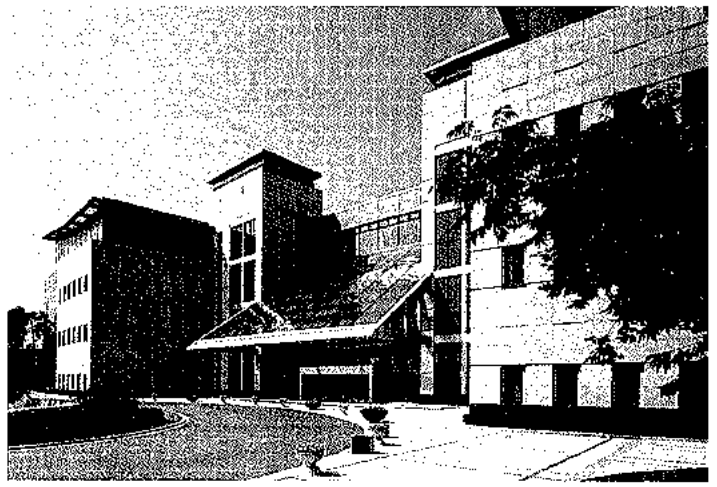
6. 장래의 변화를 고려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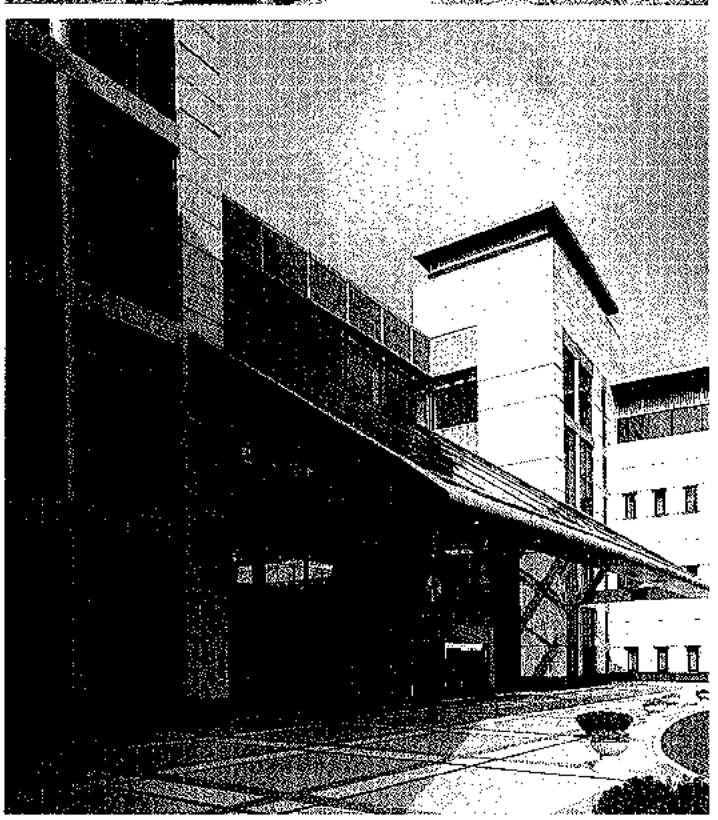


주거동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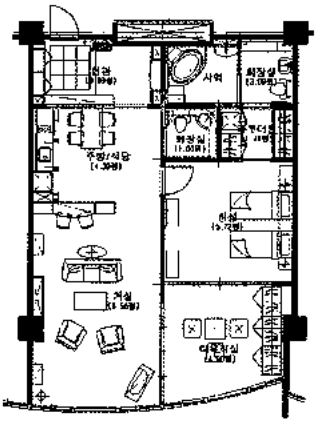


요양동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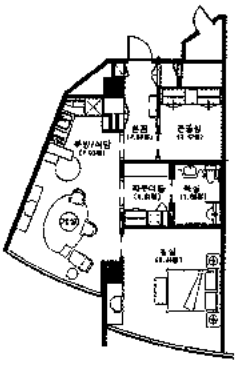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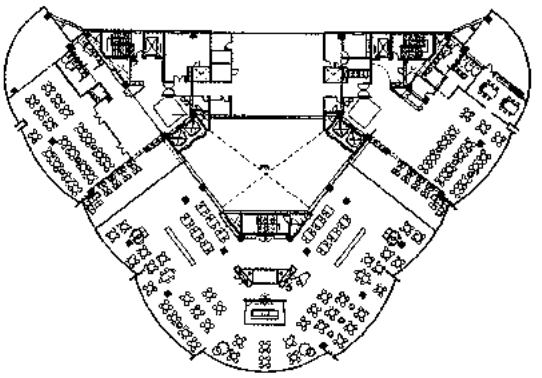
Noble Cou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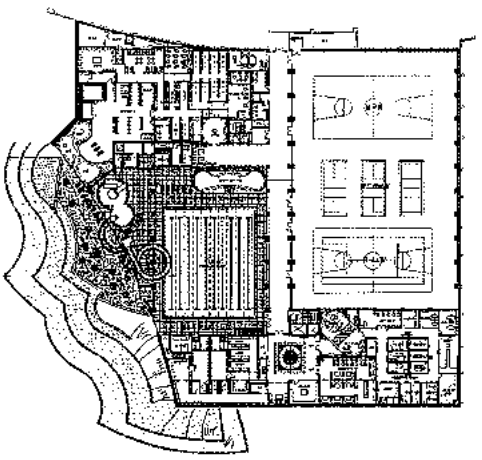
72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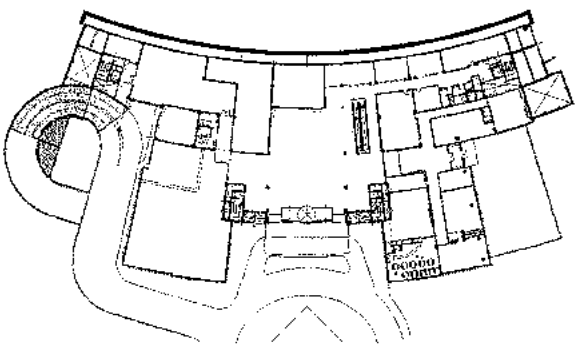
46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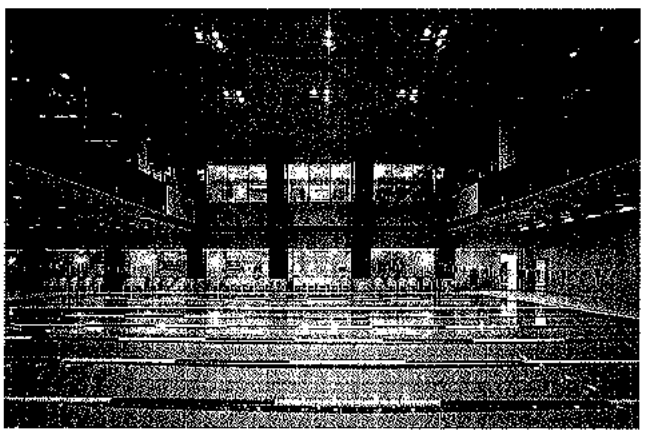
공용층 평면도(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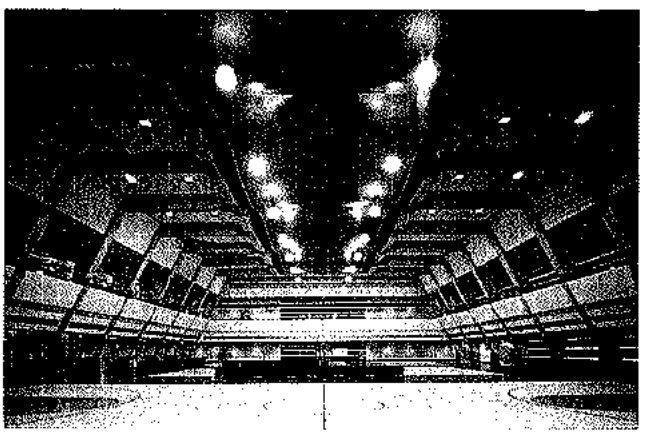


복합스포츠센터 평면도



생활문화센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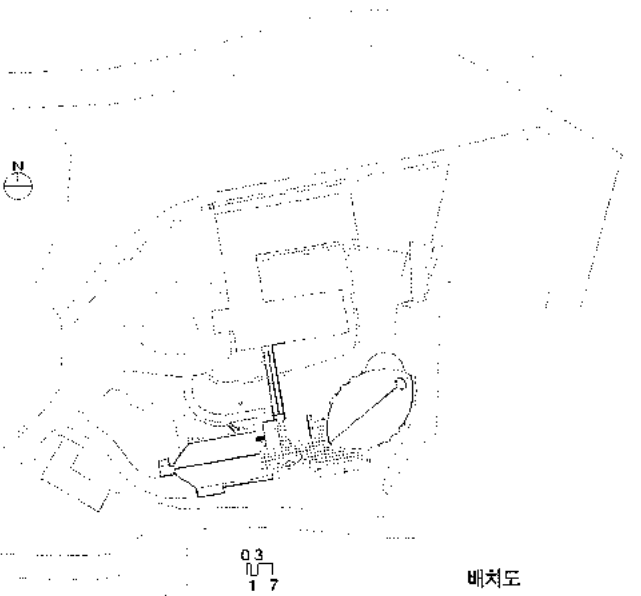




천주교 인보성체 수도회 전주성당

Jeonju Catholic Church

설계자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민승렬
시공자 | 효산건설(주)
건축주 | (재)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건축사지 0107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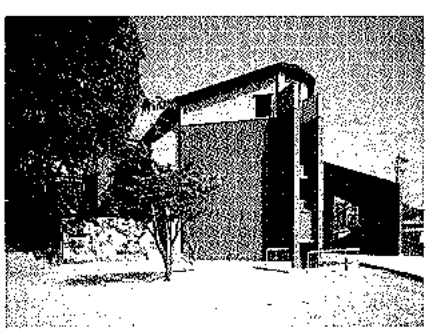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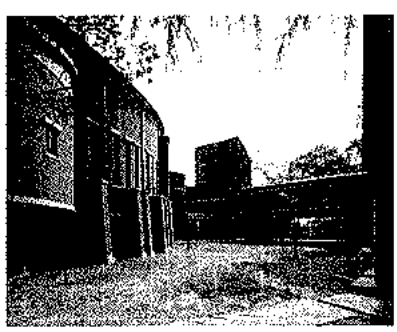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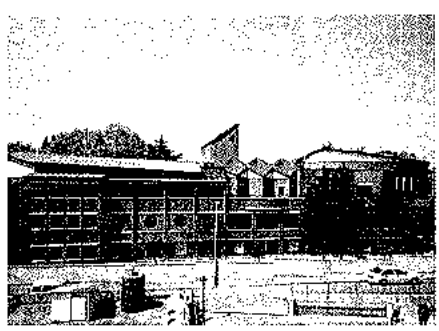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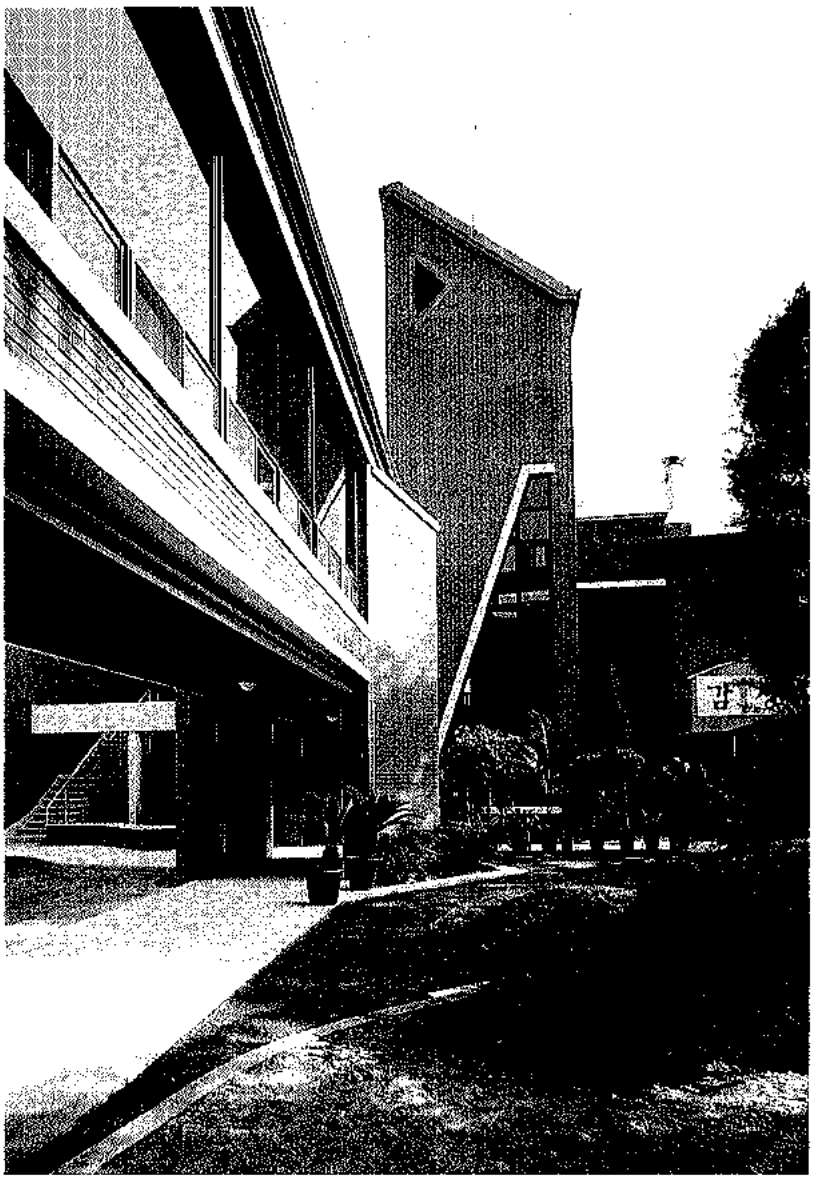
1956년 창설한 인보성체 수도회가 전주 본원 부지에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숙원사업에 축하와 찬사를 드립니다.
본 수도회를 창설하신 윤을수 신부님의 뜻과 수도정신을 표현하기란 여간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요소를 절제하여야 하였고 故 이희태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기존 건물과의 연결은 선생님의 작품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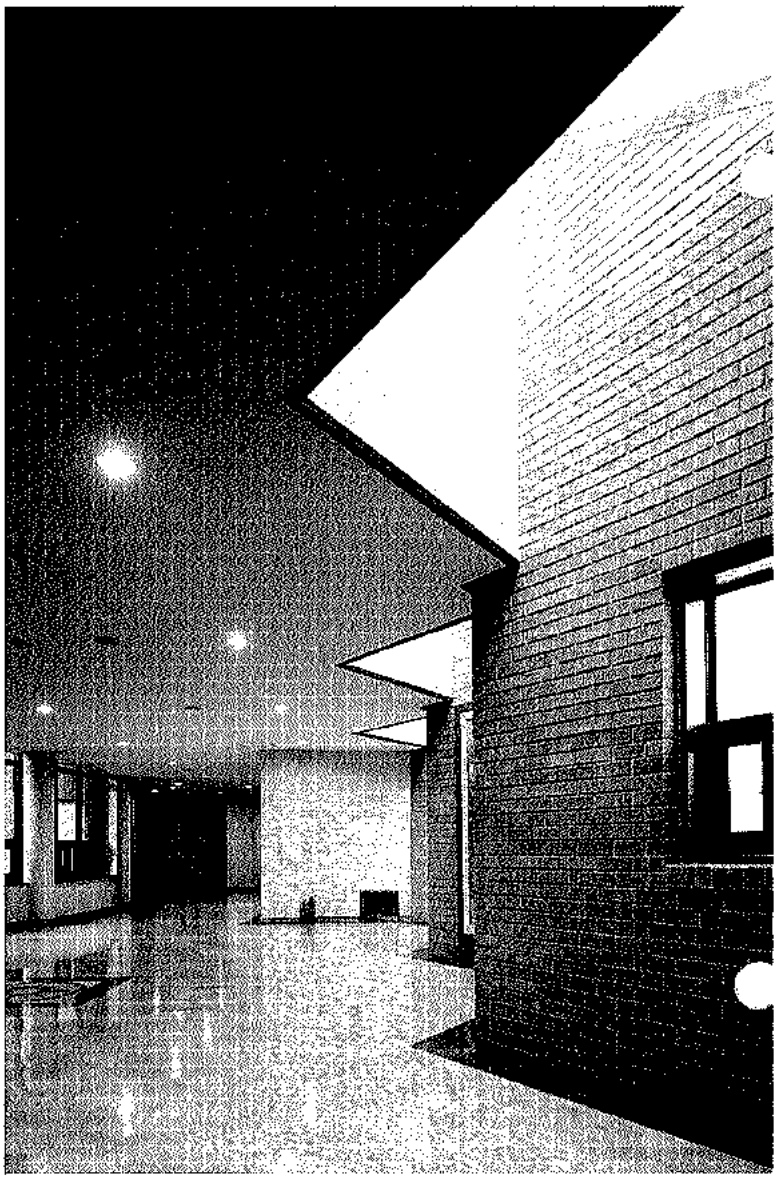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수녀님들,
항상 가난한 이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수녀님들,
한끼를 굶어 가면서 건축비를 모으신 수녀님들,

성서에 나온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모티브로 삼아 배와 물고기의 형상을 성당 형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층에 수녀침실, 사제관 2층 수녀집무실 등 모든 실을 남향 배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검소함에 몸이 배인 수녀님들의 정신건강에 안식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고목들 및 구릉들과 잘 어우러진 원형 성당, 강당, 고통과 어려움에서 잠시나마 탈피하실 수 있는 편안한 침실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는 성당과 경당의 분위기 창출은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디테일과 분위기 연출에 온갖 정열을 아끼지 않았던 시공자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든 건축을 잘 마무리하신 수녀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이 모든 영광을 모두 모두 하느님께 돌려 드린 신다고 합니다.(글/민승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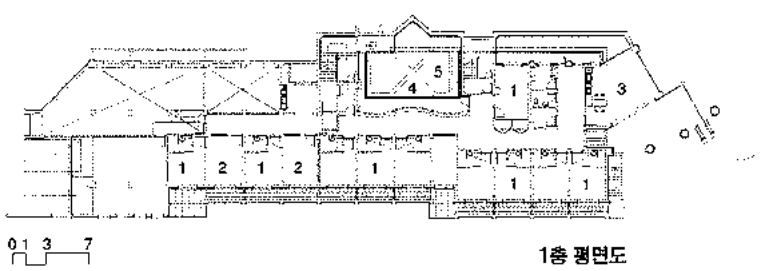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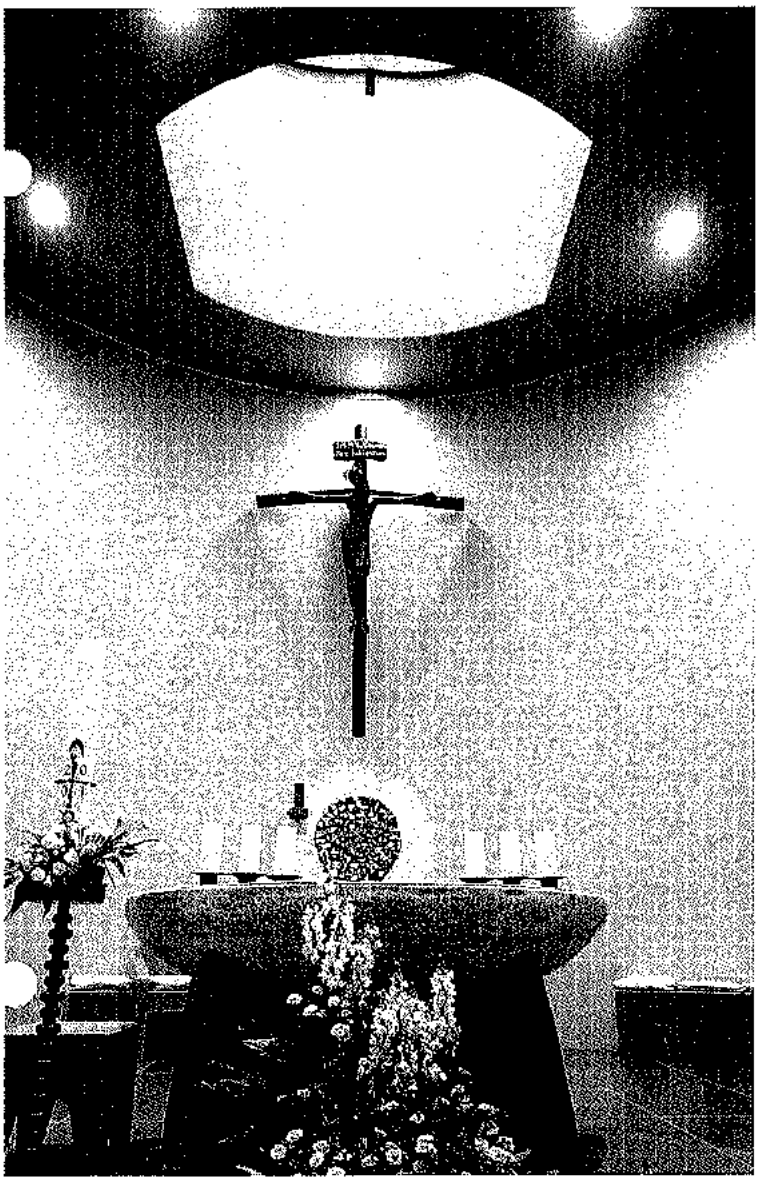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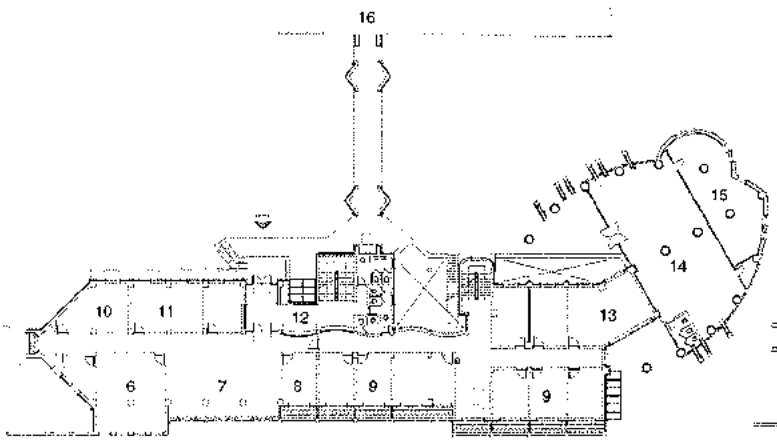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39-1외 6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8,097.00㎡
건축면적	1,111.03㎡
연 면 적	2,630.80㎡
건 폐 율	13.09%
용 적 률	31.39%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드라이비트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 PVC타일, 비닐계쉬트 벽 - 뿜칠형페인트, 벽지, 컬러벽돌 천정 - 암면 흡음텍스, 천정지
설계담당	남기광, 배태현, 김진홍, 조진호, 최봉진, 김형규, 조두연, 정영태
사 진	채수옥

1. 침실 2. 사제거실 3. 거실 4. 선큰 5. 화단
6. 정리실 7. 로비 8. 응접실 9. 사무실 10. 역사자료실
11. 자료연구실 12. 홀 13. 회의실 14. 교리실 15. 공조실
16. 기존건물 17. 강당 18. 휴게공간 19. 소성당 20.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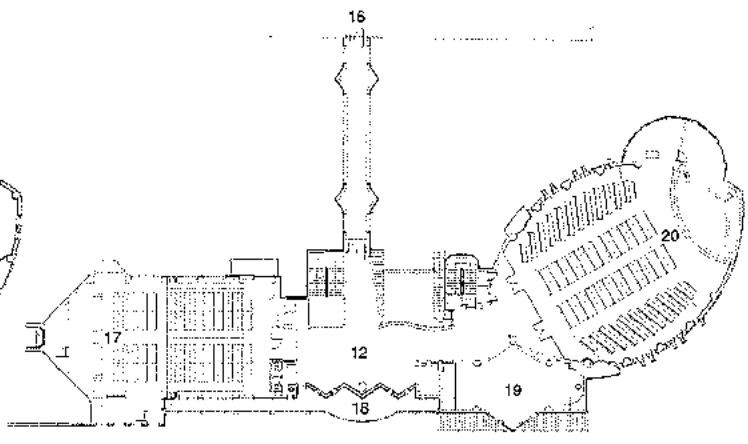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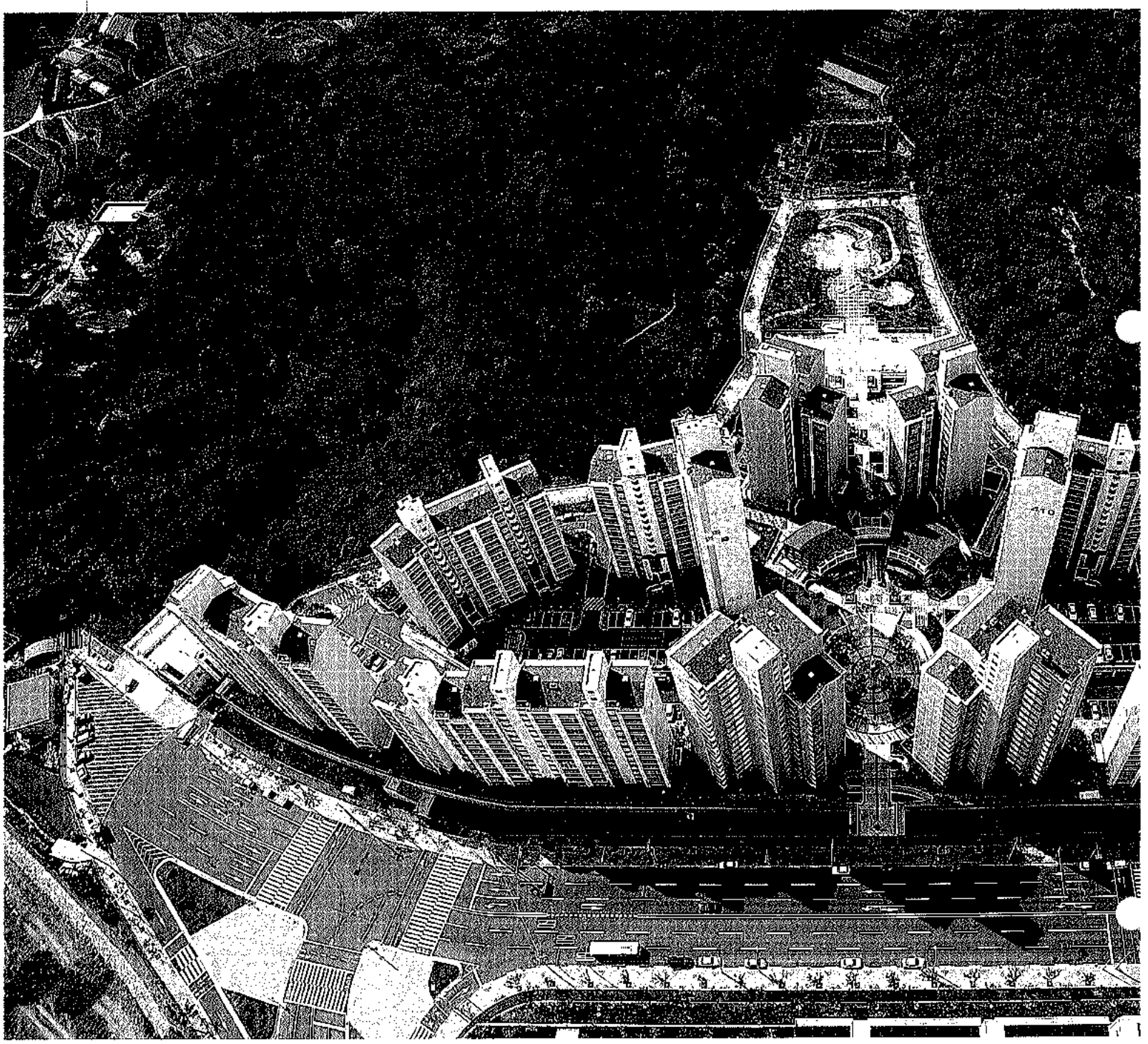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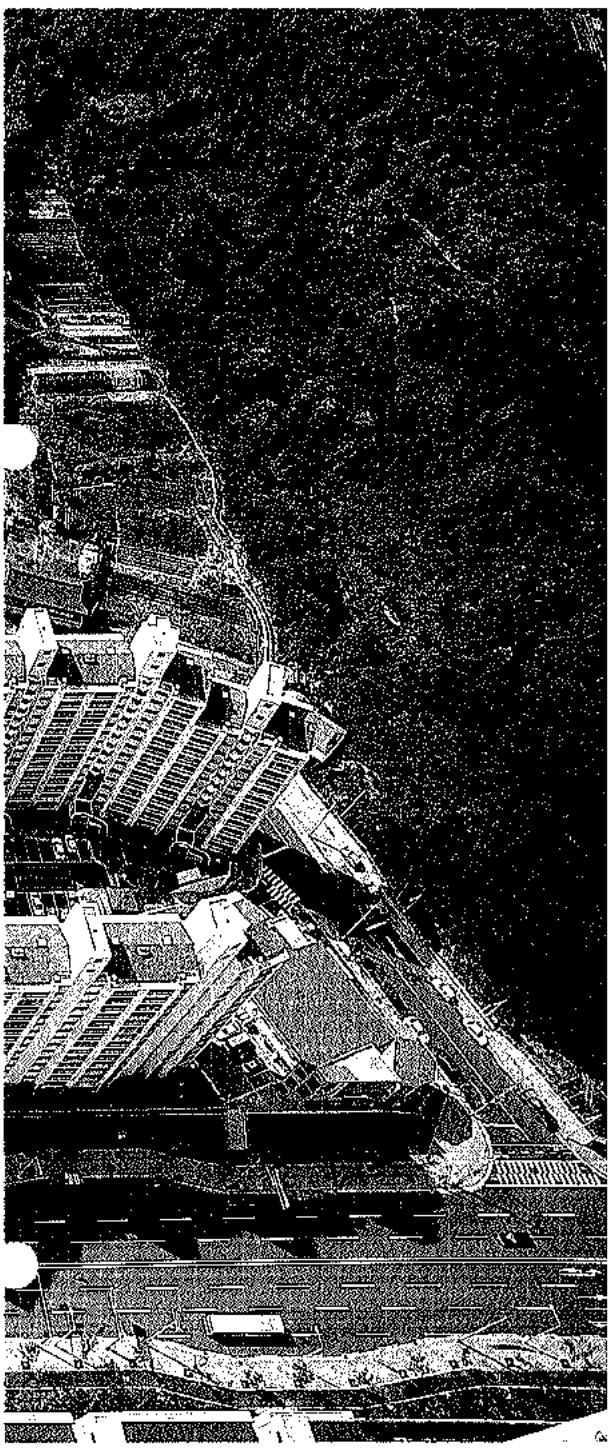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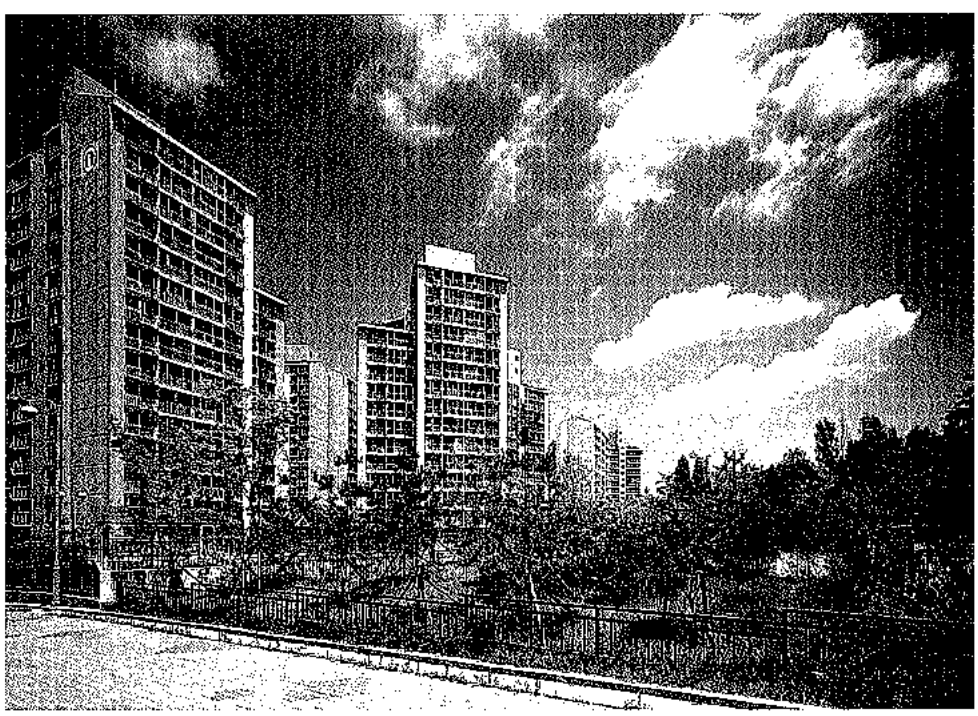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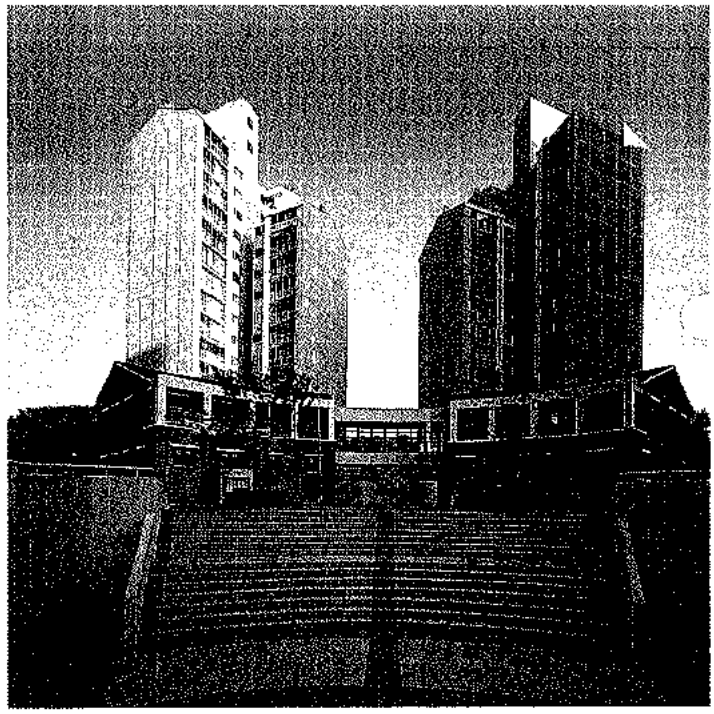
Myeonggok Apartment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감 박용성
시공자 | (주)서한
건축주 | 대한주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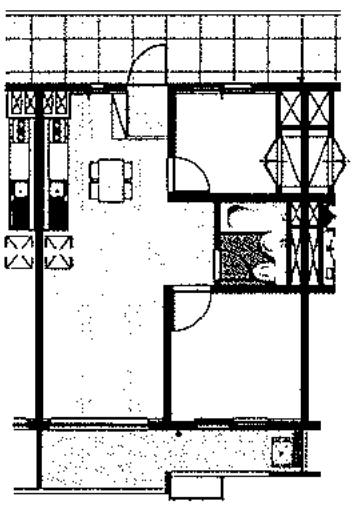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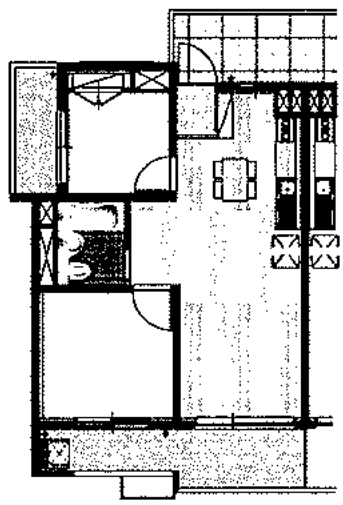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곡리 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지면적	27,206.00㎡
건축면적	5,877.69㎡
연 면 적	78,469.42㎡
용 적 률	222.67%



49㎡-A



49㎡-B(측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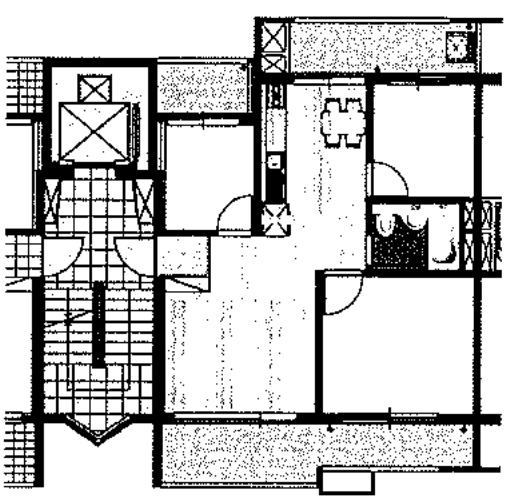
이 계획안은 대구시 무주택시민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턴키베이스로 발주된 안으로 서민층의 주거문화향상을 도모하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주된 목표를 주위자연환경과 도시의 Context를 고려한 "환경친화형주거단지"로 설정하여 특색있는 주거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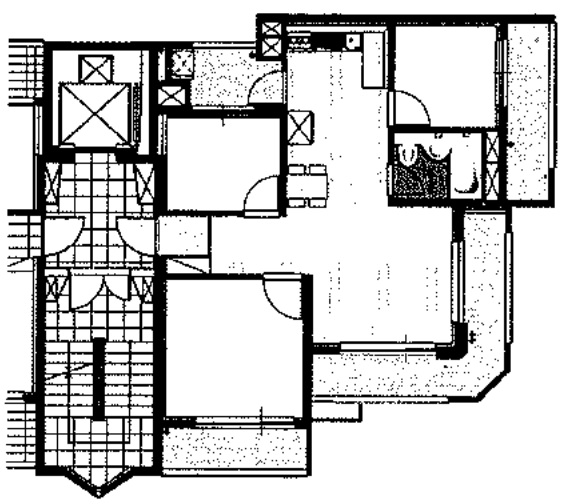
- 단지 중심을 잇는 보행자몰 조성 : 축을 따라 넓은 보행로와 다양한 휴게소 및 소광장 등을 설치하여 옥외활동의 중심적 역할 유도
- 지형 고저차를 이용한 입체적인 보차분리

외부공간계획

- Main Axis을 따라 다양한 외부공간을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
- 소광장과 필로티 등이 합하여진 골목길을 형성하여 인간척도의 공간형성



5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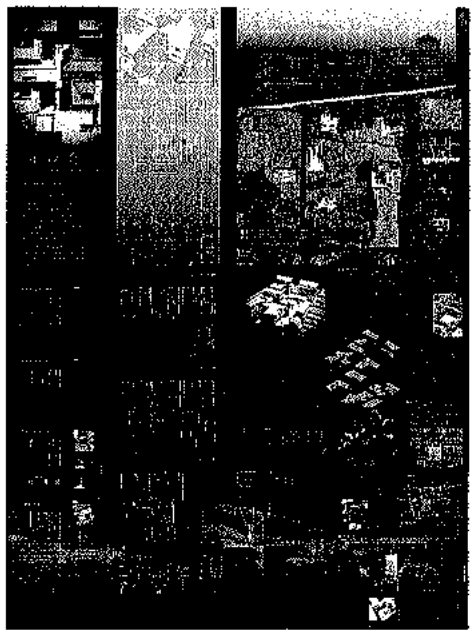
59㎡-B(측세대)

정 · 반 · 합 | Interlocking Edge | 고도의 꿈 | 대중예술센터 계획 | 공원과 어울리는 커뮤니센터 | 현대형 수변사찰 계획안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 활성화 계획 | Cultural Void of Urban | Remained & Forgetted |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 Interval Space | Work and Dwelling | 도심블럭 재조직 | Community

2001 한국건축 문화대상

계획부문

Block | 도시의 상상(商像) | 연, 속 (連, 續) | 일미진중함시방(一味塵中含十方) | Move | Art in Clarity | 대각선 횡단보도로 인한 미세지역성 | Connecting | 화교문화센터 | Inter Path | 지역역사성 보존을 통한 블록 재구성 | 호모랜드포더의 흔적 | 봉천동 7-290 주거 · 상가 | 회기역 발전계획안 | 단절감 | Showcase in Myoung-dong | The Third Street | D&C House | 가회동 건축박물관 | 영도다리와 연계한 부산사기념관



정 · 반 · 합(正反合)

최기현, 이준수, 김동호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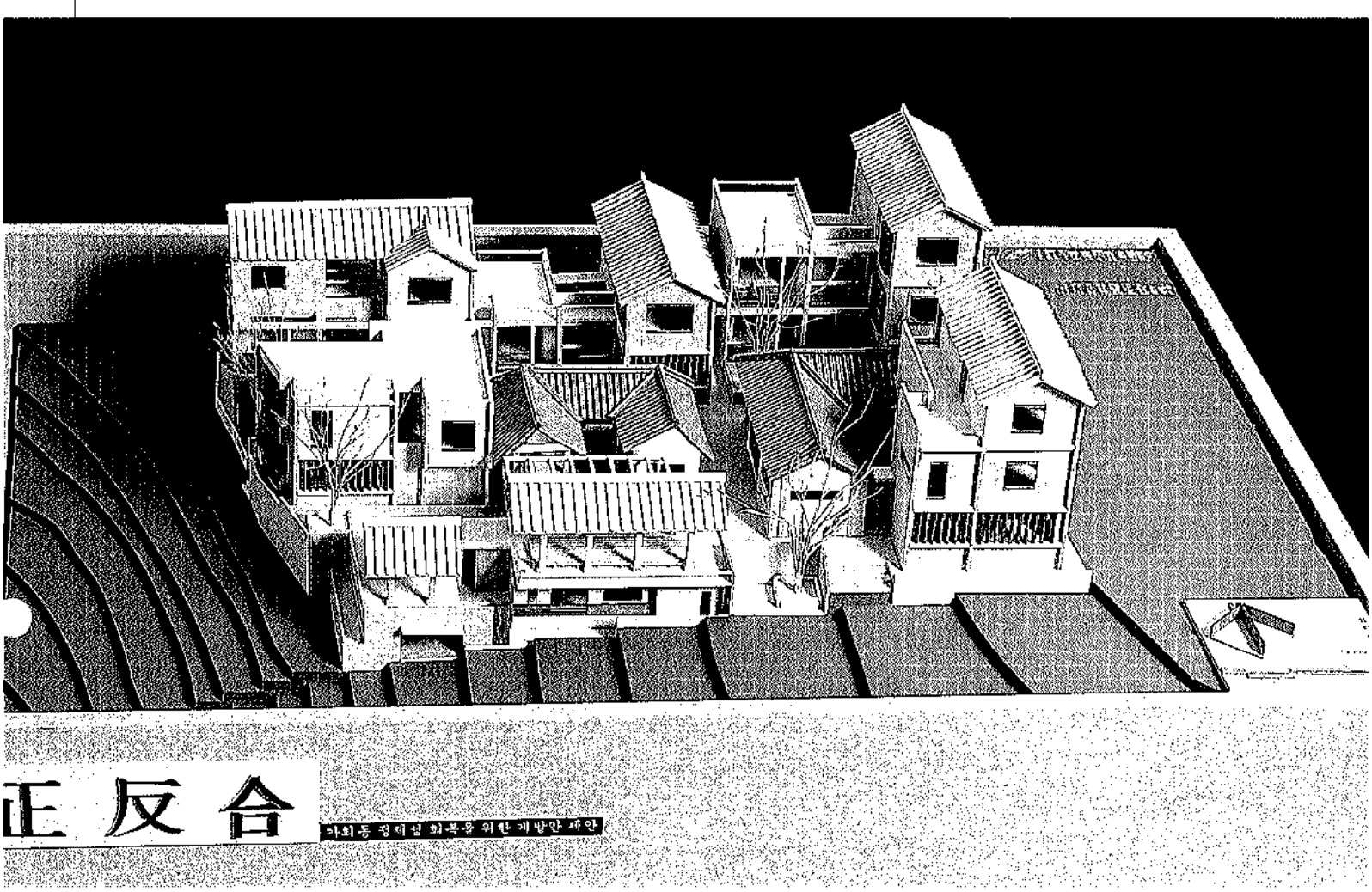
가회동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발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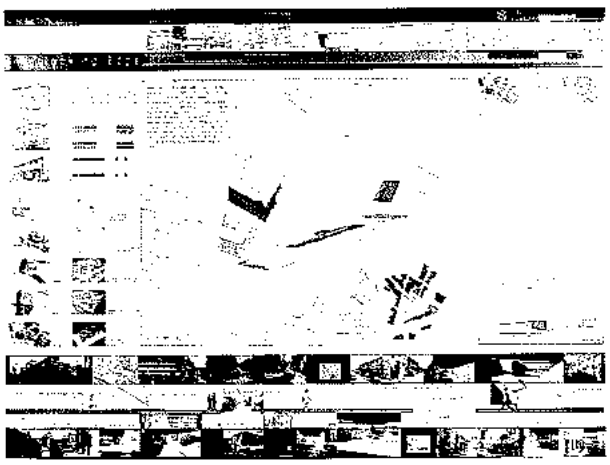
처음 가회동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도시 한옥마을의 정통성, 한국성을 꿈꾸며 테마를 결정했고, 보존과 개발중 맹목적으로 보존의 편에 서서 개발을 매도하는 현실감 없는 짧은 생각에 스스로 쓴 웃음이 나왔다. 우리사회의 고질병은 이미 가회동을 오염시켰고, 너무나 변해있는 상황속에서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서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서서히 가회동의 복잡한 상황들이 파악되었다.

우리는 또 다시 꿈을 꾼다. 지워져가는 가회동의 풍경을…

이미 난개발이 시작되었고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가회동에서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 타개 없이 보존가치만을 강요하는 것은 다분히 무책임하며 무의미하다. 본 작업에선 보존의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과 이미 이질화된 영역을 구분, 그 경계에 있는 계획대지의 상황을 보존과 개발의 접경지로 규정하고 상호대립, 갈등하는 보존과 개발 각각의 존재가치를 인정, 정반합의 과정(변증법)을 통해 원형을 제시하여 지역의 이질화를 지양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공존의 키워드가 될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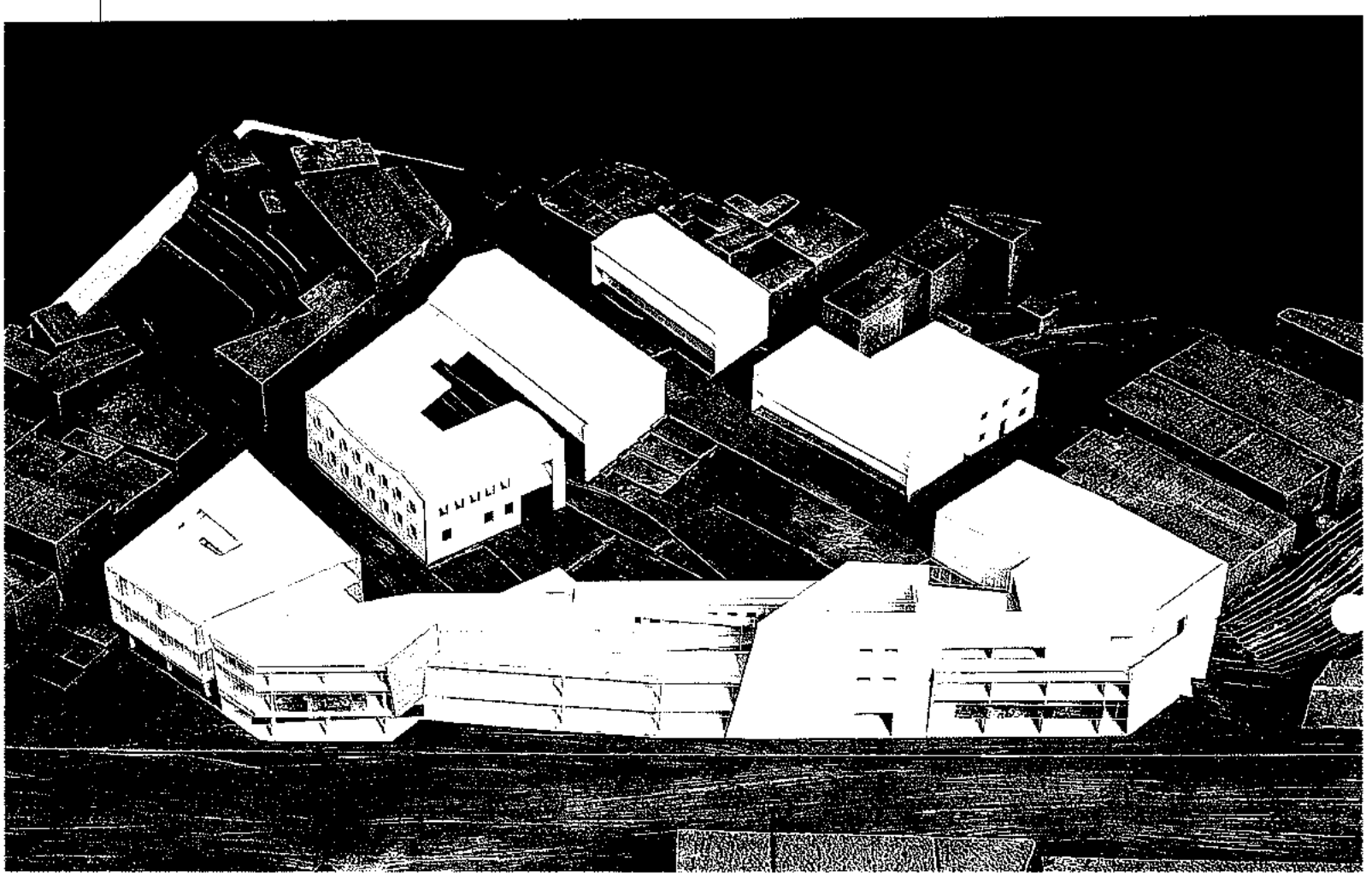


Interlocking Edge

강혁진 |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김성신, 이상신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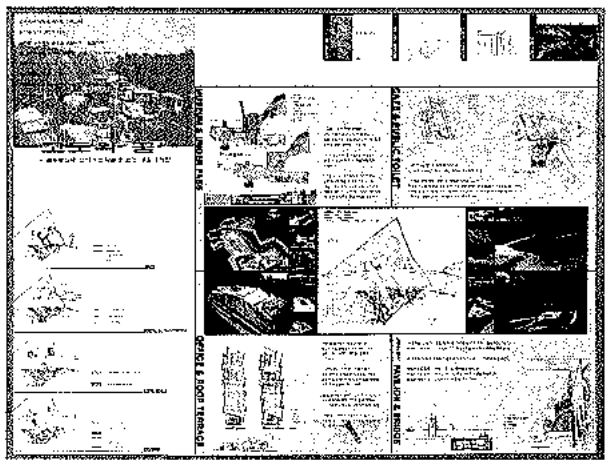
인천 중앙동 일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다. 즉 개항과 함께 생겨난 각 조계지의 가로 패턴이 그것이다. 현재는 일부 근대건축물과 일본식 주택, 그리고 화교촌이 형성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발달 과정에서 청국 조계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겨나 계획대지인 기형블록이 생성되었으며 현재 블록에는 건물군이 벽을 이루고 있어 역사적 거리와 도시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단절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된 두 개의 도시를 연결하고 공화춘을 중심으로 자장면거리와 연계하는 중심광장을 설정하여 차이나타운 일대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공화춘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장면이 개발되어진 곳이지만 현재 민가로 개조되어 방치된 곳이다. 따라서 공화춘을 자장면 박물관으로 제안하고 기존의 자장면거리와 연계시킴과 동시에 설정된 공장의 중심건물로 회복시킨다. 공화춘을 중심으로 생겨난 광장은 차이나타운의 중심광장으로 일본조계지일대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그리고 역사거리와 도시를 링크시키는 지점으로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계획안은 이러한 광장을 성립시켜주기 위한 경계의 성격과 동시에 연결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기 위하여 연속성의 개념에서 입면을 분석하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평칭월 타입과 발코니 타입의 형식을 이용하여 광장의 배경을 만들어 내고 과거 도시조직의 블록패턴을 건물 매스의 막힘과 열림 관계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게 되었다.



고도의 꿈

김용진 | 경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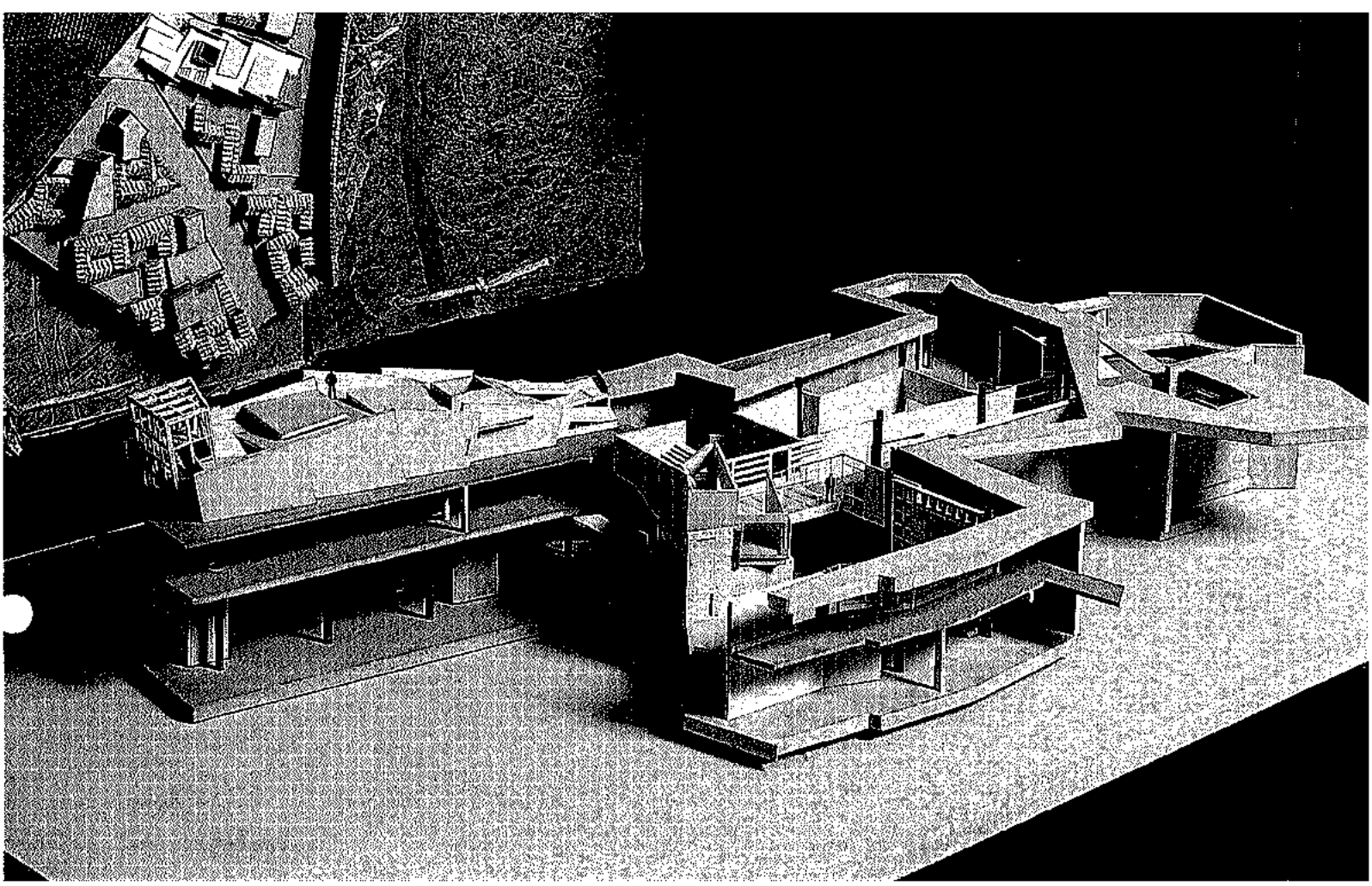


고도서울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문박물관으로 단절이전의 둥궐 주변의 자생적 길의 윤곽을 따라 지하에 구축된다. 지하 보도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인식 되도록 하며 레벨차에 의해 구분된다.

시민광장은 지하보도와 역사박물관, 정보센터의 중심에 위치하며 평상시 시민의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되며 무대시설을 갖추어 1년에 한번뿐인 종묘제례에 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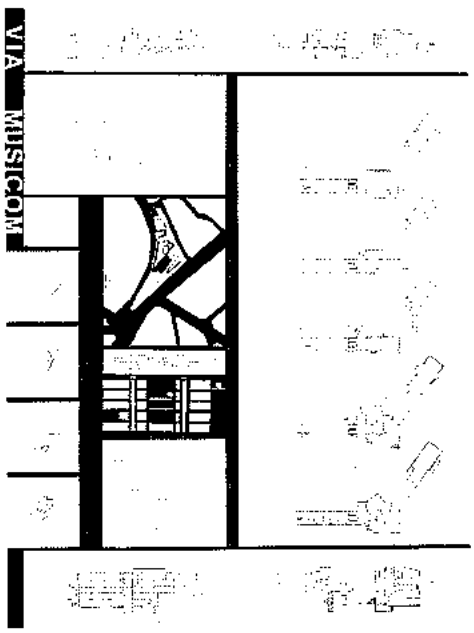
복원된 을곡로와 맞은편 조성된 창덕궁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치로 기존의 다섯 가구가 위치한 블록에 계획, 기존에 주택의 상을 반영한 스케일로 지상부의 지붕은 경사지의 쌈지마당과 같은 역할로 주민들에게 여유공간을 제공 높은 종묘 담장 앞에서 느끼는 폐쇄감을 상쇄시켜주는 투명 아트리움과 종묘 담장 앞에서 느끼는 폐쇄감을 상쇄시켜주는 투명 아트리움과 주민과 기존가옥의 스케일을 고려한 높이설정, 주변 가옥들과 차별화되는 입면과 분절된 mass사이의 slip창을 통한 빛의 유희를 체험하도록 계획했다.

길이라는 연속된 테마의 연장이며 창덕궁으로 출입하거나 종묘로 향하는 출입로가 된다. 종묘를 향해 낮게 배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지붕의 자유롭게 뻗은 기둥은 옛 종묘 숲의 연장이였으며 권농의 장소였음을 암시하고 지붕을 통해 내려오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마주보는 파빌리온과의 건축적 대화장치로 작용된다.



대중예술센터

조영삼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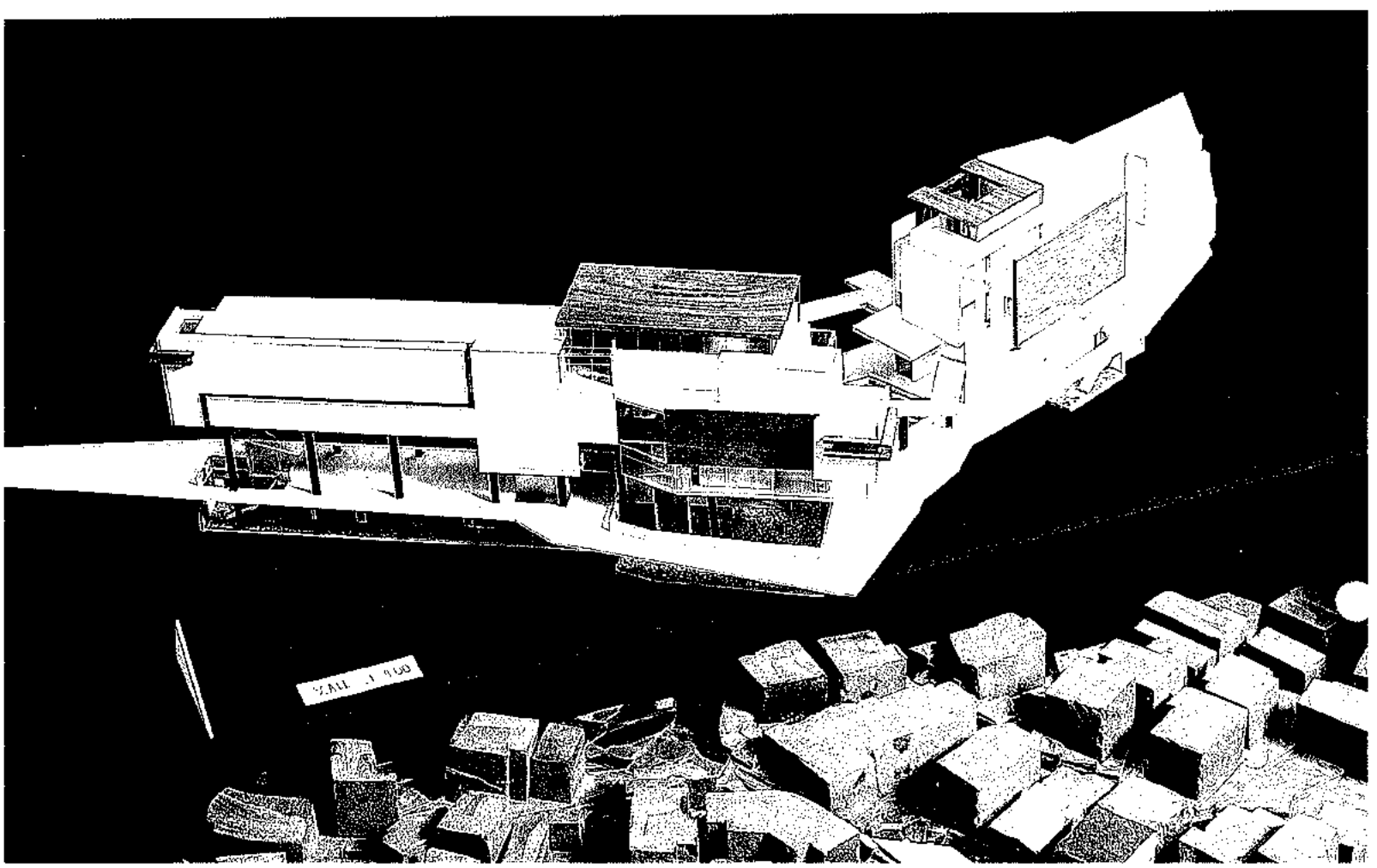
홍대앞은 스튜디오, 상점, 음식점, 화랑, 극장, 아파트, 학교, 시장, 놀이터 등이 옹기종기 모두 뒤섞여서 생기있고, 다채롭고, 자극적인 커뮤니티이다.
주류에서 벗어난 음악, 미술, 연극 등 여러분야의 예술가들이 허름한 지하실 창고건물에 비합법적으로 옮겨와서, 도시계획당국의 아무런 도움없이 스스로의 멋진 환경을 만들어낸 자연발생적 성장의 결과이다.

CONCEPT

대상지역은 신촌에서 홍대문화권으로 넘어오는 초입의 위치에 있다. 홍대문화권의 초입으로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멋진 거리풍경의 부분으로서 훌륭한 예술체험과 그들이 원하는 휴식과 즐거움을 주고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 끊임없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이곳 커뮤니티에 윤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POP ART CENTER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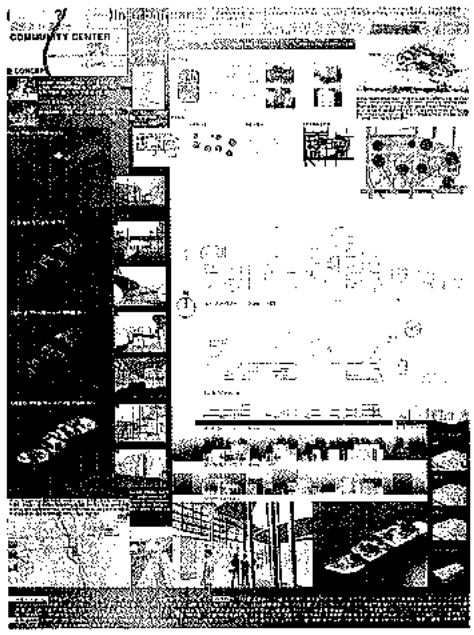
배치계획

기존의 굴곡이 심한 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두개의 축을 살린 두개의 동을 BRIDGE로 연결하도록 계획하였고 B동에 공연장과 극장등을 둠으로써 대지의 후미로서 자칫 소외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과 어울리는 커뮤니케이션

강경남, 석재영, 송지은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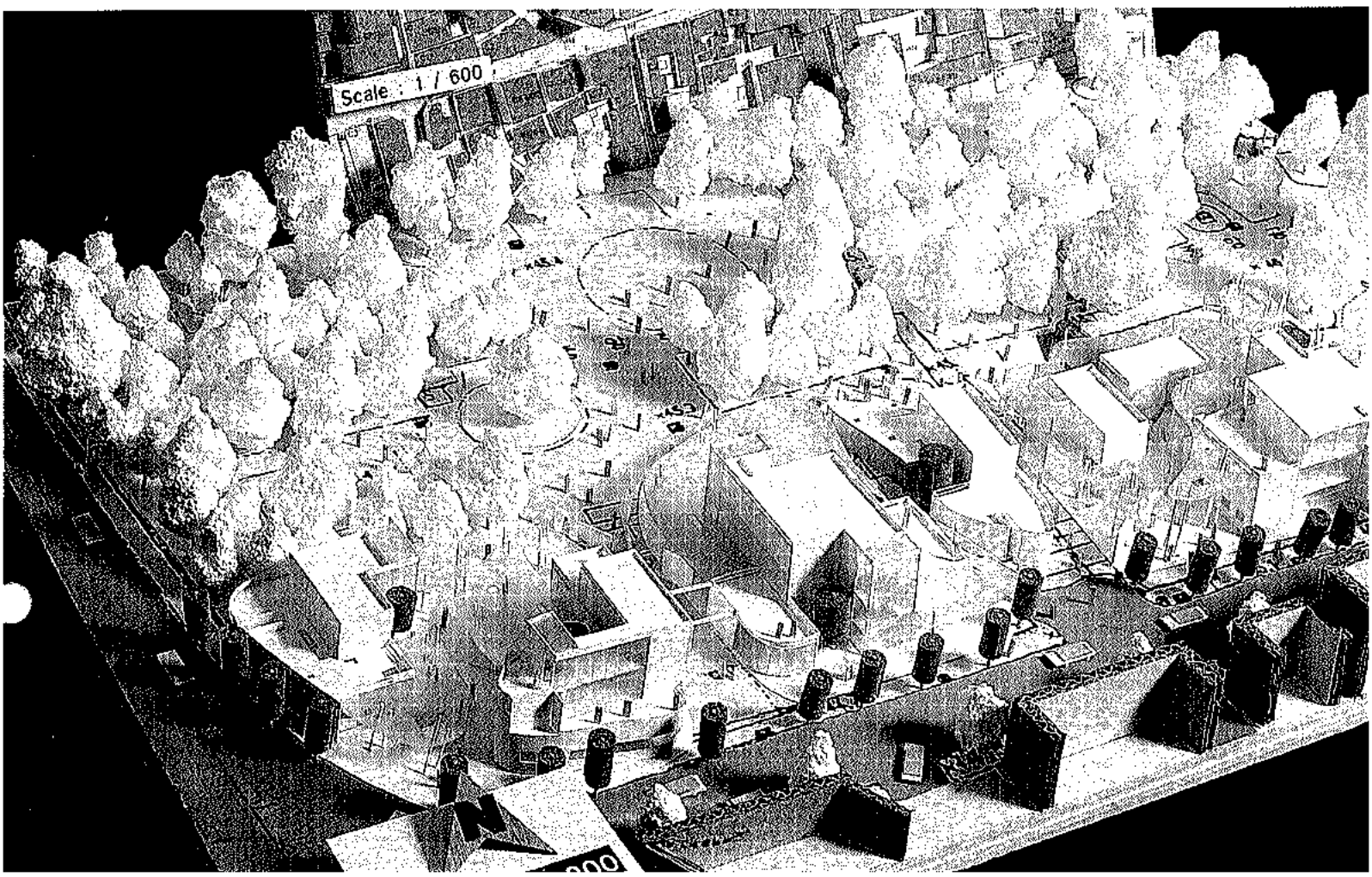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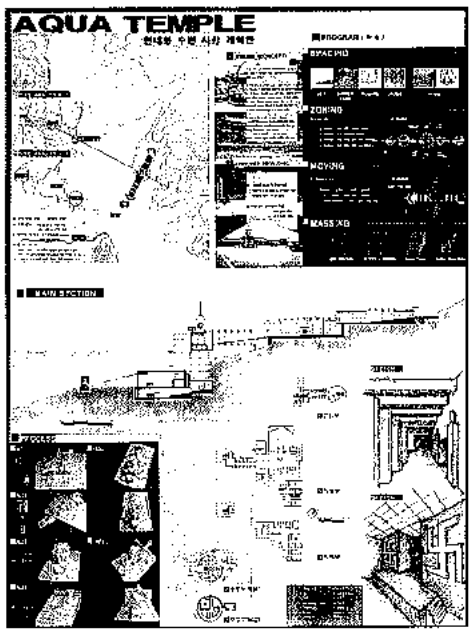
사람들은 군집성을 가지고 도시 내 어떤 장소에서 우연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생겨나길 바라며 또한 머물러 쉴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수목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은신처를 제공하며 시장을 덮는 천막같은 역할을 한다.

청주중앙공원의 남측은 도시의 두 공간(도심과 도심공원)의 경계, 즉 서로의 영역(Buffer Zone)에 위치하고 있는 ymca, 광명의료원, 충북예총건물의 형태적 오류로 인하여 도심 혼돈상태의 연속선상에 놓여지게 되었다. 본 project는 도시의 혼돈상태선상에 있는 도심공원의 경계를 청주중앙공원만이 가지는 micro-locality(수목의 분포, 사람의 군집도, 사람의 동선, 주변도로와의 관계, 역사성)로 두 공간 사이에 느껴지는 긴장감을 없애고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PROCESS

-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다.
-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생긴다.
- 그늘이 생기면 사람이 모여 행위를 한다.
- 사람들의 행위를 담는 은신처를 만들어 준다.





현대형 수변사찰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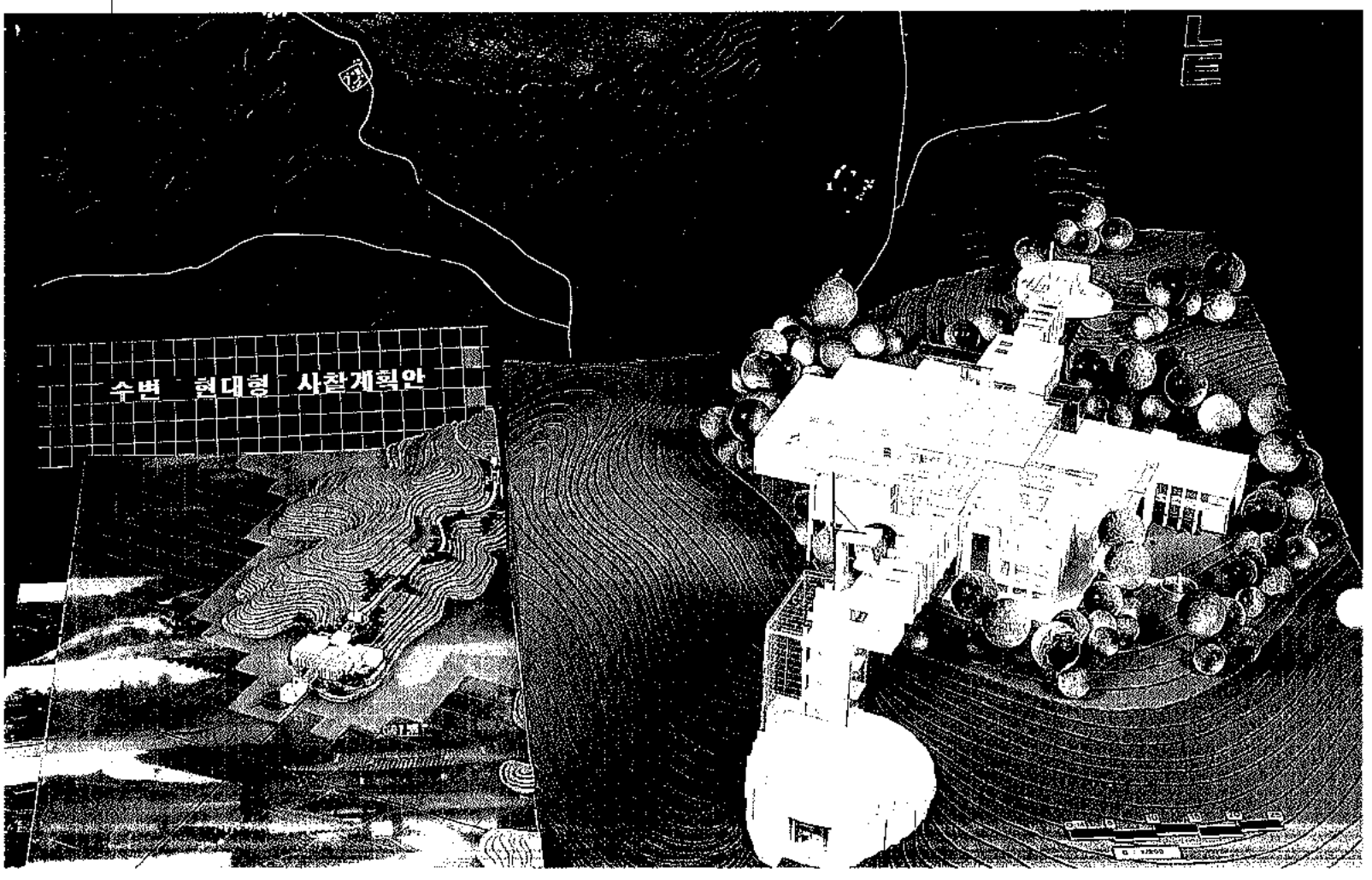
김성익, 김민보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Theme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에 대한 주위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나 자신을 우쭐하게 하는 유일한 자역성이 주는 이점이었고 자주 들어오고 보아오던 덕동호수는 수많은 건축적 매력들을 간직한 채 감추어져 있었던 건축적 동경의 대상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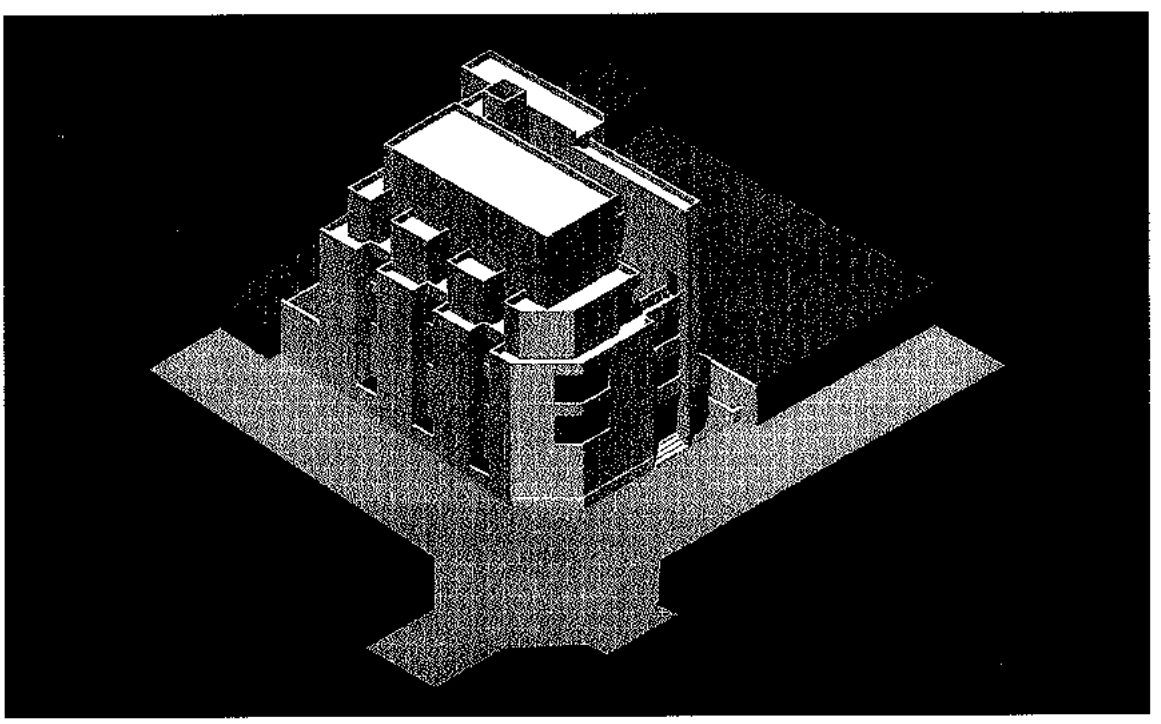
Concept & Site

경주라는 지역성은 과거 신라인들의 정신 문화의 시간적 연결 선상에서 이어져 현재를 비추어주어야 할 것이고 미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경주에서의 현재라 함은 수많은 문화재(정신문화로 대변되어 지는 것)들을 개발이라는 전제하에서 잃어버리고 있다. 그 중 한가지로 1975년이래 덕동호가 경주시민의 생활 용수를 책임지면서부터 그 주위의 고선사터(원효승이 주지로 있었던 사찰)와 무장사터(문무왕이 삼국통일 이후 전쟁을 그만하겠다는 의미로 투구와 병기를 묻었던 곳)는 고스란히 물속으로 숨겨져 버렸다. 그것은 불교 정신의 수몰이며, 정신적 빈곤을 대변하는 물질적 발전이 주는 현대의 오점일 것이다. 현대의 물질적 편의는 이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타협해야 하는 존재들이며, 정신적 빈곤은 그에 이어 상대적으로 발생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 정신문화가 수몰된 그 대상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적 연결선상에서의 상징성과 기능성의 타협을 현대사찰이라는 계획으로 마련해 주고 싶었다.



사주(四柱)
Four Pillars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by Kim In-Cheurl



무더웠던 여름 어느날이었다. 외출에서 돌아왔더니 P회랑의 P선생으로부터 급히 상의할 것이 있다는 메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진행중인 K화백의 양평 아뜨리에 때문인가 하고 전갈을 넣었더니 불문곡직하고 생년 월 일 시를 음력으로 알려 달라 하였다. 의아해 하니 좋은 일이므로 그리 괘념치 말라 하였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였지만 실없는 농을 하는 분이 아니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P선생의 전화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잠시 후 P선생은 압구정동의 찻집으로 급히 나와 달라 하였다. 마침 근처의 H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인테리어 작업도 돌아 보아야 하였으므로 군말 없이 다시 한강을 건너 갔었다.

찻집에서 P선생은 초로의 부인을 한분 새삼스럽게 소개하였다. 새삼스럽다는 것은 이미 구면이기 때문이었다. 4월에 치렀던 우리집의 집들이 잔치에 P선생과 함께 들렀던 분이었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칭찬을 너무 받아 면구스러웠던 것이 기억에 남았고 당신도 일본 건축가 S씨와 강남에 지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하였었다. 기회가 되면 S씨에게도 이 집을 보여주어야 겠다며 귀찮이 말아 달라 부탁하였었다. 그 뒤 S씨의 출장 스케줄을 알려왔지만 서로 맞추어지지 않아 S씨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S씨와는 다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으므로 그리 되어 만나면 재미있는 조우가 될뻔하였었다. 그 분 L선생은 사람을 택할 때 꼭 사주를 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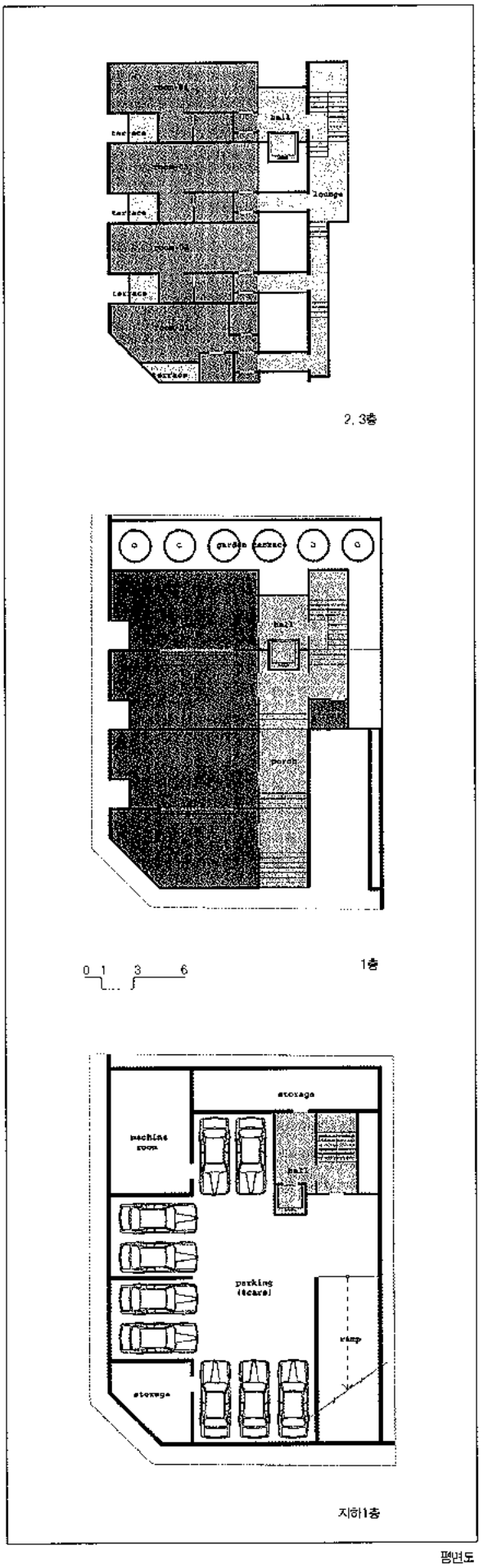
L선생은 S씨와의 작업이 여의치 않으니 그 일을 맡아 달라 하였다. S씨는 우리의 건축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포기하였다고 하였다. 어떤 프로젝트였는

가 물었더니 다가구주택이라 하였다. 지구단위계획까지 겹쳐서 도대체 윤곽을 잡을 수 없다며 물러났다는 것이었다. 딴에는 그럴 법 하였다. 국제적 수준으로 자처하는 그에게 한국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시시콜콜한 제약들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을 것이 분명하였다. L선생의 땅은 논현동의 고급주택가에 있었다. 지역의 성격이나 지가 등을 고려하면 다가구주택은 어울리지 않았으나 L선생은 독신자를 위한 고급의 주거공간-말하자면 작은 아파트먼트 호텔 같은-을 구상하고 있었다. 집의 이름은 BOBOS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

BOBOS는 bohemian bourgeoisies의 앞머리를 조합한 단어로 현대 도시인의 새로운 유형을 뜻하는 단어였다. L선생은 BOBOS라는 미국의 잡지를 펼쳐 보이기까지 하였다. S씨의 안을 설명하려는 것을 말리자 L선생은 아쉬워 하였다. 어떤 제안이었는지 호기심이 동하였지만 이왕 맡는다면 나만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바쁜 P선생을 보내고 나서 찾아간 현장은 사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빈 땅이었다. 언덕진 큰길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는 어귀에 남쪽과 서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전형적인 주택가의 필지였다. 평범한 장방형의 모양이었으나 북에서 남으로 높이가 2미터가량 낮아지는 레벨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동숭동과 청담동에서 여러 번 집짓기의 경험을 하였다는 L선생은 당신의 마지막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며 좋은 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 하였다.

120여 평의 땅을 가득 채워야 하는 요구와 이리저리 억제하는 규제와의 다툼을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었다. 띄울 곳은 띄우고 남길 곳을 남기면 테두리와 덩어리는 절로 정해졌다. 공간을 나누고 동선을 잇고 면을 다듬으면 나머지는 기계적인 작업이 되겠지만 그토록 타당한 결과로 그토록 쉽게 마무리 짓기에는 스스로 미땅치 않았다. 그날 오후 대지를 살폈을 때 눈 여겨 보아둔 높이의 차이-비탈진 땅-을 그저 지나칠 수 없었다. 도시의 모습으로 덧씌워지기 전에는 양지바른 배나무 밭이었을 곳을 이제 와서 언덕으로 되돌릴 수 없겠지만 기억을 위한 장치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 작정하였다.

오르내리기가 일상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다. 오르막 길을 따라 단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어내는 안 길을 만들었다. 남쪽 길에서 깊숙이 올라가 입구가 만들어지고 다시 오르거나 내려가 올라온 안 길 위를 건너가면 따로 하나하나인 집에 닿아 지도록 하였다. 밖 길과 안 길 사이에 네 번의 단을 이루는 공간을 쌓았다. 각각의 단은 철저한 하나일 수 있고 이어지면 터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였다. 어차피 보헤미안이므로 크게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더구나 부르주아이므로 서로의 관계는 선택의 사항이었다.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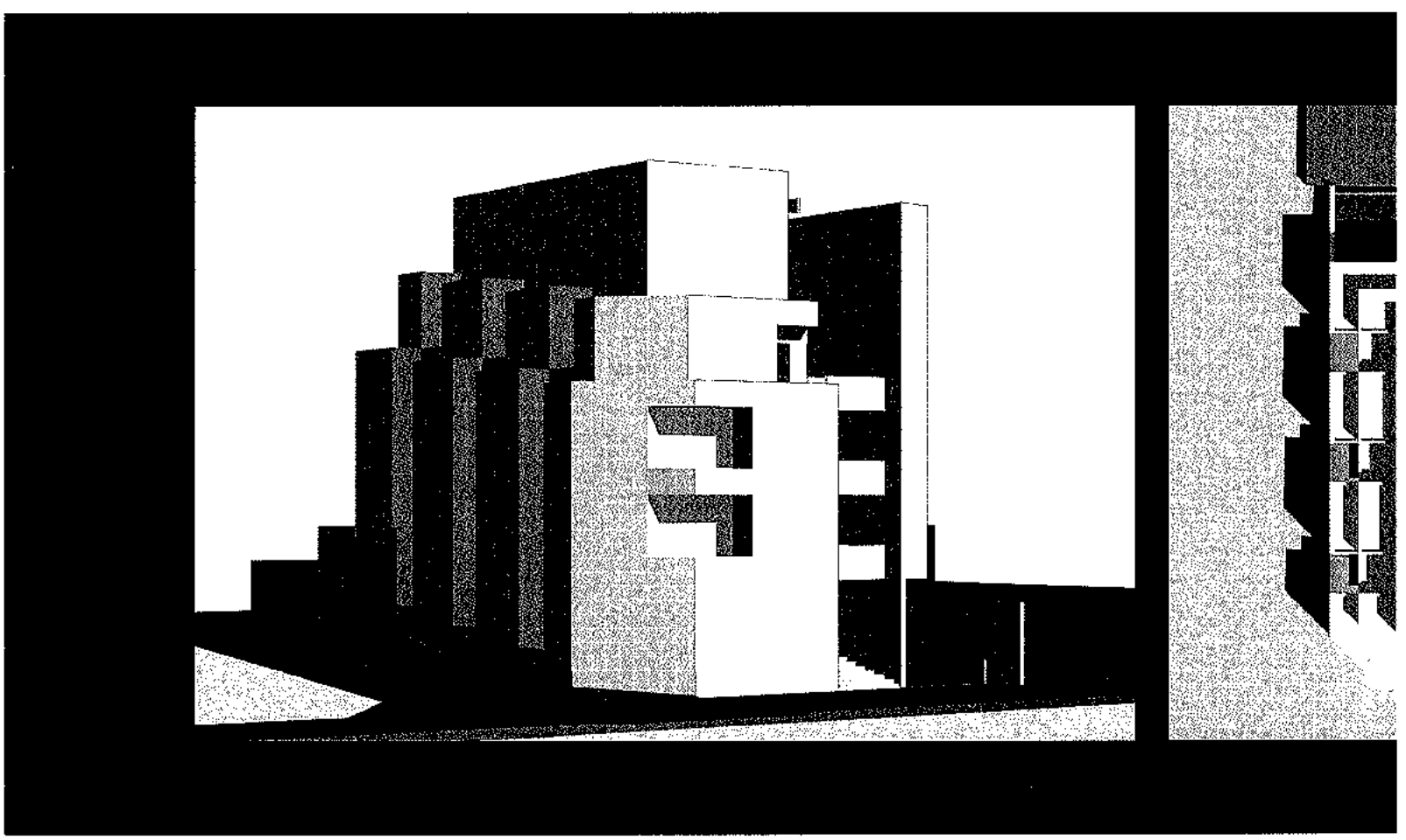
평면도

간은 포개어져 있지만 오르내리는 길은 열려 있어서 완벽한 개체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강화유리문과 수위가 지켜주는 것은 어설픈 보호막이어서 현대적이지 못하다 생각하였다.

유니트는 되도록 단순하게 만들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배치이므로 안 길에 면한 동쪽도 막히어 서쪽만 열리는 형국이 되었다. 서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코니를 안으로 들여서 남향의 창을 만들었다. 이웃을 건너다 보려면 나와 서야 하지만 이미 배타적인 도시의 정황이었으므로 빛과 바람이 들면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욕실과 주방기구가 놓일 부분을 만들면 좁고 긴 공간이 남았다. 이런저런 가구와 공간을 예정하여야겠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 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그만이었다. 건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방해 받지 않도록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어디에 무엇을 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각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다.

맨 위의 5층은 L선생의 거처가 되기로 하였으므로 사선제한의 한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최대의 공간용적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바닥의 변화는 지붕에서 단순한 평면으로 정리되었다. 형태는 내용이 생겨진 대로 벽을 놓아 공간을 세우고 막을 곳과 열어야 할 곳을 정하면 만들어지게 마련이었다. 모양은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질감과 색을 쓸 것인가 작정해야 하였지만 L선생의 예산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단순 명료한 것이라면 그만이므로 따로 상관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동쪽에 만들어지는 계단길이 무게를 덜어낸 모습이기를 상상하였으므로 그와 어울리는 몇 가지는 작정하고 있어야 하였다. 콘크리트의 노출은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목재와 메탈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안이 정리되어 3D와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식구들에게 부탁하였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L선생은 제안설명을 들으며 매우 감동스러워 하였다. 따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S씨의 안보다 훌륭하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 주었다며 고마워 하였다. 집속으로 길을 내는 방안도 새로우며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공간은 정말 근사할 것이라며 좋아하였다. 모형을 살피며 감동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L선생의 반응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였으나 좀더 다듬으면 더욱 근사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으므로 드디어 나도 강남에 작업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서초동의 메소트론 이후 강 남쪽에서의 작업은 전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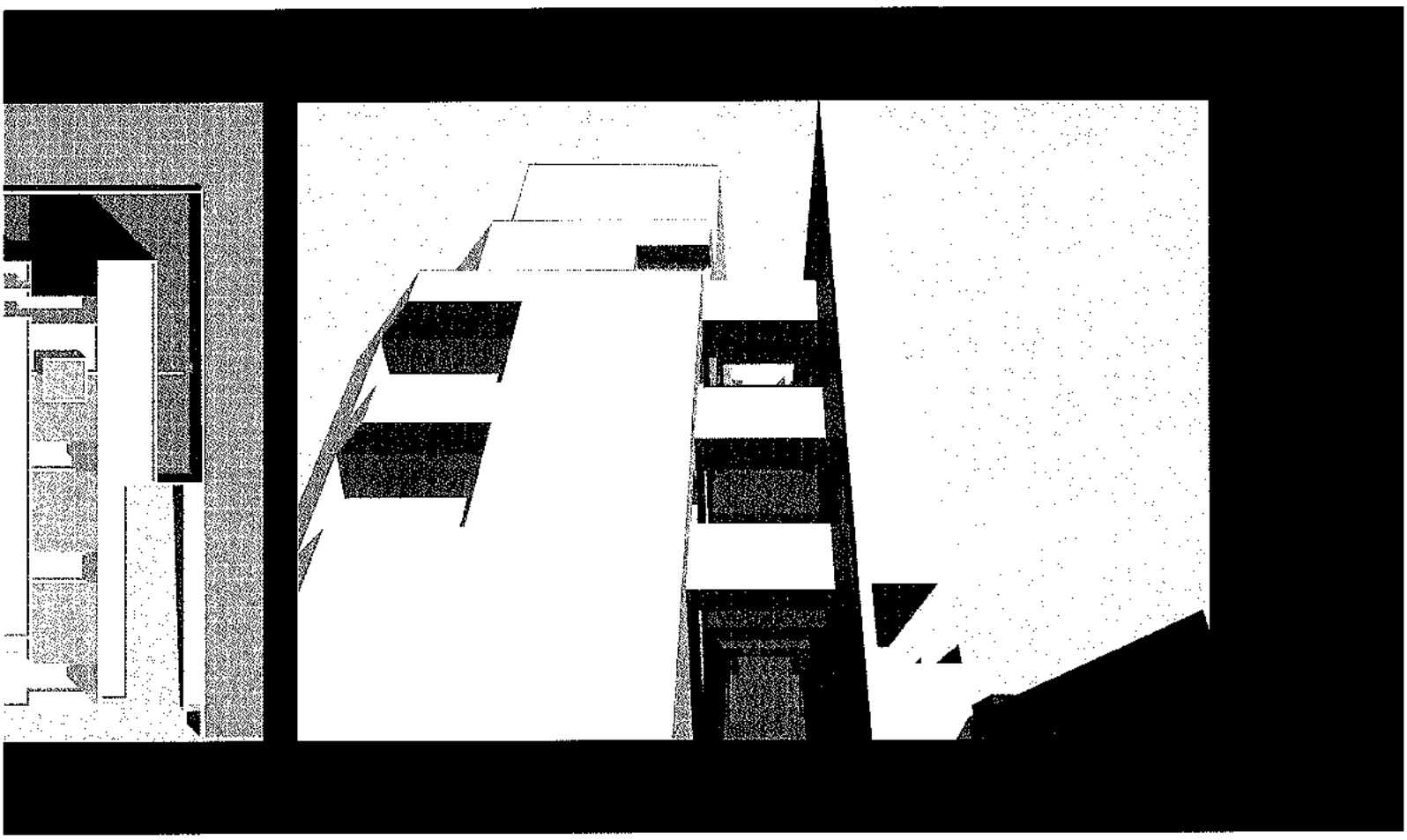


L선생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제안서에 관심을 두기보다 도면과 모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하였다. 아드님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므로 상의하고 싶으니 갖고 가 보여주면 어떤가 하였다. 이미 결정 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마다 할 이유가 없었다. 도면과 모형을 챙겨드리며 다시 한번 설계비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으나 P선생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이미 거론되었던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았다. L선생도 문제가 아니라는 듯 조정이 되겠지요? 하며 소중하게 도면과 모형 묶음을 받아 들었다.

P선생에게는 따로 연락 드리지 않았다. 두 분의 친분이 각별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S선생이 만족해 하였으므로 나보다 그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오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운이 트였는지 신사동에도 일이 만들어질 듯 하였고 분당 건축주의 역삼동 프로젝트도 우리의 프로포잘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왔으므로 한꺼번에 강남의 일이 겹쳐지게 되었다. 곧 결론을 전해 올 것이라 기대하였던 L선생의 소식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워낙 바쁜 분이니 기다리면 되리라 여기고 있었다. 보름이나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처음 떠오른 생각은 설계비를 제시했을 때 보였던 L선생의 표정이었다. P선생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버릇처럼 되살아 나는 -프로젝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P선생은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차저차함을 알린 뒤 혹시 L선생이 예산의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면 제시한 것의 절반인들 상관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 달라 하였다. P선생은 몹시 미안해 하며 제대로 중매를 하겠노라 다짐해 주었다. 그 뒤에도 소식은 오지 않았다. 다시 두 주일쯤 되었을 때 L선생의 기사가 케익 한 상자와 모형을 돌려주고 갔고 실장과 통화한 L선생은 미안하게 되었다며 누구인가와 하기로 하였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 하였다는 결과만 전해 들었다. 궁금해 하였던 P선생은 설계비중 일부라도 엄중히 청구하라고 재촉하였지만 망가진 모형이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리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끝난 일이 새삼스러워지는 일이 있었다. P잡지의 9월호는 건축가 M씨의 특집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의 작업에도 〈BOBOS〉가 있었다. "우리가 잠시 진행하였던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석과 함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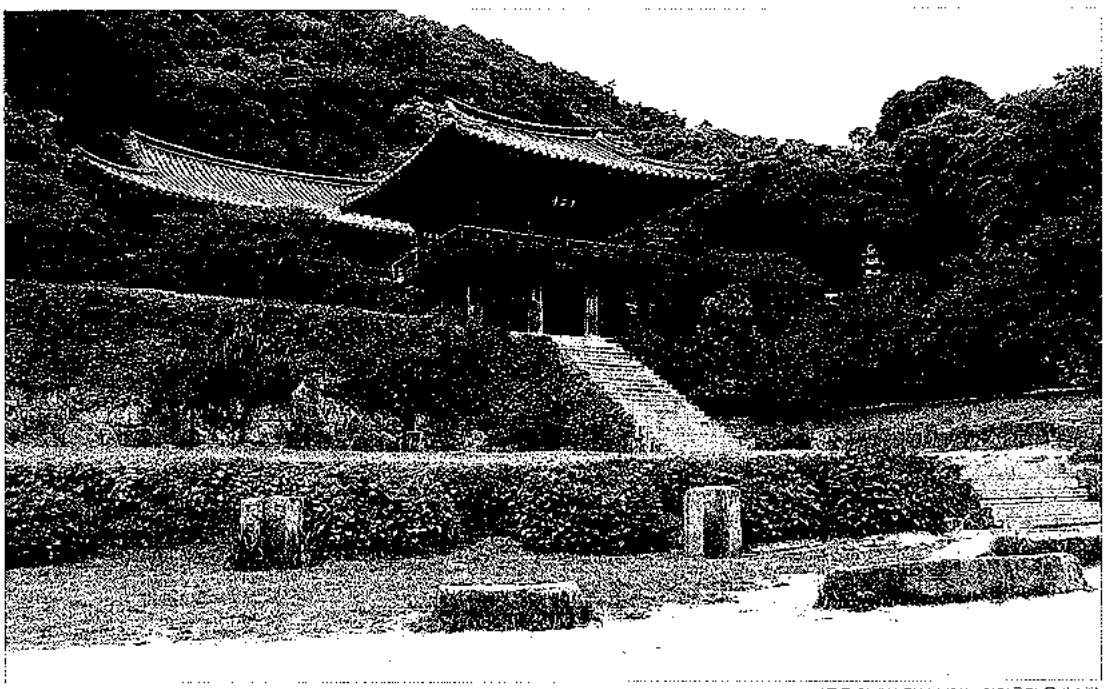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7)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부석사

김석환 / 터 · 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범종루 앞에서 겹쳐 보이는 안양루와 무량수전

〈 연 재 목 차 〉

1. 병산서원
2. 소 쇄 원
3. 선 암 사
4. 화 암 사
5. 종 묘
6. 창 덕 궁
7. 부 석 사
8. 독 락 당
9. 영 선 암

양백지간에 놓인 깊이감

부석사가 위치한 이 곳은 태백산과 소백산의 사이라 하여 양백지간이라고 불리운다. 백두산으로부터 뻗쳐 내려온 큰 산줄기가 태백산에 이르러 호흡을 가다듬은 후, 방향을 틀어 소백산 쪽으로 내닫기 시작하는 곳이다. 이 곳은 지형조건상 강원도의 깊은 산중과 지형 흐름이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 큰 산세의 응축됨이 수도 도량으로서의 깊이감을 낳는다. 부석사가 등을 기대고 있는 백두대간만 넘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고을인 정선과 평창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오대산 설악산까지 계속해서 험한 산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깊은 자연환경 그대로인 속에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곳이다. 또 동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봉화가 있는데, 역시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소득될 것이라고는 산나물과 임산물뿐이었다. 그러다 근대화 이후 광산이 들어서면서 특별한 삶의 정경이 이루었다. 정착민도 먹을 게 없어서 이일을 시작했고, 일거리를 찾아 떠돌다 머문 사람들이 합쳐져 이룬 새 삶터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거친 노동과 술, 가난만을 남긴 채 폐광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힘겹던 시절 이 땅의 궁한 살림살이의 애환이 옛 기억 속에 떠오르는 곳이다.

필자는 지금도 그 부석사를 가려 할 때면, 먼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마

음 을 갖추게 된다. 도상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 길은 유독 남쪽지방에 갈 때만 큼이나 멀게 느껴진다. 그 곳을 서울에서 가려면 대략 두갈래 길이 떠오른다. 첫째는 이천, 장호원, 충주, 문경새재를 넘어 문경을 지나 영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지름길 같지만 구불대는 지방도로와 준령을 넘느라 마음먹은 만큼 빨리 가지지 않는다. 그 다음은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새로난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길이다.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접속해 가기에 시간 단축이 기대되는 길이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는 남원주로부터 제천까지만 완성되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풍기까지 다시 국도로 가며 죽령을 넘는 길이 멀어 시간이 그다지 단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착해보면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어차피 걸릴 만큼 시간이 다 걸리는 셈이니, 부석사에 당도했을 때 조금도 요령껏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기야 이 곳 부근에 있는 죽령은 조령과 함께 그 옛날 삼국시대에 신라로부터 고구려 땅으로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지금이야 자동차를 이용하니 산의 깊이감이 흐릿해졌지만 조선시대로 와서 과거를 보기 위해 넘을 때까지도 짐승 때문에 목숨을 건 위험도 따르는 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풍기 등 인근 고을이 도시가 되어 날로 번창하고 있으니, 그 깊이감을 잘 느낄 수 없다.

부석사는 전국 사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사찰일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량수전이 한국전통건축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 후 봉정사 극락전이 조금 더 오래된 건물로 다시 밝혀졌지만, 무량수전에 대한 명성에 조금도 누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겹쳐 보이는 모습은 한국전통미를 대표하여 왔다.

그리고 이 곳에는 속세의 여인과 출가한 스님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선묘에 얽힌 설화가 그것이다. 당나라에 유학한 의상이 머물던 곳에 선묘라는 낭자가 살고 있었는데 의상을 짝사랑했다. 결국 사랑은 이루지 못했지만 선묘는 의상을 지켜 줄 결심으로 용이 되어 호위해 따라왔고,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할 때 방해하는 무리들을 넓적한 바윗돌을 날리는 이적을 일으켜 물리쳐서 불사(佛事)를 도왔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부석사는 깊숙한 산지 조건과, 화엄종찰의 의의와, 우리나라 불교사의 최고 고승을 사랑했던 여인의 이야기에 의해 더욱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곳이다.

사찰과 산지가람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는 많은 사찰들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특히 깊고 큰 산마다 더욱더 장대하게 이뤄논 사찰을 만날 수 있다. 그 모습을 통해 불교가 이땅에 끼친 영향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질을 잘 모르더라도 종교가 미치는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종교 때문에 의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종교활동을 이해하려면 신앙인의 마음으로 보아야 진정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갖고 예배대상(禮拜對象)앞에 나아가 백번, 천번 절하는 것은 신앙(信仰)의 돈독(敦篤)함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런 일일 수 있다. 일반인의 사고로는 오랫동안 혹독한 어려움을 견디며 아잔타 석굴(石窟)을 만든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찰(寺刹)은 가람(伽藍)이라고도 하는데 범어 Sangarama에서 유래된 것으로, 음역(音譯)하여 승가라마(僧伽羅摩) 또는 가람, 절(寺) 또는 사찰(寺刹)이라고도 하고, 의역(意譯)하여 중원(衆園) 또는 승원(僧園)을 뜻한다. 우안거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아바사(Avasa:住處의 뜻)와, 대도시 주변의 한가한 숲에 영구적으로 건립한 아라마(Arama:園林의 뜻)로 대별된다.

사찰의 기원은 붓다가 설법하던 장소에서 비롯된다. 인도에서 정사의 기원이 된 것은 죽림정사이다. 빔비사라왕이 붓다의 설법을 듣고 새로운 눈이 뜨여 귀의하고 설법장소로 큰 대나무 밭을 받쳤는데 이것이 죽림정사이다. 이후로 대림정사, 왕원정사, 기원정사, 온천정사가 생겼다. 그 중 기원정사는 붓다께서 가장 오랫동안 설법하였던 곳이다.

불교초기 가람에는 불전과 같은 예배용 건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승려들의 수행처인 승원(僧院) 기능만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불전(佛殿)이 등장하는 것은 불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부터이다. 붓다가 입적한 후 400년 동안에는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4~5세기에 신앙이 신장되면서 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붓다 입적으로부터 불상이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를 무불상(無佛像)시대라고 부른다. 그때까지 불상을 만들지 않은 이유로는 붓다는 보통사람과 달리 신성시하여 불상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자나 사람들은 붓다의 검소한 생각을 알고 있었으므로 화려하게 무엇을 만들 생각을 갖지 않았다. 또 붓다 사후 45년까지는 석가의 인격이 비춰졌던 시기로서 불상이 불필요했다. 그리고 그의 사후 100년까지 그를 추모하고 존경하는 형태의 원시불교(原始佛敎)가 이루어졌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륜(寶輪), 발자국, 불좌(佛座), 보리수, 탑 등이 부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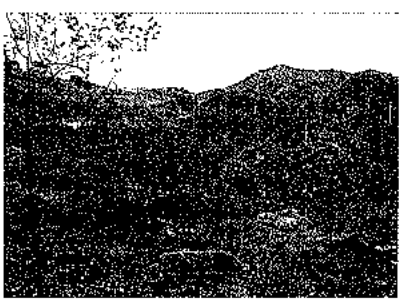
그러다 기원전 1세기경에는 실제 불상이 만들어졌다. 불상의 출현은 석가를 역사적 존재를 너머 초월자(超越者)로 만들었다.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이 종교적 성격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했다. 최초의 불상은 고산바국의 왕이 향나무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초기 불상은 인간이 아닌 비소칼마천이라는 천신(天神)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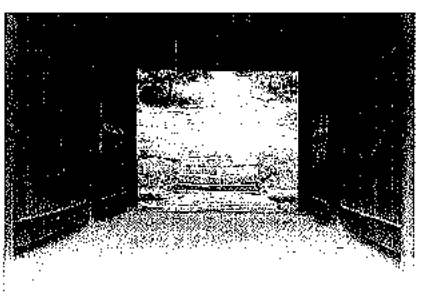
불상이 만들어지자 불상을 모시기 위한 불전이 등장했다. 그리고 불교가 인도로 부터 중국에 전해졌을 때 신도들은 불전을 궁궐처럼 젓고자 했다. 당시 사람들은 붓다가 왕국의 태자였기에 그리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 뿐 아니라 불자들에게 붓다는 지혜로서 모든 인류를 구한 최상의 존재로 인식된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모신 전각 이름도 대웅전이라 불린다. 그리고 단청을 하여 장엄하게 꾸몄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미지가 전래되었다. 그렇지만 사찰은 무엇보다도 수행자가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생활 공간이 마련돼야 했다. 그리하여 사찰은 예배대상인 불상을 모신 불전과 부처를 상징하는 탑, 강론하고 공부하는 강당, 그리고 수행자가 거처할 요사체로서 기본 요소를 이루었는데, 탑을 불전앞 마당 가운데에 세우고, 강당, 탑 금당을 자오선상에 일직선으로 배치했다. 음양오행설에 따른 오성좌의 배치가 보이기도 한다. 초기에는 탑이 예배의 중심이었으며, 불상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사찰의 배치도 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 사찰형식도 탑에 의해 1탑식, 2탑식, 무탑식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다가 불상이 예배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탑의 의미도 축소되었고 배치형식도 자유롭게 되었다.

도입될 때부터 계율종의 성격을 지녔던 한국의 불교는 화엄종과 선종이 전파되면서 점차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찰은 선종의 영향으로 평지로부터 점차 깊숙한 산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산지에 지어진 사찰을 산지가람이라고 부른다. 부석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지가람이다. 산지가람은 7세기중엽부터 조성되기 시작했고, 9세기 선종이 유행하면서 더욱 확산되다가 고려 후기에는 풍수지리설의 풍미로 대부분 산지에 조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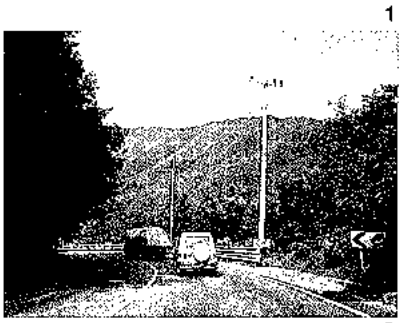
산지가람 배치에 있어서의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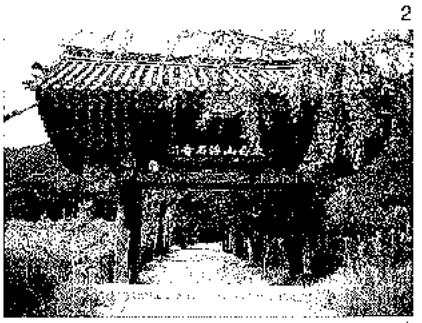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세계의 중앙에 수미산(須彌山)이라는 가상적인 이상향의 산을 설정하였다. 수미산은 그 형상이 특이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산기슭에서 위로 올라 갈수록 점차 좁아지다가 정상에 가까워지면 다시 점차 넓어져 맨 꼭대기에는 편편한 모양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산아래는 혼탁한 중생세계를, 그 맨 위는 불교적 이상세계를 뜻한다. 그리고 그 사이 높이에 따라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부석사에 조성되어 있는 축대의 수를 두고 위계적 해석이 되기도 한다. 놓여진 축대의 수를 아홉단 혹은 열단으로 보고 그에 따른 해석이 다른데, 아홉은 수행단계를 하품하생부터 상품상생에 이르는 구품계를 상징한다고 하고, 열단으로 해석할 때는 세상이 차원이 다른 10여종의 존재들로 구분된다고 한 대승불교의 세계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로 귀한 존재가 머무는 세계가 있는데,


1


2

5


3


4

가장 하위에 속하는 지옥(地獄)세계로부터 아귀(餓鬼) 축생(畜生), 아수라(阿修羅), 인간(人間), 천(天), 성문(聖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그리고 가장 상위에 불(佛)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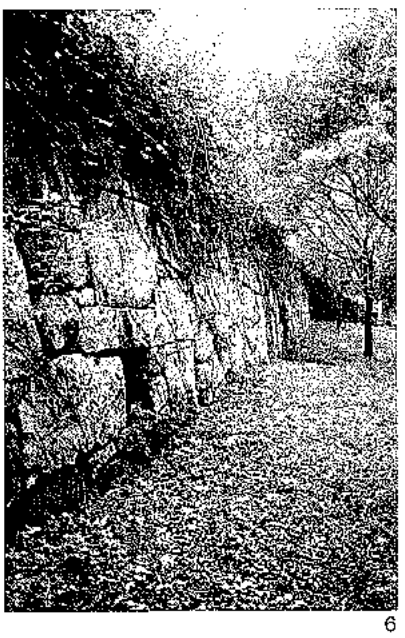
사람들은 산지가람을 조성하면서 불교에 나오는 수미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일주문에서부터 대웅전에 이르는 과정은 바로 낮은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부석사에 들어선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축대 하나를 넘을때마다 존재 위계가 높아지는 꼴이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산문을 찾는 사람은 산문의 경계에 들어서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그리고 산문경계에 그것을 상징하여 일주문을 세운다. 일주문을 지나 정진을 계속하면 산중턱의 사천왕(四天王)이 있는 세계에 이르게 된다. 구도의 길로 들어섰지만 중턱쯤 오르다보면 마음에 미혹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사천왕이 마음에 미혹을 일으키는 존재들을 제압한다. 그리고 더욱 수도정진하여 정상에 오르면 마침내 '주객 이 둘이 아닌 불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수미산의 꼭대기인 이 곳을 도리천(忉利天)이라 하는데, 그 중앙의 선견성(善見成)및 사방에 있는 8개씩의 궁전(宮殿)과 함께 33천(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8개의 하늘 세계를 지나면 아늑한 곳에 부처가 계시게 된다. 그 경계에 세워지는 문이 불이문이다. 부석사에서는 안양루가 불이문에 해당된다. 주객이 둘이 아니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님을 상징하는 불이문, 이 불이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도리천을 상징하는 33계단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불국사의 백운교와 청운교도 33계단으로 만들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는 가상적인 이상향의 구도를 통하여 부처의 세계에 이르는 해탈의 단계를 상징화하고 있다. 특히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에 잘 적용되어 우리나라 특유의 느낌을 이루어 냈다.

축을 따라 고조되는 정서

산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터를 찾는 일이 관건이었다. 일이 수월할 곳을 찾기보다 수행자의 정신을 맑게 할 수행에 알맞는 곳을 찾았다. 그리하여 산지가람은 대개 맑고 깊은 산자락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경사진 산지에 터를 닦으려면 필연적으로 축대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부석사가 위치한 지형은 원래 경사도가 심한 산비탈이어서 축대 또한 높고 많아지게 되었다. 그처럼 산지가람은 평평하고 넓은 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건물배치가 평지에서의 일률적 도식성 대신 긴 축을 이루며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전통건축에는 그처럼 축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많다. 특히 경복궁, 경기전, 쌍계사 등의 축은 측량을 해서 이루어 논 듯 반듯하다. 그 축은 대상으로 나아가는 엄숙성을 드높여지게 한다. 이 곳 부석사도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부석사의 축을 따라가는 길은 특별한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이 곳 일주문을 들어서서 무량수전에 축을 따라 길을 가는 동안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치 객석에 앉아 연극을 관람하듯 의도된 감동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6

7

1. 입구 주변의 지과밭
2. 축렬을 넘어 풍기로 들어서는 길
3. 천왕문을 들어서 축선의 감을 따라 올라감
4. 일주문
5. 천왕문을 지나 오르는 길
6. 천왕문을 지난 곳에 있는 늪은 축대
7. 종무소 앞 3층석탑
8. 종무소 앞에서 멀리 보이는 안양루
9. 범종루 우회로 이어진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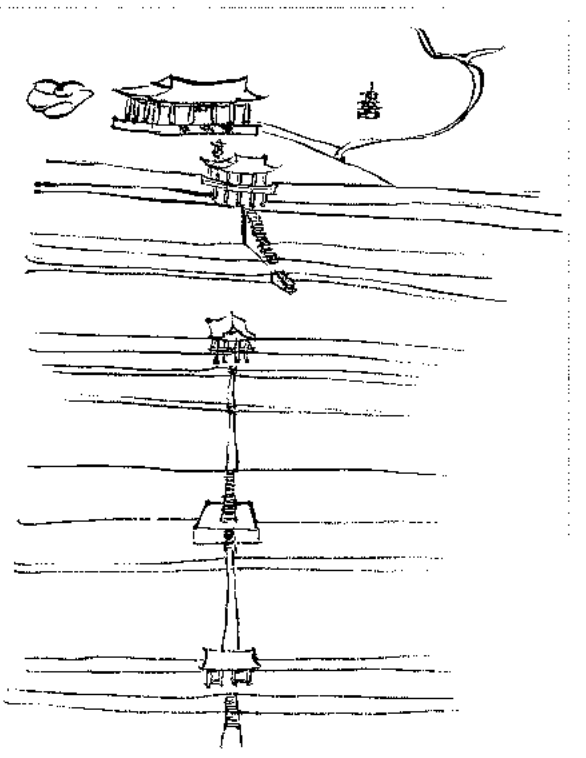
8

9

이곳은 천왕문을 들어설때 느낌부터가 특이하다. 축대에 가로막혀 저 너머로 시선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주변에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단지 가운데 놓인 외길 계단만이 나아갈 흐름을 이끈다. 그러한 여백적 분위기는 잠시 페사지같은 고즈넉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천왕문을 지나 막 오르는 길은 산비탈처럼 경사지게 넓적한 돌들이 깔려 있다. 그 반질반질하게 닳은 표면에서 세월의 두께가 느껴진다. 그 길을 올라오면 계단이 시작되기 전에 양옆으로 이어진 길이 나 있고, 숲 그늘도 있는데, 가을에는 사람들이 일행과 함께 오르다 은행나무 단풍에 매료되어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기도 한다.

거기서 다시 축을 따라 오르려는 길은 높고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다. 가로막음은 저 너머를 향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사찰이 갖는 신앙적 상징성은 멀리까지 흡인력을 발하여 높은 축대를 넘어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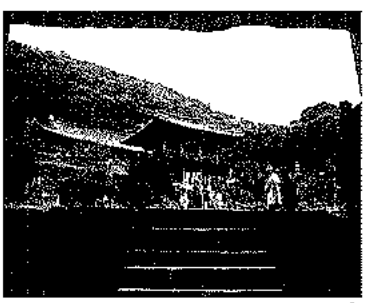
계단길로 가로놓인 축대를 넘어 올라서면 정면으로 범종루가 서 있다. 그 주변으로 비로소 안온케 하는 평지가 나타난다. 중앙의 길 좌우에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3층석탑이 서 있다. 그리고 그 양편의 탑 뒤쪽으로는 종무소와 유물관 요사체 등 몇채의 건물이 도열하듯 축과 나란하게 서 있다. 그러나 불전은 아직도 저 멀리에서 느껴질 뿐이다. 축은 계속해서 범종루 루 밑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 축을 따라 가는 길은 경건한 의식에 사로잡혀 가는 길이다. 이곳을 들어온 발길을 더욱 끄는 것은 자신을 편케해줄 존재로의 나아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끄는 건축적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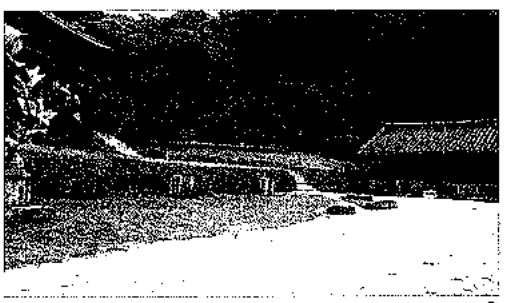
스케치

범종루 루하로 오르면 공터가 있고 거기서 다시한번 여백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거기서 올려다보면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중첩되어 보인다. 사람들은 그 곳에 이르러 비로소 찾아온 대상을 느낀다. 거기서 안양루 루밑을 거쳐 오르는 높은 계단이 길게 늘어뜨려져 보인다. 산지가람에서는 대개 불전 마당에 들어설 때 루밑을 지나 오르도록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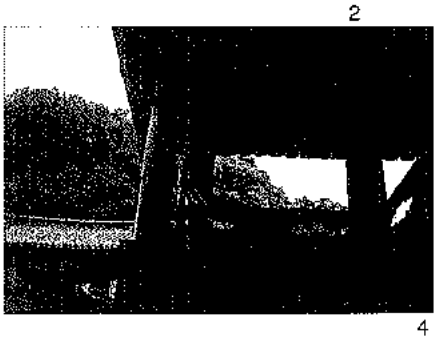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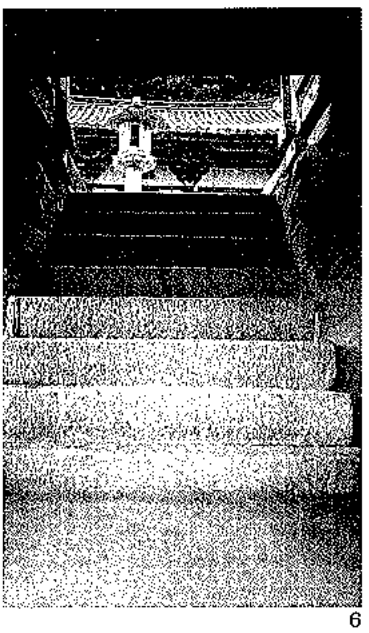
있다. 그것을 루하진입이라고 한다. 루하진입때는 여울목을 건널 때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대개 루밑 층고가 높지 않아서 빠듯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좁은 그곳을 빠져나가며 트인 공간을 만날 때의 느낌이 좋다. 하지만 축을 벗어나 갈 때는 그 경건한 힘을 느낄 수 없다. 요새는 범종루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우측으로 돌아 올라갔는데, 예전과 달리 어쩐지 허전하고 밋밋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부석사에는 범종루와 안양루에서 두번의 루하진입을 하게 됨으로서 오르는 과정의 느낌이 고조된다. 그곳까지의 수고로움은 다음에 이르러 느끼게 되는 감동을 더 고조시키는 결과가 된다.

안양루 루밑으로 마당에 오르면 먼저 무량수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치 산의 정상을 오른때처럼 자신이 올라온 길을 뒤돌아다보게 된다. 그 때 겹겹이 굽이치며 펼쳐지는 백두대간의 능선이 보인다. 저 멀리 지리산까지 달려가는 능선이다. 그리고 거기서 저 멀리 자신의 마음을 드넓은 환희의 세계로 풀어헤치는 감각이 느껴 온다. 그것은 최초로 사찰의 터를 닦은 이가 지녔던 마음 그대로일 것이다.

범종루 뒤 빈터에 남겨진 초석에 얽힌 상상

우리가 현재 대하는 부석사의 인상은 근래에 이르러 정리된 부분도 있다. 이 곳 일주문은 지은지 몇 해 되지 않는데, 원래 위치는 지금의 천왕문 자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에 세워 놓음으로 해서 경내의 깊이가 확실히 깊어지게 되었다. 천왕문을 지나 만나는 여백적 분위기도 부석사의 인상을 특징짓고 있다. 잠시 한

안양루 루하진입



6

7

1. 요사체
2. 범종루 루하진입시 겹쳐 보이는 안양루와 무량수전
3. 범종루 네마의 빈마당
4. 범종루 루하를 오름
5. 안양루로 오르는 계단
6. 안양루 루하에서 무량수전을 의식함
7. 안양루와 그 너머로 펼쳐 보이는 시선
8. 범종루 용마루를 따라 펼쳐지는 시선
9. 안양루와 무량수전의 겹쳐보임

8

9

숨을 고르는 한가한 기분이 느껴진다. 특히 범종루를 지나며 만나는 마당은 비어 있지만, 무량수전과 안양루의 겹쳐 보이는 그 위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한다. 부석사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지만 만약 부석사가 지금의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 빈터에 무엇인가 지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범종루 뒤 공터에 남겨진 주초석과 괘불걸이석에서는 어떤 시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범종루 뒤에서 안양루 무량수전이 겹쳐 보이는 현재의 이미지는 최상의 감각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초석이 있는 곳에 실제로 건물이 서 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결과라기 보다도 어떤 이유로 변혁을 겪으며 새로 첨가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일 수 있다. 범종루까지의 일직선 축으로부터 벗어나 꺾이게 된 것은 초석 자리에 있었던 건물을 비켜 가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밀집된 동네에서 어떤 건물이 헐리고 나면 훤해지듯이, 나중에 거기 있던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없어진 후, 지금의 모습이 눈에 띄어 그대로 두게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찰의 경우로 보면 불전 앞에 루가 있다. 범종루는 봉정사 만세루와 같은 위치이다. 그리고 이 곳 공터에도 의상이 중창하기 이전부터 이미 불전이 존재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종루 후면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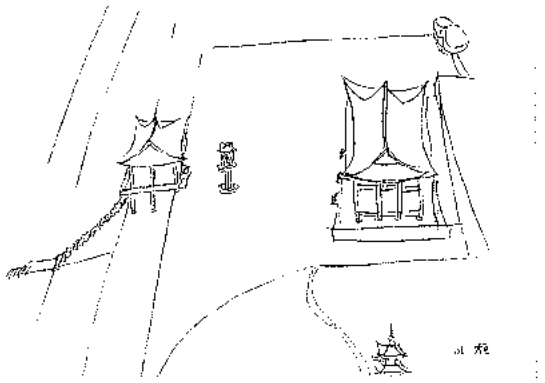
그리고 의상이 부석사를 화엄종찰로 중창할 때, 그 불전이 상징하는 기존 신앙체계를 포용하며 새로운 화엄사상을 뿌리내렸을 것으로 본다. 무량수전은 범종루가 바라보는 축과 17° 정도 틀어져 있는데, 기존과 다른 사상체계를 펼치는 뜻으로 새로운 안대의 축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여기만의 독특한 장면을 갖게 되었다.

호쾌한 시선이 펼쳐지는 마당

안양루 밑으로 난 계단을 오를 때는 프레임 너머로 석등과 무량수전이 보인다. 거기서 보면 석등이 약간 왼편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로서 자연스럽게 탑의 우측을 지나가게 된다. 그 방향은 탑돌이 방향과도 같다. 붓다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생겨난 탑은 붓다를 상징하며, 탑돌이는 붓다에 대한 경배의 표시이다. 고대로부터 인도에서 한 인물에 대한 예경(禮敬)은 그를 중심으로 세 번 도는 일이었다. 이것을

1

2



스케치

요잡(繞匝)이라고 하는데, 시계 바늘 방향으로 세번 돌기 때문에 우요삼잡(右繞三匝)이라고 한다.

무량수전 앞마당은 우리나라 사찰가운데 가장 호쾌한 시선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부석사 입구까지 얼마 오르지 않아 무량수전 마당에서 뒤를 돌아보며 누구나 희열의 기쁨을 만끽한다. 때로 시선이 막히고, 좁고 낮은 통로로 이어진 한가닥 길을 묵묵히 올라와 뒤돌아보는 순간 저 멀리 펼쳐지는 호쾌한 눈멋을 맛봄이, 얼마 되지 않은 다리품을 팔고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마치 구도의 마음이 환희를 이룬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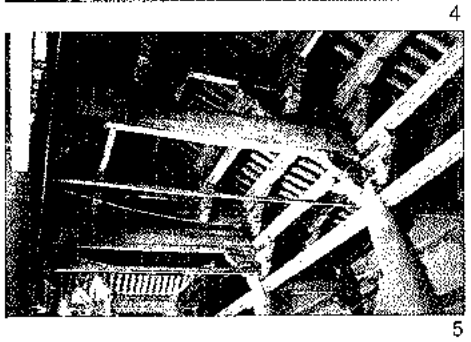
아스라히 펼쳐지는 산자락 끝에 미쳐 닿지 못한 시선은 상상의 세계를 낳게 한다. 그 조망의 장엄함은 신앙적 화엄 교리와도 상통한다. 화엄사상은 다즉일(多卽一) 일즉다(一卽多)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부처가 말한 진리가 온 우주질서와 맞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는 모든 우주공간에 미치며, 시간상으로는 겁의 과거로부터 겁의 미래의 세월까지 펼쳐진다고 한다. 그로서 붓다가 말한 진리가 우주 삼라만상 모든 시공간 위에 적용됨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연의 섭리가 불성이 깃들어 나타난 현상이며, 지혜의 소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일체라는 생각이다. 이 곳 마당에서 느껴지는 풍광의 아름다움과 마음 안에 일어나는 기쁨이 마치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량수전의 고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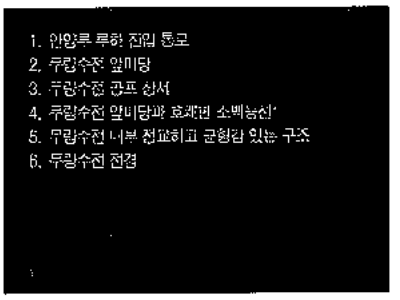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많은 전통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그런데 석조유물은 삼국시대의 것도 많지만, 목조건물은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고려 중기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수도 손에 다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한국전통건축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봉정사 극락전이다. 그것의 건립연대는 기록으로 확실히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다만 13세기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량수전은 봉정사 극락전보다 반세기 정도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추측에 대해 의문이 생기겠지만, 이 곳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을 비교해 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공포의 모습에서 마치 다윈의 진화론 같은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봉정사 극락전의 공포가 장식 하나 없는 구조적 기능에만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비해, 무량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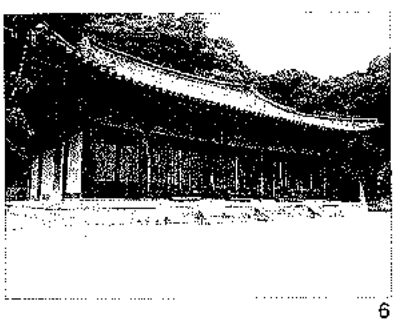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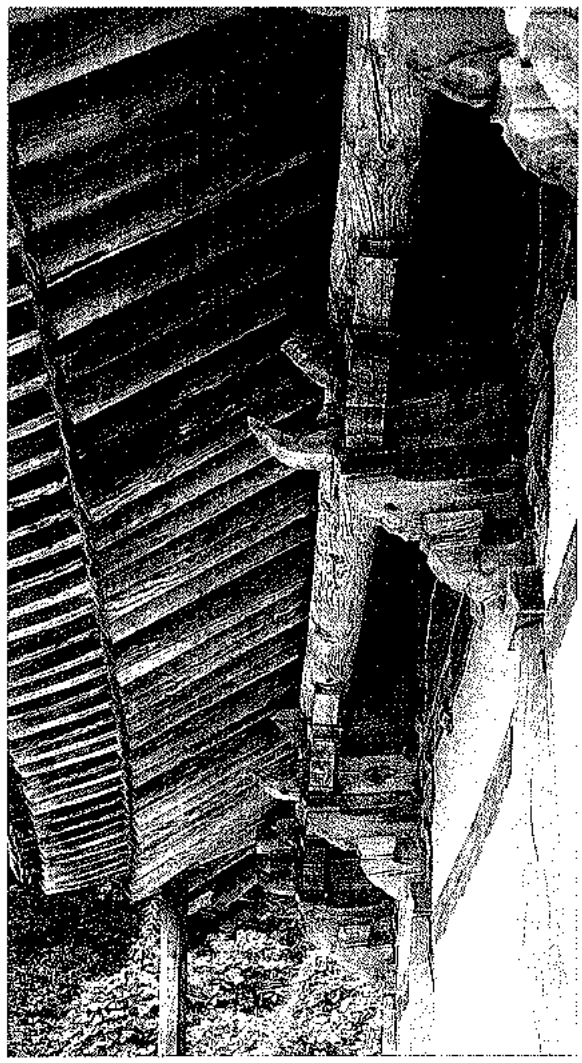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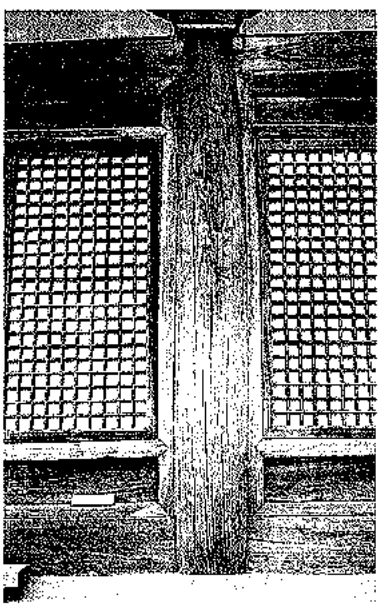
은 주두의 굽받침과 초기적 모습의 쇠서가 있고, 수덕사 대웅전에서는 그 쇠서가 확연히 장식적으로 발달해 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형식적 완성을 위해 나아간 모습이다.

과거 건축에서 하나의 양식이 형성되고 나면, 그 후로는 새로운 양식을 창안하기보다 기존 양식의 전통을 오래도록 지니며, 세련의 손길이 가해져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건축은 몇 기의 전탑과 수원성, 첨성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구조방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무엇이건 정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전통건축에서 형식적 정교함과 고전적 우아함으로서는 고려시대에 지어져 남아 있는 건물들에서 정점을 느낄 수 있다. 고려 때 지어진 건물로서는 봉정사 극락전과 이곳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전 말고도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도갑사 해탈문, 은혜사 거조암, 강릉 객사문 등이 있다. 그 건물들은 대부분 주심포식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매우 우수해서 대부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처마곡선과 배흘림 기둥을 많이 말한다. 하지만 고대 이래로 건축의 성공이 부분의 공예적 아름다움 때문에 되는 일은 없었다. 건축의 감각은 하나 하나의 사물이 통일된 균형을 이룸으로서 발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무량수전은 확실히 공예적 변모로서가 아닌 진정한 명품만이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에는 배흘림 기둥뿐 아니라 귀솟음, 안쏠림 등 형태적 균형을 위한 신경쓴 노력의 대가가 느낌으로 역력히 나타난다. 무량수전을 다른 건물들과 상상하며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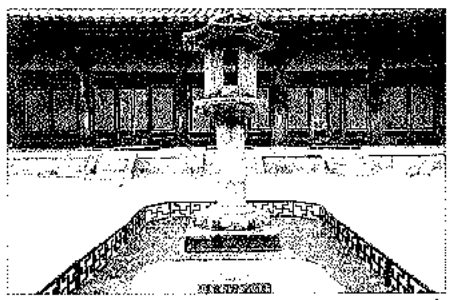


무량수전 처마부분 상세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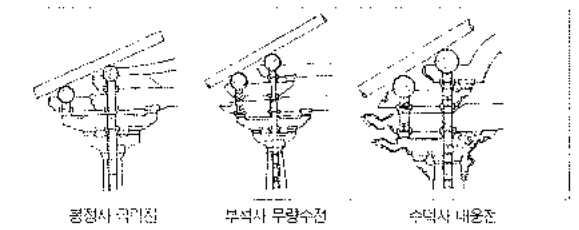
4

교해 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뛰어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알게 된다. 기단과 기둥, 보, 공포, 지붕 그리고 문살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적용된 모든 구조법식은 전체를 위해 알맞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섬세한 손길로 이루어진 형식적 완결성은 서양의 고전건축과 느낌이 통한다.

그 건물들에서는 성심을 다한 장인의 손길로 정점에 다다른 것이 느껴진다. 그 이미지는 석굴암을 대하는 느낌과 같다. 그것은 지극한 신앙심이거나, 장인 스스로 체험했던 정성을 다한 후의 성취감보다 더 나은 것을 이루려는 집념으로 되어졌을지도 모른다. 정신과 기술이 일치된 선과 교의 만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격조높은 건축의 체취가 부석사의 사찰로서의 기품을 낳는다.

전통건축의 순치와 무량수전의 애조띤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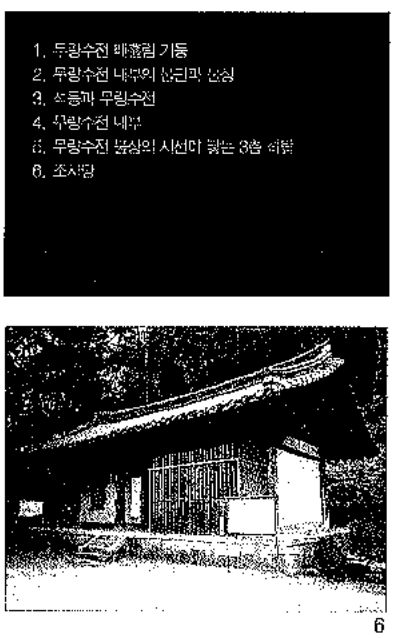
전통건축 가운데 형식적 완성도에서 보면, 사실 수덕사 대웅전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건물과 무량수전은 각기 상반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규모가 작으면서도 씩씩해 보이는 반면, 무량수전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면서도 부드러우며 섬세한 감성의 울림이 느껴진다. 그것은 우선 맛배지붕과 팔작지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건축은 배치에서부터 자연과 조화를 추구해 왔다. 그리고 한국건축의 지붕곡선은 건축이 지니는 인위의 속성이 두드러짐을 완화하기 위해 순치시킨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건축의 힘은 벽면까지만 나타나고, 지붕선에서는 자연과 일치된 흐름이 느껴진다.



무량수전에 나타나 있는 선들은 예민함의 극치이다.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구슬픈 판소리 가락을 듣는 것 같은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그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서 규모가 큰 편인데도 그 크기의 인식이 생기지 않는다. 무량수전의 구슬픈 가락같은 느낌은 그 본래의 육중한 부피의 힘을 다 도려내버림으로서 생긴듯 하다. 그래서 그 고전적 형식미를 음미하기도 전에 그 예민한 느낌에 먼저 도취되어 버릴 듯 하다. 건축은 본래 속성상 구축의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무량수전에 가해진 부드러운 선은 그 힘을 순치시키며, 예민하고 애조띤 감성이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한국전통건축에서 스스로 건축적 힘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이미지는 형태에 관한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 마치 형태는 본래부터 주장하고 싶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무량수전의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된 것이다. 한국 불교사에서 위치를 차지하는 고승이 남긴 화엄종찰이라는 불교사적 의의와, 호쾌한 자리잡음과, 독특한 감성에 젖게하는 축의 진입과, 무량수전의 섬세한 멋은 후대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낳게 할 것이다.

5



6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3

State- of- the- art Structural Reinforcing Devices of Remodeling Buildings

보 보강

이창남 / 센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슬래브로부터 전달된 하중을 받아 기둥에 보내는 중간 매개체를 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은 슬래브와 보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데 묶여있다는 것을 T빔에서 실감했을 것이다. 즉 잘만 하면 슬래브가 보의 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보의 역할을 부담할 수 있게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치 빠듯했던 살림살이가 어느 때부터인가 다소 넉넉해진 이유를 알아본즉 기특하게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의 짐이 다소 가벼워진 것 과 같은 이치다. 가난한 부모에게 아이들의 도움이 큰 보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력이 부족하여 보강하여야 할 때 슬래브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지난 9월호의 슬래브 보강 방법 중 마지막 두 가지는 슬래브의 하중이 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기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가 내력이 부족하여 보강하여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무엇을 대상으로 보강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 보의 단부 상단 휨모멘트로 인한 인장내력 부족,
* 중앙 하단 휨모멘트로 인한 인장내력 부족,
* 단부 또는 전 단면의 전단내력 부족을 보강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 구조 내력상 안전하기는 해도 처짐량이 과다하여 이를 복원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렇게 보면 균열 보수나 중성화 방지 내지 지연을 위한 피복 관리는 구조 보강 차원이 아니라 보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위에 설명한 보의 휨모멘트 부족 분을 보강하는 것이 단부 상단과 중앙 하단으로 구분된 것이 실무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만약 천장 공간에 여유가 있고 사공상 제약이 없다면 기존 보 옆이나 밑에다 H형강 등 철골 부재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한 일이며 더 심하게는 보 밑에다 가설 서포터를 받쳐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 사정은 보와 슬래브 밑에 천장이 붙어 있고 각종 설비 덕트나 스프링클러 배관 및 조명등 때문에 보강에 사용할 빈 공간을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어렵사리 공간 활용을 허락 받았다가 하면 현장에 H형강이나 철판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로마다 천장이나 기타 설비를 달아매는 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들을 일시나마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 보강 공사비나 소요 공사 기간보다는 오히려 천장과 기타 설비를 탈 부착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한편 아직도 현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컴퓨터로 계산한 보의 내력 중 단부 상단 철근량이 부족하면 기어코 그 부위에다 해당하는 철근만큼의 다른 무엇을 첨가하여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기술자가 의외로 많다.

보의 단부 상단 철근을 아버지 통장이라 하고 중앙 하단 철근을 어머니 통장이라고 할 때 아버지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어머니 통장에다 송금해도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해 본다.

물론 부도 직전의 집안 사정은 어수선하고 복잡한 마찰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그것은 여기저기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보수 차원에서 다뤄도 됨을 추가로 설명해 본다.

지난 9월호 슬래브 보강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보도 슬래브와 마찬가지로 내력이 부족하면 반드시 변형이 수반된다. 그로 인한 균열은 증상일 뿐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황달기가 있는 얼굴에 적합한 화장품을 찾으려고 백화점을 뒤지는 대신 쓸개에 무슨 변고가 생겼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에 구조 균열이 발생했음을 발견했으면 변형의 원인부터 알아내고, 이를 복원 또는 더 이상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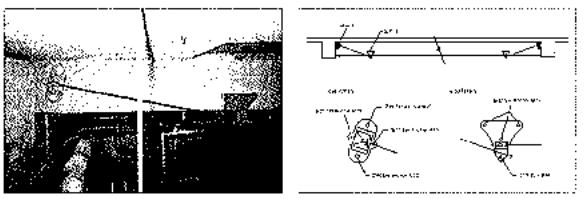
L 구조 전공 박사가 대표로 있던 구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진단하고 보강설계한 대형빌딩의 지하주차장 보 보강 실태를 소개한다. 구부러져서 중앙 부분이 처진 구조부재 밑에다 철골 보를 적당히 걸고는 철골 보와 이미 처진 구조 부재와의 빈틈을 팽창볼트로 억지로 조여 밀착시켜서 철골 보가 오히려 위로 구부러지도록 공사를 시행하는 사공자에게 그 잘못을 지적했으나,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맡아 그렇게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공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이 같은 잘못이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보 보강 방안을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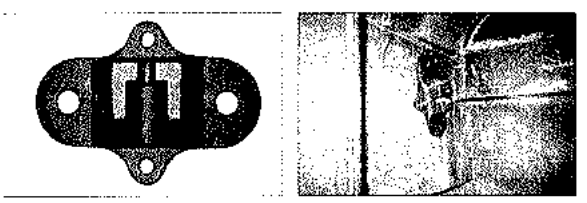
포스트텐셔닝 공법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보의 단부 슬래브 바로 밑 부분에는 주근을 배근하지 않으므로 스터럽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곳에다 구멍을 뚫어 정착단을 부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4각대는 정착단의 일종으로 이를 슬래브 바로 밑 보 옆면에다 부착하고 보 하단 적당한 위치에다 아래 설명하는 2개의 3각대 등을 부착하고 강선을 서로 연결하여 긴장시키면 보의 중앙 부분을 위로 들어올리는 보강 효과를 얻게 된다. 3각대는 수평 강선과 경사진 강선을 긴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4각대가 보 단부 꼭대기에 배치되었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유압실린더로 강선의 긴장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4각대 와 3각대 등은 보의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하므로 보 하나에 4각대와 3각대 등이 각각 4개씩 소요된다.



〈그림 1〉 4각대 정착단과 3각대를 사용한 보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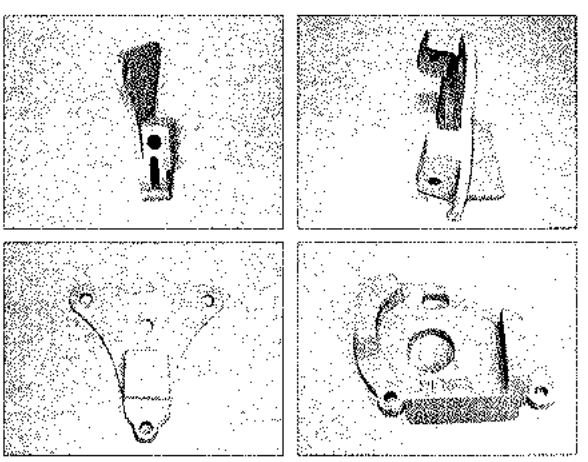


〈그림 2〉 4각대 정착단

3각대와 자동차 지지대

3각대와 자동차 지지대는 수평 강선과 경사진 강선을 긴장하여 정착시킬 수 있도록만들었다. 이는 4각대가 보 단부 꼭대기에 배치되었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유압실린더로 강선의 긴장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3각대와 자동차지지대의 차이점은 3각대가 강선의 하중을 고하중 볼트가 지지하는데 반하여 자동차는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볼트에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a) 3각대 지지대 (b) 자동차 지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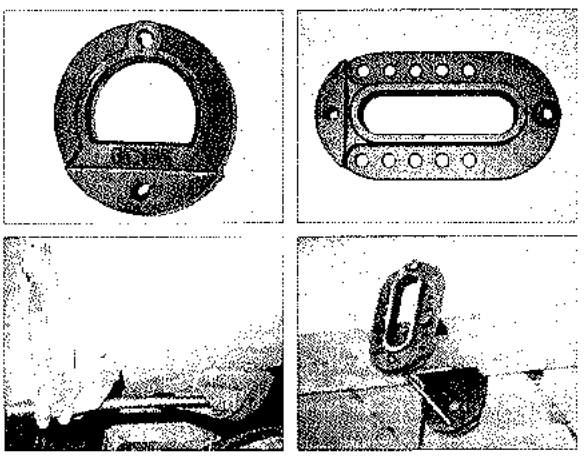
〈그림 3〉 3각대와 자동차 지지대

원형 지지대와 타원형 지지대

보 단부에서 약간의 공간을 떠어서 4각대를 부착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원형, 타원형은 당초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 강선을 도중에서로 자유롭게 긴장하면서 이어줄 수 있는 방법(그림 5, 6 참조)을 개발하였으므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

위 3각대와 자동차는 강선을 단지 한 가닥씩 만 긴장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원형과 타원형은 강선이 미끄러지면서 지지되므로 2가닥 배열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원형 지지대는 자동차 지지대와 마찬가지로 밑에 지지대가 일체로 제작되어 있으나 타원형은 ㄱ형강을 볼트로 높이를 조정하여 고정시켜 사용하면 강선의 높이 레벨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보 밑 천장 속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사용한다.



(a) 원형 지지대 (b) 타원형 지지대

(그림 4) 원형과 타원형 지지대

강선의 중간 이음 정착장치(한 가닥용, 여러 가닥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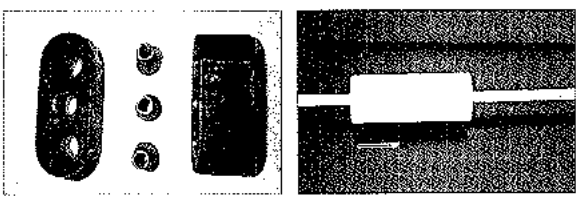
강선을 도중에 긴장하면서 잇는 방법은 3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여의치 않았으므로 사일로, 물탱크, 폐수처리조 등을 강선으로 제작 또는 보강할 때 적용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곤 했는데, 그 방법을 개발해 놓고 보니 이제는 그런 일감이 별로 없다. 이 불황에 누가 사일로, 물탱크, 폐수처리조를 신설하겠는가?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원통형 구조물을 보강하는 데는 이들 중간 이음 장치가 필수적이다.

2 가닥 이상의 강선을 도중에 잇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으나, 한 가닥 강선을 잇는 방법은 매우 어려워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것이다.

그림 5a는 한 가닥 강선 이음이 외관상 별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일반 용도의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여 긴장하는 것이고, 5b는 외관을 중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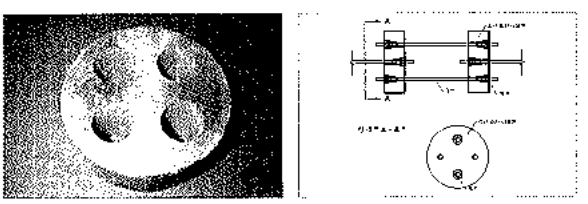
그림 5b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유압실린더를 1개의 유압실린더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나, 유압실린더와 강선과의 편심 응력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서 포기했고, 2개의 전용 실린더 조합 방식을 개발하였다.

그림 5b의 한 가닥용 이음장치는 당초 암 수 나사를 사용하는 일반 카플러로 제작하였으나, 비슷한 것을 이미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특허청의 주장 때문에 내친 김에 스프링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a) 3선형 (b) I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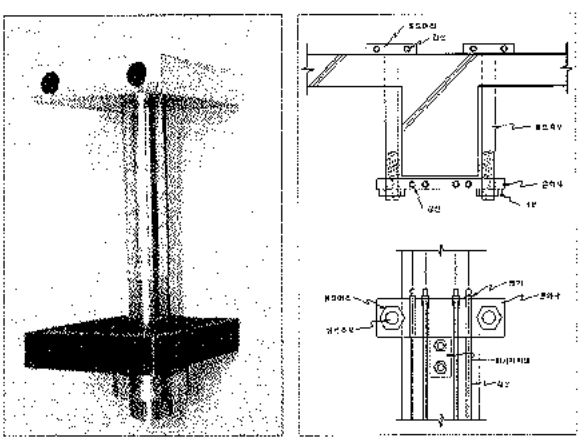
(그림 5) 강선의 중간이음 정착장치(1 가닥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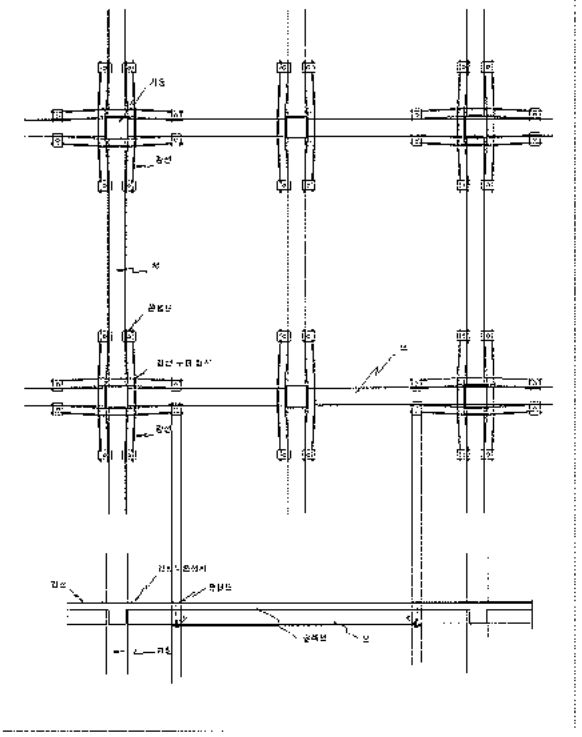


(그림 6) 강선의 중간이음 정착장치(2 가닥용)

콘볼트

지난 9월호 슬래브 보강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콘볼트를 보 보강에 활용하는 요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 단부의 바로 양 옆 슬래브에다 보링을 하고 보 높이보다 긴 콘볼트를 끼워 보 밑에서 길다란 콘와셔로 서로 연결하면 보의 상 하단에서 강선을 긴장 정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 콘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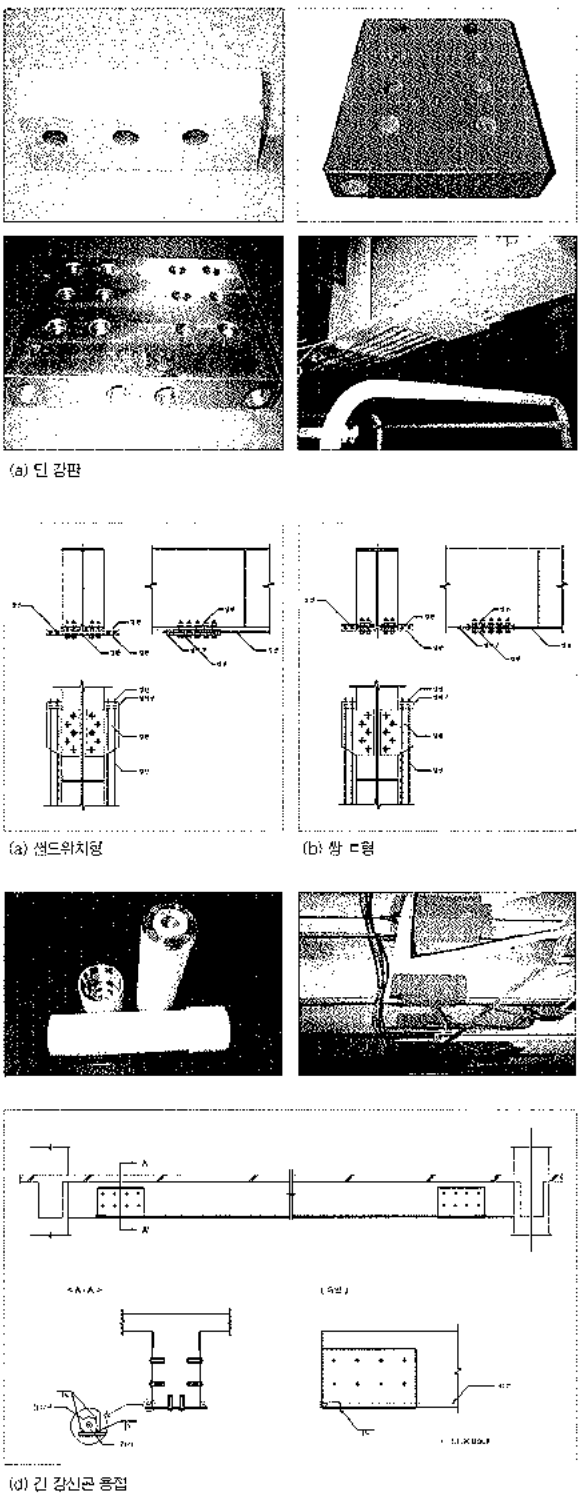
보의 모멘트 반감 정착단(단 강판, 샌드위치형, 쌍 ㄷ형, 긴 강선콘 용접)

지난 8월호 기둥 속가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한바 있으나, 이는 지금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법이다. 당초에는 철골 보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ㄷ형강에다 강선콘을 용접한 정착단을 개발하여 철근콘크리트 보 보강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단 강판 방식은 제대로 된 공작기계를 갖춘 정밀 공장에서나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대량 생산이 필요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두께가 40mm나 되는 철판을 길이 방향으로 긴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 끝에다 강선 정착용 쐐기에 맞는 원추대를 정확히 가공하는 실력을 갖춘 공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급할 때 소량으로 주문할 때는 샌드위치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3개 층의 강판을 조합하여 중간에 생기는 빈틈에 강선을 끼우는 방법이다

쌍 ㄷ형은 H형강 밑에 장애물이 있을 때 H형강 하부 플랜지 옆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긴 강선콘 용접 방법은 주로 철근콘크리트 보를 보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강선콘을 특별히 길게 제작하거나 기존 강선콘 뒤에 강관 토막을 ㄷ형 철판에 연결 용접하여 강선 정착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 하나 하나 모두가 특허 신청된 것이므로 무단 사용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재차 설명한다.



(a) 단 강판

(a) 샌드위치형 (b) 쌍 ㄷ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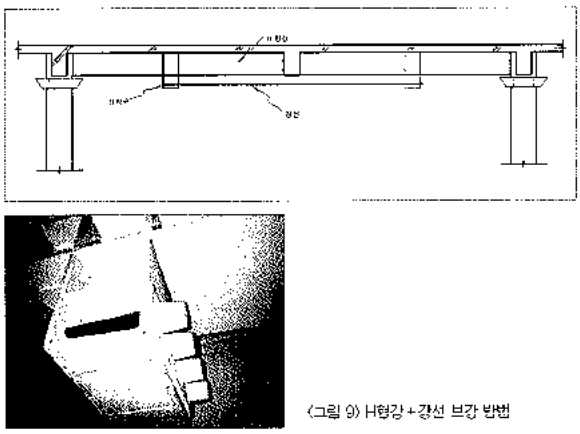
(d) 긴 강선콘 용접

〈그림 8〉 단 강판형, 샌드위치형, 쌍 ㄷ형, 긴 강선콘 용접

H형강+강선 보강 방법

기존 구조물이 부실하여 정착단을 부착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공장에서 H형강에다 정

착단을 부착하여 철근콘크리트 보 옆에다 끼워서 강선을 긴장 정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기는 하나, 보 옆 슬래브 밑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일반 H형강 부착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림 9〉 H형강+강선 보강 방법

잭업 공법

아래로 처진 보 밑에다 H형강을 배열하고 보와 H형강 사이에 쐐기를 끼우는 것은 실무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사용하던 고전적인 공법이었다. 두꺼운 철판 단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면 2개의 쐐기를 얻는다. 이들을 H형강의 양측에서 마주보고 망치로 때려 끼우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때 보 옆 슬래브를 잭서포트로 올려보는 시도도 해 보았으나, 여간해서는 보가 올라가 주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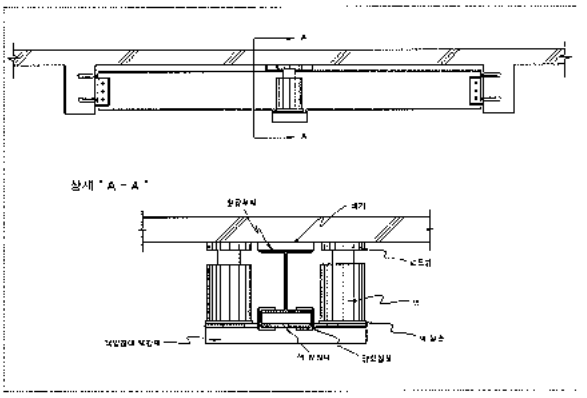
H형강의 한쪽 단만 먼저 부착하고 중앙에 쐐기를 끼운 채 나머지 한쪽 끝을 잭서포트로 올려준 상태에서 단부를 고정하는 방법도 시도하였으나, 애써 올려놓은 것이 단부 정착부위의 미끄럼 손실로 효과가 반감되는 허탈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고안한 최종방법이 잭업 공법이다. 이는 보 밑에다 재래식 방법으로 H형강을 부착한 후 H형강 중앙에다 특별히 제작한 지지대를 끼우고 두 개의 유압잭으로 보와 H형강 사이의 틈이 벌어지게 하면 H형강은 아래로 휘고 보는 위로 휘어지면서 보강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H형강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보보다는 더 잘 휘청거리는 특성이 있어서 휨 내력만을 감안하여 설계하면 보강 효과가 별로 없으며, 처짐까지 고려하여 설계하려면 H형강의 단면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즉 고강도 철골재의 작은 단면으로도 보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수단으로 더 작은 H형강에다 사전에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섬유시트를 부착하여 보강한 후 위 잭업 공법을 적용하면 그런 대로 합리적이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H형강 등 기성 철골재들의 전 단면이 균등한 것이 보기에는 좋으나 휨모멘트가 중앙부만 최대 값이고 단부로 갈수록 적어지게 되므로 불경제적인 설계가 되는 것이 아쉽던 터라 섬유시트를 H형강의 전 단면에 고르게 부착하는 대신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적으로 부착하는 방법도 고안하였다.

이를 특허 신청했을 당시 우리 특허청에서는 역시 일본 특허를 이유로 삼아 거절 통지를 해 왔었으나, 일본 것은 섬유시트를 전 단면에 고르게 부착하는 것이고 나의 새 방법은 휨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전단응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특별히 보강하는 것이 특허 내용이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증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

철골 보를 구부린 상태에서 섬유시트를 부착하거나, 철골 보를 강선으로 긴장 정착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0〉 잭업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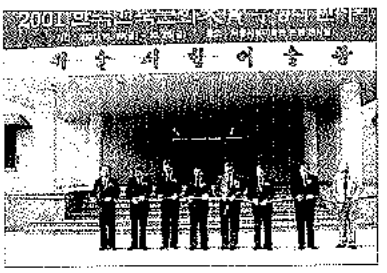
다음호에는 기둥 보강 방법을 설명한다.

건축계소식 / 99
현상설계경기 / 104
해외잡지동향 / 110
리포트(제11차 아카시아 포럼) / 117

건축계소식 archi-net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 수상작 전시회 개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조성룡 건축사(건축사사무소조성룡도시건축 대표)가 설계하고 삼능건설(주)가 시공한 의재미술관이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2001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영예의 大賞을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의재미술관 외에 본상 6점, 입선작 17점 등 준공건축물부문 24점과 신인 · 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 33점 등 총 57개의 작품이 입상했다.

대상 수상작품인 의재미술관은 광주 동구 운림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1,562.27㎡, 건축면적 816.92㎡ 규모의 전시문화공간으로서 조선말기 화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을 비롯한 국내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연속의 미술관 건축물이다. 특히 이 작품은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 주변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고 자연지형의 지리적 형상을 수용하면서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여 순환하는 건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일 금호아트홀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작의 설계자인 조성룡건축사가 대통령상을, 시공자인 삼능건설(주)과 건축주 (재)의재문화재단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이날 은평구립도서관 등 본상 건축주와 입선작, 계획건축물부문 입상자들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건축안은 물론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 부활

건교부 규개위 심의거쳐 내달 시행계획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 기준)로 반드시 지어야 한다.

또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금리도 5%까지 인하된다.

건교부는 지난 9일 서민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의무비율안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등의 인센티브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재도입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기준의 경우 현행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 · 도가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비율 부활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경우 해당 시 · 도가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 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 일부 등 16개 지역으로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 청담 · 도곡, 반포, 암사 · 명일, 화곡등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 지침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단지 및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민간택지와 재건축사업의 경우 18평 이하가 20~30%, 18~25.7평 40~45%, 25.7평 초과 25~40%가 적용돼 오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직후인 98년 1월 폐지됐으며 이번 조치로 3년 9개월만에 부활된 셈이다.

미래주택 심포지엄

11월 16일 연세대백주년기념관에서

연세대 밀레니엄 환경디자인연구소는 11월16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래주택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현수 연세대 교수와 켄트라센(Kent Larson) MIT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가사로봇과의 발전 현황과 미래(백윤수 · 연세대 교수) △노인복지와 의료주택의 미래(손명세 · 연세대 교수) △인간친화 복지로봇 현황과 미래주택(변증남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미래주택과 사이버 인간(황상민 · 연세대 교수) △멀티미디어 환경과 미래주택(최윤철 · 연세대 교수)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02-3147-1192)

홍익대학원 정기 전시회

10월 26일부터 「PARK주택전시관에서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간디자인학과 정기 전시회 '2001인터스페이스 비엔날레'가 오는 20일(금)부터 11월1일(목)까지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PARK 주택전시관에서 열린다.

'Rebirth of Space-Anti Space)' 라는 주제의 이 전시회는 기존 공간을 분석, 해체하고 재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1:1 크기의 실험적 공간 설치 작품전이 될 것이라는게 주최측의 설명이다.(02-320-1934)

목구조관리 기술자교육

11월 5일부터 4주간 실시

산림조합중앙회는 목구조물의 관리기술 향상과 안전관리에 기여할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구조관리기술자 과정을 개설한다.

오는 11월5일부터 12월1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정원은 20명이다.(02-419-9419)

한 · 미건축단체간 협정 체결

향후 국가간 협상 지침 마련

한국건축단체연합(FIKA:Federation Institutes Korean Architects)은 존 디 앤더슨(John D Anderson)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회장을 초청, 지난 10월 15일 조선호텔에서 한 · 미건축단체간 협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정은 양 단체의 각종 건축관련 정보의 교환과 이해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무역 대표들이 국가간 협상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지침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조약을 위한 사전 작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은 먼저 한국건축가협회와 미국건축가협회가 협정을 체결하고 차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정식으로 발족하면 공식협의 대상을 이 단체로 바꾸게 된다.

한편 존 디 앤더슨 회장과 미국건축가협회 원로회원들은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 장관,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만나

국내외 건축계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02-744-8050)

2001건축가미술전 개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우리협회 전시실에서

건축가미술동호회(건미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건축가미술전이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우리협회 1층 아키텍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건미회는 출품작을 모집하는데, 참가대상은 기존의 건미회 회원뿐만 아니라 건축에 종사하면서 미술 창작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작품은 회화(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판화, 건축드로잉 등이고, 출품희망자는 작품슬라이드 1매, 작가인물사진 1매, 작가약력, 출품료 20만원을 10월 22일까지 이공건축(이관직)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2-873-2020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11월 9일
'동아시아 의료복지시설의 전망'을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회장 이특구)에서는 오는 11월 9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의료복지시설의 전망을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일반 3만원, 회원 2만원, 학생 1만원이다. 참여하는 연사는 다음과 같다. 문의: 02-2243-6805 http://www.ikiha.org

- 중국/ Zhou Rou Qi (중국 시안대 교수):중국 의료시설의 최신 동향
- 일본/ Masao Aoki (M.A.Y 건축연구소 대표):일본 병원건축의 최근 이슈들
- 미국/ Kevin Kim(AIA,Gresham Smith & Partners 부사장/수석디자이너): 서울대학부속병원 마스터 플랜 - 사례연구
- 이특구(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병원건축의 최근 동향
- 박재승(한양대 교수): 여성전문병원의 최근 동향
- 양내원(한양대 교수): 국내 종합병원 리모델링 사례 발표-강북삼성병원
- 권순정(아주대 교수): 한국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 및 전망
- 최광석(대불대 교수): 의료시설의 계획과 디자인의 변화전망
- 채철균(중앙대 강사): 알콜 중독사를 위한 의료시설의 최근 경향

「건축과 나」展 개최

10월 31일부터 갤러리 아티그램에서

월간 건축인 포아(POAR)가 주최(기획:전진삼)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건축과 나」전이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갤러리 아티그램(구 수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일상과 괴리되어 있는 건축을 되짚어보고자 건축가들이 시선을 두고 사는 도시공간과 그 속에서의 삶의 형태 또는 일상의 기호에 관심을 표현하고자 기획됐다. 참여작가들은 1960년대 출생으로 한정하고 독립적 성향이 강한 10명의 건축가와 1명의 사진작가로 이루었다. 10명의 작가가 하루씩 전시장 전체를 사용하여 10일간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매일 다른 전시체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월 10일 세미나 강평이 있으며, 이종건(건축비평가,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교수),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원장, 몸철학, 영화비평), 김복기(월간 ART편집주간)씨가 참여한다. 전시기간동안 참여작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freechal.com)를 통해 당일 전시내용을 볼 수 있다. 문의: 월간 건축인 02-519-6520

- 10월 31일 / 김태철 / A Space in the Space
- 11월 1일 / 신동훈 / 괘
- 11월 2일 / 박민철 / 한국학파의 '기生'
- 11월 3일 / 이충기 / 사물라르크
- 11월 4일 / 강병국 / 걸리버의 눈
- 11월 5일 / 윤웅원 / 명필름
- 11월 6일 / 문 훈 / CHORA-TAO
- 11월 7일 / 김동원 / 네트워크 시대의 모순과 건축
- 11월 8일 / 최 욱 / everyday life as architecture
- 11월 9일 / 장윤규 / 잡종만들기 Hyper-Text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

11월 16일까지 접수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 및 인원

◇ 석사과정

- 건축설계학과 (2년과정, 3년과정) : ○○명
- 실내건축설계학과 (2년과정, 3년과정) : ○○명명

◇ 박사과정

• 건축설계학과 : ◯명
• 실내건축설계학과 : ◯명

지원자격

◇ 석사과정

국내 · 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 2년과정 : 건축설계학과의 경우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 전공자
실내건축설계학과의 경우 실내디자인 또는 실내건축 전공자

(2) 3년과정 :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디자인 또는 실내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

◇ 박사과정

국내 · 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구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과 장소

• 특별전형 : 2001년 9월 17일(월) ~10월 5일(금)
• 일반전형 : 2001년 10월 15일(월) ~11월 16일(금)
09:30 ~17:00 (토 · 일요일 제외)
• 장소 :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 02)450-3286~7

구술시험 일시 및 장소

• 특별전형 : 2001년 10월 8일(월) 09:30부터, 건축전문대학원
• 일반전형 : 2001년 11월 24일(토) 09:30부터, 건축전문대학원

합격자발표

• 특별전형 : 2001년 10월 12일(금) 14:00,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 일반전형 : 2001년 11월 30일(금) 14:00,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http://www.konkuk.ac.kr/~gsakku)

구비서류

◇ 석사과정

- 입학원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작품집 (portpolio) - 원서접수시 제출 (다만 건축설계학과 3년과정 지원자는 제외함)
- 반명함판사진 (4매) - 입학원서에 첨부
- 현역군인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허가서

◇ 박사과정

- 입학원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대학원 석사학위 증명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작품집 (portpolio) - 원서접수시 제출
- 반명함판사진 (4매) - 입학원서에 첨부
- 현역군인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허가서

문의: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02-450-3287)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

11월 29일까지 접수

◇ 모집전공

건축설계전공(5학기), 역사/이론/비평전공(4학기)

◇ 전형방법

서류심사, 영어시험, 면접, 작품집(단, 역사/이론/비평전공 지원자는 제외)

◇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건축(공)학과 전공자

◇ 전형일정(예정)

- 원서교부 : 2001. 11. 19(월)~11월 29일(목)
건축디자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Download
- 원서접수 : 2001. 11. 26(월)~11월 29일(목) 09:00~17:00
- 전형일시 : 2001. 12. 1(토) 오전 9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Download)
- 사진(최근 2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형 3×4cm) 3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전학년 성적증명서(평균평점표기-4.5만점기준)
- 작품집(단, 역사/이론/비평전공 지원자는 제외)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02-2290-0258,9
홈페이지 http://hgsa.hanyang.ac.kr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가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호서대학교 조형과학관에서 열린다.

행사일정

10/22 - 건축설계학 전공/건축공학전공 졸업작품전 오픈(12시)
호서대 조형과학관 4층 전시관
10/23 - 공개크리틱/호서대 조형과학관 4층 전시관(12시)
- 특별강연회/한울건축소장 이성관/작가론과 상황론
호서대 조형과학관 103호(4시30분)
10/27 - 2001학년도 대한건축학회 학생 우수 작품전
호서대 교직원 회관 1층(12시)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회
호서대 1공학관 5층, 자연과학관 4,5층(10시30부터 17시)

서울건축학교 워크숍

12월 7일까지

서울건축학교에서는 가을 정기워크숍 기간중에 특별기획으로 8인의 건축가 세미나가 있다.
매주 금요일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건축학교 강의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건축가세미나

- 1102 서현(서울대 건축학과, 동대학원, 콜롬비아 건축대학원, 한양대 건축대학원 교수)
- 1109 헬렌박(하버드대 물리/건축과, 하버드대 건축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 1116 유건(한양대 건축공학과, 버클리대학원, 하버드 건축대학원, 시상건축대표, 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 1123 김병윤(한양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aa school, 백제예술대 교수)
- 1130 조민석(연세대 건축공학과, 콜롬비아 건축대학원, Cho Slade architecture 대표, 서울리서치그룹 파트너)
- 1207 캔민(남부캘리포니아대 건축과, 하버드 건축대학원, 에스케이엠디자인 대표)

신간안내

은혜도 모르고 비판하는가?

◇ 은혜도 모르고 비판하는가?

한 · 일간에 역사 왜곡 등으로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은혜도 모르고 비판하는가?」를 출판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시에 36년간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또한 20년 가까이 신구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전 박성수 건축과장(서울시 도봉구청)이 일본인 이케하라(池宗衛)가 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 한국인 비판」에서 우리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왜곡 비판한데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여 많은 고증과 합리적 논리로서 반론을 제기하고, 아울러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인 내용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역사 · 사회 및 윤리에 대한 참고교재와 일반 국민의 교양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수 지음 / 217쪽 / 9천원 / 도서출판 우물펜샘(043-651-511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6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8-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8 · 마포구건축사회/39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6-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6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5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8-6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9-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2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8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86 · 여천부지역건축사회/(031)878-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8-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6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6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5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0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8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0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삼천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9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전북도립미술관 / 104

인천부평구보건소 / 108

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Provincial A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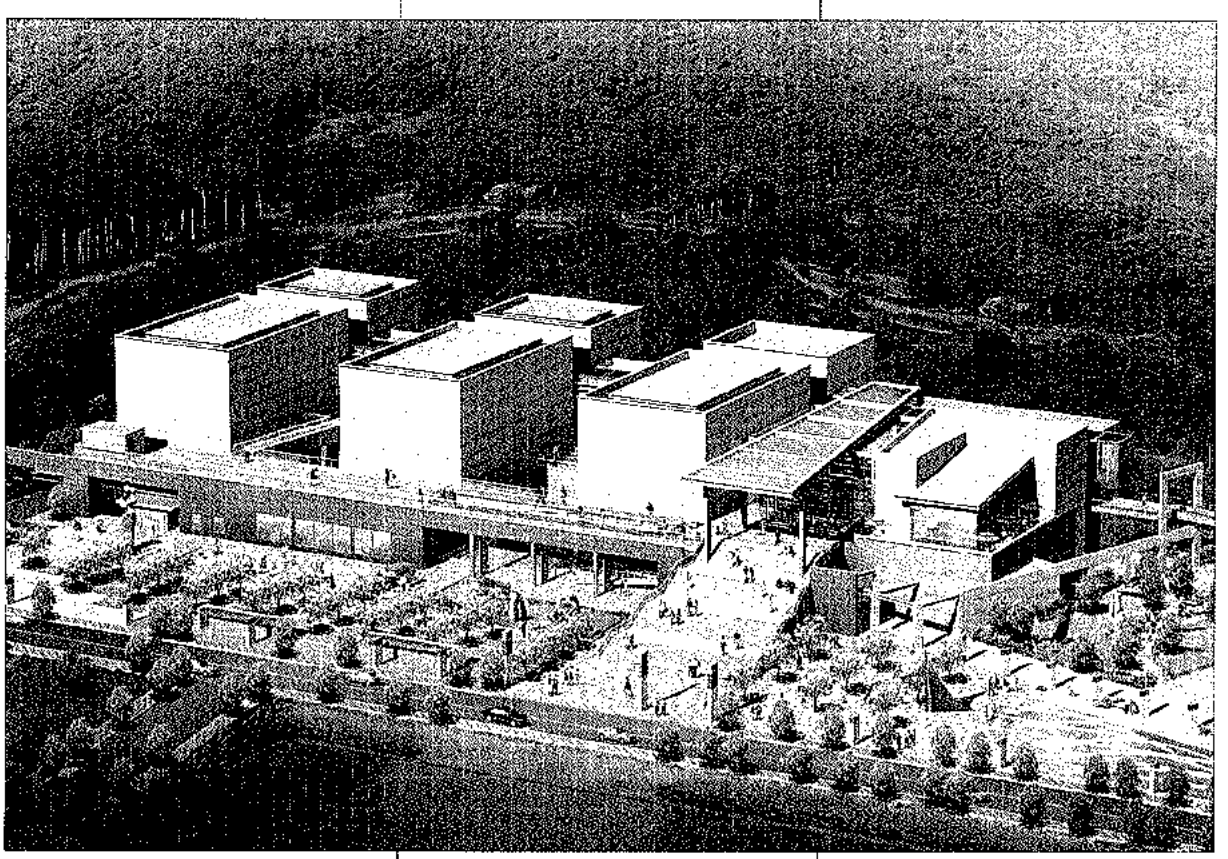
전라북도는 지난 6월 11일에 전북도립미술관 신축공사를 위해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7 모악산 관광지구 내에 위치하게 될 이번 전북도립미술관에는 총 16개의 작품이 응모해 정사희(원광대)를 심사위원장으로 총 13명이 심사를 했다. 그 결과 당선작에는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길 건축사사무소가, 우수작에는 (주)반도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라인건축사사무소, 가작에는 (주)사간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주)예조 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한울이 선정되었다.

▶ 당선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성림 · 김태철) + (주)길 건축사사무소(이길환)

대지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7번지(모악산 도립공원 관광단지내)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사설용지지구
용도	전시시설(미술관)
대지면적	20,982.6㎡
건축면적	5,152.8㎡
연면적	6,940.8㎡
건폐율	24.6%
용적률	33.1%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75대(장애인 3대)
외부마감	청화아연판넬, 알미늄쉬트, 노출콘크리트, 마천석
설계팀	금창준, 양재찬, 김경록, 차하나

작품을 보여주다.

미술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연히 예술작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다. 이번의 경우 특별히 전시물의 규모와 수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전시실은 모아서 오픈플랜을 구성하기 마련이지만 전시실의 규모에 사람과 작품이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전시실을 적정한 실로 나눌 때 좀더 스케일에 맞는 효과적인 전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전시공간의 필요에 따라 인접한 전시실들을 서로 조합을 할 수있도록 한다면 융통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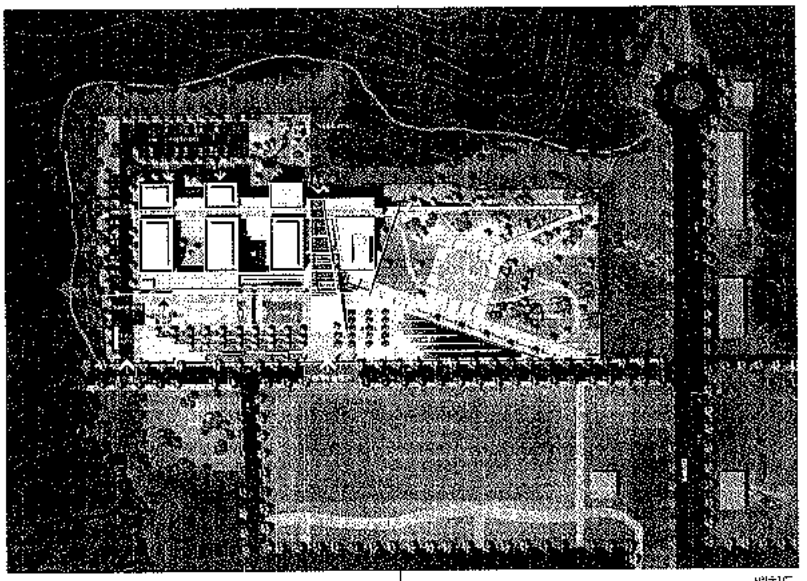
가서 바라보다.

이번 현상설계에 주안점은 전라북도 전주근교의 자연에 둘러싸인 경관이 수려한 곳에 세워지는 미술관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부지가 위치한 곳은 모악산의 산자락이 동측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방향으로 구이저수지라는 적지않은 호수가 있어서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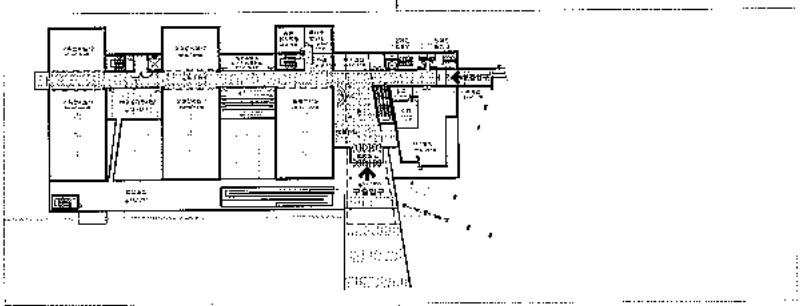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미술관은 전시되는 작품을 보고 느끼는 공간이지만 미술관의 건축적인 조형 또한 하나의 감상대상이 되도록 하는 컨셉도 자주 시도되어왔다. 이 미술관에선 위치상으로 감상의 대상을 자연이라는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전면방향의 계단, 하단부의 옥상인 데크, 전시실들 사이의 통로에서 전망을 즐길 수 있음은 우리의 주요컨셉이었다.

서서 보여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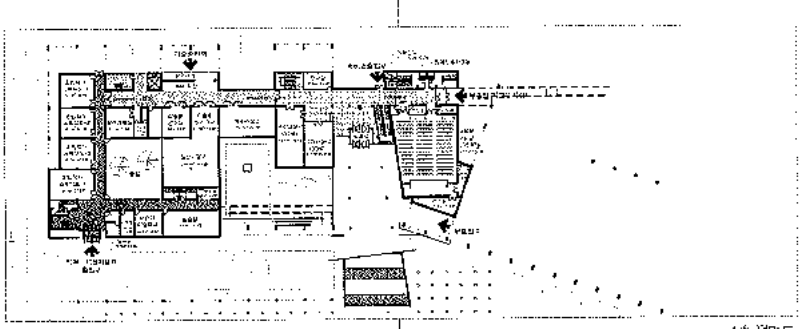
중앙박물관이후로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전시시설의 주요 조형컨셉은 전면에 가로지르는 거대한 벽과 벽에 붙은 캐노피였다. 이번 미술관은 벽의 조형보단 매스의 조형을 나타냄으로서 미술관이미지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동측전면에서 바라보는 느낌에서 하단부 기단은 가로의 느낌을 강조하고 이에 상단부의 수직방향으로 나열된 전시실과 편의시설 조형은 하단부와 대조적인 매스이며 모악산을 배경으로 할때 조형성이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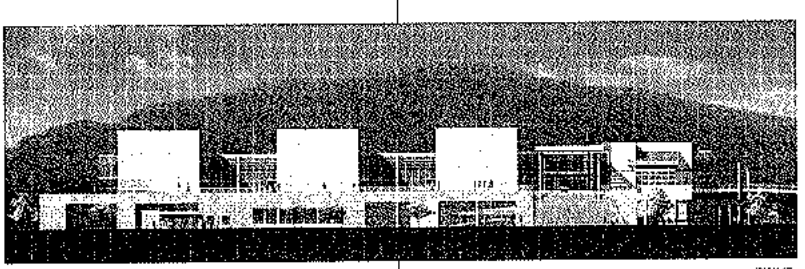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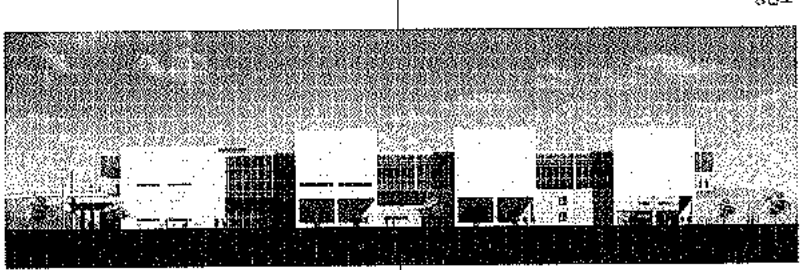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 우수작 /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우양근) + (주)라인건축사사무소(김남중)

대지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7번지(모악산 도립공원 관광단지내)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20,982.60㎡
건축면적	2665.58㎡
연면적	6935.09㎡
건폐율	12.70%
용적률	22.1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 SPG커튼월
설계팀	아동수, 손재홍, 허장렬, 김영대, 태윤제, 최범희, 김경희

도립 미술관 건립이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문화시설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계획안은 21세기 전북도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합하여 지역사회의 생활문화서비스의 장으로서 타시도와 차별화된 현대적인 도립미술관을 계획하여 사회교육활동의 구심점으로서 도민에게 개방감 있고 친근감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수행하고 자 하였다.

배치계획

배산임수형의 입지조건에 장방형으로 건부지를 -자형 배치를 하여 균형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되도록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전면부 진입광장을 축으로 4군자 마당을 조성하여 다양한 옥외전시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옥외공간을 도민들의 휴게공간으로 극대화 하여 열린 미술관으로서 친숙한 이미지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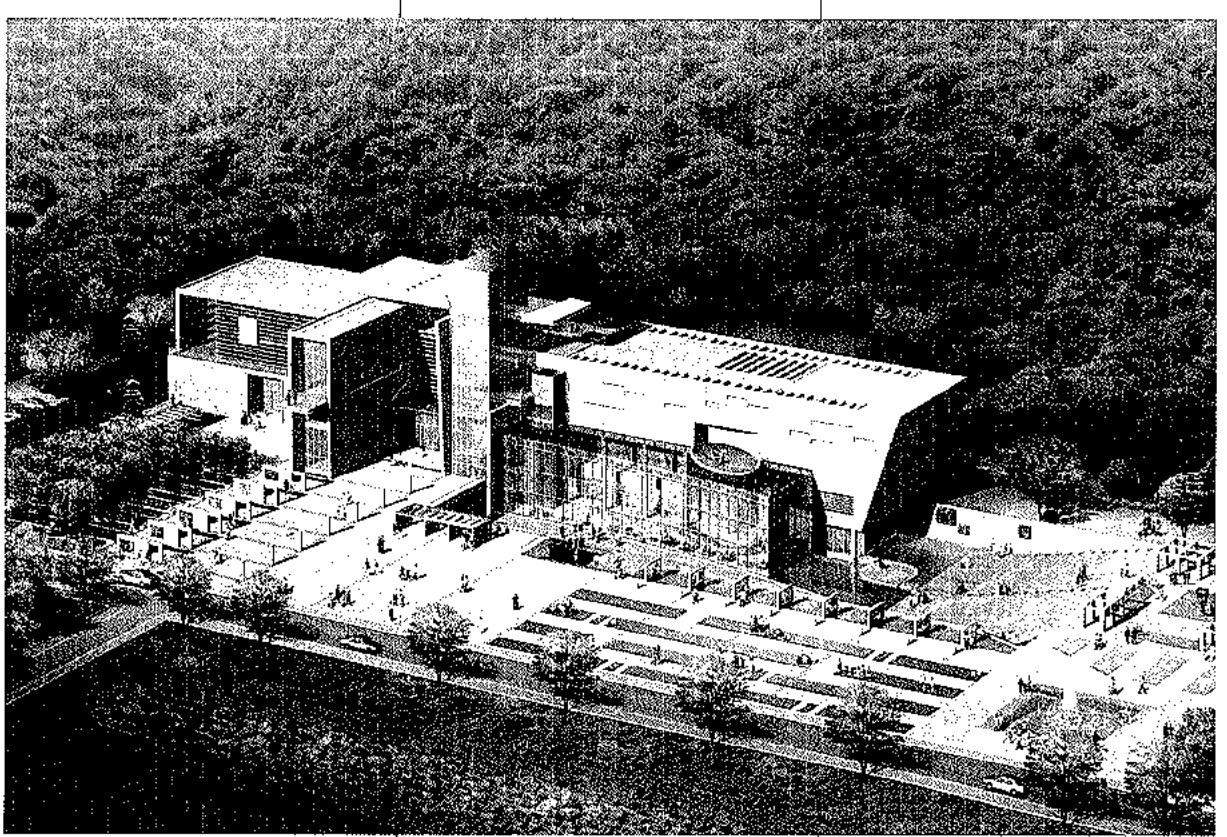
주차공간은 전면 도립공원 주차장을 일부 활용하고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위해 최소한의 관람객주차장을 확보하고 직원주차를 분리하여 설치하고 장래증축예정지를 확보하여 향후 증축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함

평면적인 대지의 레벨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선큰은 만남과 교류를 통한 EVENT 공간으로 구성하고 벽천과 연못을 설치하여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접근성을 높임

평면계획

중앙홀을 중심으로 전시기능과 학예, 수장, 연구, 관리기능을 분리하여 기능별 공간구성을 집약화 관람자동선과 직원동선, 교육문화시설동선, 하역동선을 명쾌하게 분리 전시실은 가변형 공간구성을 위한 Movable Partition 설치함. 지하1층에 300석규모의 강당을 배치하여 공연, 강당, 영화상영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관람객의 문화적 욕구충족.

전시공간 구성은 일반적인 평면적 순환동선시스템 구축보다 수직적구성을 통한 입체적전시로 지루한 감상이 되지 않도



록 함. 타시도와 차별화전략으로 사진, 영상전시실을 3층에 별도로 설치함

어린이 미술학교는 전시실로 가능하도록 가변적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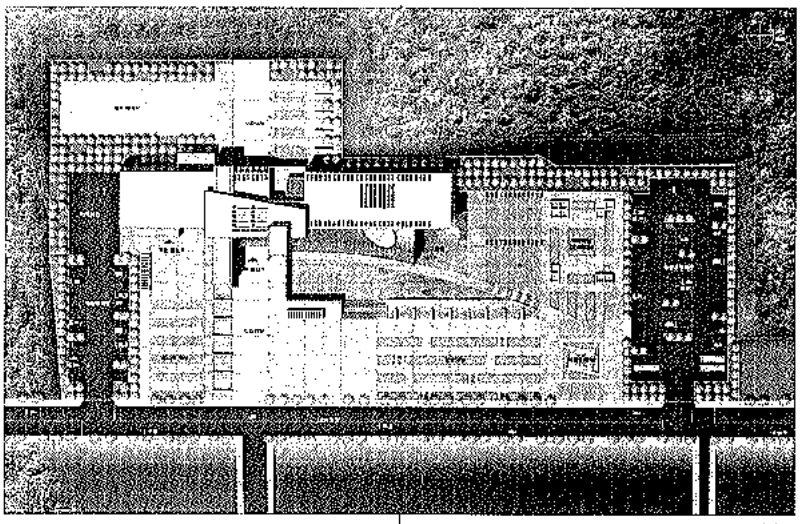
카페테리아, 레스토랑등 편의시설 및 서비스기능의 실들을 선큰에 면해 설치함으로서 개방감 및 친근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입면계획

- 전시, 보존 위주의 미술관 고유기능 보다는 개방감을 주기위한 현대적 미술관 개념의 창호 디자인 (커텐월 도입)
- 수평으로 긴 매스의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한 수직요소로서 코아를 전면에 배치하여 전북의 공공미술관으로서 구심적역할 부여
- 수평적요소에 따른 형태적 안정감과 공간의 친밀감 강조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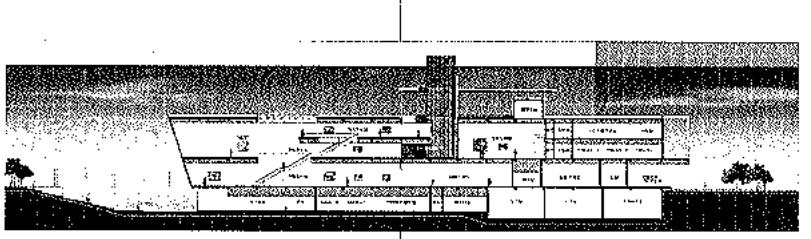
-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미술작품들을 고려하여 전시실의 충분한 층고 확보
- 전시실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채광방식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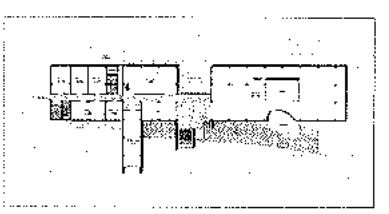
배치도

- 전시실의 입체적 공간구성을 통한 수직동선의 변화감 부여
- 지하공간에 선큰을 설치하고 아트리움을 구성하여 자상과 같은 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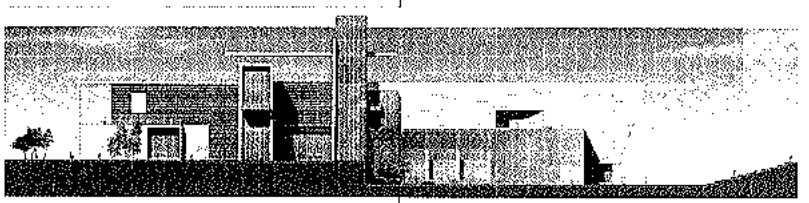
- 전시공간을 상하로 VOID하여 공간의 변화와 전시실간의 유기적인 동선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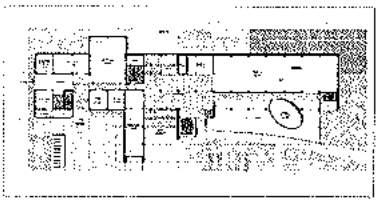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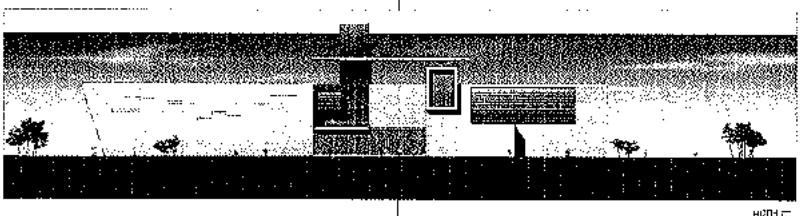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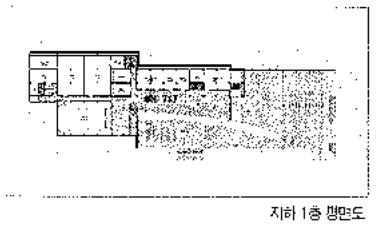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



배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인천부평구보건소

Bupyeong Public Health Center

▶ 당선작 / (주)모토건축사사무소(김기영)

대지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442-1, 2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 중심미관지구, 도시지역
대지면적	2,349.4㎡
건축면적	1,174.64㎡
연면적	5,815.13㎡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건폐율	50.00%
용적률	143.4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63대(지상 23대, 지하 40대)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노출 CONC, 컬러복층유리, 적벽돌
설계팀	양익서, 황준호, 함은경

기본계획방향

- 개방성 : 도시의 열림(Urban Void)의 확장과 Soft Zone
- 인지성 : 단순함 극복을 위한 Doubile Skin 입면구조
- 상징성 : 업무 + 의료 → 하이테크(미래지향성) + 따뜻한 재료 이미지 대비
- 접근성 : 도시가로 스케일에 따른 연속성 부여

대지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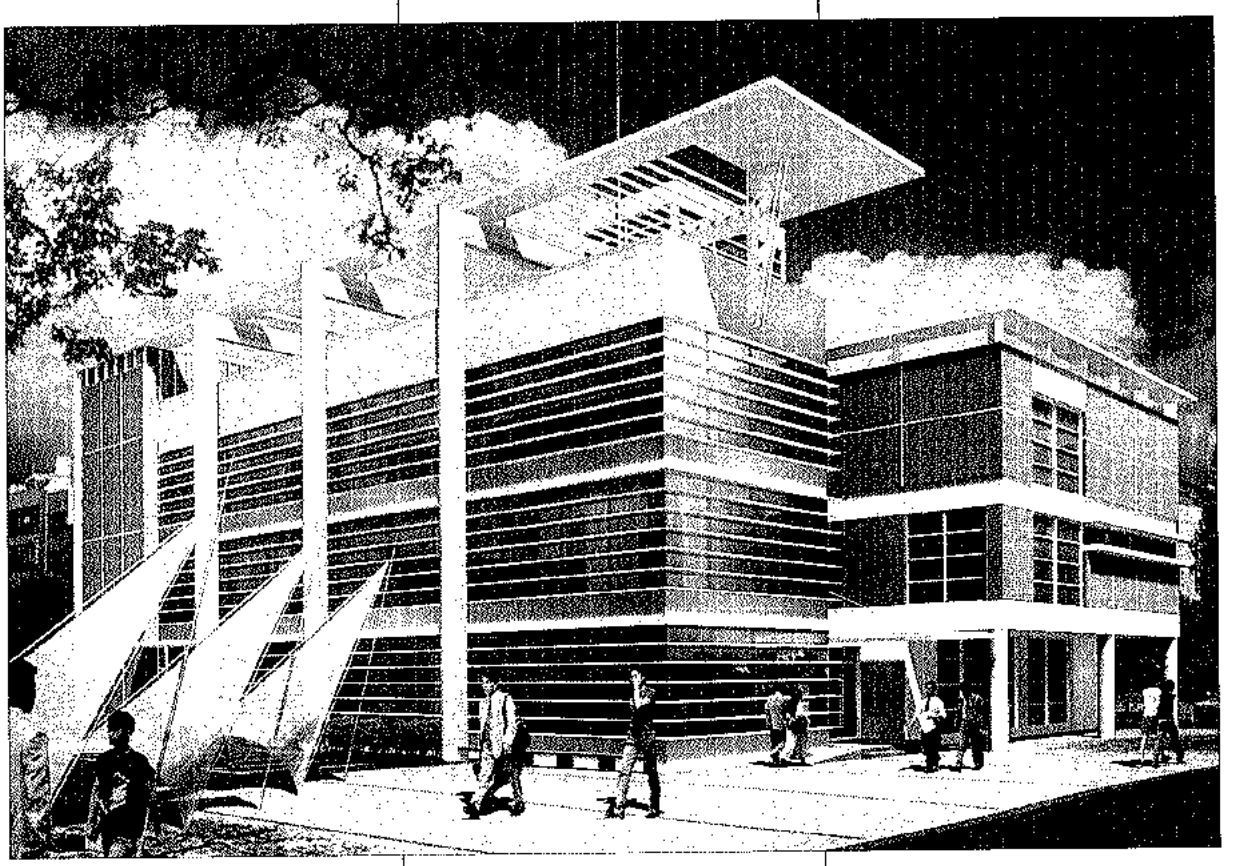
- 부평역을 시작한 중심대로와 연결된 30m대로에 연접하여 가로 연속성 고려
- 대상 부지 북쪽에는 부평동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Open된 시야가 확보
- 3면이 도로와 접하여 접근성이 양호
- 3~4층 위주의 근린생활시설군으로써 새로운 도약기반 필요
- 주변의 많은 주거군에 필요한 지역보건시설의 중심지 역할과 열린지역주민의 장으로 기대됨

종합 계획도

- 방위와채광 : 전면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좋은 채광을 가짐
- 조망 : 도시상징축(중정공간)의 개방된 조망 확보
- 흐름 : 전면 대로와 후면 도시보이드를 통한 도시의 열린(Opering) 흐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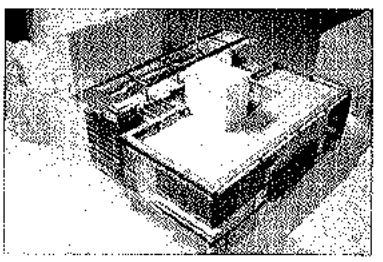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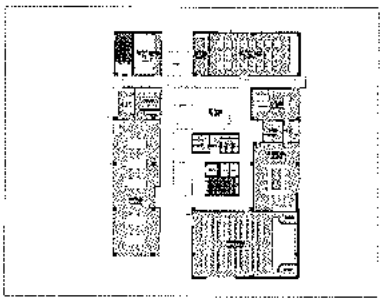
- 구 문화권과 연계된 녹지휴게공간과 외부주차공간을 확보
- 전면 녹지휴게공간과 개방된 진입공간 연결
- 내부 중정도입으로 영역성 확보와 개방감 채광, 환기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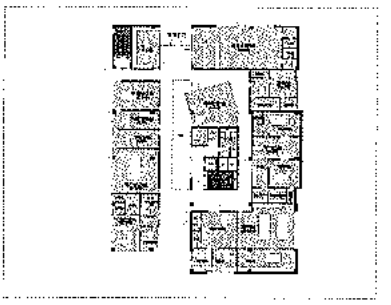
평면계획

- 집중화
  - 중정을 중심으로 목적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동선관리의 일원화
  - 시야 확장과 환기, 채광의 집중을 통한 내부환경요소 조절
- 개방화
  - 매스간의 개방공간 삽입으로 휴게공간 제공
  - 심리적 안정감과 시야의 확보
- 이원화
  - 진료보건과 행정업무의 분리
  - 단기간 다수이용영역과 장기간 소수이용영역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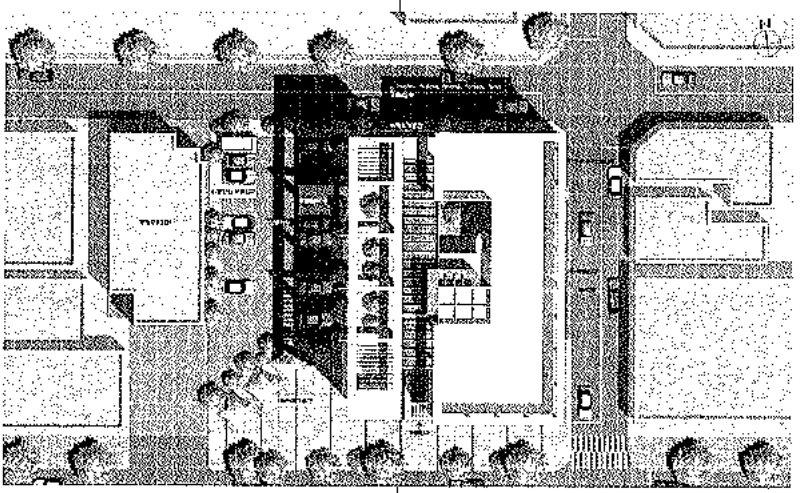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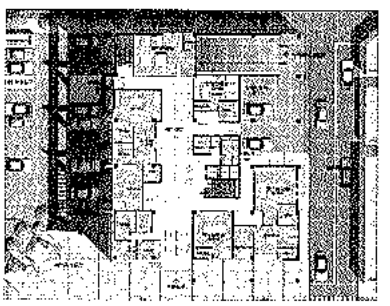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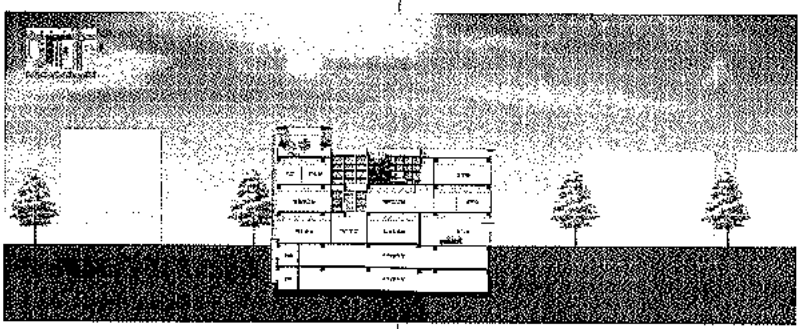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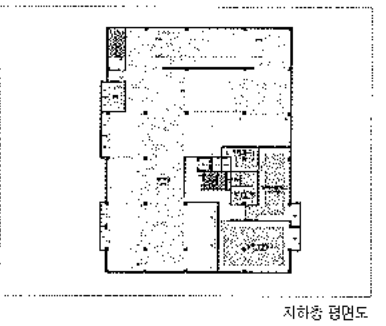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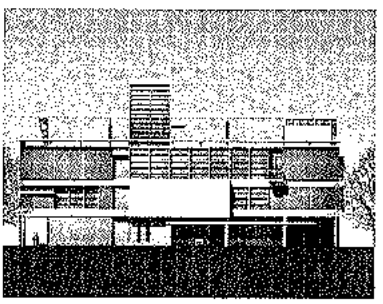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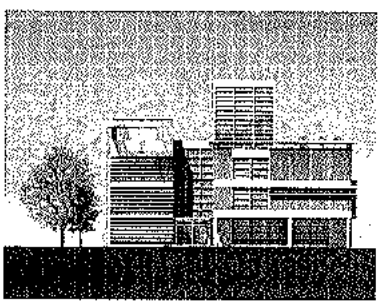
횡단면도



지하층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Architectural Record
World Architecture
Architecture Review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2001년 8월호

대단위 개발의 밑그림으로서 건축가와 랜드스케이프건축가가 협업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추세이다. 그들은 완성된 그림보다는 각 단계 단계의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조경+건축 프로젝트의 특징이 있다. 모호한 형태와 공간으로 사람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흡입하는 스티븐 홀의 워싱톤 주 박물관이 자세히 소개되었으며, 건물유형연구로는 레져 및 스포츠 시설이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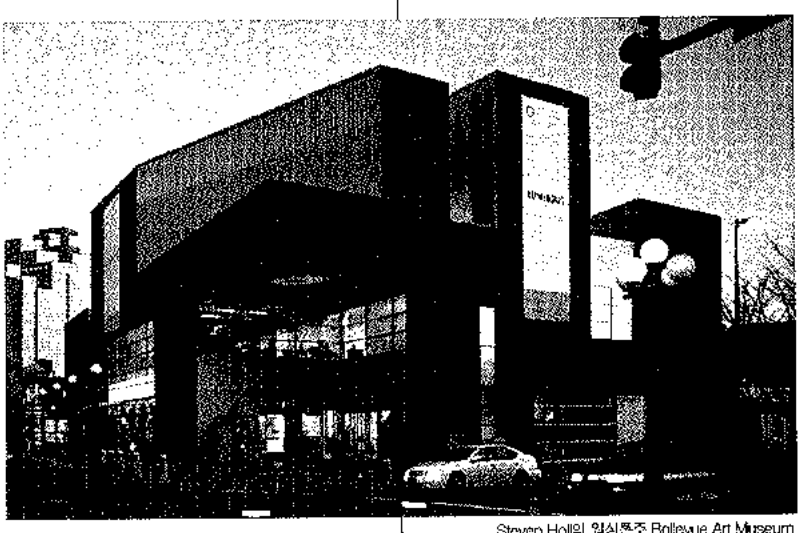
■ Landscape Urbanism

최근 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단순히 수종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도시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조각가가 되기도 한다. 건축이 그 시대를 반영하듯이 조경 디자인도 문화조류를 반영하는 매체의 하나이다. 워싱턴 아메리칸 인디어 박물관 외부공간은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 물 및 잔디에는 원시 수종이 사용되어, 인디안 원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무 및 식물들의 전시장 역할을 한다. 토론토 근처, 군 기지가 이전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설계공모가 있었다. 참가자들 모두 디자인전략이나 과정을 중요시하였으며 건축과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안을 제출하였다. OMA,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Oleson Worland, Bruce Mau,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Inside/Outside가 팀을 이뤄 제안한 안이 당선되었으며, 그들은 디자인 이라기보다는 15년 계획을 내놓았다. 각 단계마다 괄목할 만한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활용 및 공공 지원을 유도하며, 다음 단계로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대단위 조경 및 도시계획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제안이 이뤄지는 것은 James Corner와 Stan Allen의 필라델피아 달라웨어 강변 계획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대규모의 공원을 단번에 조성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지적하고 중간 단계 개발의 녹지활용을 제안하였다.

■ 근작소개

▶Steven Holl의 워싱톤주 Bellevue Art Museum

스티븐 홀은 박물관의 세가지 모토-보라, 탐구하라, 창작하라-를 삼요소로 삼고 이를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Steven Holl의 워싱톤주 Bellevue Art Museum

오른손 법칙을 개념적인 전략으로 차용하여, 한 시스템 내에서 세가지 방향의 인력이 작용하는 박물관으로 연관시켰다. 최상부에 위치한 세 개의 갤러리는 이러한 개념적인 출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41층 규모의 복합용도 시설, 슈퍼마켓, 그리고 쇼핑몰등이 인접해있는 다소 정돈되지 않은 주변상황에서 스티븐 홀은 고유의 건축적 언어로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었다. 18m 높이의 단일한 매스이지만 판독하기 어려운 형태와 깊고 풍부한 색감의 콘크리트 텍스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Bucholz McEvoy Architects의 Fingal County Hall

도시적 스케일에서 공간적인 전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들로 구성된 이 작품은 명백하게 모더니즘적인 건물이다. 정면의 건물안쪽으로 오목한 유리 곡면은 개념적으로 전면 광장과 맞은편 중세 성을 포용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녹색의 슬레이트와 자갈로 이뤄진 선형패턴은 중세성문에서 시작하여 광장을 지나 이 건물 내부로 관통하고 있다. Bucholz McEvoy Architects는 아일랜드의 다른 건축가와는 달리, 건축을 공업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유리파사드와 포이어부분은 이러한 이슈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리는 마치 커튼처럼 지붕에 걸려있는 형태로서 케이블에 의해 고정되어 손으로 건드려도 흔들리는 구조로 되어있다. 정교하게 계산된 다이내믹한 형태의 수평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목재 날개모양의 고정부재가 유리를 잡고 있다. 포이어부분은 자연환기 시스템으로 더운공기나 탁한 공기는 클리어스토리 창으로 배출되게 된다. 그밖에 ▶Leo Daly의 Washington D.C., Pope John 문화센터가 자세히 다뤄졌다.

■ 건물유형연구- 레져 및 스포츠시설

▶G nter Behnish and Manfredo Sabatke의 독일 Bad Elster, 야외온천 풀

19세기의 야외 온천장이 색색의 유리 파빌리언에 의해 새롭게 단장되었다. 야외 풀이 위치하고 있는 중정은 '페르시안 카페트'와 같은 색색의 빛들로 채워졌다. 파빌리언의 지붕을 덮고 있는 유리재는 단열성능을 가지고 있어, 기후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명유리와 유색유리로 이뤄진 더블스킨 자체가 단열 효과를 가진다.

▶Atelier d' Architecture의 Amiens Licorne Stadium ▶Davis Brody Bond의 뉴욕 East Hampton 레크레이션 센터 ▶DeStefano+Parteners의 시카고 Diversey 야외골프장

■ 기타

▶연작교육시리즈- 건식 벽, 천장재, 바닥시공의 기술적 문제들: 방화, 구조성, 차음성능등에 관하여. ▶조명특집

World Architecture

2001년 9월호

Rem Koolhaas와 Herzog de Meuron이 협업하여 작업하여 화제를 모았던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이 건축주의 요구로 Frank Gehry가 다시 디자인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유행에 민감한 호텔 건축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과 건축 특집으로 고층건물의 최근 경향도 자세히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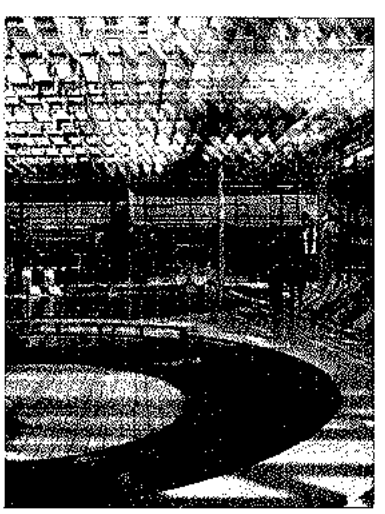
■ 호텔특집

▶Ten Arquitectos의 멕시코 시티 Habita 호텔

▶Jan St rmer Architekten의 함부르그 Side 호텔

부티크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유행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대를 정확히 잡아내는 디자인은 오히려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Jan Störmer는 강조하였다. 뉴욕의 아르데코풍의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나 타임스퀘어의 매리엇 호텔은

Bucholz McEvoy Architects의 Fingal County Hal


G nter Behnish and Manfredo Sabatke의 독일 Bad Elster, 야외온천 풀

Jan St rmer Architekten의 함부르그 Side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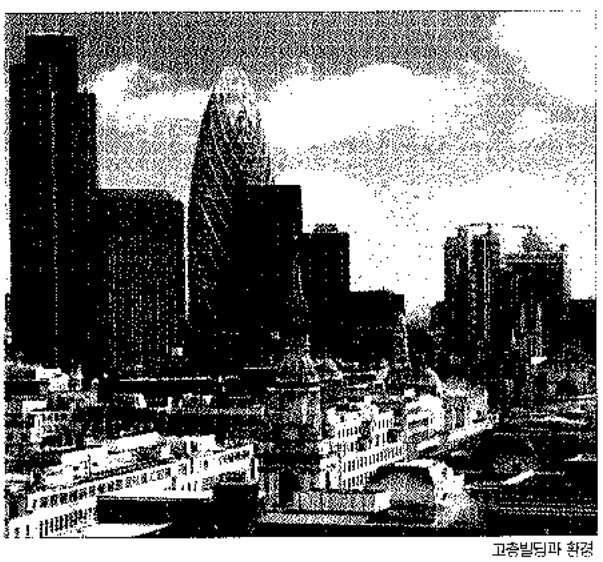
아직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임을 언급하였다. 멋있는 도시 경관을 가져지 못한 대신 건물의 내부에 연극적 장치와 장관을 만들었다. 24시간 4부로 나누어 조명쇼가 연출되는데, 각 타임마다 다른 색과 리듬 그리고 밝기로 24m 높이의 내부공간을 변화시킨다.

▶The Buchan Group의 시드니 W 호텔

Woolloomooloo 선착장의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이 호텔은 주위환경뿐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 또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밖에 ▶인도의 독특한 문화와 결합한 미니멀리스트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Conran & Partnership의 인도 Bangalore Park 호텔이 소개되었다.

■ 고층빌딩과 환경

"건축과 환경" 시리즈의 첫 번째로 고층건물의 환경적 기여에 대한 책임감에 대하여 다뤄졌다. 21세기 도시사회의 가장 큰 미덕중의 하나인 경제성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근 유럽의 고층 건물의 경향을 소개하였다. Foster and Partners의 Swiss Re Tower는 도시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조 및 냉난방에 대한 경비를 절감하는데 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사선으로 건물을 휘돌아감는 수직 정원을 건물 내부에 두어 그 공간을 통해 자연적인 환기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이 장소는 업무공간 사이사이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한다.



고층빌딩과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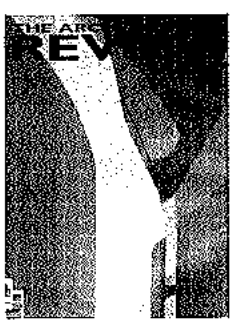
■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랭킹 100

세계 인테리어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0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중 57개가 그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다.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Gensler가 차지했다. 미국을 이어 영국이 총 19개 회사로서, 중국 개발붐을 타고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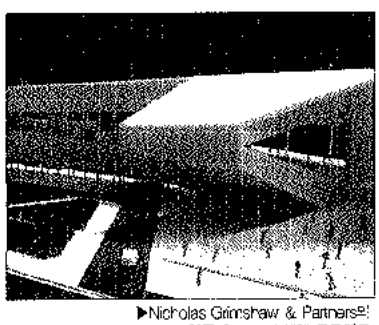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2001년 8월호

■ 작품 소개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영국 Cornwall 에덴프로젝트 육각형의 투명 부품들로 이루어진 돔 형태가 돋보이는 이 식물원 단지는 자연 형태나 공상 과학에서 영감을 얻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기능적 요인에 기반을 둔 작품이다. 특히 거대한 규모의 열대 습지 식물원의 경우 네 개의 겨품 덩어리가 엮여 있는 듯한 투명한 지붕 아래 열대 지방을 옮겨옴으로써 건축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영국 Cornwall 에덴 프로젝트

스페인 Cordóba 의회 센터

▶스페인 Cordóba 의회 센터 설계 경기 결과

의회 회의실, 전시실, 호텔, 방문객을 위한 상업 시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 깊은 도시 조직 내에 거대한 건물을 삽입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Rem Koolhaas의 당선 설계안은 36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막대기 형상으로, 긴 내부 동선을 통해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고 있다. 의회당과 회의실이 돌출되어 있는 남쪽에서 공식 진입이 이루어지며, 투명한 중층부에서 안근 공원, 강, 고도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설계 경기에 함께 참여했던 Zaha Hadid, Cruz & Ortiz, Rafael Moneo, Toyo Ito의 안이 소개되어 있다.

그 외에 최신작을 ▶Axel Schultes Architekten, Frank Schultes Witt의 독일 베를린 총리관저, ▶Gehry Partners의 독일 베를린 은행, ▶Bernard Tschumi의 프랑스 Rouen 회의장 및 콘서트홀, ▶Szyszkowitz-Kowalski의 오스트리아 Graz 학생회관, ▶Denton Corker Marshall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다.

■ 코멘트 - 건축계의 상업주의에 대하여

최근의 미술계에서는 일시적인 상업성을 획득하기 위해 충격적인 이미지만을

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8세기부터 건축계에도 도면상, 혹은 실험적 건물에서 현란한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현대 건축물은 최저 가격에 최고 면적만을 추구하는 'shed', 미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극적 이미지를 통해 주목을 끌고자 하는 'follie'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둘 모두 휴먼 스케일, 기억, 심지어 기능성마저 무시한다는 점을 공유한다. 하지만 Gehry나 Behnish의 작품들은 형태적 특성이 두드러진 건축도 충분히 인간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유리 건축

유리를 가장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신 건축물들로 ▶Richard Meier & Partners의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 법원, ▶Ten Arquitectos의 멕시코 멕시코 시티 호텔, ▶Pugh + Scarpa의 미국 산타모니카 사무실 및 댄스 스튜디오, ▶Jörg Hieber, Jörgen Marquardt의 독일 Rheinbach 유리 공업 대학 파빌리온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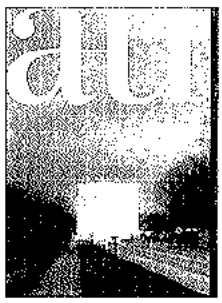
■ 기타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집트의 거대 프로젝트 Great Library of Alexandria 현황, ▶인테리어 디자인 작품으로 SH Architects의 이탈리아 밀라노 상점, ▶주택 계획으로 George Makris and Yota Kalavrytinou의 그리스 Aegina 주택, ▶재료가 부각된 건축으로 Naito Architect & Associates의 일본 시코쿠 박물관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저서 소개란에서는 감옥 건축의 역사, Serge Chermayeff에 관한 신간, 그리고 Joseph Rykwert의 The Seduction of Place 등을 다루었다. ▶논객란에서는 건축계의 영웅 만들기에 관한 에세이가 실려 있다.

(번역 / 전신영)

a+u

2001년 9월호



이번 호에서 다루어진 특집은 '미국에서의 최신 프로젝트'이다. 이는 '미국에서 건설된(혹은 예정인)' 프로젝트들을 다룬 것으로서 미국 건축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건축가들의 미국에서의 작업도 포함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의 건축가들은 스티븐 홀(Steven Holl), 피터 준터(Peter Zumthor), 존 헤이덕(John Heiduk) 등 잘 알려진 건축가들로부터 젊은 신예건축가들까지 다양하다.

■ 특집: 미국에서의 최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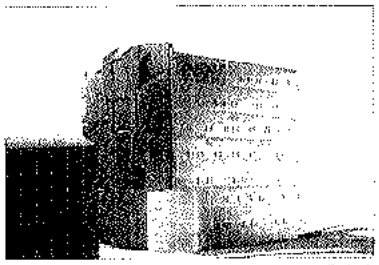
이번 특집에서는 미국에서의 최신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소개된 모든 프로젝트들이 미국인 건축가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동안 호조를 보여왔던 경제를 배경으로 하여 많은 수의 현상설계가 이루어졌으나 그 대부분은 미국인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럽의 건축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진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 건축가는 물론 렘 콜하스(Rem Koolhaas), 헤르조그 앤 드뮤롱(Herzog & de Meuron) 그리고 피터 준터 등 해외의 많은 건축가들이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은 이러한 작품들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건축의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미국에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에세이: "뉴" 프래그머티즘에서 무엇이 새로우며, 건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컬럼비아대학에서 건축사와 건축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안 오크먼(Joan Ockman)의 에세이가 이번 특집과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다. 오크먼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발전된 건축에 관한 논의가 건축의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켜 각자 독자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했으며, 이는 데리다의 철학 등 건축 외적인 논의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되어온 건축이론 등에서 잘 나타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탈구축적인 성격의 건축이론은 구축적인 성격을 지니는 건축실무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들뢰즈적'인 1990년대까지는 미국식의 글러벌 캐피털리즘과 변화가 빠른 정보기술, 그리고 냉전후의 정치가 사물들을 전례 없이 재편하였다고 평가하고 건축의 문화와 상업 분화가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섞여지는 상황에서 엘리트와 일반인 사이의 경계는 불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환경은 렘콜하스나 프랭크 게리와 같은 건축가들이 실제의 거대 프로젝트들을 맡는 기회를 갖은 것처럼 현대의 아방가르드들은 실무자의 모습으로 일순간에 그 자신을 변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으며 여기서 새로이 프래그머티즘의 이론이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 커넬대학(Cornell University) 건축학부동(棟) 설계경기: 커넬대학 건축학부동 설계경기의 최종 경쟁자로 남은 4명의 건축가(피터 준터, 모포시스Morphosis의 톰 메인Thom Mayne, 스티븐 홀, 토드 윌리엄스 Tod Williams)들의 최종 제시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스티븐 홀의 안이 당선되었으며, 2,500만 달러 예산의 이 프로젝트는 2004년 가을에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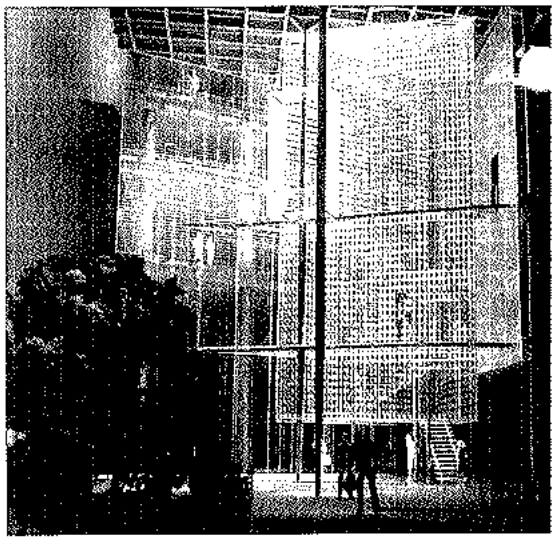
공예정이다. 당선된 스티븐 홀의 설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커넬대학의 입구에 해당하는 자리로서 새로 들어설 건물이 교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3명의 설계경기 참가자의 안(案들)이 진입로를 신축건물의 옆으로 낸 것에 반해 그의 안(案)에서는 건물의 1층 부분을 관통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학부 동은 외부에 개방된 공간을 갖게되고 모든 커넬 대학의 학생들이 이곳을 드나들게 됨에 따라 건축학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되며, 신축건물의 하단부가 교제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꾀하고 있다. 두 번째 개념은 대체로 늦은 시간까지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물 전체를 커다란 랜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랜턴처럼 밝게 빛나는 캠퍼스의 입구를 만드는 것이다. 유리로 처리된 입면들은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의 야경은 커넬대학을 상징하는 새로운 경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캠퍼스의 지대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훌륭한 경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스튜디들을 적층시켜 고층화시킨 점은 스티븐 홀의 안이 나머



스티븐 홀의 안

지 응모안들과 차별되는 특징들 중 하나이다. 비교적 높은 위치를 점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캠퍼스를 끼고 흐르는 폴 크리크 계곡이나 이보다 멀리 있는 카유가호(湖)의 경과까지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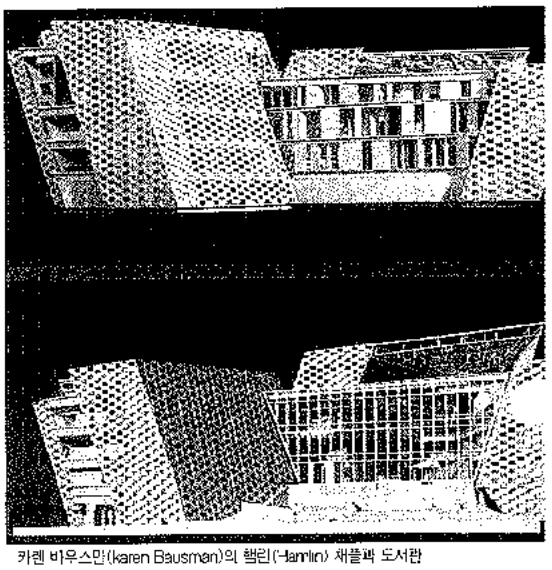
▶ 제임스 프레이져 카펜터(James Fraser Carpenter)의 뫄레이 스테어 타워(Moires Stair Tower): 뫄레이 스테어 타워는 도이치 포스트의 새로운 본사건물에 세워질 계단실이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본에 세워질 것이지만 카펜터의 다른 미국에서의 프로젝트 2개와 함께 소개되었다. 3개층 높이를 올라가는 이 계단탑은 3개층 높이의 흠 한 구석에 자리잡아 건물의 내부와 외부 양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계단탑을 둘러싼 유리면에는 실크스크린에 의한 장방형의 문양이 규칙적으로 새겨져 천장에서 유입되는 빛들을 반사시키며 무아레(Moires)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뫄레이 스테어 타워(Moires Stair Tower)

▶ 카렌 바우스만(karen Bausman)의 햄린(Hamlin) 채플과 도서관은 도서관과 채플이라는 세속과 종교의 영역에 속한 이질적인 두 시설을 한 지붕 아래에 통합하여 설계하는 이색적인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서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융합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건물의 형상은 'ㄷ' 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두 개의 매스가 만나면서 두 개의 영역을 형성하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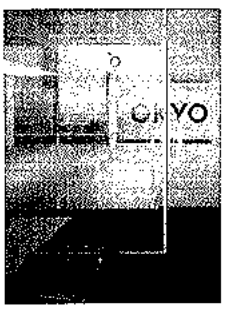
커넬대학 건축학부동 설계경기의 최종 경쟁자로 남은 4명의 건축가(다터 쥬터, 모포시스Morphosis의 톰 메인 Thom Mayne



카렌 바우스만(karen Bausman)의 햄린(Hamlin) 채플과 도서관

신건축

2001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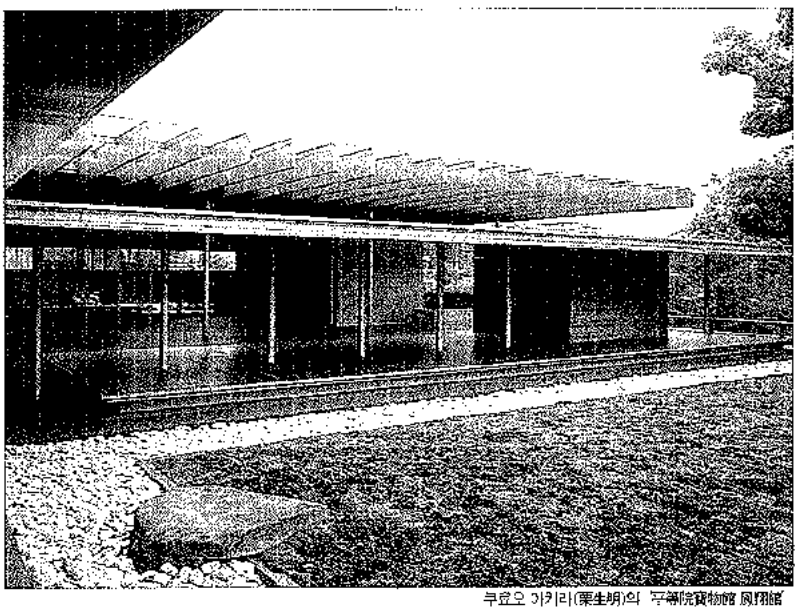


이번 호의 최신 작품 소개에서는 야마모토 리켄의 '동경 웰드 테크니컬 센터(Tokyo Weld Technical Center)', 쿠로오 아키리의 '平等院寶物館 鳳翔館' 쿠로카오 키쇼의 '토요다 스태디움', 동경대학의 '동경대학 총합연구박물관 小石川 분관', 아오키 시게루의 '야메(八女)市 다세대 교류관-공생의 森' 등이 소개되었다. 한 편 특집으로는 '소재가 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한편의 에세이와 빛을 건축의 소재로 다룬 2개의 인테리어 작품을 다루고 있다.

■ 최신 작품 소개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의 '동경 웰드 테크니컬 센터(Tokyo Weld Technical Center)'는 이번 호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건물이다. 동경 웰드는 컴퓨터에 칩을 셋업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전자산업분야의 섬세하면서도 건조한 이미지가 야마모토가 설계한 이 건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건물의 대지는 주변이 녹차 재배지와 잡목림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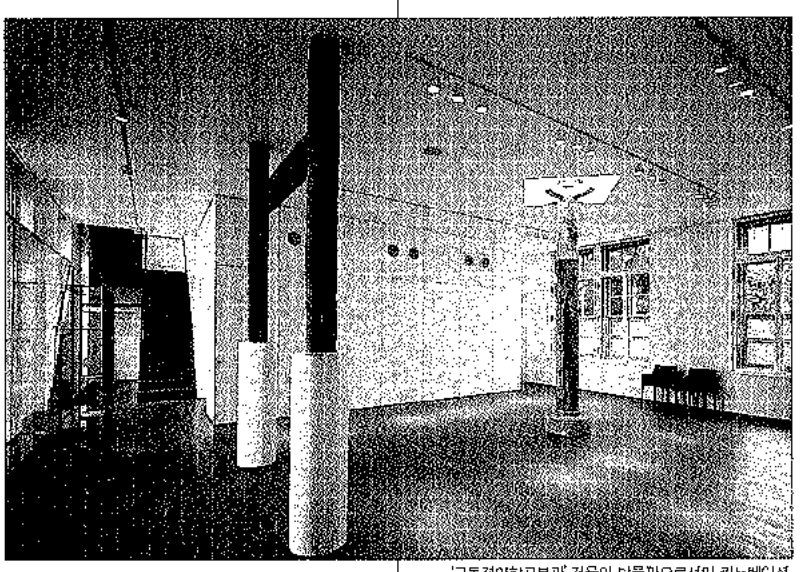
동경 웰드 테크니컬 센터(Tokyo Weld Technical Center)



쿠로오 아키라(栗生明)의 '平等院寶物館 鳳翔館'

간단한 프로그램이 요구된 이 건물에서의 주안점은 주변경관을 실내에서 십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의 모든 피복을 유리로 할 것이 결정되었고 일사량의 조절은 브라인드의 설치로 해결하게 되었다. 다른 건물에 사용된 브라인드와 다른 점은 건물 외벽 안쪽 뿐만 아니라 건물 2층 중앙부의 오픈 부분에도 마치 바닥면처럼 설치된 브라인드가 있어 3층의 천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건물에 고유한 인상을 안겨주는 부분은 투명한 외피를 통해 보이는 내부 벽에 새겨진 기업명의 타이포그래피로서 건조한 외관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쿠로오 아키라(栗生明)의 '平等院寶物館 鳳翔館'은 平等院 개창 950년을 눈앞에 두고 실시된 경내의 종합적인 환경정비의 중심적인 사업중의 하나이다. 또다른 중심사업은 平等院내 淨土정원의 발굴과 복원이었다. 새로운 보물관은 복원된 정토정원과 봉황당과 대응하여 신구(新舊)의 대조를 이루어내고 있다. 보물관이 약간의 경사를 가진 작은 언덕에 계획된 것도 복원된 정원과의 조화를 위해서 이다. 이는 平等院주위의 풍치지구 밖에 세워진 고층



'구동경이학기본관' 건물의 박물관으로서의 리노베이션

아파트가 봉황당의 배경으로 보여지는 것을 새로운 건물로 가려 막아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유리와 콘크리트, 목재의 마감재가 만들어낸 공간은 新舊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舊에 보조를 맞추어준 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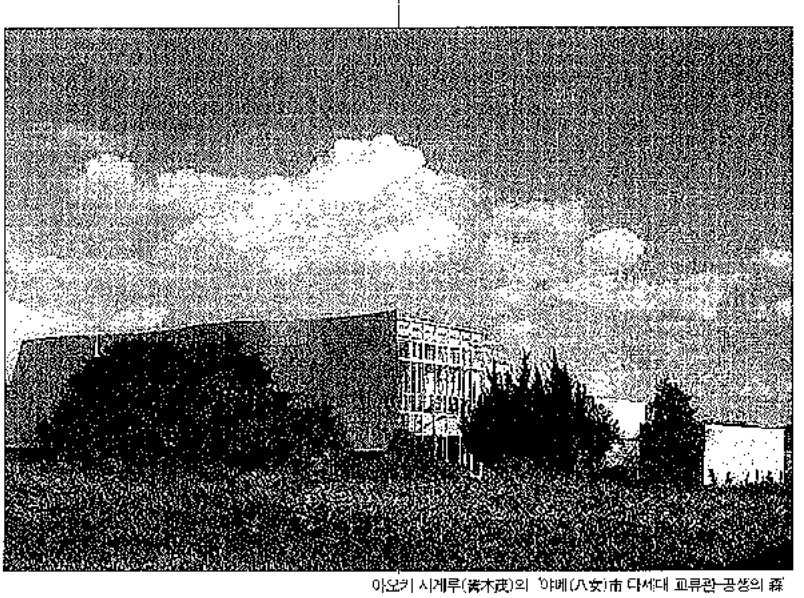
▶동경대학교 캠퍼스 기획실과 공학부 건축학과 계획실이 공동으로 참여한 '구동경의학교본관' 건물의 박물관으로서의 리노베이션은 근대 목조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을 매달기 위해 천장의 구조부에 설치한 철제 트러스는 이 건물의 목구조가 현재에도 견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의 벽면은 모두 흰색의 패널로 감싸여져 전시실로서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되어있으나 천장부분은 원래의 목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어 건물 본래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흰 벽면과 훌륭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목조기둥도 사람의 손이 닿는 높이까지만 흰색의 피복을 입혀 원래 기둥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리노베이션은 이 건물이 근대 학교건축물의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획득하고 있다.

▶위에서처럼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낙후되어 가는 기존의 건물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작업 또한 소개되었다. 아오키 시게루(青木茂)의 '야메(八女)市 다세대 교류관-공생의 森'에 처음 방문한 사람은 이 건물이 1973년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 노인복지회관의 구조물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것이다. 갈비리움 강판으로 만들어진 파동치는 벽과 유리 커튼월에서는 콘크리트 건물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건물 주위에 새로운 실내공간들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현대 건축에서 사용되는 외벽의 요소들이 부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이 갖지 못했던 거대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욱 확대된 기능을 갖고 새로운 건물의 일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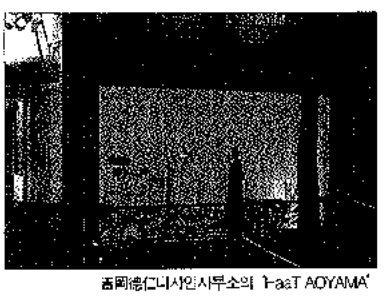
■ 특집: 素材가 된 빛

디자인 저널리스트 川上典李子는 특집의 제목과 동명(同名)의 에세이에 '물질성 materiality과 탈물질성 immateriality의 경계를 초월한 LED의 가능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발광체인 'LED'를 중심으로 이것이 지니는 건축에서의 가능성과 이를 사용한 건축물들에서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표현 기법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특집에서 함께 소개된 작품들은 점포공간을 빛으로 구축한 吉岡德仁디자인사무소의 'HaaT AOYAMA'와 일본의 전통공간에 LED를 사용한 Claudio Colucci Design의 'CHIKA'이다.

(번역 / 강상훈)



아오키 시게루(青木茂)의 '야메(八女)市 다세대 교류관-공생의 森'



吉岡德仁디자인사무소의 'HaaT AOYAMA'

제11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1

9월 3일부터 7일 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카시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2년 전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2년만의 포럼이다. 아시아 16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아카시아는 격년제로 포럼과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연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Man Architecture Nature 로 요즈음 모든 분야에서의 화두처럼 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Nature란 어휘로 인간, 건축 뒤에 붙었다.

이제껏 건축은 Nature에 대한 인공환경으로 인식되었고 어떻게 어려운 자연환경을 극복하여 건축물을 세우느냐에 많은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었지만 이제는 건축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이는 서양의 근대성의 실패에 따른 동양적 사고로의 이전과 그 궤를 같이하는 접근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포럼 중의 많은 논의는 Post-modern적 사고에 대한 재해석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졌고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역성'과 '역사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발표자들에게 주제가 주어졌음에도 건축적 접근이 주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건축가들도 있었고, 포럼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 없이 신변잡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발표자들도 있어서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필자주)

9월 5일

9월 3일과 4일에는 이사회(Council Meeting)가 있었고 5일부터 포럼이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장관과 포럼 진행자인 Goh Chong Chia의 축사 후에 Charles Correa의 주제와 관련된 연설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본격적인 포럼으로 접어들었다.

Correa의 발표내용은 한국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전통건축이 간직하고 있는 에스프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자연에 대한 존중, 빈 것의 중요성-

Lim William, Singapore

점심식사 후 싱가포르인 이며 호주 Royal Melborne 공대 교수인 Lim William의 발표가 있었다. 기억, 욕망 그리고 정신 - 포스트모던 도시의 현상 (Memories, Desire & Spirit - Phenomena of postmodern urban)이란 제목으로 현란한 슬라이드 및 음악을 곁들인 포스트 모던적 발표였다. 근대성에 담겨있던 일원적 가치관에 대한 반박과 목적성 강한, 그러나 실제로는 맹목적인 전진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며 'flaneur' (프랑스어: 목적없이 돌아다님)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결국 '느슨함'과 '느림'의 포스트모던적 사고와 유사하며 이 단어 역시 요즈음 인문 분야에서 유행하는 언어의 한 조각이다. 자칫 영어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하는(?) 포럼의 특성상 이 단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다면 전체 주제를 놓칠 뻔한 발표였다.

70가까워 보이는 나이에 포스트모던에 대한 깊은 이해의 지적 탐구력이 돋보였다.

Heinz Paetzold, Germany

이어서 독일의 철학자이며 Kassel 대학 교수인 Paetzold가 Post-functionalist urbanism and the postmodern 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근대성을 대표하는 Corbusier의 건축과 도시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이야기하며, 한편으로 근대성의 실패에 대한 자성으로 대두된 Postmodern의 형태적 변형의 '얕음'을 지적하면서 건축에 있어서의 Postmodernity는 Modernity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서론으로 강의를 열었다. 그는 Post-functionalist Urbanism이란 어휘를 사용하여 Collin Rowe의 Collage City에서 논의되는 건축가의 역할 - 도시계획가를 'Social Engineer'로 인식하는 근대성으로부터 'cultural tinker' (문화의 조합자)로 인식하는 후기근대성으로 이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도시계획이 미로를 제거하고, 명확한 이론에 근거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도시에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도시내의 복잡성과 확장성, 모호함과 경계의 불분명성, 이름붙일 수 없는 잡종적인 성격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논의의 배경엔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즈음의 후기구조주의의 철학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건축적으로는 Peter Eisenman, Aldo Rossi, Rem Coolhaas의 건축적 사고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모더니티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기 보다는 모더니티에서 놓친 문제들에 대한 제기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그 논의의 소재 중에 포럼의 주제인 Ecology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 성실함과 영민함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

Karina David, Philippine

필리핀의 사회학전공 교수이며 주택도시정책위원회 비서인 Karina David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제목은 Housing for Poor 였다.

빈민을 위한 주택은 UIA의 4대 정책중의 하나로 건축가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인도, 필리핀 등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현상설계등을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David는 건축가의 역할이 이제껏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만 치우쳤다고 주장하고 빈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Kazuhiro Ishii, Japan

일본 건축가이며 와세다 대학 초빙교수인 Kazuhiro Ishii는 Geocosmoloy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설계한 건축을 중심으로 환경을 고려한 건물 설계의 중요성과 이를 고려한 자신의 건축관을 발표했다. 목구조를 이용하여 CO2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물과 고층건물에 조경을 도입하여 건축과 일체화시킨 건물을 소개했다.

Ken Yeang, Malaysia

환경건축설계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입지를 굳히고, 이로 인해 유명 건축가들과의 협력작업을 통해 국내에도 알려진 말레이시아 건축가 Ken Yeang의 'Skyscraper& Groundscrapers'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건물 설계시 고려해야할 환경적 요소를 분석, 나열하고 이를 적용한 설계의 예들을 발표했다. Ken Yeang의 발표를 두세번 들은 입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의 반복이라는 느낌과, 설계의 수많은 중요한 인자들 중 환경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적용 결과의 효과에 대해 아직 확실한 증빙이 없지만 제시하는 자료 및 설계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은 늘 명쾌하고 건축적이란 인상을 받는다.

Leon Van Schaik,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건축가이며 멜버른 기술대학 건축과 교수인 Leon Van Schaik은 '건축에 있어서의 Second Order Modernism'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많은 인용문과 건축가를 예로 들면서 발표한 내용은 현대건축의 일반성과 세계성의 실패에 대한 지적과 역사와 전통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설계한 건물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다. 화려한 잠식적 어귀에 비해 특별한 내용이 없는 발표였다.

9월 6일

9월 6일의 포럼은 각 나라의 젊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위주로 건축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시도들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첫날의 발표에 비해 포럼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낮고, 개인의 건축적 성향에 대한 주장이 많아 작품에 대한 슬라이드나 사진 없이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발표자에 대한 신상 및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글을 줄인다.

William Alsop , UK

주제 - Previliged Geography

영국 건축가로서 건축이론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창조력과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을 전개해가는 건축가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작업한 로테르담 프로젝트를 비롯한 몇 개의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 했다.

Tang Guan Bee, Singapore

주제 - Relevant

이번 포럼의 개최국인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싱가포르 건축상을 12회 수상한, 싱가포르에선 지명도 높은 건축가이다. 자신의 작품 중 자신의 사무실 설계를 중심으로 Eco-Design과 관련된 몇 개의 작품을 소개했다.

Yong Ho Chang, China

주제 - Urbanizing Bamboo

미국의 버클리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북경대학 건축과 교수이며 건축가로 활동 중인 Chang은 도시내에서 대나무를 조경 및 건축의 요소로 적극 이용하는 자신의 설계를 선보였다.

Minn Sohn Joo, Korea

주제 - Learning from Here and Now

한국의 여성 건축가인 민선주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적 이상과 실제상황과의 괴리와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관중의 가벼운 관심을 유발시키기는 했지만 관중이 건축관련자임을 감안 할 때 주제 및 내용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Kanika Ratanapridakul, Thailand

주제 - Learning to be Useful

미국에서의 오랜 유학생활과 건축활동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와 작업을 하고 있는 건축가로, 자신의 정체성 및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주택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설명했다

Sara Topelson de Grinberg, Mexico

주제 - Contemporary Mexican Architecture

1996년부터 1999년 까지 세계건축사협회인 UIA회장을 지냈던 Sara Topelson은 멕시코 건축가이며 활동적인 교수로도 유명하다. 현재 멕시코 국립예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 Sara는 멕시코 건축역사 전반에 걸친 소개를 했다.

마야 문명에서부터 스페인 식민시대의 전통이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소화되고 변형, 발전되었는지 설명 했는데 현대건축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론적, 혹은 미적 관점을 넘어서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돋보였다.

Hani Rashid, USA

주제 -Architecture in the Age of

Convergences

인도계로 보이는 미국 건축가 Hani Rashid는 1989년 설립된 Asymtote의 공동창립자이며, 현재 콜럼비아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지명도 있는 건축가이다.

컴퓨터를 통한 건축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며, 뉴욕증권거래소의 사이버거래 디지털 디자인으로 A+U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디지털 디자인의 권위자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의 발표도 구겐하임 시각 박물관내의 디지털 디자인 등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설계를 소개했다. 다른 분야와 같이 건축에서도 컴퓨터가 차지하는 영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발표였다.

Shuhei Endo, Japan

주제 -Para Modern Architecture

일본의 소장 건축가인 Endo는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획일성, 단순함, 지루함등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Para -Modern'이란 용어를 통한 경계의 모호함을 이야기하며 이에 따른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외국잡지에 소개되었던 낯설지 않은 작품으로 골철판을 이용한 소규모 건물로써 연결된 곡선형으로 내부가 외부로 변하고, 외부가 내부화하며 지붕이 바닥이 되고 벽과 바닥이 지붕이 되는 경계의 모호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소개했지만, 그 작품들이 현대건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되기에는 너무 작선적이며 그 질량이 작고 왜소했다.

Rahul Mehrotra, India

주제 -Architecture and Cultural Significance

모두가 인지하듯 인도는 엄청난 전통건축을 갖고 있다. 인도의 건축가를 대할 때마다 그 전통의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Rahul 역시 인도건축의 보존과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이에 따른 자신의 건축을 소개했지만 다른 나라의 이즈음의 건축과 별 다름없는 재료와 형태일 뿐이며, 한국 건축상황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꼈다.

총 평

20명 가까운 각 나라의 건축가 혹은 건축을 이해하는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나와 수많은 이론과 작품들을 전개하는 한 가운데서 현학적인 어휘들에 지루해하기도 하며, 계속되는 언어의 범람에 졸기도 했지만 그 논의들 뒤에는 도도히 흐르는 'Post-Modern' 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한국 건축계에는 'Post-Modern'을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이거나,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폐쇄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상하게도 다른 분야보다 빨리 건축에서 논의되었던 Venturi 류의 'Post-Modern'은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타 인문, 예술분야에서 논의되는 'Post-Modern'의 깊이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형태적인 'Post-Modern'이었으며 이에 대한 설부른 소개와 도입이 Modernism을 국내에 도입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답습하게 하고 있다.

포럼에서 진행되었던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건축에 있어서의 국제적 관심사와 국내의 건축적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단선적인 페거리건축과, 특별한 재료와 형태를 선호하는 폐쇄적 행태의 잡지건축이 더 이상 한국건축계를 이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보다 풍부한 건축 이론적 접근과 다양한 건축적 시도 그리고 이런 다양한 담론과 시도를 담아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인도와 같이 전통을 팔려는 안쓰러운 노력보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그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해하려는 다원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건축을 미적 구현물로 이해하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건축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도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Identity를 원한다면 -건축가가 작가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Identity보다는 개인적인 Identity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간단한 현실이었다.

아름다운 건물과 깨끗한 가로환경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그러나 그 곳에서도 건축보다는 이름 모를 나무와 바다가 아름다웠다. (글 / 이필훈)

아시아건축사대회 건축위원회

- 장 소 : 싱가포르 SUNTEC CITY 회의장
- 일 시 : 2001. 09. 03 ~ 2001. 09. 04
- 참가국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 위원장 : Yolanda D Reyes, 필리핀

머리말

ARCASIA 교육위원회 (ACAE) 회의가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SUNTEC CITY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Workshop은 생략되었으며 주로 아시아 각국의 건축교육실태보고와 ACAE에서 추진중인 건축대학협의회 창립 및 ARCASIA 건축대학 설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토마건축의 민규암 소장과 필자가 참석하였다. 이틀간에 토의되었던 회의 주제 및 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주제

1. 건축교육 Conference 개최
a) 아시아 건축교육 Conference - 동경, 2001. 04
b) 21세기를 위한 건축교육의 재구성 - 홍콩, 2001. 07
c) 아시아 건축교육 ACAE Conference - 싱가포르, 2001. 09

2. 아시아 각국의 건축대학 현황 및 시대별 대표건축물 Chart 제작
a) 각국의 건축대학 및 건축관련학과 Data 작성
b) 각국의 시대별 대표건축물을 정리하여 Chart로 작성 (Architectural Timeline Chart)

3. ACAE Country Report
a) 각국의 Country Report 보고
b) 태국에서 제안한 Architecture School 설립에 관한 건
c) Codhasia(Conference of Deans and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in Asia) 협의회 설립건

회의내용

1. 2000년 9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풀에서 열렸던 ACA9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2. 일본과 홍콩대표들은 2001년 4월 및 7월에 개최되었던 건축교육 Conference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홍콩회의에는 동국대 김홍일 교수와 필자가 참석하였다. 이어서 싱가포르의 대표가 9월 7일에 싱가포르 대학에서 열릴 Conference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토마건축의 민규암 소장이 참석하였다.

3. 아시아 각국의 건축대학 협의회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건축대학 및 건축관련학과 Data를 제출하였다. 한국측은 건축관련학과 216개중 4년제 이상의 건축과가 있는 60개 대학들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각국의 대학 명단은 UIA 제 4지구 학교현황조사에도 사용될 것이다.

4. 아시아 주요건축물들을 시대별, 국가별로 정리하여 서적으로 출간하기 위한 Architectural Timeline Chart도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출하지 않으므로서 2001년 11월로 제출일자가 연장되었다. 우리의 시대별 대표건축물들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이며 각국의 Chart를 편집하여 출판하면 학생들의 건축사 교육에 사용될 것이고, 건축기행안내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5.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의 교육관련 Country Report를 제출하고 주요 issue들을 발표하였다. 한국측은 현재 수십개의 대학들이 교과과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변경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한국은 건축관련학과 216개가 170여개의 대학내에 있으나 싱가포르에 건축대학 1개, 홍콩 2개, 일본 160여개, 인도네시아 120개, 인도 150여개, 중국 120여개, 파키스탄 6개, 필리핀 43개, 태국 17개 등이 있어 인구비례로 볼 때 학국내에 건축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학들이 5년제의 Bachelor of Architecture 또는 6년제의 Master of Architecture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120개 학교중 64개 건축대학이 자국의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파키스탄은 6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복잡한 교육제도 및 건축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건축관련 대학중에는 고등학교과정부터 시작하는 5년제 Junior College가 10여개 있으며, 건축사제도도 Architecture + Engineering 건축사이며 더욱이 1급 및 2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총 건축사수는 무려 700,000명이며 이중 1급 건축사는 270,000명이고 이중 순수 건축설계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70,000여명이다.

일본은 자국의 현 대학제도를 유지하면서 학사과정을 보완하여 UIA 권장기준에 맞추어 나갈것으로 보인다. 현재 4년제 학부생 중 70% 정도가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한다.

건축사 시험은 각국이 대체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인터뷰 테스트가 포함되며 인터뷰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필기시험 응

시자격을 상실한다.

6. 태국이 제안한 "Architecture School" 태국내 유치건은 2000년 쿠아라룸풀 ACA9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이다. 작년 회의때보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이었으나, ARCASIA 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졸업생들에 대한 학위인정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00년 회의에서 태국과 동시에 Architecture School을 제안했던 인도측 대표는 작년 회의에서 ARCASIA Education Program으로 규모를 축소시키는 안이 제시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ARCASIA Program중 하나로서 다음 회기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7. 아시아 건축대학장 협의회 (CODHASIA : Conference of Deans and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in Asia)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관련대학들의 다양한 학사과정 및 학교제도등을 고려하여 ARCASIA 교육위원회협의회(ACAE Conference)로 명칭을 바꾸었다. 2명의 ACAE 부위원장 중 Academy 담당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8. 끝으로 UIA 제4지구 Councillor인 호주의 Louis Cox씨는 2002년 베를린 UIA 총회에 제4지구 의결안으로 건축대학 5년제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건축대학 5년제는 3년 + 2년 또는 5년 이상의 Professional Degree 교과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에 인증원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건축대학인증은 자국의 인증원으로부터의 인증이 우선이며 일단 자국 인증원에서의 승인이 없으면 UIA에서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안은 베를린 총회 상정때까지는 비공식 (Unofficial)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들은 UIA 권장기준에 대비한 건축대학제도 개선, 인증원 설립, 자체 건축대학 인증실시, 건축사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글 / 이인호)

1st ACAE Conference on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Asian Century

아카데미 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건축 교육에 관한 회의가 2001년 9월 7일 싱가폴의 국립 싱가폴 대학(NUS)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아침 9시에 시작되어서 저녁 6시경까지 잠깐의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0여명의 발표자들이 20분 간격으로 자신들의 논문을 간략히 소개하는 형식을 갖고서 진행되었으며 크게 오전에 2개 그리고 오후에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사회는 싱가폴 대학의 Miton Tan 교수가 맡았으며, 20명의 발표에 앞서서 저명한 인도의 건축가인 Charles Correa와 NUS의 Liu Thai Ker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두 발표자와 각 논문 발표자들의 발표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Keynote Speakers

1. Dr. Charles Correa

키노트 스피커로 나선 두사람중 첫 번째 발표자 였던 Charles Correa는 건축교육에서 스튜디오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이야기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상 MIT의 스튜디오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튜디오 학생들이 스스로의 설계기준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하며 직접 교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2. Dr. Liu Thai Ker

싱가폴 대학의 Liu Thai Ker 박사는 주로 싱가폴 국립대학이 그동안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주로 3+2(학사) 제도에서 4(학사)+1(석사) 제도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

Selected Papers

발표자: KVAN, THOMAS , Hong Kong

논문: The Problem in Studio Teaching-Revisiting the Pedagogy of Studio Teaching

건축과에서 전통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스튜디오 교육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 하면서 더욱더 PBL model (problem based learning)에 치중하는 스튜디오를 설명. 이를 위한 5단계를 같이 설명.

발표자: DATTA, SAMBIT AND ROBERT F WOODBURY, Australia

논문: On Making : a Reflective Lens for the Design Studio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컴퓨터의 활용과 이를 통한 스튜디오 교육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CAD의 특성을 closed world, problem solving, grobal control, sequential 로 보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 과정을 open world, problem formative, no grobal control로 보면서 서로 이 두가지 성격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

발표자: SANTOSA, M. Indonesia

논문: Eco Architecture as One of Design Research in Indonesia

도시내 녹화를 통해서 홍수와 하수 비용제거, 상수원 보호 등에 관한 설명

발표자: YANG, PERRY, Singapore

논문: Digital Geographic Design

싱가폴 대학의 교수인 YANG은 미국 MIT 출신으로 단순한 CAD가 아니라 GIS가 건축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 인지를 설명.

발표자: SHIN SHEN-GUAN, Taiwan

논문 : Web-augmented Knowledge management for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웹을 통해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구. 개인으로서 정보를 얻거나 팀 작업을 통해서 각 팀원간에 정보를 어떻게 공유 할 것 인지 등등

발표자: D' SOUSA, NEWTON, Singapore

논문: A New Agenda for Asian Design Studios

싱가폴 대학의 학생인 NEWTON은 서양의 스튜디오와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에 따르면 서양식 교육은 너무나 보편적인 문제해결 모델만을 제시해 왔고 앞으로 동아시아 교육은 이를 벗어나 좀더 지엽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발표자: HATMOKO, ADI UTOMO, Indonesia

논문: Complementing Tradition and Innovation in Architectural Education

건축교육에서 전통모방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모양과 형태를 모방하거나 또는 건축이 조합되는 구조 수법을 모방하거나 또는 그 철학적 내용을 모방하게 된다. 이 모방의 과정 속에서 스튜디오 교육은 각 학생들이 무엇을 '의식적' 으로 모방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발표자: SINGH, JITENDRA, India

논문: Architectural Education for Asian century -Indian Experience

인도의 교육제도와 소요기간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

발표자: HORAYANGKURA, VIMOLSIDDHI, Thailand

논문: Towards Creating a More Responsive Environment:

Impetuses and Constraints in Architecture Education

서양적 교육에 이미 물든 동아시아 교육제도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동아시아 만의 독특한 스튜디오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논의.

발표자: SCHNABEL, MARC AUREL, and THOMAS KVAN, Hong Kong

논문: Implementing the First Virtual Environment Design Studio

3차원 버츄얼 디자인 스튜디오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인 MARC는 홍콩과 독일에서 각기 진행시킨 버츄얼 스튜디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발표자: LIM, JOSEPH, Singapore

논문: Design Learning in a Twelve Day Building Expedition

직접 목구조의 건물을 학생들과 함께 12일간 시공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교육에 직접적인 시공과정을 도입하는 스튜디오 교육을 설명.

발표자: HO CHI WING, Hong Kong

논문: Educating the Urban Designers: as Architects or as Planners?

Urban Designer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주로 Urban Designer를 large-scale architect로 보고 교육 시킬 것 인가 아니면 Urban Planner의 입장에서 교육 할 것 인가를 설명.

발표자: MO, JULIE K.W. ,Hong Kong

논문: Facing the Changing Mode of Architectural Professionalism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홍콩 교육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로 홍콩대학이 추구하는 평생 교육 시스템을 설명.

발 표 자 : WONG, JOSEPH FRANCIS, Hong Kong

논문: Holistic Architectural Education:

A Problem based Curriculum for Architectural Studies

PBL을 도입하는 스튜디오 교육을 주장. 스튜디오 교육에 직접 실제상황과 같은 건축주가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재상황 속에 학생들이 놓이게 하는 스튜디오 교육과정 설명.

(글 / 민규암)